연구보고서 2016-2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정해식 · 김미곤 · 여유진 · 김문길 · 우선희 · 김성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2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정 해 식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84-1 93330

발간사

OECD가 발표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5년까지 삶의 질 지표 중에서도 주관적 만족도는 해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정신적 삶에서 불안, 우울과 갈등이 차지하는 자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도처에서 들려온다. 그것이 물질적 결핍에 근거한 것이든, 기대·열망과의 차이에 따른 것이든 우리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사회 인식,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된 인식 구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 누가, 어떠한 이유로, 어느 정도 불안해 하며, 불신하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 이슈를 연구하면서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인식 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및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주도해 왔다. 또한 2016년에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두 해에는 조사 시점마다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 6~7월 중에 큰 무리 없이 전국 성인 남녀 3,669명을 조사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조사 자료는 앞선 두 해의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적시하고,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요소를 통합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사회통합 상태가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 있어서,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사회통합의 인식적 조건 차원으로 갈등 인식, 물질적 조건 차원으로 박탈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인식이 우리 국민의 행복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왜 사회통합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이 연구가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 설정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해식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미곤 부원장, 여유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성아 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진심 어린 지적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구혜란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윤건 부연구위원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조사 설계부터 많은 고민을 함께한, 본 연구원의 이태진 박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 20

제2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 29
제1절 연구 배경 ····· 31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 32
제3절 분석 결과 ····· 40
제4절 소결 ····· 60

제3장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 63
제1절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 65
제2절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 71
제3절 소결 ····· 93

제4장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 97
제1절 서론 ····· 99
제2절 선행 연구 ····· 102
제3절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 103
제4절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16
제5절 소결과 정책 함의 ····· 123

제5장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 1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 130

제3절 분석 결과 ····· 135

제4절 소결 ····· 151

제6장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 15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5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 158

제3절 분석 결과 ····· 164

제4절 소결 ····· 173

제7장 결론 및 연구 함의 ····· 175

제1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상태와 조건 ····· 17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 179

참고문헌 ····· 185

부 록 ····· 191

1.「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표본 설계 ····· 191

2.「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설문지 ····· 208

3.「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기초 분석 ····· 223

표 목차

〈표 1-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개요 ····· 22
〈표 1-2〉 응답자 분포 ····· 24
〈표 1-3〉 지속 설문 문항 ····· 25
〈표 1-4〉 2014년 주제모듈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조사 문항 ····· 26
〈표 1-5〉 2015년 주제모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주요 조사 문항 ····· 26
〈표 1-6〉 2016년 주제모듈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조사 문항 ····· 27
〈표 1-7〉 2016년 국제 비교 가능 조사 문항 ····· 28
〈표 2-1〉 조사 문항 Ⅰ: 사회통합 요건의 중요도 ····· 38
〈표 2-2〉 조사 문항 Ⅱ: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 39
〈표 2-3〉 응답자 특성별 사회통합 평가 ····· 41
〈표 2-4〉 사회통합 평가와 사회 인식 간의 관계 ····· 42
〈표 2-5〉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 43
〈표 2-6〉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 45
〈표 2-7〉 교육 수준, 이념 성향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 47
〈표 2-8〉 응답자 특성별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 49
〈표 2-9〉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사회 인식의 회귀분석 ····· 51
〈표 2-10〉 사회적 포용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 52
〈표 2-11〉 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 53
〈표 2-12〉 사회적 이동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 53
〈표 2-13〉 영역별 중요도 평가 점수 ····· 54
〈표 2-14〉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사회통합 요소 중요도의 회귀분석 ····· 54
〈표 2-15〉 구조 모형 분석 결과 ····· 55
〈표 2-16〉 문항별 응답 평균과의 차이 ····· 57
〈표 2-17〉 각 집단의 사회통합 평가와 사회경제적 특징 ····· 60
〈표 3-1〉 사회통합 상태 지표의 예: Chan, To and Chan(2006)의 사회통합의 측정 방법 ····· 66
〈표 3-2〉 사회통합 조건 지표의 예: Berger-Schmitt(2000)의 두 가지 사회통합 전략 목표 ····· 66
〈표 3-3〉 강신욱 등(2012)의 사회통합 지표 ····· 67
〈표 3-4〉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 체계 ····· 68
〈표 3-5〉 사회통합 비교 지표 및 이용 자료 ····· 70

〈표 3-6〉 사회활동(친목모임, 취미동호회, 각종 클럽활동 등) 참여 정도의 인식 ····· 85
〈표 3-7〉 친교 활동 정도 ····· 87
〈표 3-8〉 자원봉사 참여 정도 ····· 89
〈표 4-1〉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 104
〈표 4-2〉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 107
〈표 4-3〉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소득 분위별, 주관적 소득 계층별 ····· 108
〈표 4-4〉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정규-비정규별, 이념 성향별, 주택 소유 여부별 ····· 109
〈표 4-5〉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지역별, 권역별 ····· 110
〈표 4-6〉 10년 후 한국 사회 갈등 정도 ····· 111
〈표 4-7〉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 1순위, 2순위 ····· 113
〈표 4-8〉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 ····· 115
〈표 4-9〉 사회갈등 인식의 주요 변수 설명 ····· 117
〈표 4-10〉 사회갈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 118
〈표 4-11〉 사회통합 인식의 주요 변수 설명 ····· 119
〈표 4-12〉 사회통합 결정 요인 분석 결과(1) ····· 121
〈표 4-13〉 사회통합 결정 요인 분석 결과(2) ····· 122
〈표 5-1〉 영역별 박탈 항목 ····· 133
〈표 5-2〉 사회통합 인식(종속변수)의 개념과 척도 ····· 135
〈표 5-3〉 인구학적 특성 ····· 136
〈표 5-4〉 연령별·박탈 항목별 박탈의 비율 ····· 137
〈표 5-5〉 연령별 박탈의 빈도 ····· 139
〈표 5-6〉 연령별 사회통합인식 점수 ····· 142
〈표 5-7〉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상관관계 ····· 143
〈표 5-8〉 총박탈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44
〈표 5-9〉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45
〈표 5-10〉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47
〈표 5-11〉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48
〈표 5-12〉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49
〈표 5-13〉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50
〈표 5-14〉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 151
〈표 6-1〉 행복의 개념 구성 ····· 159

〈표 6-2〉 행복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 162
〈표 6-3〉 행복 결정 요인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 163
〈표 6-4〉 사회통합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 163
〈표 6-5〉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분포 ····· 165
〈표 6-6〉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 구분 ····· 165
〈표 6-7〉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특성 ····· 166
〈표 6-8〉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 169
〈표 6-9〉 우울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 170
〈표 6-10〉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 171
〈표 6-11〉 유데모닉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 172

부표 목차

〈부표 1-1〉 2015년 전국 집계구 분포 ····· 191
〈부표 1-2〉 2015년 전국 신규 아파트 단지 분포 ····· 192
〈부표 1-3〉 층별 표본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규모 ····· 193
〈부표 1-4〉 층별 표본 가구 규모(n=4000) ····· 194
〈부표 1-5〉 가구 무응답 가중치 기초 통계 ····· 198
〈부표 1-6〉 가구 무응답 가중치의 권역별 기초 통계 ····· 198
〈부표 1-7〉 가구 이상 가중치 조정 결과 ····· 199
〈부표 1-8〉 가구 이상 가중치 조정 후 권역별 기초 통계 ····· 199
〈부표 1-9〉 권역별 기구원 수 분포 ····· 200
〈부표 1-10〉 래킹비 조정 인자 ····· 201
〈부표 1-11〉 권역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 201
〈부표 1-12〉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가중치 ····· 202
〈부표 1-13〉 가구원 가중치의 성인 승수 조정 가중치 ····· 203
〈부표 1-14〉 가구원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 204
〈부표 1-15〉 권역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 205
〈부표 1-16〉 시도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 205
〈부표 3-1〉 어제 행복 ····· 223
〈부표 3-2〉 어제 우울 ····· 224

〈부표 3-3〉 삶의 만족도 ····· 225
〈부표 3-4〉 가치 있는 삶 ····· 226
〈부표 3-5〉 선택의 자유 ····· 227
〈부표 3-6〉 사회 신뢰 ····· 228
〈부표 3-7〉 삶의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 229
〈부표 3-8〉 삶의 영역 만족도: 건강 ····· 230
〈부표 3-9〉 삶의 영역 만족도: 삶에서 성취한 것 ····· 231
〈부표 3-10〉 삶의 영역 만족도: 개인적인 관계 ····· 232
〈부표 3-11〉 삶의 영역 만족도: 안전 ····· 233
〈부표 3-12〉 삶의 영역 만족도: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 234
〈부표 3-13〉 삶의 영역 만족도: 미래 안정성 ····· 235
〈부표 3-14〉 삶의 영역 만족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236
〈부표 3-15〉 삶의 영역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 ····· 237
〈부표 3-16〉 삶의 영역 만족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 238
〈부표 3-17〉 삶의 영역 만족도: 직업 ····· 239
〈부표 3-18〉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 240
〈부표 3-19〉 어두울 때 안전하다는 느낌 ····· 241
〈부표 3-20〉 거주 지역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살기 좋은 정도 ····· 242
〈부표 3-21〉 주관적 건강 ····· 243
〈부표 3-22〉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곤란 경험 ····· 244
〈부표 3-23〉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 ····· 245
〈부표 3-24〉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 ····· 246
〈부표 3-25〉 박탈: 가끔 기호식품 ····· 247
〈부표 3-26〉 박탈: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 ····· 248
〈부표 3-27〉 박탈: 계절 정장 ····· 249
〈부표 3-28〉 박탈: 난방 ····· 250
〈부표 3-29〉 박탈: 방 ····· 251
〈부표 3-30〉 박탈: 대중교통 접근성 ····· 252
〈부표 3-31〉 박탈: 지상 거주 ····· 253
〈부표 3-32〉 박탈: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 254
〈부표 3-33〉 박탈: 정기 진료 ····· 255

〈부표 3-34〉 박탈: 치과 이용 ····· 256
〈부표 3-35〉 박탈: 의약품 구입 ····· 257
〈부표 3-36〉 박탈: 여행 ····· 258
〈부표 3-37〉 박탈: 특별한 날 기념 ····· 259
〈부표 3-38〉 박탈: 여가활동 ····· 260
〈부표 3-39〉 박탈: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 261
〈부표 3-40〉 박탈: 저축 ····· 262
〈부표 3-41〉 박탈: 노후 대비 ····· 263
〈부표 3-42〉 박탈: 사적 보험 ····· 264
〈부표 3-43〉 박탈: 자녀 고등교육 ····· 265
〈부표 3-44〉 박탈: 자녀 사교육 ····· 266
〈부표 3-45〉 박탈: 자녀 기본 참고서나 도서 ····· 267
〈부표 3-46〉 박탈: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 268
〈부표 3-47〉 박탈: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름 ····· 269
〈부표 3-48〉 박탈: 기한 내 공과금 미납부 ····· 270
〈부표 3-49〉 박탈: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 ····· 271
〈부표 3-50〉 박탈: 난방 ····· 272
〈부표 3-51〉 박탈: 병원 방문 ····· 273
〈부표 3-52〉 박탈: 집세를 이유로 이사 ····· 274
〈부표 3-53〉 박탈: 자녀 공교육비 ····· 275
〈부표 3-54〉 박탈: 대인 신뢰 ····· 276
〈부표 3-55〉 박탈: 타인이 나를 이용 ····· 277
〈부표 3-56〉 이기적 타인 ····· 278
〈부표 3-57〉 부패 인식: 정치 영역 ····· 279
〈부표 3-58〉 부패 인식: 경제 영역 ····· 280
〈부표 3-59〉 갈등 인식: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 281
〈부표 3-60〉 갈등 인식: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 282
〈부표 3-61〉 갈등 인식: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 283
〈부표 3-62〉 갈등 인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 284
〈부표 3-63〉 갈등 인식: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 285
〈부표 3-64〉 갈등 인식: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 286

〈부표 3-65〉 갈등 인식: 지역 간의 갈등 ····· 287
〈부표 3-66〉 갈등 인식: 다문화 갈등 ····· 288
〈부표 3-67〉 갈등 인식: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 289
〈부표 3-68〉 사회통합 저해 갈등 1순위 ····· 290
〈부표 3-69〉 사회통합 저해 갈등 2순위 ····· 291
〈부표 3-70〉 10년 후 갈등 인식 Ⅰ: 가난한 사람 vs. 부유한 사람 ····· 292
〈부표 3-71〉 10년 후 갈등 인식 Ⅱ: 경영자 vs. 노동자 ····· 293
〈부표 3-72〉 10년 후 갈등 인식 Ⅲ: 주택 소유자 vs. 주택 비소유자 ····· 294
〈부표 3-73〉 10년 후 갈등 인식 Ⅳ: 정규직 vs. 비정규직 ····· 295
〈부표 3-74〉 10년 후 갈등 인식 Ⅴ: 고령자 vs. 젊은이 ····· 296
〈부표 3-75〉 10년 후 갈등 인식 Ⅵ: 진보 vs. 보수 ····· 297
〈부표 3-76〉 10년 후 갈등 인식 Ⅶ: 지역(수도권 vs 지방, 영남 vs. 호남) ····· 298
〈부표 3-77〉 10년 후 갈등 인식 Ⅷ: 다문화(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 299
〈부표 3-78〉 10년 후 갈등 인식 Ⅸ: 개발주의자 vs. 환경보호주의자 ····· 300
〈부표 3-79〉 사회인식 Ⅰ: 성공과 부패의 연관성 인식 ····· 301
〈부표 3-80〉 사회인식 Ⅱ: 한국의 소득 격차 ····· 302
〈부표 3-81〉 정부의 역할 Ⅰ: 소득 격차 축소 ····· 303
〈부표 3-82〉 정부의 역할 Ⅱ: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 제공 ····· 304
〈부표 3-83〉 정부의 역할 Ⅲ: 빈곤층 지원 축소 ····· 305
〈부표 3-84〉 자원봉사 참여 ····· 306
〈부표 3-85〉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 307
〈부표 3-86〉 사회적 네트워크 Ⅰ: 사회활동 참여 ····· 308
〈부표 3-87〉 사회적 네트워크 Ⅱ: 친교모임 참여 ····· 309
〈부표 3-88〉 사회적 네트워크 Ⅲ: 금전적 문제 발생 시 지인의 도움 ····· 310
〈부표 3-89〉 정치적 관심 ····· 311
〈부표 3-90〉 투표 여부 Ⅰ: 제8대 대통령 선거(2012. 12. 19.) ····· 312
〈부표 3-91〉 투표 여부 Ⅱ: 지방선거(2014. 6. 4.) ····· 313
〈부표 3-92〉 투표 여부 Ⅲ: 총선거(2016. 4. 13.) ····· 314
〈부표 3-93〉 소득계층 인식 Ⅰ: 현재 ····· 315
〈부표 3-94〉 소득계층 인식 Ⅱ: 15세 무렵 ····· 316
〈부표 3-95〉 소득 만족도 ····· 317

〈부표 3-96〉 생활수준 인식 Ⅰ: 지난 10년 동안의 생활수준 ····· 318
〈부표 3-97〉 생활수준 인식 Ⅱ: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예측 ····· 319
〈부표 3-98〉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Ⅰ: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기대 ····· 320
〈부표 3-99〉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Ⅱ :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 321
〈부표 3-100〉 이념적 성향 ····· 322
〈부표 3-101〉 국가 자긍심 ····· 323
〈부표 3-102〉 사회통합 인식 ····· 324
〈부표 3-103〉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 326
〈부표 3-104〉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 327
〈부표 3-105〉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Ⅲ: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 328
〈부표 3-106〉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Ⅳ: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 329
〈부표 3-107〉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 330
〈부표 3-108〉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Ⅵ: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 331
〈부표 3-109〉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Ⅶ: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 332
〈부표 3-110〉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Ⅷ: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 333
〈부표 3-111〉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Ⅸ: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 334
〈부표 3-112〉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 335
〈부표 3-113〉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Ⅺ: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 336
〈부표 3-114〉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Ⅻ: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37
〈부표 3-115〉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Ⅲ: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 338
〈부표 3-116〉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Ⅳ: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 339
〈부표 3-117〉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 340
〈부표 3-118〉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Ⅵ: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 341
〈부표 3-119〉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Ⅶ: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 342
〈부표 3-120〉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Ⅷ: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 343
〈부표 3-121〉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Ⅸ: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 344
〈부표 3-12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Ⅰ-Ⅰ: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현재, 2016년) ····· 345
〈부표 3-12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Ⅰ-Ⅱ: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전, 2006년) ·· 347
〈부표 3-12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Ⅰ-Ⅲ: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후, 2026년) ··· 349
〈부표 3-12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Ⅰ: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현재, 2016년) ····· 351
〈부표 3-12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Ⅱ: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 ····· 353

〈부표 3-127〉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Ⅲ: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 ····· 355
〈부표 3-128〉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Ⅰ: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현재. 2016년) ····· 357
〈부표 3-129〉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Ⅱ: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전, 2006년) ····· 359
〈부표 3-130〉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Ⅲ: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후, 2026년) ····· 361
〈부표 3-131〉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Ⅰ: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현재. 2016년) ·· 363
〈부표 3-13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Ⅱ: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전, 2006년) ··· 365
〈부표 3-13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Ⅲ: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후, 2026년) ··· 367
〈부표 3-13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Ⅰ: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현재. 2016년) ·· 369
〈부표 3-13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Ⅱ: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 · 371
〈부표 3-13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Ⅲ: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 · 373

그림 목차

[그림 1-1] 국민통합의 조건 ····· 18
[그림 1-2] 사회통합 국민 인식 조사 설계의 구조 모형 ····· 27
[그림 2-1] 이념 성향별 국민통합의 의미 ····· 33
[그림 2-2] 이념 성향별 '내가 생각하는 국민통합' ····· 33
[그림 2-3] 이념 성향별 '통합을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일' ····· 33
[그림 2-4]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 36
[그림 2-5]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평가 ····· 48
[그림 2-6]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군집 분석 결과 ····· 58
[그림 3-1] 가구 소득 만족도 ····· 71
[그림 3-2] 개인 소득 만족도 ····· 72
[그림 3-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73
[그림 3-4] 행복도 ····· 74
[그림 3-5] 안전 인식 ····· 75
[그림 3-6] 최근 5년간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 76
[그림 3-7] 건강 상태 인식 ····· 77
[그림 3-8]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 78
[그림 3-9] 타인에 대한 신뢰도 ····· 79
[그림 3-10]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 ····· 80
[그림 3-11]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81
[그림 3-12] 성공 관련 부패 인식 ····· 82
[그림 3-13]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 83
[그림 3-14] 갈등 인식 ····· 84
[그림 3-15] 사회활동(친목모임, 취미동호회, 각종 클럽활동 등) 참여 정도의 인식 ····· 85
[그림 3-16] 사회활동참여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 ····· 86
[그림 3-17] 친교 활동을 위한 만남의 정도 ····· 87
[그림 3-18] 친교 활동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 ····· 88
[그림 3-19] 자원봉사 참여 정도 ····· 89
[그림 3-20] 정치적 관심도 ····· 90
[그림 3-21]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인식 ····· 91
[그림 3-22] 정부의 실업자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 92

[그림 3-23] 정부의 빈곤층 지원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 ····· 93
[그림 4-1] 사회갈등 인식 변화: 2014년과 2016년 ····· 105
[그림 4-2] 한국 사회 평가: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 112
[그림 5-1] 박탈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 132
[그림 5-2] 빈곤율(중위 50% 기준) 및 절대적 박탈 경험률 ····· 138
[그림 5-3] 연령별 기초생계 박탈 비율 ····· 140
[그림 5-4] 연령별 주거 박탈 비율 ····· 140
[그림 5-5] 연령별 의료 박탈 및 교육 박탈 비율 ····· 141
[그림 5-6] 연령별 문화생활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 비율 ····· 141
[그림 6-1]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경제적 특성 ····· 167
[그림 6-2]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사회적 특성 ····· 167

Abstract

A Study of Social Cohesion : Koreans' Perceived Social Cohes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public's recognition of social cohesion in Korea;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perceived social cohesion,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Previous studies on social cohesion have identified that Koreans understand social cohes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Understanding factors that cause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of individuals may be useful in making effective policy responses.

As a part of this study,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f a total of 3,669 adult Korean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questions concerning sub-concepts of social cohesion, social changes,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July of 2016.

This report is comprised of 7 chapters. Following Chapter 1, an introduction, Chapter 2 analyses the structure of the recognition of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how Koreans perceive the state of social cohesion and weight the elements of social cohesion. Chapter 3 diagnoses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urvey measurement of the state of social cohesion with that of international survey measurement of it. Chapter 4 examines Koreans'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analyses its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Chapter 5 examines the sense of depriv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

ceived social cohesion. Our analysis in Chapter 6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Lastly, Chapter 7 summarizes the preceeding discussion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ny Koreans regard social mobility as a prerequisite for a cohesive society.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Koreans'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objective living conditions. Third, the effect of economic conflicts on social cohesion has led to values conflicts. Fourth, people's sense of deprivation of basic living conditions, cultural life, and preparedness for the futur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ir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Fifth, perceived social cohe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eudaemonic happiness and decreases depression.

*Keywords: Social Cohesion, Social Perception, Social Exclusion, Social Conflicts, Happiness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목표이다. 2016년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국민 인식 구조를 밝히고, 이를 사회적 갈등 인식, 박탈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6년 조사 주제를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회통합의 하위 개념을 구조화하는 문항, 사회 인식 및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 박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조사설계, 수집된 조사자료의 분석 및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장별로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구조 분석,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인식 구조의 특이점도 확인, 주관적 사회인식으로서 갈등인식, 객관적 상태로서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사회통합 국민인식

사회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 및 그 구성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를 OECD(2011)의 세 축-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에 더해서 국내 연구에서 주로 제시하는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사회갈등 관리'라는 축을 더해 네 축으로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회통합의 개념적 네 영역에 맞춰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협조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심리적 불안의 개념을 추가하여 희망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에 평균 4.18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태보다 통합의 정도가 낮다는 평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 협조 사회라고 판단하는 정도와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실제 사회의 모습 간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이 '사회적 이동'임을 의미한다.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포용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이동성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포용의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요한 목표를 이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 상이한 인식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네 집단을 확인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모든 영역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집단이었으며, 이에 대비되는 세 집단으로는 각각 '경제적 문제보다는 신뢰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과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 이동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성, 사회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3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주관적 상태 인식과 객관적 상태 인식과의 차이를 진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로 각국의 발전 수준 및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사회통합의 상태와 관련되는 조건지표를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안전 및 건강 인식,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정부의 역할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ESS 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지표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과 베텔스만재단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만족도는 2.8점으로 비교 대상 평균 3.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3.6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2.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득에 비춘 소득 만족도의 평균은 2.4점이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높은 2.5점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6.2점으로 평균(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8.3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5.8점)가 가장 낮았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여러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및 삶의 만족도는 행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6.5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헝가리(6.3점)에 이은 차하위(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행복도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두울 때 혼자 걷는 상황에 대한 안전감의 경우, 우리나라는 2.8점을 보여 평균 3.1점보다 낮아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최근 5년 위해를 경험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도 3.6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3.9점보다 다소 낮으나,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은 14.9%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37.4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51.1점보다 매우 낮았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각각 32.2점, 39.3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부패 인식은 2009년 3.2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으며, 2016년에는 3.6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 비교 대상국과의 시점의 한계가 있지만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집단들 간(빈자와 부자,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 수준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70% 내외의 사람들이 한 달에 두어 번 이상의 친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60%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친교활동을 매일 하는 비율은 2.7%로 가장 낮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전혀 안 한 사람의 비율은 80.7%를 보인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한 80.1%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도는 2.3점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에 근접한 수치이며, 비교 대상국 평균 2.4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관심도 역시 북유럽 국가에서 높았다.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우리나라는 3.7점을 보여, 비교 대상국 평균 3.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동의는 2009년 4.1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3.8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2016년 3.6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 감소에 대한 동의는 2009년 4.1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덴마크(4.2점) 다음으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3.2점으로 혜택 감소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상태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사회적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안전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행복도는 평균 이하였다.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적인 강도나 신체적 위해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회통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준 또한 비교 대상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인식 수준의 지표들이 객관적 상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홀로 밤길을 걸을 때의 불안감 및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식 등은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야간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의 회피로 이어지고,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함으로써 고립을 초래하는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삶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참여나 사회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지표 이외에도 상태에 대한 인식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 및 정서적 문제(불안감, 주관적 건강인식, 고립감, 우울감 등)는 사회병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 및 감성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태의 인식이 부정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와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현대사회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갈등은 통상적인 갈등 관리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4장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사회갈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갈등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노사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 순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힌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계층갈등의 범주에 속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 빈부 갈등과 같이 경제적 측면의 갈등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한편, 10년 후 유형별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빈부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의 순으로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이념이나 세대와 같은 가치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 갈등 중에서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은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으로 응답해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이념갈등을 현재의 심각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앞서의 결과와 연관하여 해석하면, 이는 이념갈등의 과잉 동원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갈등 인식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로 꼽히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사회갈등 상황을 낮게 평가한다는 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부패가 높다고 평가할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유형 중에서는 빈부갈등,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갈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합의 중요 구성 요소에 대한 적극적 개입-즉,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문제 역시 사회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라.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주관적 인식 차원 외에도 객관적 박탈의 상태가 박탈의 심리사회적 결과로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박탈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태 변수로서의 박탈지표는 인식지표로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혹은 사회적 통합지표로 치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바우만이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사회적 박탈은 개인·가족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 및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물질적 박탈을,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영역별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31개 항목을 기초생활(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미래 대비, 자녀 양육 및 교육의 6가지 박탈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0-10점), 2)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3)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 4명 중 약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여행을 갈 수 없거나(26.1%),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거나(26.65%),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26.28%),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25.40%)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 경험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5.64%),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1개월 이상 주지 못한 경험(3.77%),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3.13%),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2.79%), 집세가 밀렸거나 이로 인해 이사한 경험(2.38%),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경험(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박탈의 양상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

탈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생활이나 미래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중장년층(35-64세)에서 지난 1년간 1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5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이지만 주거의 질(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6.4%, 적절한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3.9%)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5세 미만 집단에서는 기초생계 박탈의 경험이 낮은 사회통합으로 연결되며, 특히 문화 박탈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낮은 평가로 나타났다. 35-64세 중장년층 집단에서는 문화 박탈이 사회통합을 낮췄으며, 특히 미래 대비 박탈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낮은 평가로 연결되었다.

〈요약표 1〉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총박탈점수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여〉남** 정규직〉비경활	총박탈점수 자영,실업〈비경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대학 이상〈중졸 이하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문화 박탈** **대학 이상〈중졸 이하** **여〉남** 임금근로자〉비경활	실업자〈비경활

본 분석의 결과는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소득 보장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정(security)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먼저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차원적 박탈

의 영역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박탈의 영역이 사회통합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즉,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적 박탈, 그리고 미래 대비에서의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기초생계의 박탈이 일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포괄적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사회이동 통로 확대와 청년 기초생계 보장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35-64세 중장년층의 경우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현재의 통합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질과 총량 증진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당성은 사회통합이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은 개개인의 행복에 복합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통합된 사회는 개개인을 포용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반면에 통합된 사회에서 특정한 개인은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행복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합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응답 분포를 확인하고,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응답 분포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척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가구 소득, 가구 자산과 가구 부채의 경제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구 소비는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으나 삶의 만족도는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계층과 사회이동 경험, 선택과 통제의 자유, 사회적 관계, 사회신뢰, 관용 등의 개인 및 사회 인지적 특성도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사회통합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과 우울의 정서적 행복,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행복의 차원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통합 인식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켰다. 주관적 소득 계층이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사회이동을 경험한 경우, 선택과 통제가 자유로울수록, 사회적 관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를 신뢰할수록, 관용적일수록 모든 차원의 행복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반면, 소득 격차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높은 사회통합 수준이 국민 개개인의 높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된 사회 기반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된 사회는 행복한 국민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 충분조건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회통합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이러한 영향력은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확보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회복하고, 사회이동 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개별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회통합 평가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은 개개인별로 매우 복잡한 인식 체계의 산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강조, 객관적 실태보다 과다하게 부정적인 주관적 인식, 경제적 갈등의 중요도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초생계의 박탈 외에도 문화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의 영향력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인식 차원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성,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한국인의 낮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상태 개선을 위한 객관적 조건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및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사회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세대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를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세대의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문화적 박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 인식, 사회적 배제, 사회갈등, 국민행복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1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통합에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김안나 등, 2008), '사회통합 개념 정립, 사회통합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노대명 등, 2009; 노대명 등, 2010; 강신욱 등, 2011; 강신욱, 등 2012; 김미곤 등, 2014; 정해식 등, 2014; 여유진, 정해식 등, 2015), '국민들의 사회통합의식 실태'(노대명 등, 2010; 강신욱 등, 2011; 강신욱 등, 2012; 여유진 등, 2013)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2009~2013)', '대통령소속국민대통합위원회(2013~현재)'가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이다.

다수의 연구 및 정책 집행 활동의 결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제반 사회 문제 해결의 지향점으로서 '사회통합의 제고'를 제시하는 것에 익숙하다. 일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 첨예한 갈등 상황을 해결 또는 봉합하는 것이 곧 사회통합을 높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의 잘못된 적용이며, 과잉 적용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은 점차 용례의 익숙함을 얻는 것에 반비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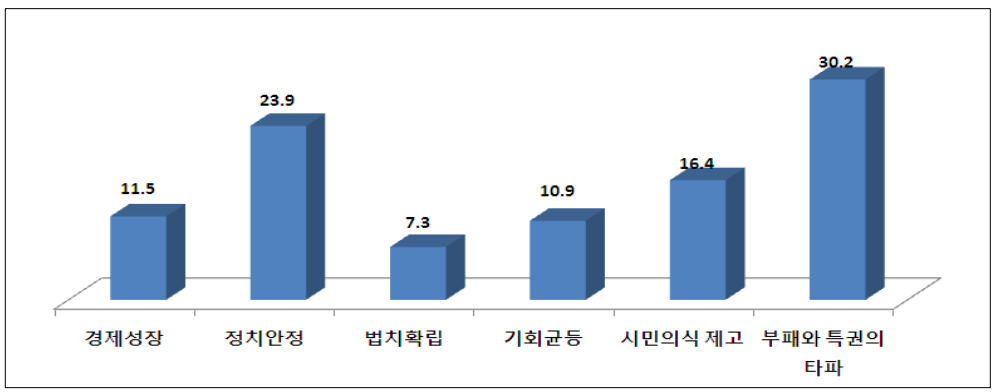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연구에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사회자본 등 개념적 구성체(conceptual constituents)를 제시하면서, 그 하부 도식(하위 영역)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배제가 적은 사회, 사회적 이동성이 확보·유지되는 사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념적 정향(ideological direction)이 반영되는 '통합된 사회상'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각 개인이 생각하는 통합된 사회상의 근저에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팀은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조건을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확인한 바 있다(노대명 등, 2011; 강신욱 등, 2012; 여

유진 등, 2013). 이들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을 물으면서, 사회통합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국민통합의 조건

(단위: %)



자료: 여유진 등(2013). 2013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63.

위 [그림 1-1]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국민통합)의 제고를 위해 부패와 특권의 타파, 정치 안정이 우선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민의식의 제고, 기회균등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사방법으로서 전화조사의 한계로 말미암아,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제1순위의 요소를 고르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통합성 제고를 위한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한계도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일종의 모듈(module)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대한 항목을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사회통합 인식, 사회갈등 인식을 매년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가 순환하는 주제모듈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 주제(core contents)에 대해서는 순환하는 주제모듈을 취하되 각 연도별 연구주제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 하에서 2016년 연구 주제를 '사회통합 국민 인식'으로 하

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가 순환하는 주제모듈 형태라면, 정해진 시기마다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연구 모듈에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 구조를 밝히고, 인식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통합의 세부 요인 및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상을 표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다면 국민 인식 구조에 시대상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2)]

이에 따라 2016년 조사의 주제 모듈을 '사회통합 국민 인식'으로 하고, 여기에 인식 구조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박탈의 수준, 사회통합의 상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통합된 사회의 최종적인 목표물이라 할 수 있는 삶의 만족, 행복의 조사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조사 설계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세부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들이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연구 및 조사 설계를 통해 인식의 차이가 사회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이끌어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 수준의 국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회통합 상태란 사회통합 조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보여주는 객관적 모습의 사회통합이다. 생활에 대한 만족, 신뢰 수준, 각종 네트워크에의 참여 정도를 비교 국가적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하였다. 그간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본 연구원의 두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필요한 비교 문항을 여러 조사 자료에서 확보하여 보여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16년 조사에서는 단일한 설문 내에서 가능한 많은 비교

1) 후자의 방식은 캐나다의 '일반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가 대표적이다.
2) 이러한 형태의 장기 조사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전국표본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1990년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5년 4차 조사까지 실시되었으며, 2009년 및 2014년 5차, 6차 조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특별 주제모듈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로 반영되었다.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갈등의 양상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평가가 사회통합 인식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대 간 차이가 사회통합 인식의 구성에도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가치관 갈등과 경제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해석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넷째,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직전의 두 연구주제가 주관적 인식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여기서는 박탈이라는 물질적 상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먼저 박탈점수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여러 박탈의 영역 중에서도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이 깊은 박탈의 영역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박탈의 정도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별로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 인식이 높은 집단이 더 행복하다면, 우리는 국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의 가치'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정책적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1.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에서는 한국인이 판단하는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인식 구조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제3장 사회통합 상태의 국제 비교에서는 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조사 문항의 결과를 국제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제4장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에서는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5장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서는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6장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서는 사회통합의 여러 상태들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 및 다음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가.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과 실증분석 문헌 검토,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실시, 그리고 조사 결과 자료의 분석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외 문헌 검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조사 설계를 위한 것이다. 올해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새롭게 인식 구조에 대한 조사 문항이 추가되면서, 사회통합의 하위 개념을 반영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회 변화를 평가하는 설문 문항 역시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조사표뿐만 아니라, 관련 이론과 실증 분석 문헌을 검토하였다. 조사 설계 과정에서는 박탈 지표의 구성, 행복 측정 지표의 구성에 대한 문헌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둘째,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사회통합센터에서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세 번째 조사로서, 올해의 주제인 '사회통합 국민 인식'[3]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표 개발, 이론 및 실증 연구 방법론 검토, 원자료 분석 등 조사연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연구에 반영하였다.

---

3) 참고로 2014년의 주제는 '사회통합과 행복'이었으며, 2015년의 주제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이었다.

나. 조사 설계

1)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수준 및 실태와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4] 전국 600개 집계구를 대상으로 각 집계구당 7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집계구는 2015년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단위는 가구이며, 가구 내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응답하였다.

〈표 1-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1997년 5월 31일 이전 출생) ~ 만 75세 이하(1940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단위	가구 내 개인 1인(빠른 생일자)	
표본크기	전국 600개 집계구 내 4,052가구(완료 3,669명) * 4,000표본 목표 대비 91.73% 완료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2016년 5월 30일~8월 3일	
조사문항	가구 일반사항	가구 원수, 노인·장애인·아동·실업자·만성질환자 수, 가구 형태
	가구 경제 상태	생활비,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부채 및 재산,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사회보장 혜택 등
	행복, 여가, 박탈 등	행복,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신뢰, 안전, 관용, 주관적 건강 상태, 박탈 경험 등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및 참여)	대인 신뢰, 부패 인식, 사회갈등, 사회활동, 정치 관심, 투표 경험 등
	응답자의 일반 사회 인식	주관적 소득계층, 생활수준 평가, 사회이동, 이념적 성향, 국가정체성 등
	사회통합 인식 수준	사회통합 인식, 사회통합 요인, 우리 사회 평가 등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4) 이 조사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문서번호 제2016-18호, 2016.5.27.)의 연구승인을 득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의 크기는 전국 600개 집계구(지역) 내 4,052가구이다.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통계의 기본 단위로 이용하기 위해 별도 선정한 단위로서, 전국 평균 약 200가구가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되어 있다. 집계구의 크기는 평균 1.1㎢이며, 조사구와는 달리 집계구 내의 가구 형태는 일반 가구와 아파트가 혼재하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 가능한 자료는 세대수, 가구수, 1인 인구수, 아파트수 등이다. 집계구는 조사구와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집계구 내 가구수를 MOS로 활용하여 확률비례 표집이 가능하며,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활용하여 집계구 지도를 출력하여 기존 조사구 요도와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조사의 표본은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2010년 인구총조사 이후 신규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집계구 이외에 신규 아파트 지역을 별도로 추출하여 신규 아파트 지역이 조사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신도심 지역 등 신도시, 혁신도시 등은 신규 아파트 단지에 포함하여 추출되었다. 표본의 배분은 지역(17개 특·광역시, 동부 및 읍면부)을 6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으로 층화하고, 집계구 유형(아파트 및 비아파트 지역)을 내재적으로 층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4,052가구를 목표 표본 규모로 고려하였다. 지역별로 일정 규모의 집계구가 추출될 수 있도록 6개 권역별로 집계구의 제곱근 비례에 의해 집계구 수를 배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00개 구역(조사구)을 표본 집계구로 선정하였다. 600개 구역(조사구)은 동부 385개, 읍면부 115개, 신규 아파트 단지 100개 지역으로 배분되었다.

또한 본 조사는 표본가구 내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75세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단, 가구의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빠른 생일자인 경우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가구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에 따라 조사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3,669	100.00
성별	남성	1,854	50.53
	여성	1,815	49.47
연령	20대 이하	755	20.58
	30대	700	19.07
	40대	780	21.27
	50대	764	20.82
	60대 이상	670	18.26
지역	수도권	1,859	50.67
	비수도권	1,810	49.33
	대도시	1,653	45.04
	중소도시	1,750	47.69
	농어촌	267	7.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9	12.79
	중하층	1,365	37.20
	중간층	1,637	44.63
	중상층(+상층)	198	5.3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61	18.02
	200만 원대	584	15.93
	300만 원대	758	20.68
	400만 원대	587	16.00
	500만 원 이상	1,077	29.37
학력	중졸 이하	602	16.41
	고졸	1,591	43.35
	대졸 이상	1,476	40.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99	32.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4	10.74
	고용주·자영자	794	21.65
	무급가족종사자	66	1.79
	실업자	114	3.10
	비경제활동인구	1,102	30.04
직업	관리자·전문가	267	10.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09	61.51
	숙련 및 기술직	493	20.1
	단순노무종사자	184	7.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37	65.11
	비정규직	556	34.89

주: 월평균소득: 무응답 3case/ 직업: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해당/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해당

2) 설문 개요

① 3개년 지속 문항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및 갈등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조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여가·박탈, 사회적 자본, 계층 인식 및 이념적 성향에 관한 설문은 2014년 조사를 기본 내용으로 하여, 매해 사회통합 상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표 1-3〉 지속 설문 문항

구분		주요 문항
가구 및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형태 및 가구원 구성	가구원 수, 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수, 아동 수, 실업자 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나이,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직업, 직업 안정성, 고용 형태 등
	주택 및 거주 형태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구 경제 상태	생활비	총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소득	응답자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적이전소득(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 등)
	자산과 부채	거주 주택 가격, 금융재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부채 총액
행복, 여가, 박탈 등		삶의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생활 영역 만족도), 행복감, 우울감
사회적 자본		대인 및 기관, 전반적 사회 신뢰도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기부 활동
		투표 여부, 정치적 관심도
		사회집단 간 갈등 인식 정도
		정부의 역할 인식 정도
계층 인식 및 이념적 성향 등		소득계층 인식(현재, 미래), 이념적 성향, 국가에 대한 자부심

② 2014년, 2015년 조사 고유 문항

2014년과 2015년 조사는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 각각 행복의 정도와 사회이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통합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2014년 조사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통합과 행복의 실태와 결정

요인, 그리고 사회통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표 1-4〉 2014년 주제모듈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조사 문항

구분	문항
스스로에 대한 평가	- 평소 자신의 행복감 평가 -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행복감 평가 - 매사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평가
행복의 조건	- 행복의 조건 (공정한 민주사회에 사는 것, 적절한 수입,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등) - 행복할 수 있는 소득 수준 및 재산 수준

2015년 조사는 사회통합의 세 요소(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중 그 동안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회이동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의 실태와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 개인의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조사하였으며, 세대 내 이동은 학교→첫 직장→현 직장의 고용 상태 및 직위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세대 간 이동은 3세대(전 세대-현 세대-미래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1-5〉 2015년 주제모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주요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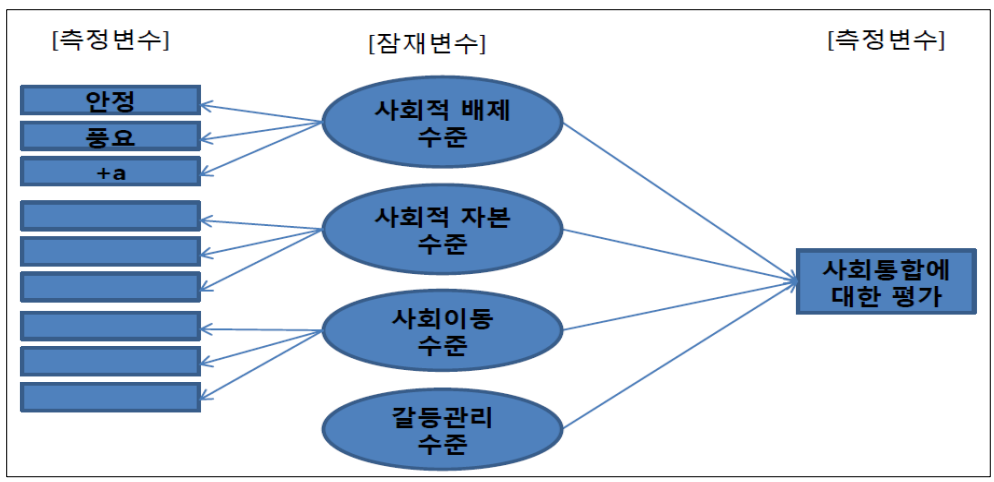
세대	시점	주요 조사 항목
본인 (destination, second origin)	현재(2015.5.31.)	가구 특성 및 개인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위세, 경제 상태(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은 3개월 평균) 사회통합 인식 등
	첫 직장 입사 당시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본인이 15세(중3) 즈음	성장한 곳, 경제적 수준, 학업 성적 등
부모(origin)	본인이 15세(중3) 즈음 (부모가 40세 즈음)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첫째 자녀 (second destination)	첫째 자녀가 15세(중3) 즈음	첫째 자녀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③ 2016년 조사 고유 문항

2016년 본 조사는 객관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사회통합 상태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

이 인식하는 주관적 수준에서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림 1-2] 사회통합 국민 인식 조사 설계의 구조 모형



〈표 1-6〉 2016년 주제모듈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조사 문항

구분	문항		
사회통합 수준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 평가		
사회통합의 조건	-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		
	사회적 배제(포용성) 수준	경제적 지원, 그룹 간 격차 축소, 다양성 인정	
	사회적 자본 수준	신뢰 증대, 참여 증진	
	사회이동성 수준	기회의 제공, 두터운 중산층	
	갈등 관리 수준	갈등 조정, 그룹 간 협력 등	
우리 사회의 상태 (10년 전-현재-10년 후)	- 우리사회의 상태 진단		
	배제 사회	차별과 소외가 심함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포용 사회
	불신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신뢰 사회
	침체된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 사회
	불안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 사회
	갈등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협조 사회

또한 2016년의 조사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실태를 진단함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존 문항을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의 형태로 수정 및 보완하거나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문항을 국제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1-7〉 2016년 국제 비교 가능 조사 문항

2016년 사회통합 인식	문항	비교 가능 조사
삶의 만족도	- 삶의 전반적 만족도, 행복감	ESS
안전 및 건강	- 신체적 위험 경험 여부, 안전 체감도 - 건강 상태	ESS
신뢰	- 대인 신뢰, 타인의 공정성, 이타심	ESS, GWP
부패	- 정치 영역의 부패 - 경제 영역의 부패 -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부패	ICRG GWP ISSP
다양성 수용	- 이민자의 생활 편의성	GWP
행복	-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과 자유	WVS
갈등	-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EQLS, ISSP
정부의 역할	-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ESS
정당한 보수	- 능력 및 노력에 대한 소득의 수준	ISSP
자원봉사 및 기부	- 자원봉사 - 사회단체에 기부	EQLS GWP
사회활동	- 사회활동 참여 정도, 친구 및 친지, 직장동료들과의 친교 모임 정도	ESS
사회적 자원	- 금전적 어려움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의 정도	ESS

주: ESS=European Social Survey / GWP=Gallup World Poll /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WVS=World Values Survey/ EQLS=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

제 2 장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2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제1절 연구 배경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학문적·정치적 이슈로 삼은 지 10여 년이 흘렀다. 초기 논의에서 사회통합은 사회적 배제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 초기 연구는 사회제도가 특정 집단을 체계적·장기적으로 배제하는 구조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문진영, 2004; 강신욱 등, 2005; 김안나, 2007). 이때 이러한 체계적 배제가 실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체계적 배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2006년 초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이슈를 제기한 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실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김문조, 2007, p.306)

하나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서로 다른 이념적·계층적 입장에서 이를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에서도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사회통합이 낮은 이유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들은 '불공정한 사회 체계'의 문제라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한다.

사회통합은 각종 사회제도와 개인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학문적으로 매우 폭넓은 범주에서 해석되고 있는 사회통합은 좁게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넓게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여유진 등, 2014, pp.58-74). 사회통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100% 사회통합'을 주장하는 이들도,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집단과 사회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상정하면,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속에서 '바람

직한 사회통합'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는 것과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이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을 위한 기반을 쌓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서로 다른 가치체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또 그것이 형성된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인정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사회통합의 상태를 평가하라고 할 때, 그들은 각각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기준이 하나의 인식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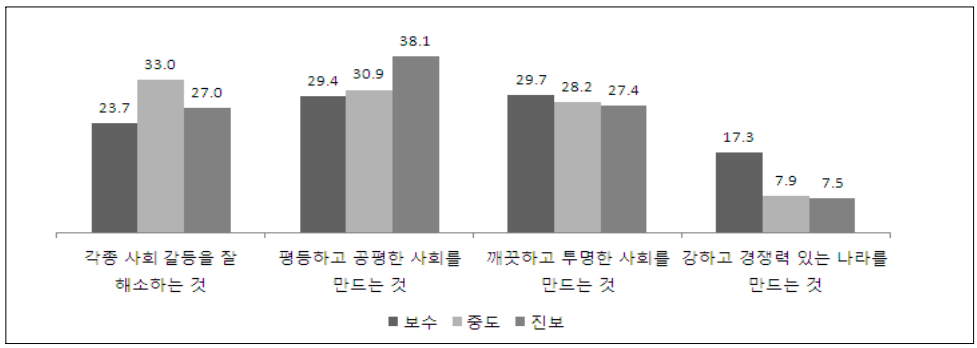
그러므로 2장에서는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의 기준을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즉, 사회통합 인식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구조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1. 선행 연구

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및 이전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통합된 사회상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해마다 '국민통합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념 성향별, 연령별, 지역별로 '(국민)통합'의 주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으며,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는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을 주로 연상하였다(여유진 등, 2013). 특히,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가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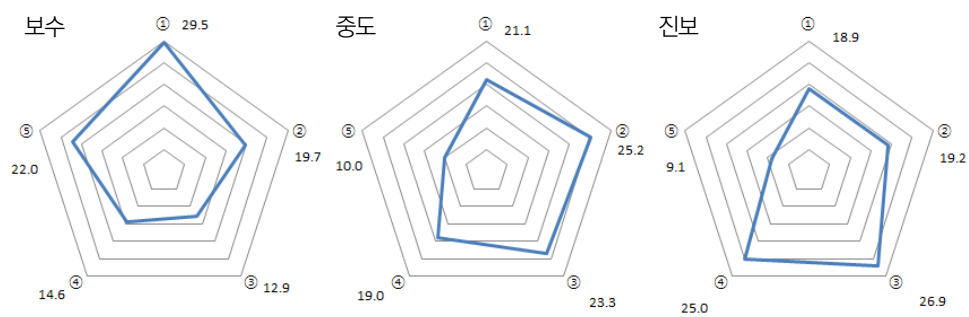
[그림 2-1] 이념 성향별 국민통합의 의미



자료: 여유진 등(2013). 2013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62.

[그림 2-2] 이념 성향별 '내가 생각하는 국민통합'

①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②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 ③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④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⑤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는 것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36.

[그림 2-3] 이념 성향별 '통합을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일'

①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 ②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③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④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⑤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는 것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p.125.

설문 선택문항을 다르게 배치한 국민대통합위원회(2015)의 조사에서도 이념 성향별로 응답 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2-2], [그림 2-3]에서 보듯이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지만,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을 사회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통합 의식 조사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통합'을 상정하고 있다. 인식 또는 의식조사에서는 조사 도구의 타당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다양한 유사 개념을 활용한 조사 문항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통합의식' 조사는 전화조사라는 한계로 인하여 유사 문항의 활용에 한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가로질러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사문항의 배치를 통한 타당도 확보보다는 여러 개념에 대해 훑어보는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정한 사회과학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중에서 주목할 국내 조사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연구가 있다.[5] 이 조사는 최초 조사에서 분배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 직업, 수입 등 불평등 관련 문항들과 함께 분배 공정성의 지각 및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 행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석현호, 차종천, 2005, p.11), 이후 절차 공정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절차 공정성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묻고 있으며, 분배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를, 마지막으로 사후 공정성은 정책을 결정한 후 취하는 조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김명언, 2005, pp.216-220). 이 중에서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으며, 비교 집단으로는 1) 다른 지역 주민, 2) 상위계층 사람, 3) 하위계층 사람, 4) 다른 성인 여성(또는 남성)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3차 조사표, p.5).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귀하는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정부의 행정은 모두에게

5) 이 조사는 1990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공정성이 국가 사회 발전의 관건 문제임을 인식한 결과이다(석현호, 차종천, 2005, p.9). 2005년 4차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5차 조사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특별 주제모듈로 포함되었다. 5차 조사의 시점은 국제사회조사(ISSP)의 주제모듈 '사회불평등'과 조사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2014년 kGSS 조사에서도 '사회적 공정성과 불평등'에 대한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계산한 종합 공정성의 정도에 대해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사후 공정성의 개념을 단계회귀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김명언, 2005, pp.222-223).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종합적인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절차 공정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사후 공정성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김명언, 2005, p.223).

2. 연구 방법

가. 조사 설계

사회통합에 대한 개괄적 형태의 묘사 외에, 실태 파악의 목적에서 사회통합의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는 다수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역능성(권리 부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부문으로 사회통합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진의 앞선 연구 결과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 2차 사회통합 조사에서는 국민 행복, 사회이동을 주요 조사 모듈로 하여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진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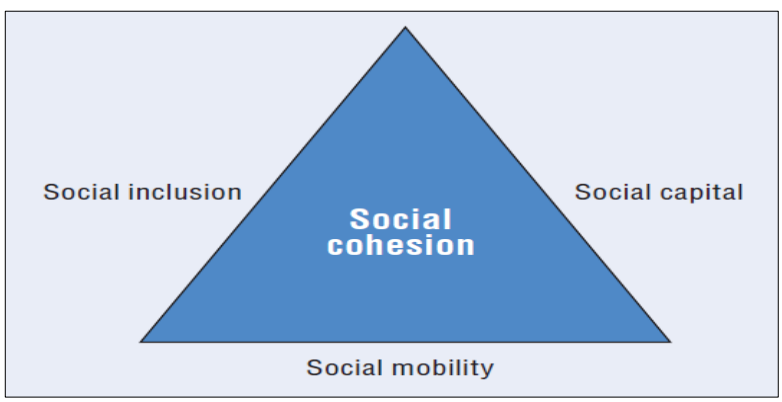
실태 파악 목적의 조사·연구에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사회자본 등 개념적 구성체(conceptual constituents) 및 그 하부 도식(하위 영역)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성체는 한 사회의 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 내의 이질적인 인식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정책을 다른 정책에 비해 강조할 수 있지만,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것보다는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강조할 수 있다. 인식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 차이를 밝힘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근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별, 집단(세대, 지역, 이념)별로 통합된 사회의 모습 및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간단히 살펴본 두 종류의 선행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떠한 근거로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사회통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평가 정도를 묻고, 각 하위범주에 대한 내용을 묻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종합적인 사회통합의 정도를 묻고,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4]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자료: OECD(2011). p.54.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우선하여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정해식 등, 2014; 김미곤 등, 2014; 여유진, 정해식 등, 2015). 국내에서 이뤄진 여러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위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2011)가 제안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이동을 포함한 사회통합의 세 축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또는 사회통합이 잘된 사회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과 관련되는 사회적 배제의 반대 양상으로서 사회적 포용의 정도가 높아야 하며, 둘째, 개인적 신뢰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로 표상되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아야 하고, 셋째,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의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여유진, 정해식 등, 2015, p.13)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의 상태 및 조건으로서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를 통합이 잘되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회의 통합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능력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열 등(2014, p.134)은 사회통합지수를 세부 영역별로 조작화하면서 '사회적 통합 역량'을 지적하고, 그 하위 지표에 제도 투명성 지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였다. 정영호, 고숙자(2014)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를 계산하면서,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을 포함하였다. 정해식(2014)도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갈등 관리 시스템의 작동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주주의의 질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의 정도와 조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보여주었던 사회적 대화, 또는 대타협을 포함한 갈등 관리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층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 사회 역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 표출 과정과 이해 상충의 문제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서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임희섭, 2007, p.20).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또 갈등을 둘러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압축갈등'(박길성, 2009, p.17)의 양상을 보여 왔다. 갈등의 잠재적·현재적 요인들이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어 왔던(임희섭, 2007, p.20), 한국 사회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민적 총화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권위주의적 전통이 되살아나면서 갈등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 제고를 생각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갈등 관리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인식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서론의 [그림 1-2]와 같은 조사 설계를 하였다. [그림 1-2]에서 각 측정변수는 〈표 2-1〉에 제시된

조사 문항과 동일하다.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할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이동 수준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1〉 조사 문항 Ⅰ: 사회통합 요건의 중요도

영역	Q. 50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
사회적 배제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회적 자본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11)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12)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사회적 이동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갈등관리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주: 설문지에는 영역을 특정하지 않은 1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둘째, 한국 사회가 현재 어떠한 모습에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10년 전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을 설계하였다. 여기서는 앞서의 개념적 네 영역(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 사회적 역동성, 갈등사회)에 더해서 심리적 불안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사회적 이동성을 일부 표현하기도 한다. 〈표 2-2〉의 각각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로 이름 붙일 수 있다.

〈표 2-2〉 조사 문항 II: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나. 분석 방법

2장에서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음의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과 사회통합의 평가 정도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회귀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사회통합의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한다. 둘째,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다.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 본 설문 문항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것이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어떠한 하위영역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조가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군집 분석을 실시한다. 인식 구조상의 군집을 확인하고,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통합 인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결과

가. 사회통합 수준 평가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 응답자들은 평균 4.18점을 주었다(10점 만점).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통합 상태를 보통보다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2-3〉은 응답자 특성별로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40대가 가장 낮고 30대, 50대가 다음으로 낮으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평균보다 나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집단 간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통합 평가는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간층, 중상층 및 상층은 사회통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하층, 중하층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 수준에서도 대체로 확인된다.[6] 경제활동 상태로 보면, 비경제 활동인구가 4.27점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24점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4.01점, 실업자가 3.79점으로 사회통합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4.23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관리자·전문가 집단은 3.93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집단이 4.23점, 중도적인 집단이 4.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사회통합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2-4〉는 측정한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와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를 포용 사회라고 보는 정도의 상관관계는 .416의 관계를 보였으며, 신뢰 사회라는 평가와의 상관관계는 .388, 역동적 사회라는 평가와의 상관관계는 .307, 희망 사회라는 평가와의 상관관계는 .386, 협조 사회라는 평가와의 상관관계는 .401로 나타났다. 대체로 사회적 포용의 정도, 사회적

6)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이용한 4분위 집단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평가가 양호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 협조가 그나마 이뤄진다고 하는 평가와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응답자 특성별 사회통합 평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응답 분포					평균	F-value
		0~2	3	4	5	6~10		
성별	남성	19.53	19.27	15.87	26.78	18.55	4.11	6.36*
	여성	15.57	20.27	15.36	29.86	18.94	4.26	
연령대	20대 이하	16.07	20.6	15.36	28.96	19.01	4.26	1.14
	30대	17.95	18.58	13.9	30.87	18.7	4.18	
	40대	20.17	18.28	14.89	30.13	16.53	4.08	
	50대	18.27	19.78	17.89	23.8	20.26	4.17	
	60대 이상	15.03	21.78	15.96	27.89	19.33	4.2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38	22.89	15.57	26.91	16.24	4.05	2.26
	고졸	15.82	19.58	16.26	29.83	18.51	4.23	
	대졸 이상	19.13	18.69	14.94	27.22	20.02	4.18	
주관적 계층	하층	26.74	23.54	16.19	23.51	10.02	3.57	37.48***
	중하층	19.81	21.24	16.96	25.68	16.31	4.01	
	중간층	13.31	18.07	14.68	31.58	22.36	4.46	
	중상층, 상층	15.61	14.72	12.69	30.65	26.32	4.53	
가구소득 (n=3,667)	200만 원 미만	18.91	22.04	15.69	28.06	15.3	4.02	3.28*
	200만 원대	17.62	21.33	16.04	26.33	18.68	4.11	
	300만 원대	19.24	19.1	15.6	26.97	19.09	4.19	
	400만 원대	16.29	20.39	15.98	30.39	16.95	4.17	
	500만 원 이상	16.28	17.69	15.19	29.17	21.66	4.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13	18.02	14.77	27.91	21.16	4.24	2.7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96	23.47	22.29	26.18	13.09	4.01	
	고용주·자영자	19.43	19.75	14.31	28.12	18.38	4.13	
	무급가족종사자	12.95	22.72	19.5	36.65	8.18	4.05	
	실업자	26.53	13.63	15.36	36.14	8.35	3.79	
	비경제활동인구	15.89	20.81	14.89	28.31	20.09	4.27	
직업 (n=2,446)	관리자 전문가	22.62	20.97	14.34	25.51	16.57	3.93	2.63*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17.51	17.82	16.21	29.27	19.19	4.23	
	숙련 및 기술직 (군인 포함)	17.78	23.58	14.29	25.36	18.98	4.12	
	단순노무종사자	14.62	21.31	20.65	27.43	15.99	4.03	
이념 성향	보수적	16	21.26	15.15	27.93	19.67	4.23	3.22*
	중도적	16.66	19.3	15.21	30.37	18.47	4.22	
	진보적	21.91	18.92	17.25	23.76	18.17	4.03	
평균		17.57	19.77	15.62	28.3	18.74	4.18	

주: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2-4〉 사회통합 평가와 사회 인식 간의 관계

구분	(배려와) 포용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신뢰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역동적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희망 사회	(서로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협조 사회
사회통합 인식	.416	.388	.307	.386	.401

주: 사회적 포용 인식-'배려와 포용의 사회', 신뢰사회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사회통합의 상태에 대한 조건부 응답일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의 특정한 조건(예를 들어, 앞서의 사회인식에서 강조되는 사회이동성)이 한국 사회에서 낮다고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먼저,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점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이동성과 관련된 네 문항(q13~q16)에 대해서는 각각 4.13점, 4.38점, 4.17점, 4.37점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역의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q9),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q10)은 각각 4.16점, 4.16점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q4) 4.14점,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q7) 4.12점,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q11) 4.11점,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q17) 4.11점,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q19) 4.09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q5) 4.09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q2) 4.05점을 주면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2-5〉의 오른쪽 두 개 열은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정도와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평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한 평가와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평가의 관계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통합의 상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유의한 수준에서 사회통합의 상

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사회이동성의 조건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은 모두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q4, q5),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신뢰, 규범의 준수 및 협조의식(q7, q9, q10, q11), 갈등관리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조건부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사회통합의 특정 상태에 대한 불만은 해당 조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그에 따라 사회통합의 정도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강해진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적 상관관계의 정도를 고려하면, 현재 우리 국민들의 기대하는 바와 실제 사회의 모습과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5〉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보통 (1)	(2)	(3)	(4)	매우중요 (5)	평균 (점)	상관관계 (사회통합 인식)	
							11점 척도	5점 척도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51	6.08	19.6	43.83	27.97	3.89	-0.013	-0.012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1.53	3.99	18.89	38.63	36.95	4.05	0.008	-0.002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	6.6	26.05	35.88	27.77	3.77	0.038 *	0.013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1.17	3.56	14.85	41.05	39.37	4.14	-0.049 **	-0.065 ***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1.22	4.09	16.48	40.51	37.69	4.09	-0.045 **	-0.044 **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4.27	9.54	26.97	38.27	20.95	3.62	0.046 **	0.028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1.33	3.13	17.91	37.34	40.29	4.12	-0.083 ***	-0.096 ***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14	4.8	21.19	37.61	33.26	3.93	-0.029	-0.030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1.21	3.33	16.83	35.81	42.82	4.16	-0.078 ***	-0.088 ***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1.49	3.28	15.46	37.22	42.56	4.16	-0.056 ***	-0.067 ***
(11) 사회 구성원이 (~)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0.96	4.08	16.73	39.12	39.1	4.11	-0.058 ***	-0.072 ***
(12) 사회 구성원이 (~)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1.76	5.21	21.84	39.51	31.68	3.94	0.019	-0.001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1.08	3.67	15.93	39.99	39.33	4.13	-0.053 **	-0.066 ***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0.49	2.25	9.83	33.88	53.55	4.38	-0.132 ***	-0.138 ***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1.00	3.32	15.99	37.07	42.63	4.17	-0.076 ***	-0.089 ***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0.52	2.44	10.04	33.81	53.19	4.37	-0.124 ***	-0.126 ***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0.52	2.44	10.04	33.81	53.19	4.11	-0.050 **	-0.066 ***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79	4.33	19.89	42.18	31.81	3.98	-0.024	-0.036 *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1.12	2.77	17.19	43.38	35.53	4.09	-0.068 ***	-0.075 ***

주: 1) 11점 척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 ~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로 구성된 조사표 상의 값을 활용한 것이며, 5점 척도는 위 〈표 2-3〉과 같이 구분한 것이다.
2)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앞서 응답자 특성별 사회통합 평가 결과를 제시한 〈표 2-3〉에서 보면, 주관적 계층 의식이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주관적 계층과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해 보고 하위 문항별 중요도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2-6〉에서 왼쪽 열은 19개 문항에 대한 값이다. 'q1,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층과 중상(및 상)층의 중요도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q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 'q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q11,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q12,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q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q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등의 문항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간 중요도 평가의 차이를 살펴볼 때에는 집단 간 중요도 강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표 2-6〉의 하단에는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계층으로 하층은 중상(및 상)층의 중요도 평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20점을 더 주고 있다.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다.

이에 각 하위 항목에서 계층별로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중간층, 중상(및 상)층이 어느 항목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지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에서는 이를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중요도의 차이로 해석하고자 한다. 〈표 2-6〉의 오른쪽 열은 전체 항목 응답 평균과 해당 항목 응답의 차이를 제시한다. 'q1,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체 항목 평균과 대비하여 하층은 .03점만 적게 부여하는 데 비해서 중간층은 -.23점을, 중상(및 상)층은 -.28점을 부여하고 있다. 즉, 주관적 계층이 상층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높이는 데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상 계층은 어느 항목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가? 'q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q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q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q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영역이 중간층, 중상(및 상)층이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표 2-6〉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단위: 점)

구분	원자료 값					평균과의 차이				
	주관적 계층				F (유의도)	주관적 계층				F (유의도)
	하	중하	중간	중상 및 상		하	중하	중간	중상 및 상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4.15	3.91	3.82	3.70	17.08***	-0.03	-0.19	-0.23	-0.28	9.31***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20	4.06	4.00	4.08	5.86***	0.03	-0.04	-0.05	0.09	3.03*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8	3.80	3.76	3.72	0.46	-0.40	-0.30	-0.29	-0.26	2.34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27	4.16	4.10	4.03	5.89***	0.09	0.06	0.05	0.05	0.51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24	4.12	4.05	3.91	8.76***	0.06	0.03	0.00	-0.07	2.06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59	3.62	3.65	3.50	1.35	-0.58	-0.48	-0.40	-0.48	6.61***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22	4.13	4.09	4.03	3.3*	0.05	0.03	0.04	0.05	0.09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8	3.90	3.95	3.84	1.5	-0.19	-0.20	-0.10	-0.14	4.53**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26	4.17	4.13	4.07	3.42*	0.09	0.07	0.08	0.09	0.08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26	4.17	4.13	4.11	2.86*	0.08	0.08	0.08	0.13	0.45
(11) 사회 구성원이 (~)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28	4.12	4.08	3.99	7.28***	0.10	0.02	0.03	0.01	2.44
(12) 사회 구성원이 (~)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4.07	3.95	3.91	3.84	4.06**	-0.11	-0.15	-0.14	-0.15	0.46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18	4.16	4.09	4.13	2.2	0.00	0.06	0.04	0.15	3.1*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4.50	4.43	4.31	4.29	10.09***	0.32	0.33	0.26	0.30	3.48*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4.21	4.20	4.14	4.10	1.61	0.04	0.10	0.10	0.12	1.27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43	4.42	4.32	4.25	6.4***	0.25	0.32	0.27	0.26	2.63*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18	4.13	4.08	3.99	3.02*	0.00	0.03	0.03	0.00	0.69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4.09	3.99	3.96	3.83	4.67***	-0.08	-0.11	-0.09	-0.16	0.99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20	4.11	4.06	4.00	4.16**	0.03	0.01	0.02	0.02	0.22
평균	4.18	4.10	4.05	3.98	7.04***					

주: 1) 오른쪽 열의 평균과의 차이는 전체 19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해당 문항의 차이를 의미함.
2)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2-7〉은 교육 수준 및 이념 성향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19개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평가 경향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문항에서는 항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수준별로 볼 때, 중졸 이하 학력자는 'q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 'q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q7,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q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q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q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q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q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q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 문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통합 요건에 대해서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들은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들에서도 강조하는 바의 대략적인 경향은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유의한 집단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즉 지향의 흩어짐이 발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념 성향별로 볼 때, 보수적인 이들은 'q2, 경제적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q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과 'q9~q11'의 일부 사회적 자본 영역, 'q17~q19'의 갈등 관리 영역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대로 진보적인 이들은 'q3~q4'의 집단 간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q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q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q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q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념적으로 중도적 입장에 있는 이들은 'q13~q17'의 사회적 이동성 영역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통합의 중요도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들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진보적인 이들은 차별과 격차의 해소와 다양성의 인정에, 중도적인 이들은 사회적 이동성의 확보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교육 수준, 이념 성향에 따른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단위: 점)

구분	교육수준			F (유의도)	이념성향			F (유의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3.98	3.90	3.84	5.12**	3.86	3.91	3.86	1.45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14	4.07	4.00	5.37**	4.08	4.08	3.96	5.16**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3	3.78	3.79	0.81	3.69	3.82	3.76	5.03**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12	4.16	4.12	0.75	4.12	4.15	4.14	0.37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08	4.10	4.09	0.23	4.05	4.13	4.07	2.63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58	3.62	3.64	0.66	3.59	3.63	3.63	0.58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21	4.09	4.12	3.79*	4.16	4.13	4.05	3.16*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6	3.90	3.95	1.01	3.88	3.97	3.90	3.18*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23	4.12	4.16	2.95	4.17	4.17	4.10	1.74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9	4.15	4.16	0.41	4.17	4.17	4.11	1.28
(11) 사회구성원이 (~)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18	4.08	4.12	2.52	4.14	4.12	4.06	2.11
(12) 사회 구성원이 (~)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97	3.92	3.95	0.55	3.93	3.96	3.89	1.56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08	4.13	4.15	1.60	4.08	4.17	4.09	4.44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4.38	4.37	4.39	0.41	4.38	4.39	4.35	0.72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4.21	4.14	4.19	2.01	4.15	4.19	4.16	0.66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40	4.35	4.37	0.68	4.37	4.37	4.34	0.57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15	4.09	4.12	1.15	4.12	4.12	4.06	1.32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4.08	4.00	3.91	7.81***	3.99	4.00	3.90	3.35*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15	4.08	4.09	1.44	4.12	4.11	4.03	2.50
평균	4.11	4.07	4.08	0.98	4.07	4.10	4.04	2.58

주: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나. 사회인식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5]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현재, 10년 전 과거, 10년 후 미래 세 시점에서 평가, 예측해 본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배려와 포용의 사회'보다는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79점). 10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보다 1.23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미래에 조금 더(+0.23점) 포용 사회가 되지만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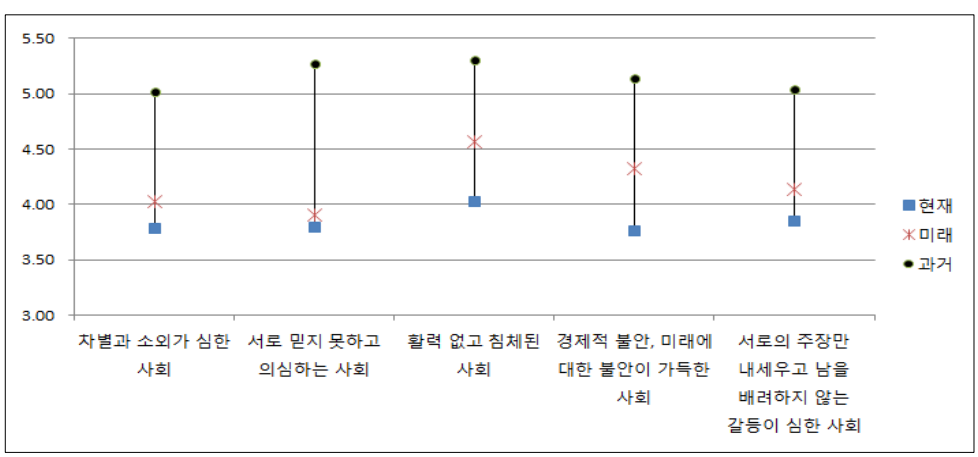
둘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보다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80점). 응답자들은 10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보다 1.47점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0.11점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셋째,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라기보다는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4.03점). 응답자들은 10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보다 1.27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는 0.53점 개선될 것이라 보았다.

넷째,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보다는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76점). 이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다섯 개 범주의 질문 중 가장 낮은 평가이다. 응답자들은 과거에는 이보다 1.38점 정도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장래에는 0.56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보다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85점). 이는 과거에 비해서 1.19점 부정적 평가로 이동한 것이며, 응답자들은 미래에도 0.29점 개선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림 2-5]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평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2-8〉 응답자 특성별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구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성별	남성	3.71	5.01	3.98	3.77	5.23	3.91	4.00	5.30	4.56	3.72	5.11	4.29	3.80	4.94	4.10
	여성	3.86	5.03	4.07	3.82	5.31	3.90	4.05	5.31	4.57	3.80	5.16	4.35	3.90	5.14	4.17
연령대	20대 이하	3.64	4.75	3.99	3.64	5.18	3.85	4.06	5.23	4.69	3.60	4.96	4.34	3.76	4.93	4.24
	30대	3.54	4.85	3.76	3.60	5.06	3.70	3.88	5.26	4.38	3.54	5.01	4.08	3.70	4.92	3.95
	40대	3.79	5.04	4.21	3.85	5.27	4.01	3.91	5.31	4.52	3.71	5.16	4.31	3.81	5.01	4.11
	50대	3.91	5.18	4.04	3.90	5.35	3.92	4.04	5.30	4.49	3.92	5.17	4.33	3.97	5.11	4.12
	60대 이상	4.07	5.28	4.14	4.00	5.49	4.04	4.25	5.45	4.75	4.04	5.40	4.54	4.00	5.24	4.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3	5.28	4.08	3.94	5.49	3.86	4.07	5.38	4.56	3.94	5.35	4.45	3.98	5.30	4.11
	고졸	3.81	5.09	4.04	3.87	5.33	3.95	4.12	5.30	4.64	3.82	5.14	4.38	3.93	5.10	4.21
	대졸 이상	3.67	4.83	3.99	3.66	5.12	3.87	3.91	5.29	4.48	3.62	5.04	4.21	3.71	4.87	4.06
주관적 계층	하층	3.43	4.83	3.69	3.53	5.11	3.64	3.71	5.17	4.34	3.60	5.08	4.09	3.64	4.98	3.91
	중하층	3.69	5.00	3.92	3.65	5.20	3.75	3.93	5.30	4.46	3.67	5.10	4.18	3.73	4.99	3.96
	중간층	3.97	5.08	4.22	3.97	5.36	4.09	4.19	5.33	4.71	3.86	5.18	4.50	4.00	5.11	4.33
	중상층, 상층	3.80	5.06	3.96	3.97	5.39	4.03	4.10	5.46	4.61	3.92	5.13	4.35	3.89	4.93	4.25
가구소득 (n=3,667)	200만 원 미만	3.78	5.18	3.88	3.80	5.36	3.80	4.08	5.34	4.49	3.90	5.27	4.30	3.94	5.21	4.01
	200만 원대	3.86	5.08	4.08	3.70	5.32	3.81	4.00	5.33	4.65	3.70	5.07	4.27	3.77	5.06	4.10
	300만 원대	3.68	4.89	3.98	3.69	5.20	3.90	3.96	5.30	4.62	3.66	5.08	4.43	3.79	5.00	4.30
	400만 원대	3.89	5.05	4.11	3.93	5.29	3.95	4.07	5.24	4.46	3.77	5.25	4.29	3.94	5.04	4.09
	500만 원 이상	3.76	4.96	4.08	3.84	5.23	3.99	4.02	5.32	4.59	3.77	5.08	4.31	3.82	4.96	4.13

구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5	4.93	3.97	3.80	5.19	3.94	4.04	5.21	4.56	3.75	5.09	4.31	3.87	4.95	4.2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83	4.96	3.97	3.82	5.38	3.85	4.16	5.26	4.66	3.85	5.09	4.40	3.96	5.19	4.09
	고용주, 자영자	3.78	5.10	3.97	3.84	5.35	3.89	3.86	5.37	4.44	3.74	5.22	4.24	3.82	5.07	3.98
	무급가족종사자	4.15	5.19	4.33	4.01	5.40	4.36	3.80	5.17	4.62	3.71	5.03	4.25	3.98	4.91	4.19
	실업자	3.46	4.64	4.08	3.34	4.96	3.72	3.91	5.44	4.54	3.46	4.71	4.09	3.57	4.53	4.01
	비경제활동인구	3.83	5.10	4.13	3.79	5.28	3.88	4.11	5.38	4.62	3.78	5.19	4.39	3.82	5.12	4.19
직업 (n=2,446)	관리자 전문가	3.40	4.68	3.91	3.45	4.91	3.87	3.82	5.15	4.56	3.32	5.02	4.13	3.47	4.80	4.11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3.82	5.00	3.93	3.89	5.31	3.90	4.05	5.30	4.51	3.83	5.13	4.29	3.93	5.05	4.10
	숙련 및 기술직 (군인 포함)	3.80	5.19	4.02	3.71	5.35	3.93	3.86	5.27	4.59	3.73	5.15	4.32	3.85	5.07	4.12
	단순노무종사자	3.98	4.96	4.35	4.08	5.32	4.16	4.12	5.16	4.63	3.97	5.25	4.55	4.03	5.04	4.26
이념성향	보수적	4.01	5.18	4.23	3.98	5.45	4.07	4.18	5.47	4.77	4.03	5.38	4.63	4.05	5.13	4.40
	중도적	3.77	4.99	4.05	3.75	5.19	3.91	3.99	5.27	4.53	3.69	5.05	4.21	3.79	5.02	4.08
	진보적	3.52	4.88	3.70	3.65	5.22	3.65	3.91	5.18	4.37	3.58	5.03	4.19	3.71	4.95	3.90
평균		3.79	5.02	4.03	3.80	5.27	3.90	4.03	5.31	4.56	3.76	5.14	4.32	3.85	5.04	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2.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인식 구조의 영향 분석

가. 사회 인식과 사회통합 평가

〈표 2-9〉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통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리 사회를 포용, 신뢰, 역동적, 희망, 협조의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는 양호하였다. 사회통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식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때, 포용 사회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했으며, 역동적 사회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역동적 사회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 상실은, 역동적 사회 인식과 희망 사회 인식이 매우 강한 상관관계(R^2 =.70)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는 포용 사회 인식, 협조 사회 인식, 희망 사회 인식, 신뢰 사회 인식의 순서로 영향력이 높았다.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네 차원의 설명력은 22.3%였다.

〈표 2-9〉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사회 인식의 회귀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포용 사회 인식	0.450*** (0.016)					0.307*** (0.022)	0.279*** (0.023)	0.254*** (0.023)	0.242*** (0.023)	0.241*** (0.022)
신뢰 사회 인식		0.421*** (0.017)				0.210*** (0.022)	0.158*** (0.024)	0.118*** (0.024)	0.071** (0.025)	0.068** (0.025)
역동적 사회 인식			0.364*** (0.017)				0.110*** (0.021)	0.012 (0.024)	-0.012 (0.024)	
희망 사회 인식				0.388*** (0.015)				0.185*** (0.022)	0.126*** (0.023)	0.121*** (0.022)
협조 사회 인식					0.420*** (0.016)				0.159*** (0.024)	0.157*** (0.024)
상수	2.478*** (0.067)	2.583*** (0.069)	2.716*** (0.073)	2.724*** (0.064)	2.566*** (0.067)	2.224*** (0.072)	2.081*** (0.076)	2.029*** (0.076)	1.959*** (0.076)	1.950*** (0.074)
N	3,669	3,669	3,668	3,669	3,669	3,669	3,668	3,668	3,668	3,669
R2	0.173	0.150	0.116	0.149	0.161	0.192	0.198	0.214	0.223	0.223

주: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나.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 인식과 사회통합 평가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19개 문항을 이용하여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설정한 하위 영역을 각 문항이 적절히 확인하고 있는지를 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사회적 포용의 영역은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추출 결과,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경우를 판단하면 1개, 누적 공통성 값이 0.8에 근접하는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면 3개의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7] KMO 값은 .834로 나타났다. 〈표 2-10〉은 누적 공통성 값 기준에 의해 추출된 3개 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성분1은 사회적 포용의 측정 중에서도 격차의 축소와 관련된 요소로, 주성분2는 빈곤의 해결 또는 풍요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관련 요소로, 주성분3은 다양성의 인정과 관련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0〉 사회적 포용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구분	Comp1	Comp2	Comp3	Unexplained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0.074	0.665	-0.017	0.253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0.054	0.740	0.026	0.210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0.130	-0.028	0.637	0.275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0.689	-0.068	0.086	0.212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0.702	0.063	-0.101	0.223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0.090	0.029	0.759	0.214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영역도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앞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2개의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 값은 .868로 나타났다. 〈표 2-11〉은 추출된 2개 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성분1은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협조적 삶에 관한 것으로, 주성분2는 투표에 참여하고,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사회적 규범의 준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은 2개의 주성분에 거의 유사한 속성으로 분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사회 구성원이 투표

7)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축약에서는 2개 또는 3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2개의 주성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주성분을 도출한 결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별개의 주성분으로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추출된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구분	Comp1	Comp2	Unexplained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0.354	0.203	0.410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0.078	0.511	0.384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0.120	0.758	0.166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0.309	0.307	0.315
(11) 사회 구성원이 (~)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0.566	-0.004	0.230
(12) 사회 구성원이 (~)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0.662	-0.171	0.214

다음으로 사회적 이동의 영역은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개의 주성분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앞서의 기준에 따라 누적공통성이 .8을 초과하도록 2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KMO 값은 .802로 나타난다. 주성분1은 결과의 평등에 좀 더 가까운 내용으로, 주성분2는 기회의 평등 중에서도 교육 기회에 더 집중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추출된 주성분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사회적 이동 관련 문항의 주성분 도출 결과(Varimax Rotate 결과)

구분	Comp1	Comp2	Unexplained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0.065	0.907	0.076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0.368	0.380	0.291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0.725	-0.167	0.213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0.579	0.071	0.283

마지막으로 갈등 관리의 영역은 3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경우는 1개의 주성분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KMO 값은 .724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갈등 관리 영역에서는 별도의 주성분 도출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사회통합 하위 요소의 중요도와 사회통합 평가의 관

계를 살펴본다. 먼저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별로 도출한 주성분을 이용하여 영역별 중요도 평가점수를 각 영역의 점수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영역별 중요도 평가 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적 배제	0.000	1.028	-4.345	1.570
사회적 자본	0.000	1.342	-5.755	1.721
사회적 이동	0.000	1.129	-5.451	1.228
갈등 관리	0.000	1.535	-6.024	1.844

〈표 2-14〉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각 하위 영역이 중요하다고 할 때, 사회통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의 각 하위 영역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다른 영역과 달리 사회적 포용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의 영역을 통제할 경우에는 사회적 포용 영역의 설명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단계적으로 사회적 이동을 통제할 경우에도 나타난다. 최종적으로는 네 영역을 투입하였을 경우, 사회적 이동에 대한 높은 강조는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낮은 평가를, 사회적 포용에 대한 강조는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양호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대적 중요도의 정도에서 사회적 이동의 영역에 대해서 훨씬 강조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4〉 사회통합 평가에 대한 사회통합 요소 중요도의 회귀분석

구분	(1)	(2)	(3)	(4)	(5)	(6)	(7)
사회적 포용	-0.005 (0.029)				0.133*** (0.040)	0.212*** (0.041)	0.204*** (0.042)
사회적 자본		-0.086*** (0.022)			-0.156*** (0.030)	-0.029 (0.035)	-0.039 (0.037)
사회적 이동			-0.189*** (0.026)			-0.283*** (0.038)	-0.294*** (0.041)
갈등관리				-0.064** (0.020)			0.024 (0.032)
상수	4.182*** (0.030)	4.182*** (0.030)	4.182*** (0.030)	4.182*** (0.030)	4.182*** (0.030)	4.182*** (0.030)	4.182*** (0.030)
N	3669	3669	3669	3669	3669	3669	3669
R^2	-0.000	0.004	0.014	0.003	0.007	0.021	0.021

주: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다. 사회통합 인식 구조

앞서 우리 국민이 사회통합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적 이동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간단한 구조 모형을 통해서 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 모형의 RMSEA는 .067, CFI는 .932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2-15〉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가치 강조는 낮은 사회통합 평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에 대한 가치 강조는 긍정적인 사회통합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영역이나, 갈등 관리의 영역은 유의한 경로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5〉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구분			Coef.	Std.	Err.	z	P>z [95%	Conf.
q50_1	<-	사회적 포용	0.666	0.018	36.950	0.000	0.631	0.701
q50_2	<-	사회적 포용	0.657	0.015	43.420	0.000	0.627	0.686
q50_3	<-	사회적 포용	0.653	0.015	44.490	0.000	0.624	0.682
q50_4	<-	사회적 포용	0.704	0.014	51.520	0.000	0.678	0.731
q50_5	<-	사회적 포용	0.673	0.016	43.260	0.000	0.643	0.704
q50_6	<-	사회적 포용	0.607	0.016	37.550	0.000	0.575	0.639
q50_7	<-	사회적 자본	0.712	0.014	51.990	0.000	0.685	0.739
q50_8	<-	사회적 자본	0.661	0.015	44.770	0.000	0.632	0.689
q50_9	<-	사회적 자본	0.671	0.015	45.460	0.000	0.642	0.699
q50_10	<-	사회적 자본	0.785	0.012	68.010	0.000	0.763	0.808
q50_11	<-	사회적 자본	0.802	0.010	81.460	0.000	0.782	0.821
q50_12	<-	사회적 자본	0.719	0.012	58.720	0.000	0.695	0.743
q50_13	<-	사회적 이동	0.734	0.013	57.510	0.000	0.709	0.759
q50_14	<-	사회적 이동	0.761	0.013	60.590	0.000	0.736	0.786
q50_15	<-	사회적 이동	0.690	0.015	44.590	0.000	0.659	0.720
q50_16	<-	사회적 이동	0.738	0.013	55.870	0.000	0.712	0.764
q50_17	<-	갈등 관리	0.829	0.009	93.250	0.000	0.811	0.846
q50_18	<-	갈등 관리	0.773	0.013	58.010	0.000	0.747	0.799
q50_19	<-	갈등 관리	0.873	0.008	103.400	0.000	0.856	0.889
사회통합 평가	**<-**	**사회적 포용**	**0.180**	0.043	4.180	**0.000**	0.095	0.264
사회통합 평가	<-	사회적 자본	0.000	0.064	0.000	0.997	-0.125	0.126
사회통합 평가	**<-**	**사회적 이동**	**-0.331**	0.054	-6.090	**0.000**	-0.438	-0.225
사회통합 평가	<-	갈등 관리	0.076	0.067	1.150	0.251	-0.054	0.207
_cons			2.301	0.036	64.290	0.000	2.231	2.371

3. 사회통합 인식 구조의 집단 간 차이

가. 군집의 구분과 군집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를 기준으로 한 인식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나 인식 구조를 반영하는 적절한 군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자료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사 자료에는 응답자들의 응답 성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는 ③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는 반면, 어떤 응답자는 ⑤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답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치를 각 개별 응답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개별 응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이용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전체적인 응답의 경향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이동에 해당하는 질문 13, 14, 15, 16번을 더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0.6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은 0.8점 더 평균보다 강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취,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투표 참여, 다양한 관계 맺음, 정부의 갈등 조정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얻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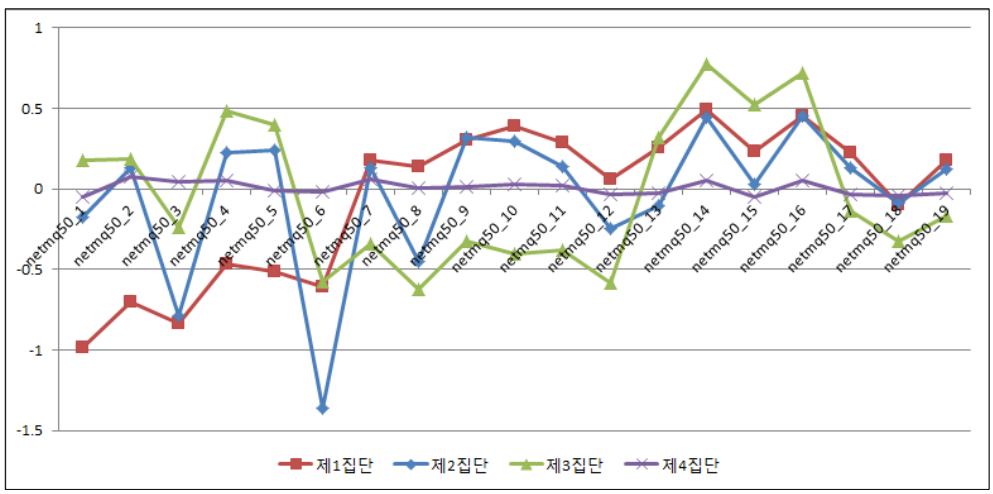
〈표 2-16〉 문항별 응답 평균과의 차이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		갈등관리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0.193	(7)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0.041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0.048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0.027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0.025	(8) 사회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0.149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0.298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0.101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0.306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0.077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0.090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0.014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0.059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0.081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0.287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0.014	(11) 사회구성원이 (~)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0.033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0.459	(12) 사회구성원이 (~)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0.139				

주: 각 문항의 평균점수에서 전체 평균 4.11점을 제외한 값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측정된 상대적 중요도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을 한 결과 Duda-Hart의 Pseudo T-squared 값 검증에서는 4개의 군집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은 이 기준에 의해 도출된 4개 군집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6〕 사회통합 조건 중요도 평가 군집 분석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먼저, 제4집단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균등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집단이다(N=1,861). 이에 이하에서는 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설명한다.

제1집단(N=579)은 다른 2, 3집단에 비해서 질문 7~12('사회적 자본'의 영역)에 일관성 있게 높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집단은 경제적인 격차를 줄인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제2집단(N=741)은 질문 3(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질문 6(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질문 8(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질문12(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문항은 규범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즉, 가장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회통합을 말하는 의미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러한 집단은 '협소한 의미의 사회통합'에 보다 집중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제3집단(N=488)은 질문 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질문 5(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질문 14~16(노력한 만큼의 대가,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에 대해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는 질문 7~12('사회적 자본'의 영역)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한다. 이 집단의 가치 핵심은 '분배 공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서 상이한 강조점을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적 문제보다는 신뢰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이 존재한다. 둘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과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이 존재한다. 셋째,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다. 물론 이들 세 집단 모두가 사회적 이동에 대한 강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군집 특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이한 사회적 인식의 준거로서 사회경제적 원인을 찾기 위해, 이하에서는 각 군집 구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17〉에서는 분석 결과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사회통합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집단 구분은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집단 간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 변수는 집단 구분을 단순화하였다.

먼저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제4집단 대비 1, 2, 3집단 모두는 사회통합 평가와 우리 사회에 대한 다섯 가지 평가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제1집단은 보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주관적 계층으로는 중간층 및 이상,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양호해졌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낮은 편인 집단이다. 이념적 성향으로도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2집단은 협소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집단으로, 남성, 고연령, 저학력, 주관적 계층으로는 하층, 또는 중하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념적으로는 중도에 몰려 있다.

제3집단은 분배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집단으로, 젊고, 최근 생활수준의 개선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적은 집단이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표 2-17〉 각 집단의 사회통합 평가와 사회경제적 특징

(단위: 점, %)

구분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단	제4집단	평균
사회통합 평가(평균)		3.82	3.95	3.95	4.45	4.18
포용 사회 인식(평균)		3.63	3.73	3.65	3.90	3.79
신뢰 사회 인식(평균)		3.58	3.68	3.58	3.97	3.80
역동적 사회 인식(평균)		3.82	3.93	3.97	4.14	4.03
희망 사회 인식(평균)		3.59	3.57	3.60	3.94	3.76
협조 사회 인식(평균)		3.54	3.69	3.79	4.03	3.85
성별	남	49.25	51.55	49.28	48.26	49.47
연령	50대 이상	38.26	44.21	34.69	38.46	39.08
학력	대졸 이상	44.36	38.18	40.8	39.59	40.24
주관적 계층	하층	9.46	16.73	12.42	12.37	12.79
	중하층	35.85	39.14	38.1	36.6	37.2
	중간층	48.49	39.31	43.99	45.69	44.63
	중상층, 상층	6.21	4.82	5.49	5.34	5.39
생활수준 변화	좋아짐	34.61	27.22	25.43	28.09	28.61
사회이동 가능성	높음	45.98	41.7	37.52	41.57	41.76
삶의 만족	보통 이상	54.52	57.39	59.12	60.44	58.69
사회 신뢰	보통 이상	27.56	21.73	19.23	34.84	28.91
이념 성향	보수적	31.95	30.15	26.58	26.12	27.94
	중도적	47.81	50.34	48.56	53.26	51.15
	진보적	20.25	19.51	24.86	20.62	20.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2장은 사회통합의 상태 및 조건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한 한 조건을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는 사람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판단 기준에서 사회통합의 가치상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사회통합에 대해서 이념집단이나 계층집단에 따라 다른 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일부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이론적 가치체계에 따른 체계적 연구 설계를 통해, 사회통합의 인식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정도에 대한 평가, 한국 사회의 모습을 포용(배제), 신뢰(불신), 역동적(침체된), 희망(불안), 협조(갈등)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사회통합의 요건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 갈등 관리의 네 개 영역에 19개 문항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를 평균 4.18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보통보다 낮은 상태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포용 사회, 협조 사회라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둘째,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실제의 사회의 모습 간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 인식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포용 사회 인식, 협조 사회 인식, 불안 사회 인식, 신뢰 사회 인식의 순서로 영향력이 높았다. 우리 사회가 포용의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협조하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통합 요소의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사회적 포용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이동성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 포용의 차원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중요한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통합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 상이한 인식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네 집단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문제보다는 신뢰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과 사회적 이동에 강조를 두는 집단,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분배 공정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대표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 이동성을 더 강조하는 집단, 현재 수준의 경제적 성취 이후에는 사회 규범적 자본의 형성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집단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가 2015년 발간한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에 대한 실태,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성,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제1절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제2절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제3절 소결

3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제1절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1. 사회통합 수준의 측정 지표

그동안 수행된 많은 사회통합 관련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사회통합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다. 연구자들은 각기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사회통합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 대상국가 및 활용 자료 등에 따라 사회통합의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사회통합을 일련의 '과정'(동태적 정의)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상태'(정태적 정의)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측정지표 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해식, 2014, p.8). 만약 사회통합을 어떤 조건이나 궁극적 상태가 아닌 "한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고,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Jenson, 1998, p.4)으로 정의한다면 사회통합 수준의 측정이 쉽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을 과정으로 볼 경우 궁극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즉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나 시기별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합을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측정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사회통합을 '상태'로 규정하고 측정지표를 구성한 연구로는 Chan et al.(2006, p.29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신뢰, 소속감, 참여와 도움의 의지, 행동적 의사표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주관적 마음의 상태는 객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김미곤 등, 2014, p.31).

〈표 3-1〉 사회통합 상태 지표의 예: Chan, To and Chan(2006)의 사회통합의 측정 방법

구분	주관적 요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객관적 요소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표상)
수평적 차원 (시민 사회 내에서의 통합)	동료 시민에 대한 일반 신뢰	사회적 참여 및 시민사회의 공명
	동료 시민(다른 사회적 집단을 포함하여)에 협조하고 도움을 줄 의지	자원봉사와 기부
	소속감 또는 정체성	주요 집단 간의 동맹과 분열의 존재/부재
수직적 차원 (국가-시민의 통합)	공인에 대한 신뢰	정치 참여(투표, 정당 등)
	정치 및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자료: Chan, To & Chan(2006). p.294.

그러나 사회통합을 '과정'이 아닌 '상태'로 측정할 때에도 사회통합의 상태만 볼 것인지, 조건을 함께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통합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태와 더불어 조건의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건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Berger-Schmitt(2000)의 사회통합 전략 목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조건지표를 포함하는 연구들은 조건과 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축소, 사회자본의 증진 등을 사회통합의 원인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지만, 이를 사회통합의 결과로 보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의 조건, 즉 불평등이 사회통합의 원인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다 하더라도, 사회통합을 상태로 보는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와 그 조건(원인) 및 결과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야 함이 강조된다(노대명, 2010, p.30).

〈표 3-2〉 사회통합 조건 지표의 예: Berger-Schmitt(2000)의 두 가지 사회통합 전략 목표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의 감소	사회적 자본의 강화
- 지역 간 격차 - 동등한 기회(성별, 세대간, 사회계층/집단 간 등) - 사회적 배제	- 사회적 관계의 이용 가능성 - 사회적 관계의 질 - 사회적·정치적 활동 및 참여 - 사회제도의 질

자료: Berger-Schmitt(2000), pp.21-22.

사회통합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신욱 등(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지표를 '상태'와 '조건'으로 구분하되, '상태'지표는 사회적 결속력 지표로, '조건'지표는 사

회적 안정성 지표와 사회적 형평성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표의 규범적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건지표인 사회적 안정성 지표에는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는 위험(비사회적 위험 포함)의 정도나 그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근본적 역량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하고, 사회적 형평성 지표에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나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별 상태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3〉 강신욱 등(2012)의 사회통합 지표

사회적 결속 지표(10개)	사회적 안정성 지표(6개)	사회적 형평성 지표(7개)
선거 참여	1인당 GDP	소득 불평등
선거 외 참여	부양인구비율	빈곤율
정치적 관심	자살률	고용률
사회참여	1인당 CO_2 배출량	실업률
집단 간 관계	기대 수명	고용보호의 정도
일반 신뢰	주관적 건강상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기관 신뢰		공공사회지출 비중
부패 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본장은 사회통합의 국제 비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표의 구성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주로 사회통합 상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사회통합의 조건지표 일부 역시 포함하고자 한다. 다만, 서베이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건지표(사회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포함되는 지표 역시 사회통합의 상태지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한 지표를 포함한다. 삶의 만족도, 안전 및 건강 상태 인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는 상태지표로서 사회적 결속력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수준과 조건지표로서 사회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안전 및 건강 인식, 사회적 형평성을 나타내는 정부의 역할 인식 등 총 22개의 지표를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3-4〉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 체계

구분		영역	지표
상태 지표	사회적 결속력 지표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가구 소득 만족도
			개인 소득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도
		신뢰 및 갈등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의 이타심 인식
			타인의 공정성 인식
			성공 관련 부패 인식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빈부 갈등 인식
			노사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의 인식
			친교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 정도
			정치적 관심도
조건 지표	사회적 안정성 지표	안전 및 건강 인식	안전 인식
			최근 5년 위해 경험
			건강 상태 인식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사회적 형평성 지표	정부의 역할 인식	소득 격차 완화 노력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

2. 사회통합 수준의 국가 간 비교 자료

최근 사회통합의 국제 비교를 위해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민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각국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 동일한 모듈을 이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서베이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일부 기관에서는 각국의 관련 서베이 자료 및 관련 거시 자료를 모아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재가공하고 이를 공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와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urvey: EVS),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Social Program: ISSP),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갤럽국제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국제국가위험도가이드(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 재가공해 제공하고 있는 독일의 베텔스만(Betelsmann)재단의 자료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민 인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최근 시점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국외 서베이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ESS 자료를 비교를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ESS 자료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OECD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8]가 있으나, 비교의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과 본 조사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비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다.[9] ESS(Round7)는 2014년 기준 조사 자료이며, 유럽의 21개국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 본 분석에서는 그중 4개국(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을 제외한 17개국을 비교 대상국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부 사회통합의 국민 인식 상태 진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의 비교가 ESS를 통해 비교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예로 부패 및 갈등 인식 등의 지표들은 ISSP(social inequality 모듈) 자료와 베텔스만재단의 데이터셋(wave 4)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위 자료들은 비록 비교 시점의 차이가 4~7년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인식 수준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ISSP 자료는 한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2009년 상태와 2016년(본 조사)의 인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와 해당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8) 일본과 미국 등의 OECD 국가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사회 인식의 비교를 위한 국제 자료로는 ISSP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 사회통합의 지표로 삼은 일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ISSP 모듈의 이용 가능한 최종 연도가 Social Inequality는 2009년, Social Networks는 2001년으로 비교 시점의 차이가 커 활용할 수 없었다.

9) 단, 일부 지표의 경우, OECD.Stat를 활용하여 OECD의 평균과 미국, 일본 등의 수준을 주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표 3-5〉 사회통합 비교 지표 및 이용 자료

영역	지표	본 연구의 조사 문항	비교 자료 (기준년도)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가구 소득 만족도	요즘 귀댁의 소득에 대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느끼십니까?	ESS (2014)
	개인 소득 만족도	귀하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SSP (2009)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__님께서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ESS (2014)
	행복도	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안전 및 건강 인식	안전 인식	어두울 때 귀하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혹은 혼자 걷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최근 5년 위해 경험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 동안(2011년~현재)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 상태 인식	대체로 말해서 귀하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신뢰 및 갈등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타인의 이타심 인식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타인의 공정성 인식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성공 관련 부패 인식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ISSP (2009)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베텔스만재단 (2009~2012)
	빈부 갈등 인식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ISSP (2009)
	노사 갈등 인식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의 인식	귀하는 또래와 비교할 때,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ESS (2014)
	친교활동 정도	귀하는 친구,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을 얼마나 자주 친교를 위해(socially) 만나십니까?	
	자원봉사 참여 정도	__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ESS (2012)
	정치적 관심도	__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ESS (2014)
정부의 역할 인식	소득격차 완화 노력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ISSP (2009)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주: 조사 문항 및 척도는 부록의 조사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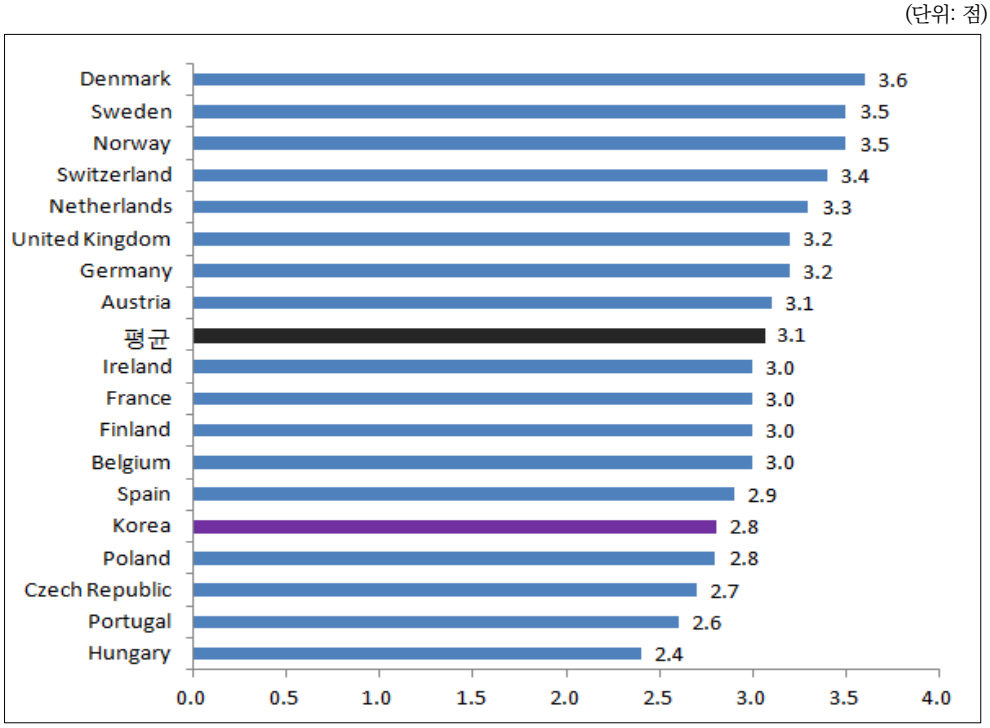
제2절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1.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가구의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을 포함한 비교 대상국 평균이 4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3.6점), 가장 낮은 국가는 헝가리(2.4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2.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코딩한 값을 기준으로 '그럭저럭 살아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한국의 소득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 가구 소득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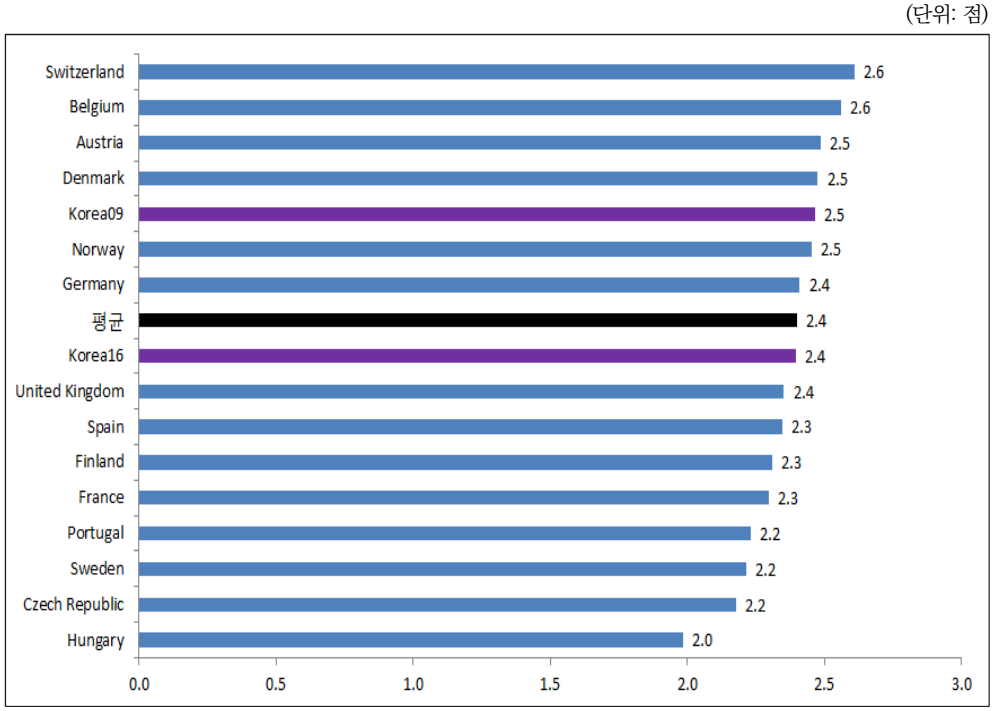


주: 현재 가구 소득에 대해 '①현재 소득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함, ②그럭저럭 살아감, ③생활하기 다소 어려움, ④생활하기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 분석 시 이를 역코딩하여 소득 만족도를 계산.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일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소득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비교 대상국 모두 3.0점 이하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만큼 받고 있다(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교 대상국 평균은 2.4점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적다'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개인소득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2009년 ISSP 자료에 따르면 2.5점이었으며, 2016년 본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 비교의 한계가 있으나 개인의 소득 만족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3-2] 개인 소득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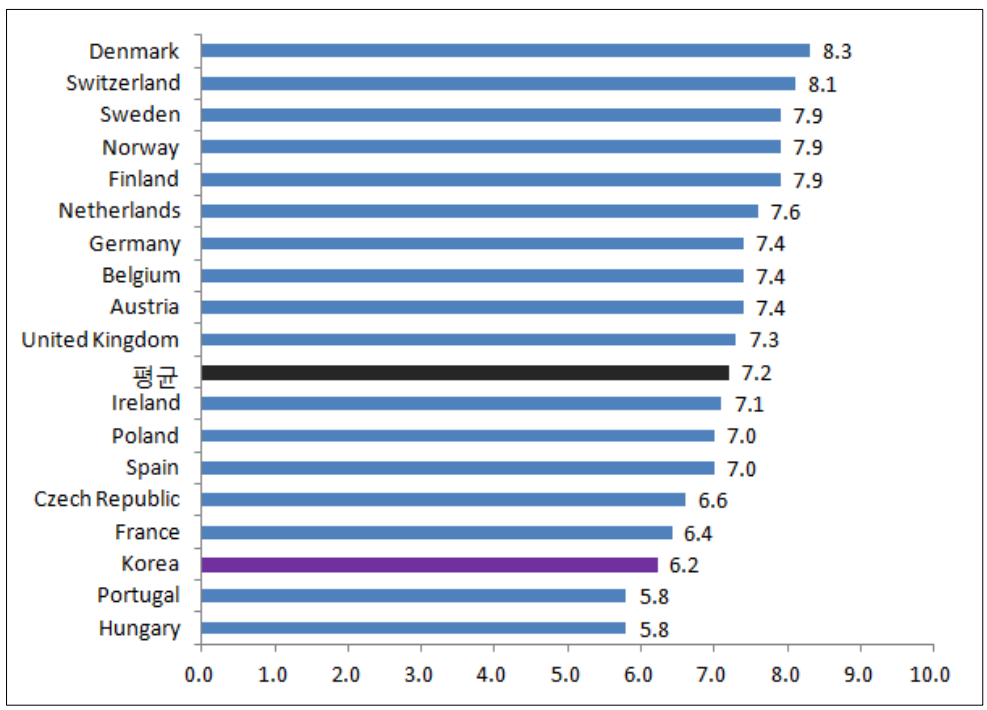
주: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의 개인 소득 만족도에 대해 '①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 ②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적다, ③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만큼 받고 있다. ④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많다, ⑤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로 응답.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ISSP(2009) 원자료.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물은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 대상국 전체 평균은 7.2점이지만, 한국은 6.2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8.3점)이며, 스위스(8.1점),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7.9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만족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듯이, 북유럽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핀란드는 소득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10)]

[그림 3-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⓪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매우 만족한다' 로 응답.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소득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행복도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미곤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행복도와 0.63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연구는 소득의 영향은 선형모형보다 로그모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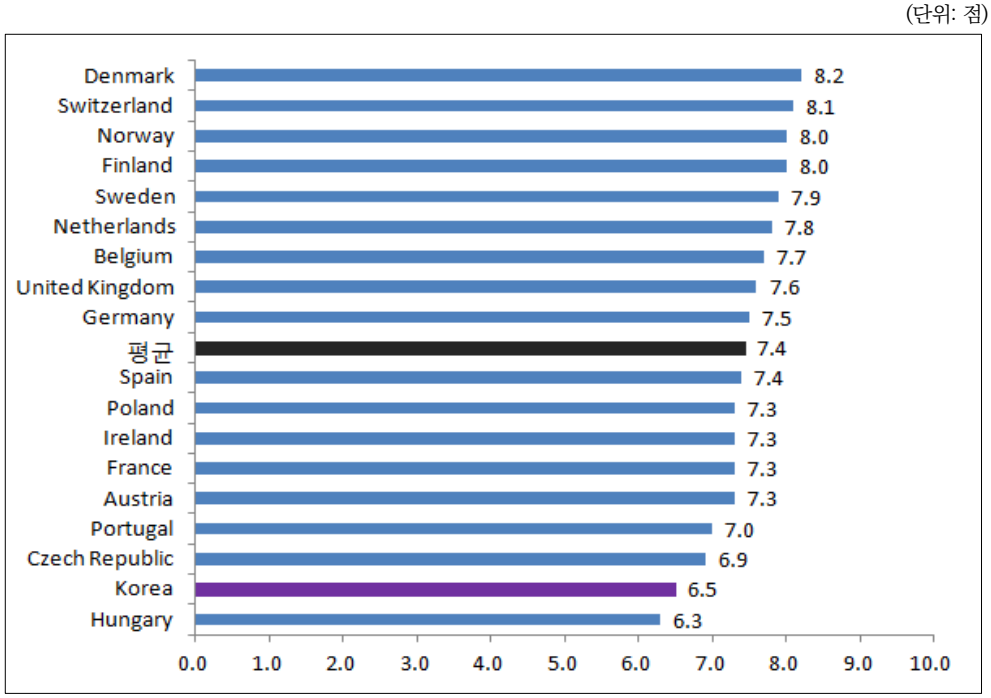
10) OECD Better Life Index(Gallup World Poll, 2015년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질문(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2014년 ESS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 평균은 6.5점, 미국은 6.9점, 일본은 5.9점으로 나타나고, 한국은 이에 못 미치는 5.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Stat, 2016a).

서 설명력이 더 높아 '이스털린'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진 이후에는 행복도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헝가리에 이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 대상국 평균은 7.4점이며,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8.2점)이다. 행복도 역시 소득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행복도

(단위: 점)



주: 1) 행복도에 대해 '⓪전혀 행복하지 않다'~'⑩매우 행복하다'로 응답.
2) 단, ESS(Round7)에서는 질문시점의 행복도를 묻고 있는 반면,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어제'의 행복도를 물음.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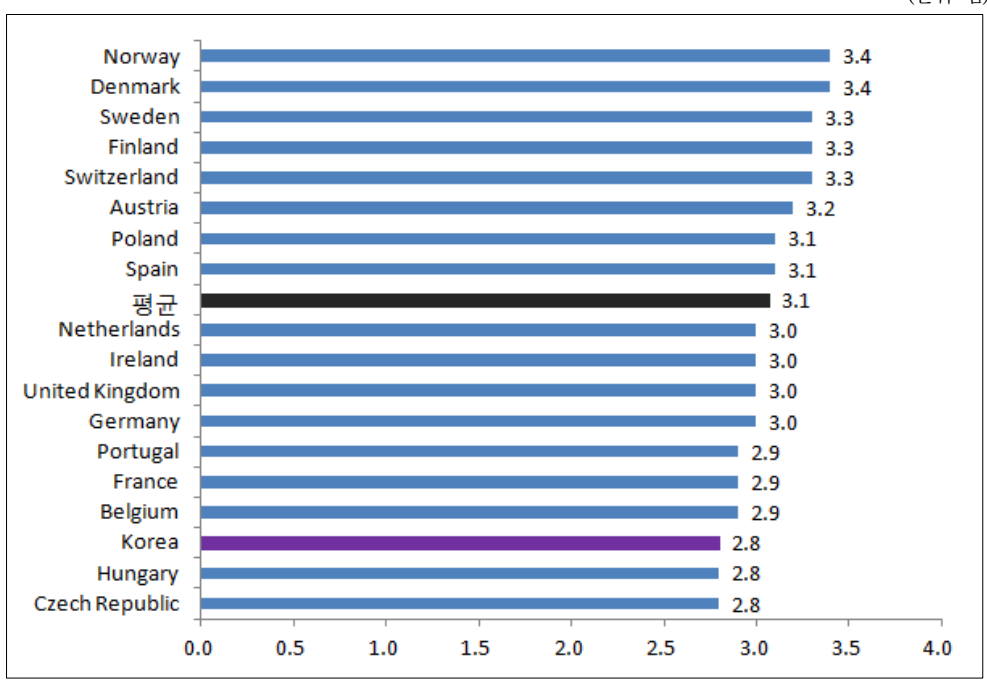
2. 안전 및 건강 인식

한국의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 대한 인식은 비교 대상

국 중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 대상국 전체 안전감 인식 평균은 4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코딩한 값을 기준으로 3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안전하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최하위 2.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덴마크(3.4점)이며,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와 체코가 한국과 같은 수준(2.8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11]

[그림 3-5] 안전 인식

(단위: 점)



주: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계산.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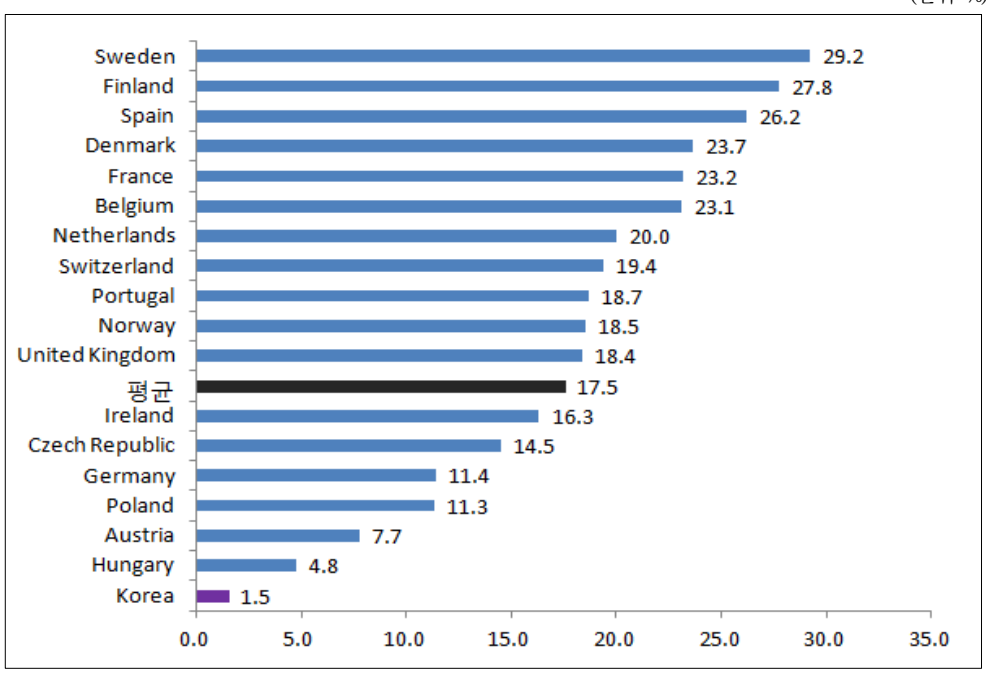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은 최근 5년간의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에 있어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의 평균은 전체 응답자 중

11) OECD Better Life Index(Gallup World Poll, 2015년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질문(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2014년의 ESS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 평균은 68.3%, 일본은 70.2%, 미국은 73.9%로 나타나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67.7%로 나타나고 있다(OECD.Stat, 2016a).

17.5%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체적 위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과 헝가리는 안전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체적 위해 경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적인 위해 경험 여부와 인식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최근 5년간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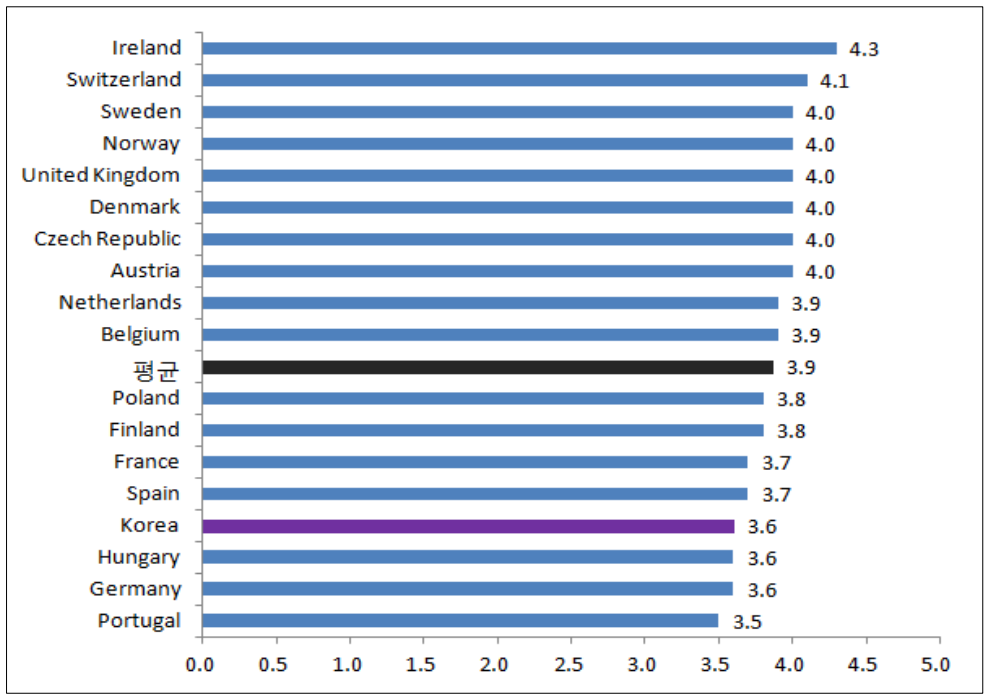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쁘다'가 1점, '매우 좋다'가 5점으로 질문 문항을 역코딩하여 계산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는 점수가 좋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교 대상국의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일반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좋은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이보다 다소 낮은 3.6점이며, 아일랜드가 4.3점으로 가장 높고, 스위스(4.1점), 스웨덴·노르웨이·영국·덴마크·체코·오스트리아는 4점으로 건강 상태에 대해 대체로 '좋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그림 3-7〕 건강 상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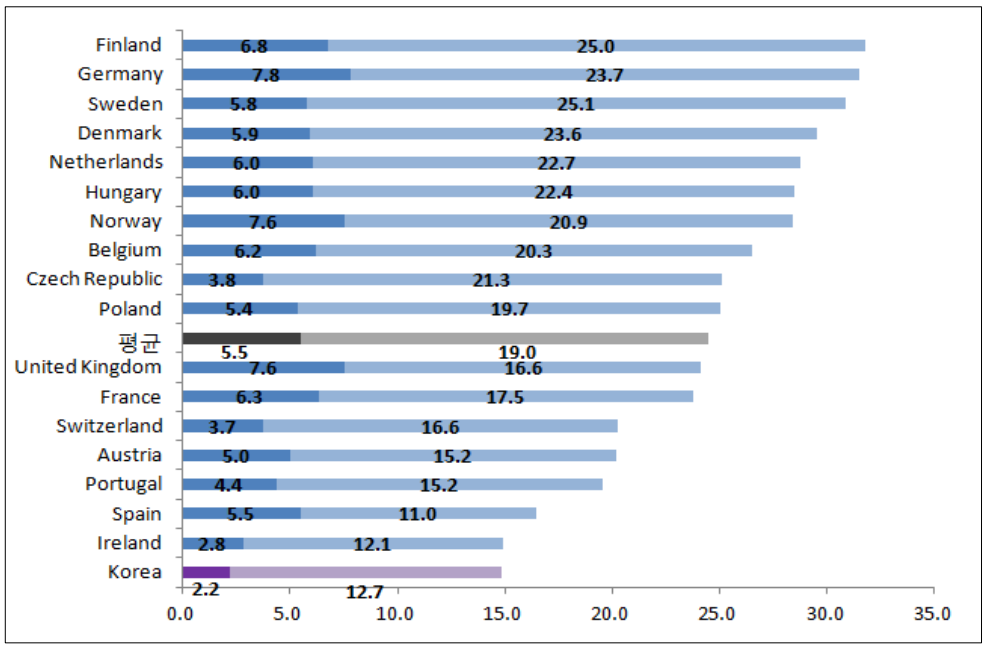
주: 건강상태에 대해 ①매우 좋다~ ⑤매우 나쁘다를 역코딩하여 계산.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반면 건강문제(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비교 대상국 평균이 24.5%로 나타나고 있으며, 핀란드가 31.8%로 가장 높고, 한국은 14.9%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건강 상태 인식의 비교 대상국 간의 상대적 순위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한국은 본인의 건강 상태 인식이 평균 이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건강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의 수준과 유사한 경향으로 인식과 실제 상태와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2) OECD Health Statistics(2014년 기준)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의 ESS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 평균은 9.3%, 일본은 14.5%(2013년 기준), 미국은 2.8%로 나타나고, 한국은 이보다 높은 15.9%로 나타나고 있다(OECD.Stat, 2016b).

〔그림 3-8〕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단위: %)



주: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①매우 그러하다(진한 색)'와 '②어느 정도 그러하다(연한 색)' 응답을 합해 계산.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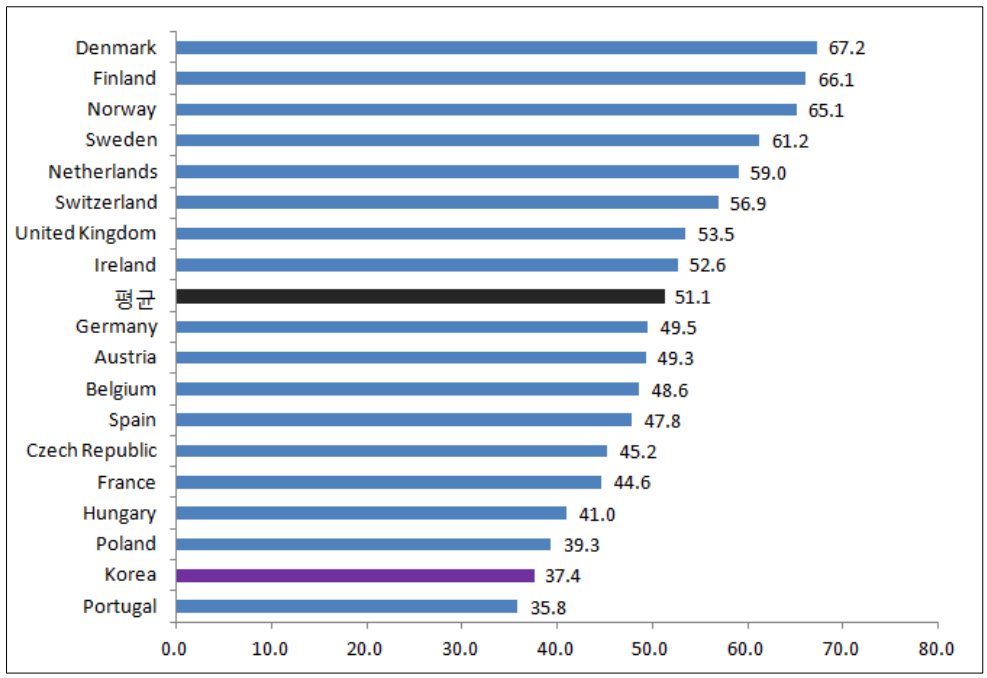
3. 신뢰 및 갈등 인식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아래에 제시하게 될 타인에 대한 신뢰도 등의 인식(신뢰, 공정성, 이타심 문항)은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그 질문에 사용하는 단어와 응답의 척도가 달라 해석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척도가 다른 문제, 즉 본원의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ESS는 11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리커트 척도를 각각 100점으로 치환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은 100점 만점 중 51.1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37.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67.2점)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35.8점)이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타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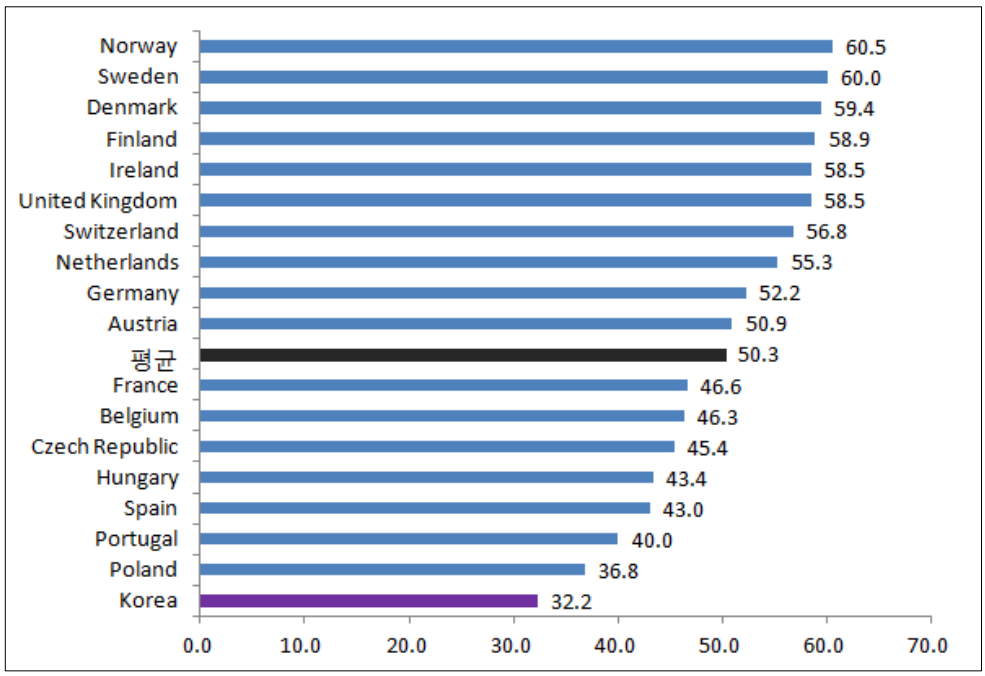


주: 본 원의 실태조사에서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11점 척도로 물음. 이에 다른 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100점으로 환산한 값을 보면, 비교 대상국 평균은 50.3점이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3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6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스웨덴(60.0점), 덴마크(59.4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도 북유럽 국가는 보다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며,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포르투갈 등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 및 이타심 인식 모두 최하위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사회통합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는 관련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대리변수이자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3-10〕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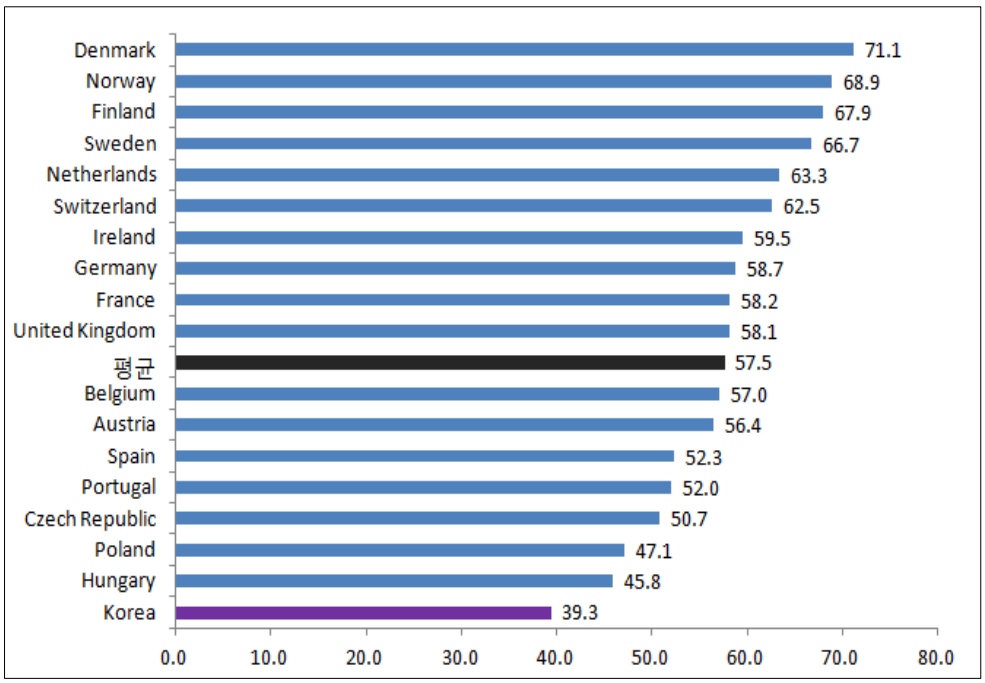


주: 본 원의 실태조사에서는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대부분의 시간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를 살핀다고 생각하십니까?'를 11점 척도로 물음. 이에 다른 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아래의 그림은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 공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 대상국에서 평균 57.5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39.3점으로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71.1점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르웨이(68.9점), 핀란드(67.9점), 스웨덴(66.7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1〕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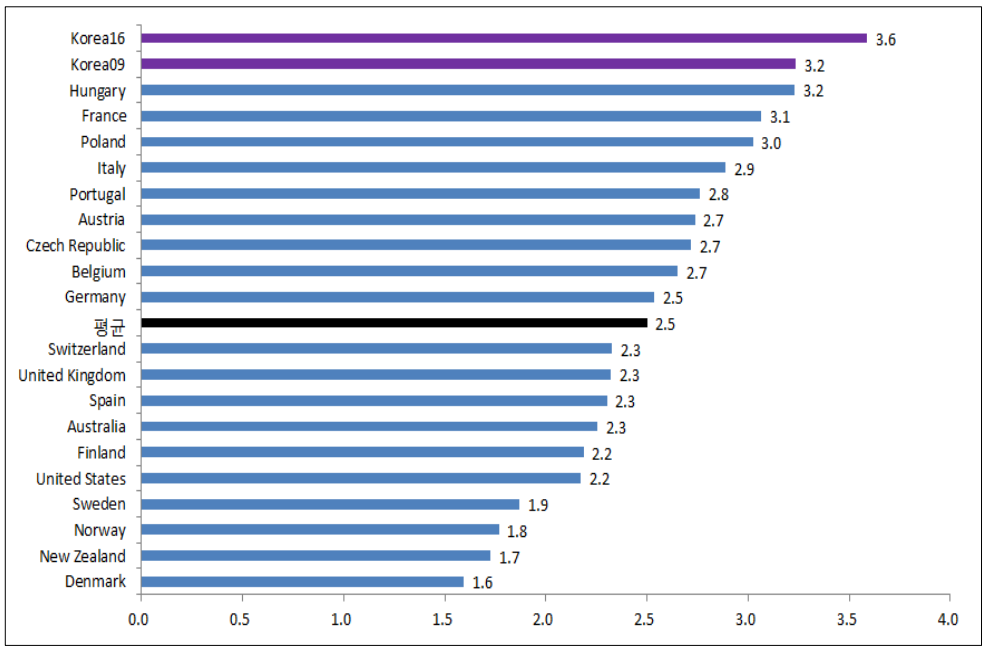
주: 본 원의 실태조사에서는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당신을 이용하려 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11점 척도로 물음. 이에 다른 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또한 성공(높은 지위)과 관련한 부패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각국에서 '오늘날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한국과 헝가리가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덴마크는 1.6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뉴질랜드(1.7점), 노르웨이(1.8점). 스웨덴(1.9점) 등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성공과 부패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헝가리, 프랑스 등은 성공과 부패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비교의 한계가 있으나, 2016년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는 2009년 ISSP 조사 결과보다 0.4점 증가한 3.6점으로 나타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2〕 성공 관련 부패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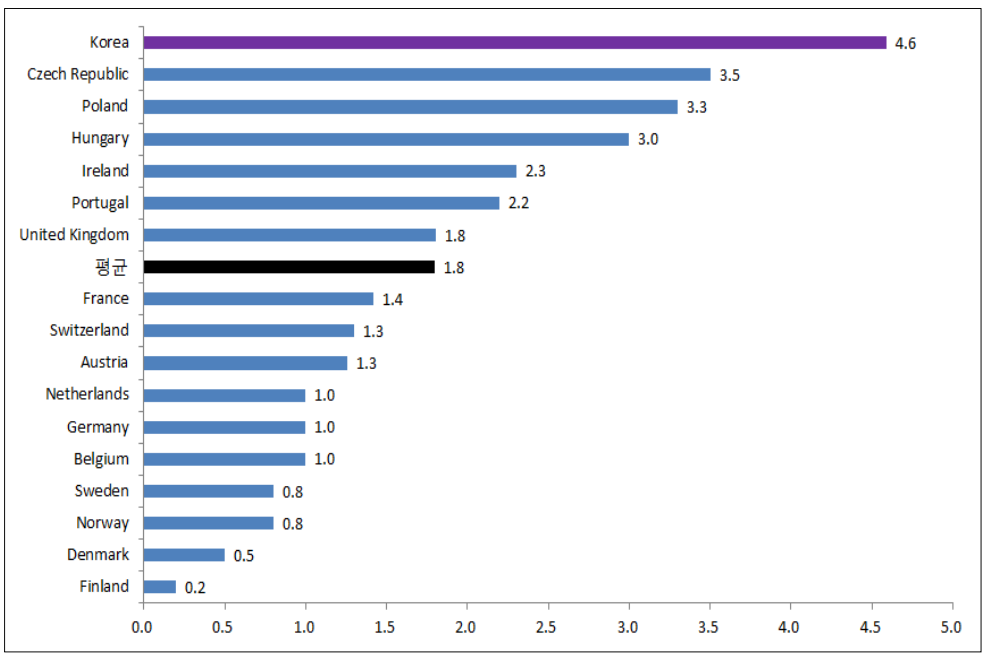


주: 1)'오늘날 [응답자의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①매우 동의한다~⑤매우 반대한다'로 5점 척도 물음. 위 그림은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한 결과임.
2)평균값은 한국의 16년 점수를 제외한 2009년의 비교 대상국 평균값임.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ISSP(2009) 원자료.

정치 영역에서도 한국은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패의 수준을 0~6점 사이로 응답 받은 결과, 조사 시점의 차이가 4~7년으로 비교의 한계가 있지만, 비교 대상국 평균은 1.8점(2009)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4.6점(2016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코(3.5점)와 폴란드(3.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핀란드는 0.2점으로 부패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덴마크(0.5점), 노르웨이(0.8점), 스웨덴(0.8점) 등도 1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정치 영역의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단위: 점)



주: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정도에 대해 '⓪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⑥부패가 매우 심하다' 7점 척도로 응답.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베텔스만재단 data set(2009~2012)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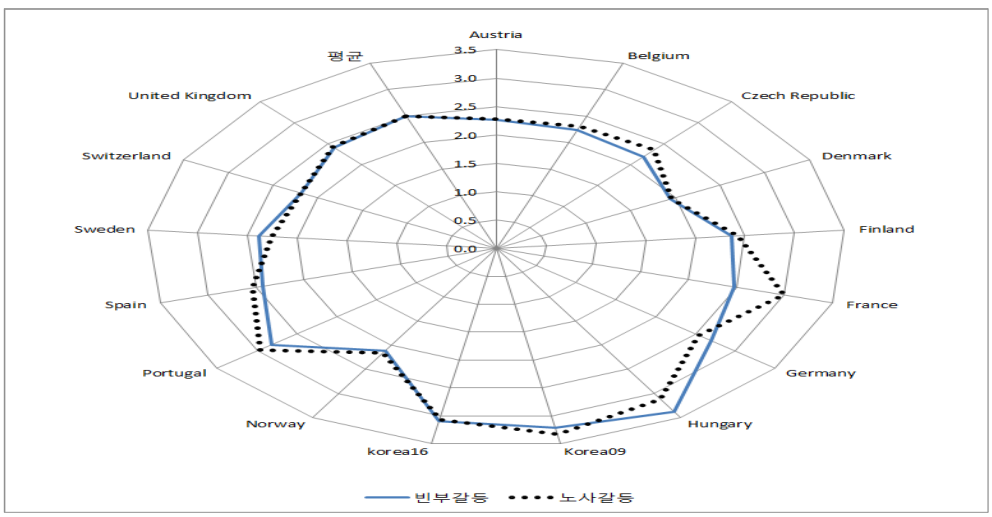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집단들 간 갈등 인식의 수준도 비교 대상국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노사갈등의 수준이 3.3점(2009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빈부갈등의 수준 또한 3.2점(2009년)으로 헝가리(3.4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2016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현재 빈부갈등과 노사갈등 모두 3.1점으로 2009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갈등 인식의 수준도 다른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빈부갈등(1.9점)과 노사갈등(2.0점) 모두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 등도 비교 대상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빈부갈등과 노사갈등 인식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2009년에 노사갈등 인식이 빈부갈등 인식보다 높았으나 2016년 두 갈등 수준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비교 대상국 들은 두 갈등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노사갈등이 약간 더 심각

하다고 인식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스웨덴은 빈부갈등이 노사갈등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갈등 인식

(단위: 점)



주: 1) 사회 집단들(빈부,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로 응답된 자료를 역코딩하여 계산.
2)평균값은 한국의 16년 점수를 제외한 2009년의 비교 대상국 평균값임.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ISSP(2009) 원자료.

4.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본 연구의 1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정해식(2015)의 연구에서는 친목모임 및 취미동호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관련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아닌 사적이고 자발적인 모임 참여가 사회통합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은 본인의 사회활동이 또래들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6.6%로 프랑스(62.7%) 다음으로 높으며, 또래보다 적다는 응답은 32.0%, 또래보다 많다는 응답은 11.4%로 낮게 나타났다. 또래보다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덴마크(22.6%)와 스웨덴(21.0%)이 높으며, 또래보다 적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포르투갈(51.3%)과 벨기에(46.2%)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래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는 비교 국가군 내에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즉, 또래집단보다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은 국가에서 참여가 적다는 응답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래들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응답에 따라 그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사회활동(친목모임, 취미동호회, 각종 클럽활동 등) 참여 정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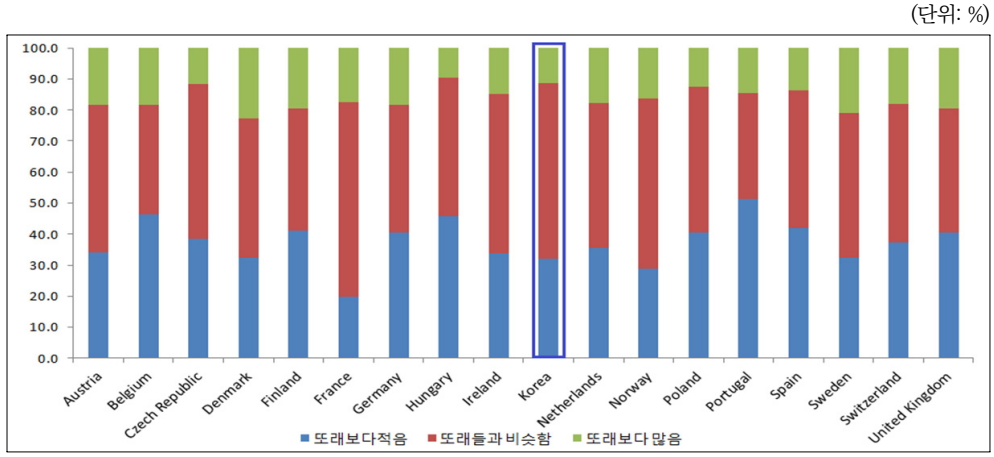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또래보다 훨씬 적음	또래보다 다소 적음	또래보다 적음	또래들과 비슷함	또래보다 많음	또래보다 다소 많음	또래보다 훨씬 많음
Austria	6.9	27.3	34.2	47.6	18.2	15.8	2.4
Belgium	16.3	29.9	46.2	35.3	18.4	14.7	3.7
Czech Republic	15.0	23.4	38.4	50.1	11.5	9.7	1.8
Denmark	5.7	26.5	32.3	45.1	22.6	19.5	3.1
Finland	12.1	29.2	41.2	39.4	19.4	15.1	4.3
France	4.6	15.4	19.9	62.7	17.4	14.0	3.4
Germany	8.1	32.4	40.5	41.2	18.3	16.0	2.3
Hungary	20.4	25.4	45.8	44.7	9.5	7.8	1.7
Ireland	8.9	25.0	33.9	51.3	14.8	13.1	1.8
Korea	10.6	21.3	32.0	56.6	11.4	10.1	1.4
Netherlands	6.4	29.3	35.7	46.6	17.8	15.7	2.1
Norway	5.2	23.7	28.9	54.7	16.4	14.0	2.4
Poland	12.7	28.0	40.6	47.0	12.5	9.5	3.0
Portugal	16.3	35.0	51.3	34.2	14.6	12.3	2.3
Spain	14.7	27.3	42.1	44.2	13.7	11.0	2.8
Sweden	5.6	26.9	32.5	46.5	21.0	18.1	2.9
Switzerland	8.4	28.9	37.2	44.7	18.0	14.8	3.2
United Kingdom	9.1	31.4	40.4	39.9	19.7	16.4	3.2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그림 3-15] 사회활동(친목모임, 취미동호회, 각종 클럽활동 등) 참여 정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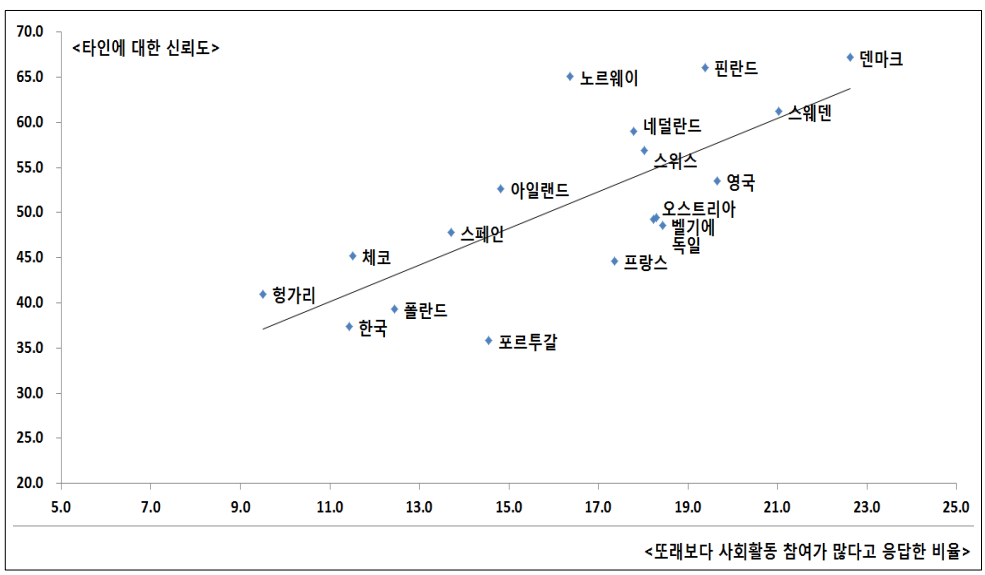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그러나 각국의 사회활동 참여가 또래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또래보다 사회활동 참여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덴마크는 또래보다 사회활동 참여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6] 사회활동참여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다음으로 친목모임이나 취미동호회 활동보다 조금 더 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나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과 친교를 위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한 달에 두어 번' 친교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29.6%로 가장 높으며, '한 달에 1번 정도' 하는 사람은 21.6%,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는 사람이 18.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70% 내외의 사람들이 '한 달에 두어 번',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친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일 친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국이 2.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친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친교 활동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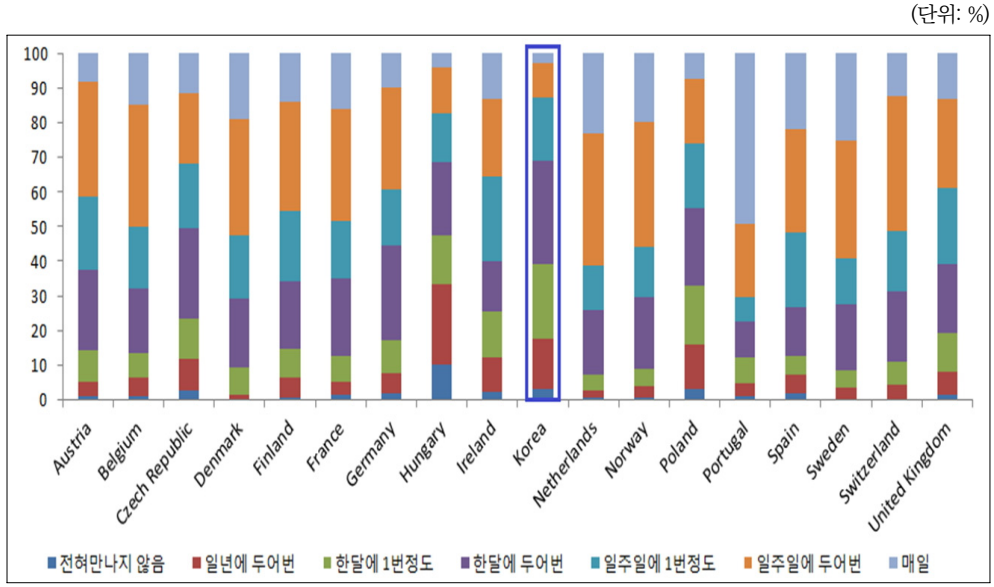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혀 만나지 않음	일년에 두어번	한달에 1번정도	한달에 두어번	일주일에 1번정도	일주일에 두어번	매일
Austria	1.1	4.2	9.1	23.2	21.1	33.0	8.3
Belgium	1.2	5.3	6.8	18.7	18.0	35.3	14.7
Czech Republic	2.8	8.9	11.7	25.9	18.8	20.5	11.5
Denmark	0.1	1.3	7.7	20.0	18.5	33.5	18.9
Finland	0.5	5.7	8.5	19.4	20.3	31.7	13.9
France	1.5	3.6	7.5	22.3	16.6	32.2	16.4
Germany	1.7	6.0	9.6	27.3	16.1	29.5	9.9
Hungary	10.3	23.0	14.2	21.1	14.2	12.9	4.4
Ireland	2.2	10.0	13.2	14.6	24.4	22.4	13.2
Korea	2.9	14.8	21.6	29.6	18.3	10.1	2.7
Netherlands	0.4	2.1	4.6	18.9	12.8	38.1	23.1
Norway	0.5	3.5	4.9	20.7	14.6	36.0	19.7
Poland	3.0	12.9	16.9	22.5	18.8	18.4	7.4
Portugal	0.9	3.9	7.2	10.5	7.0	21.3	49.4
Spain	1.8	5.3	5.3	14.4	21.3	30.0	22.0
Sweden	0.3	3.2	4.8	19.1	13.4	33.9	25.4
Switzerland	0.3	3.9	6.9	20.0	17.7	38.7	12.5
United Kingdom	1.5	6.6	11.3	19.6	22.1	25.6	13.3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그림 3-17] 친교 활동을 위한 만남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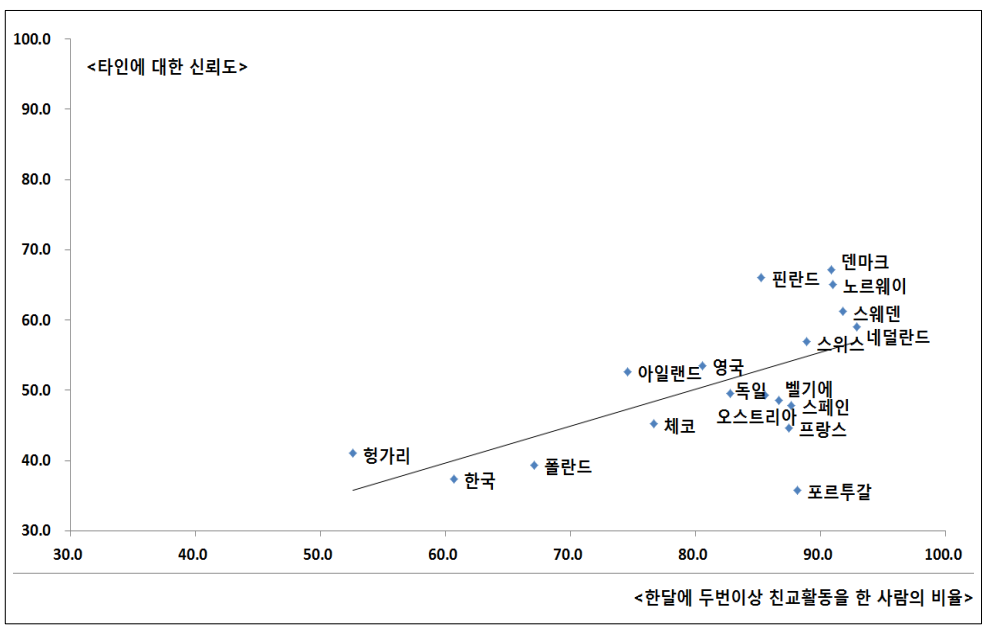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앞서 살펴본 (한 달에 두 번 이상) 친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친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단, 포르투갈은 친교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뢰도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8] 친교 활동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한편,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전혀 안 한 사람의 비율은 노르웨이가 37.1%로 가장 낮았으며, 폴란드가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노르웨이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고, 폴란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자원봉사에 전혀 참여 안 한 사람의 비율이 폴란드와 거의 유사한 80.1%로 나타나 자원봉사 참여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원봉사 참여는 '일 년에 한두 번'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자원봉사 참여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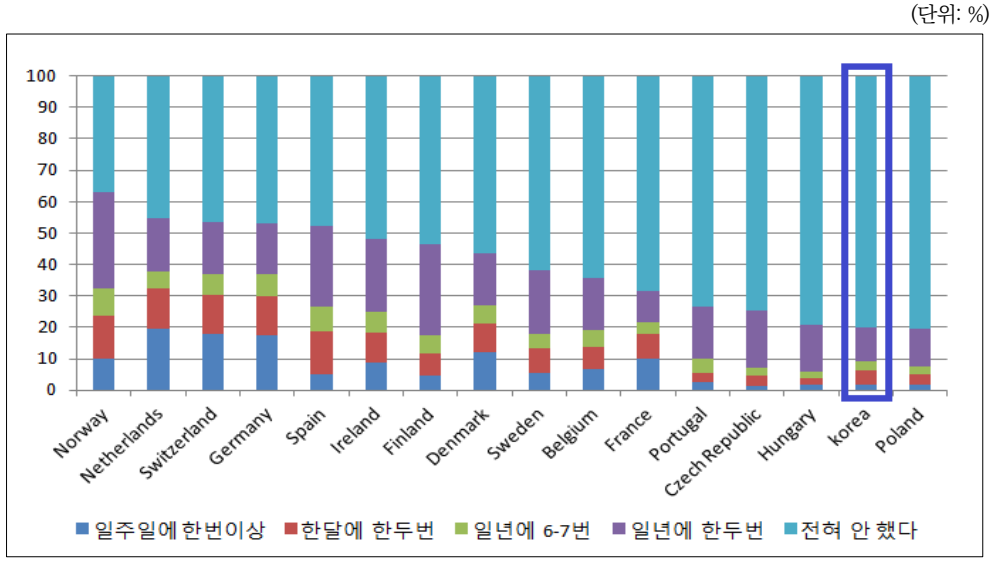
구분	일주일에 한번이상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번	전혀 안 했다
Norway	9.8	13.9	8.5	30.7	37.1
Netherlands	19.4	13.1	5.4	17.0	45.1
Switzerland	17.9	12.6	6.4	16.4	46.8
Germany	17.3	12.6	6.9	16.3	47.0
Spain	4.9	13.9	7.6	25.8	47.8
Ireland	8.6	9.6	6.6	23.4	51.8
Finland	4.5	7.2	5.6	29.1	53.7
Denmark	12.0	9.0	5.8	16.7	56.5
Sweden	5.5	7.9	4.4	20.3	62.0
Belgium	6.6	7.0	5.5	16.7	64.3
France	9.9	7.9	4.0	9.8	68.5
Portugal	2.5	2.9	4.5	16.6	73.6
Czech Republic	1.3	3.4	2.4	18.4	74.5
Hungary	1.6	2.2	2.0	14.9	79.2
korea	1.7	4.5	3.0	10.6	80.1
Poland	1.9	3.2	2.4	11.9	80.7

주: ESS 조사의 '3달에 최소 1번'은 본원 실태조사의 '일 년에 6-7번'으로, '6달에 최소 1번'과 '아주 종종'은 '일 년에 한두 번'으로 매칭하여 분석.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6(2012) 원자료.

[그림 3-19] 자원봉사 참여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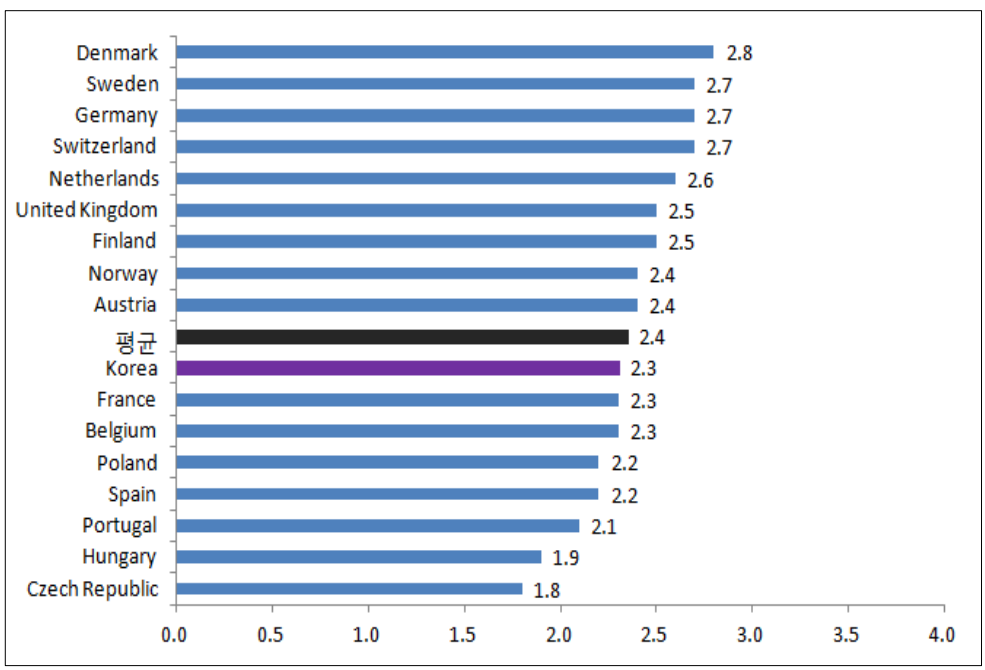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6(2012) 원자료.

정치적 관심의 정도가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 관심이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나 투표 행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관심도는 2.3점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는 비교 대상국 평균인 2.4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치적 관심도 역시 북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체코, 헝가리는 각각 1.8점, 1.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0] 정치적 관심도

(단위:점)



주: 정치 관심도에 대한 '①매우 관심이 있다 ~④전혀 관심이 없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계산.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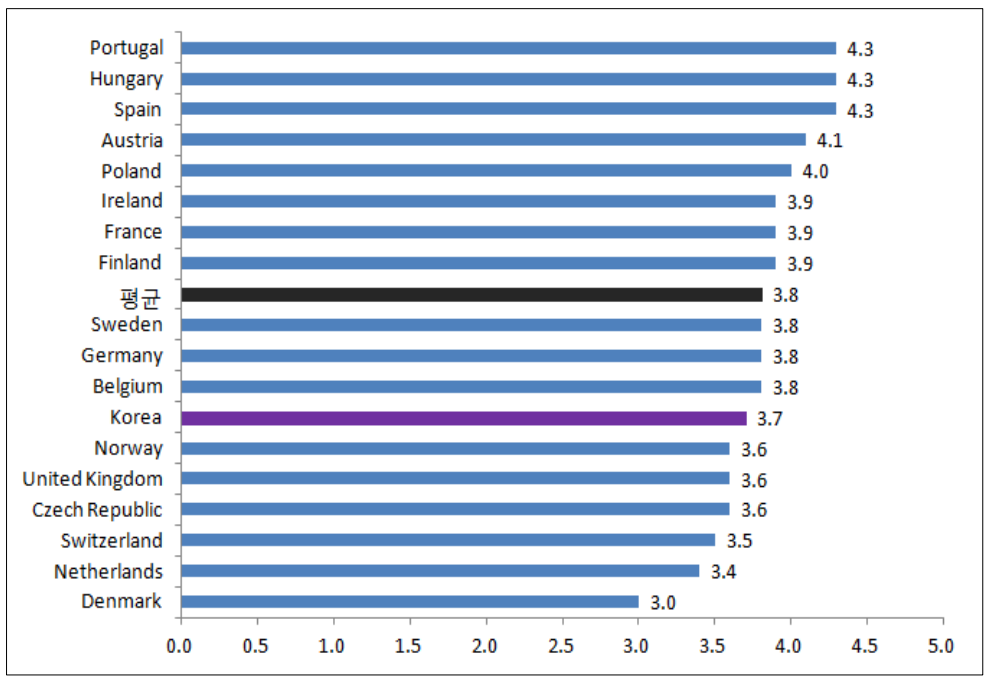
5. 정부의 역할 인식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비교 대상 모든 국가에서 3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 대상국 평균은 3.8점이며, 정부의 역할에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는 국가는 포르투갈과 헝가리, 스페인으로 모두 4.3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유

럽 국가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는 각각 3.0점, 3.4점, 3.5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3.7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1]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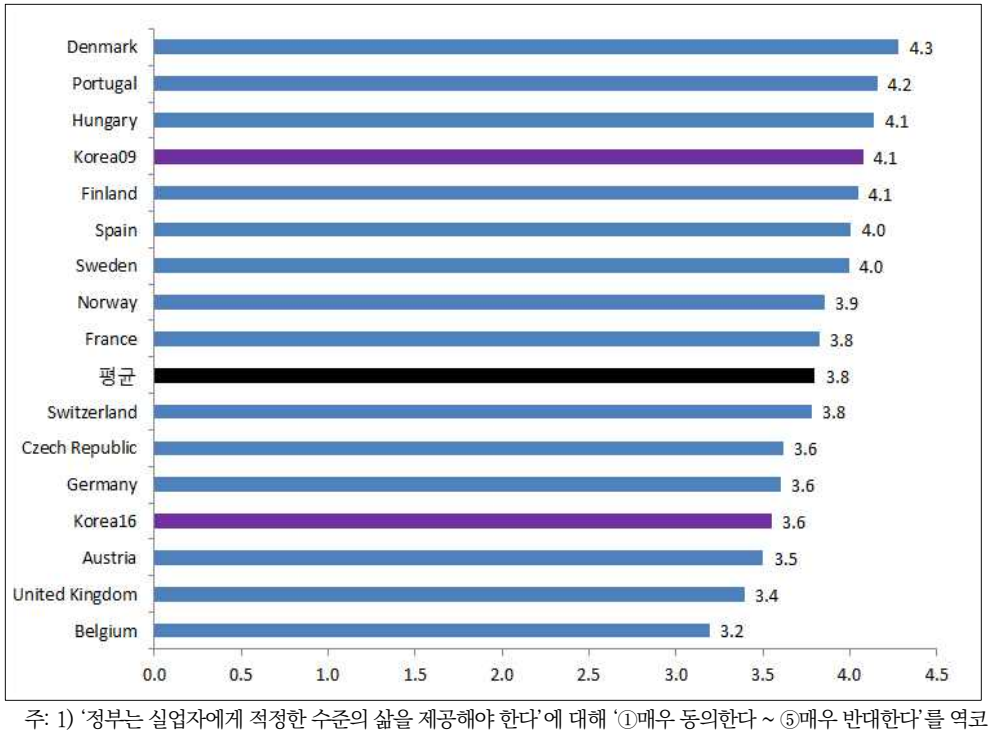


주: 정부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책임에 대해 '①매우 동의한다 ~ ⑤매우 반대한다'를 역코딩하여 계산.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ESS Round7(2014) 원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실업자와 빈곤층에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2009년 ISSP 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비교 대상국 평균 3.8점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에 가깝다. 덴마크는 4.3점으로 가장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포르투갈과 헝가리, 한국(2009년)과 핀란드 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보다 동의 정도가 3.6점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정부의 실업자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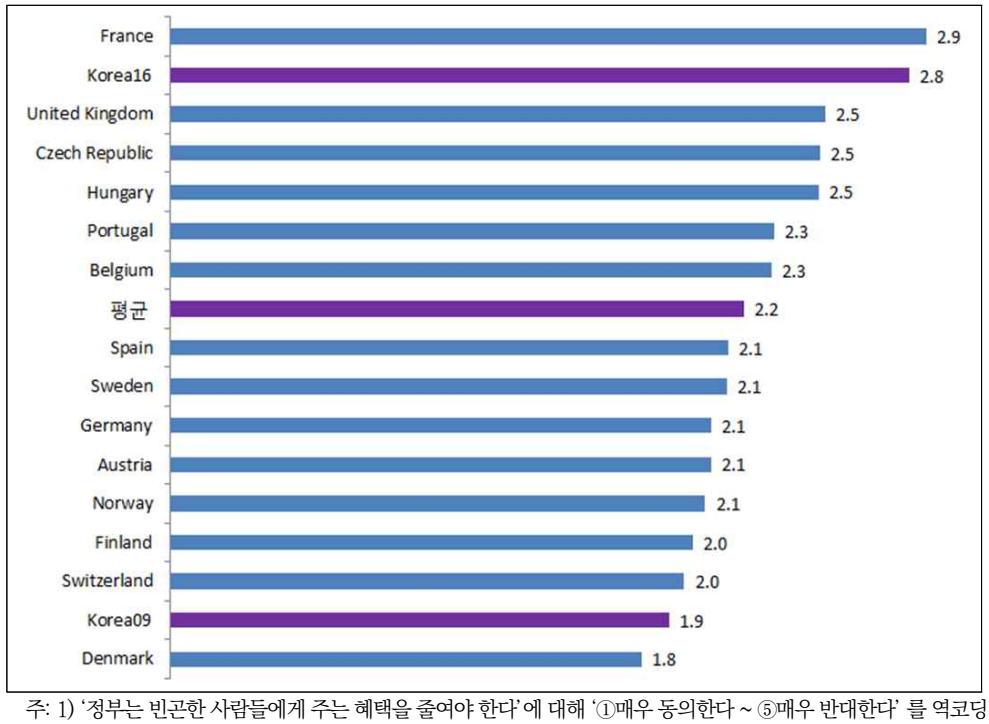


주: 1)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 '①매우 동의한다 ~ ⑤매우 반대한다'를 역코딩하여 계산.
2) 평균값은 한국의 16년 점수를 제외한 2009년의 비교대상국 평균값임.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ISSP(2009) 원자료.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비교 대상국 평균 2.2점으로 약간 반대한다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와 한국, 스위스 핀란드 등이 2.0점 이하로 동의 수준이 낮았으며, 프랑스는 2.9점으로 동의도 반대도 아닌 의견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09년에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 이하로 낮았으나, 2016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점으로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빈곤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정도가 다소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실업자 지원에 대한 동의가 다소 감소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그림 3-23] 정부의 빈곤층 지원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1)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①매우 동의한다 ~ ⑤매우 반대한다' 를 역코딩하여 계산.
2) 평균값은 한국의 16년 점수를 제외한 2009년의 비교대상국 평균값임.
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2016)와 ISSP(2009) 원자료.

제3절 소결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의 특징은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사회적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반면, 부패나 갈등 수준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안전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각각 2.8점(평균 3.1점, 현재 소득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함 4점), 6.2점(평균 7.2점,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나타나 평균 이하로 낮은 수준이며, 이를 반영하는 행복도 또한 6.5점(평균 7.4점, 매우 행복하다

10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성공과 관련한 부패인식이 3.2점(평균 2.5점, 부패에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6년에는 3.6점으로 약간 상승하였고, 정치 영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비교 시점의 한계가 있으나 한국은 4.6점(평균 1.8점, 부패가 매우 심하다 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집단(빈부, 노사) 간 갈등의 정도에 대한 인식도 비교 대상국 중 1,2위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 상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적인 조건 및 사건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즉, 한국의 안전 인식은 비교 대상국가 중 2.8점(평균 3.1, 매우 안전하다 4점)으로 최하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 인식과는 달리 최근 5년간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5%(평균 17.5%)로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건강 상태와의 간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국은 3.6점(평균 3.9점, 매우 좋다 5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 이하이지만, 실제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4.9%(매우 그러하다 2.2%, 어느 정도 그러하다 12.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평균 24.5%).

셋째, 사회통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그 자체가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지표이다. 한국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동의 점수는 37.4점(평균 51.1점, 매우 동의한다 100점)으로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도 각각 39.3점(평균 57.5점, 매우 동의한다 100점), 32.2점(평균 50.3점, 매우 동의한다 100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유럽 국가군과의 비교이기는 하지만 상대적 순위뿐만 아니라 신뢰, 공정성, 이타심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요소인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 또한 비교 대상국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친구나 친지, 혹은 직장동료들과의 친교를 위한 모임의 정도는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어 번',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두어 번'

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 달에 1번 정도', '한 달에 두어 번', '일주일에 1번 정도'에 대체로 분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교활동의 빈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는 지난 1년간 '전혀 안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0.1%로 폴란드(80.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관심도는 2.3점(평균 2.4점, 매우 관심이 있다 4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관적 인식의 지표들이 객관적 상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늦은 밤 홀로 밤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과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식은 실제로 양호한 수준의 위해 경험 및 건강 상태를 반영하지 않았다. 우선, 위험 인식과 실제 위해 경험의 간극은 불안심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isher와 Nasar(1992)는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두려움은 실제 범죄발생의 빈도가 정확히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야간 외출을 꺼리거나, 공원 및 상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게도 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함으로써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이 사람들의 활동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심리적 자유를 제한하고, 이웃 간의 친목도모에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결국 실제적 범죄율을 높이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최열, 2007, p.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안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해서도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강은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건강이 나쁘면 삶의 활력이 낮아지고,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상호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진향 등, 2012; 김진현, 2016). 이는 객관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 상태 역시 사회통합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지만,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위 두 가지 주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비롯한 정서적 문제, 사회병리로

이어지기 쉬운 인식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가 미흡하다.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및 감정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통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태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본 장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 사회통합 관련 연구에서 많이 지적된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제언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즉,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 및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패 및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신뢰 및 사회참여 수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이 낮은 상태인 것이다. 우선,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의 개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수단일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은 소득 및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신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개선(분배)은 여전히 사회통합 제고에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정하지 않은 상태인 부패와 갈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질서 준수를 감시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 부패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사회통합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 그 자체와 사회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신뢰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참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사회·경제학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보다 활발하게 유지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이 필요하다.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개발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 4 장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제4절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소결과 정책 함의

4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제1절 서론

1. 문제제기

대법원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약 650만 건으로 당시 총인구에 대비해 볼 때 12.6%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길성, 2013, p.8). 이 비율은 2005년 11.4%에 비해 1.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나 갈등 조정 기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공공분쟁에서는 갈등 조정 기제의 작동이 더 쉽지 않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분쟁통계지표"를 보면 1990년에서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갈등[13] 992건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최종 분쟁해결 현황 통계를 보면,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이 갈등 관리·조정 기제가 작동한 비율은 23.3%인데 반해,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 판결, 진압 등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된 비율은 33.0%, 그리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진행 중인 갈등의 비율이 11.9%로 나타나 전술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관리 기제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또는 사회갈등의 수준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나 제3자의 중재, 조정, 관리를 통해 해결된 갈등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

13) 공공갈등은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둘 이상의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과정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갈등 관리 기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쟁"으로 정의된다(윤인진, 2015, p.8).

다. 그런데 사회갈등의 빈도 자체와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입한 정부와 같은 제3자가 갈등을 더욱 심화하거나 갈등의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통합은 더욱 크게 저해될 것이다.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양자의 타협과 절충을 도모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과정이 되고, 이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갈등의 조정과 관리는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귀결되는 순환적 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갈등이 가지는 순기능의 하나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빈도와 그 해결 과정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조대엽(2014)은 갈등사회를 “갈등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통해 훨씬 더 진화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로 본다. 그리고 더 진화된 민주주의는 갈등 자체를 선순환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대엽, 2014, p.8).

갈등의 기능주의적 측면에 주목한 코저(Lewis A. Coser)는 사회적 단위들이 분화하고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이 될수록 갈등의 빈도는 높아지는 반면, 갈등의 강렬성과 폭력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갈등 관계에 대한 규범적 조정, 현실적 쟁점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사회 단위들 간의 제휴 규모 확대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이 높아진다(조대엽, 2014, pp.26-27). 즉,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통합은 사회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격차와 차별을 줄임으로써 사회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전영상, 홍근석, 2014, p.188). 사회갈등이 잘 관리되는 사회는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인 동시에,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의 기제가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통합과 사회갈등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자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갈등을 탐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을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고,

사회갈등의 관리와 조정이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그 주체들 간의 갈등의 양상 또한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기한 사회갈등의 출현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부재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개선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기존의 사회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갈등의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갈등에 관한 이론들은 사회학의 일반 이론의 하나로 전개·발전해 오고 있다. 즉, 갈등의 개념과 갈등의 유형,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그 요인을 탐구한 다수의 국내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수준을 파악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사회의 갈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앞서 예시한 것과 같이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는 인식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갈등 인식 조사는 갈등 당사자의 상황 인식에 따라 갈등의 발생, 전개, 해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이병량 등, 2008, p.51).

본 절의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에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추론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본 절은 효과적인 갈등 조정 혹은 갈등 관리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떤 유형의 사회갈등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본 절에서는 실태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갈등 조정 또는 갈등 관리 방식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을 바라보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룬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혹은 국민통합을 표제로 다루는 연구들은 다수가 있지만, 대부분 사회갈등의 원인을 탐구하고 사회갈등 조정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은 그 과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결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홍 등(2005)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영역과 쟁점을 확인하고,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갈등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사회통합의 정책과제로 치환하고 있다. 이원태 등(2012)의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갈등의 양상을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디지털 사회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단을 통해 디지털 사회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건(2013)의 연구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분배, 기회,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공정성과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영상, 홍근석(2014)의 연구는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과 달리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갈등 관리 방안으로써의 사회통합의 의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 요인인 신뢰, 참여, 응집력이 공공서비스만족도, 시정 개선 인식, 지역사회 인식과 더불어 지역사회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실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요인 중 신뢰를 다

른 요인들보다 사회갈등을 비롯한 모든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 신뢰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절의 연구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이 사회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전영상, 홍근석(2014)의 연구와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갈등의 유발 요인과 사회통합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1.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국내 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81.5%)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2%),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80.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7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갈등(49.1%),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54.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57.9%), 지역 간의 갈등(58.6%)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계층갈등 혹은 경제갈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갈등 유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와 환경 등 가치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선행 연구들의 조사 결과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은 가치와 관련된 갈등보다는 계층 또는 경제적인 측면의 갈등을 일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62.2%)은 계층 또는 경제 갈등과 가치 갈등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대갈등은 경제적 이해와 가치관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대갈등은 연금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경쟁과 관련되고, 가치관에 있어서의 세대갈등은 이념적 성향,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세대갈등의 이 같은 복합적인 성격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27.4	53.3	16.3	1.4	1.7	10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26.0	55.2	16.6	1.0	1.3	100.0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11.9	42.9	38.0	4.6	2.5	100.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29.6	51.9	15.0	1.6	1.9	100.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6.0	46.2	32.0	4.4	1.4	10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3.6	45.9	17.6	1.4	1.5	100.0
지역 간의 갈등	17.2	41.4	32.2	7.0	2.2	100.0
다문화 갈등	8.3	40.9	40.1	6.9	3.9	100.0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10.9	47.0	33.8	3.5	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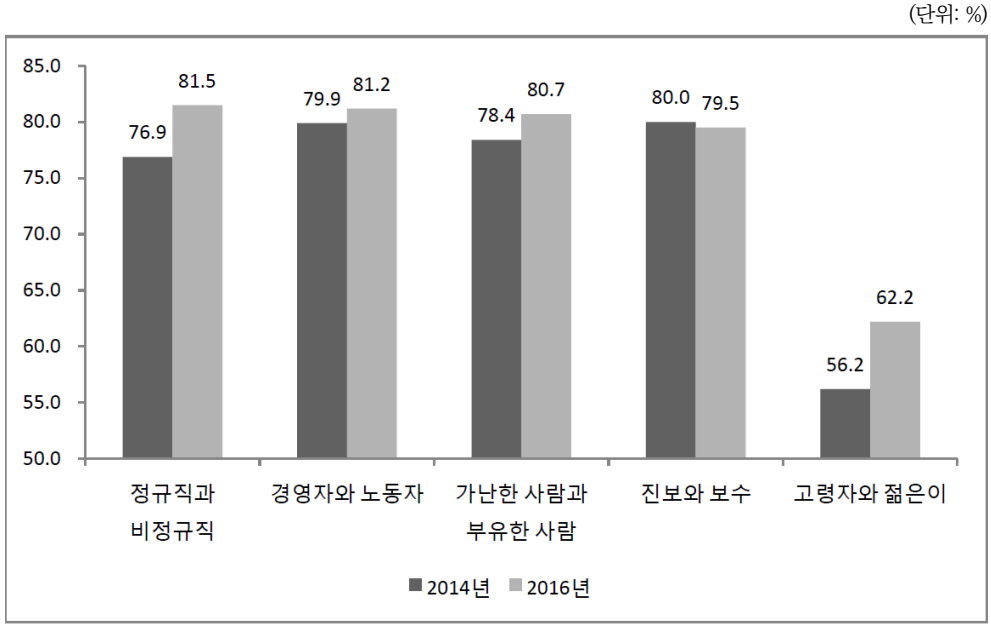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에 수행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와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를 보인다. 두 조사의 표본의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편의를 위해 단순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조사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8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79.9%),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78.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6.9%) 순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사에서 이들 네 가지의 갈등 유형이 상위 순서에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인 순서는 차이를 보인다.

아래 [그림 4-1]은 두 조사에서 위 네 가지 갈등 유형별 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제외하면 과거에 비해 현재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차이가 큰 유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인데, 최근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또는 미미한 개선 상황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이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다소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념에 대한 갈등을 후순위로 밀어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은 2014년(56.2%)에 비해 2016년(62.2%)에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갈등이 과거에 비해 중요한 사회갈등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차이를 종합해 보면, 2년 전 조사에 비해 이념갈등에 대한 심각성은 조금 감소한 반면, 세대갈등에 대한 심각성은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세대갈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공적연금이 발달한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사회갈등 인식 변화: 2014년과 2016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김미곤 등, 2014 재인용)

각 유형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를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는 결과를 보다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갈등이 심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관측치 순서를 바꾸어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까지 분포하도

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노사, 정규-비정규, 세대, 이념, 지역, 환경-개발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빈부, 주택, 다문화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은 빈부, 노사, 주택, 다문화 갈등을, 중장년은 정규-비정규, 세대, 이념, 지역, 환경-개발 갈등을 각각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모든 갈등 유형에서 다른 세대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중장년, 노인, 청년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최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서 청년세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모든 갈등 유형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만, 세대갈등에 있어서는 중졸이하와 대졸 이상의 인식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청년세대는 청년은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 노사갈등 = 이념갈등 〉 빈부갈등 〉 지역갈등 순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 청년세대가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중장년의 경우는 이념갈등 〉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 빈부갈등 〉 노사갈등 〉 지역갈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청년세대보다는 노동시장 지위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문제에 대해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대신 이념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노인은 정규-비정규직 갈등 〉 이념갈등 〉 빈부갈등 〉 노사갈등 〉 세대갈등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른 두 세대에 비해 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마찬가지로 정규-비정규직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갈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4-2〉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단위: 점)

구분	성		연령			학력		
	남	여	청년 (19~34)	중장년 (35~64)	노인 (65+)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부갈등	3.08	3.10	3.12	3.11	2.93	2.99	3.08	3.15
노사갈등	3.09	3.07	3.13	3.09	2.92	2.96	3.07	3.15
주택갈등	2.64	2.66	2.69	2.65	2.54	2.53	2.63	2.73
정규-비정규갈등	3.15	3.13	3.14	3.15	3.04	3.05	3.12	3.20
세대갈등	2.77	2.73	**2.72**	**2.77**	**2.73**	2.76	2.73	2.77
이념갈등	3.17	3.12	3.13	3.18	3.02	3.03	3.13	3.22
지역갈등	2.72	2.70	2.71	2.74	2.56	2.59	2.69	2.78
다문화 갈등	2.50	2.53	2.59	2.51	2.41	2.45	2.48	2.58
환경-개발 갈등	2.69	2.67	2.70	2.71	2.52	2.56	2.65	2.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소득 계층별로 갈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에서는 소득계층을 소득 5분위와 주관적 소득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소득 분위별로 보면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의 경우 모든 갈등 유형에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인다. 즉, 갈등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갈등 유형 중에서는 정규-비정규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의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분위의 경우 대체로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노사갈등, 환경-개발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상위 소득 계층인 5분위의 경우는 주택 갈등, 정규-비정규직 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환경-개발갈등의 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갈등에 대해 소득 계층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할 것이라는, 즉 저소득층일수록 빈부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직관은 차하위층이라 할 수 있는 2분위에서 설명이 되지만, 최하층인 1분위에서는 다른 모든 분위보다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직관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한편, 주관적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소득 계층별로 빈부갈등에 대한 비교적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즉, 하층과 중하층에서 빈부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빈부갈등에 있어서는 객관적 소득 수준보다 주관적 소득 수준이 직관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머지 갈등 유형에 대해서는 주관적 소득 계층별

로 그리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세대갈등에 있어서는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이, 지역갈등에 있어서는 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환경-개발 갈등에 있어서는 최상위 계층이나 최하위 계층보다 중위 계층(중하층, 중간층)이 각각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소득 분위별, 주관적 소득 계층별

(단위: 점)

구분	소득분위					주관적 소득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빈부갈등	3.04	3.13	3.09	3.10	3.08	3.13	3.14	3.04	3.07
노사갈등	2.99	3.13	3.10	3.08	3.11	3.07	3.10	3.06	3.10
주택갈등	2.59	2.66	2.69	2.62	2.68	2.65	2.67	2.63	2.66
정규-비정규갈등	3.08	3.15	3.13	3.16	3.18	3.12	3.14	3.14	3.12
세대갈등	2.74	2.75	2.76	2.77	2.74	2.81	2.79	2.70	2.73
이념갈등	3.03	3.18	3.15	3.20	3.19	3.11	3.17	3.14	3.17
지역갈등	2.65	2.72	2.74	2.69	2.75	2.69	2.72	2.70	2.76
다문화 갈등	2.49	2.50	2.53	2.54	2.53	2.50	2.53	2.51	2.49
환경-개발갈등	2.60	2.72	2.69	2.70	2.72	2.66	2.70	2.68	2.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4-4〉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결과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든 갈등 유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뚜렷한 인식의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규-비정규 갈등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이 갈등 유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유형에서 양자 간 뚜렷한 차이가 없는 전반적인 경향 속에서 정규직은 이념갈등, 지역갈등, 환경-개발갈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비정규직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념 성향을 구분해서 보면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진보적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념갈등뿐만 아니라 빈부갈등, 노사갈등, 주택 갈등, 다문화 갈등, 환경-개발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주택 소유 여부를 구분해 보면, 주택 갈등에 대해서는 무주택자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직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 갈등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 보유자보다 빈부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갈등 유형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표 4-4〉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정규-비정규별, 이념 성향별, 주택 소유 여부별

(단위: 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이념 성향			주택 소유 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자가주택 보유	무주택자
빈부갈등	3.11	3.11	3.06	3.08	3.15	3.07	3.13
노사갈등	3.11	3.09	3.06	3.08	3.12	3.07	3.10
주택갈등	2.66	2.69	2.61	2.65	2.70	**2.62**	**2.70**
정규-비정규갈등	**3.14**	**3.15**	3.12	3.15	3.13	3.14	3.14
세대갈등	2.76	2.77	2.80	2.72	2.77	2.74	2.78
이념갈등	3.17	3.12	**3.14**	**3.14**	**3.18**	3.16	3.13
지역갈등	2.76	2.68	2.73	2.69	2.73	2.71	2.70
다문화 갈등	2.57	2.53	2.51	2.50	2.55	2.52	2.51
환경-개발갈등	2.73	2.69	2.68	2.66	2.76	2.68	2.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두 지역에 있어서 빈부갈등, 노사갈등, 주택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의 경우 세대갈등, 지역갈등, 다문화 갈등, 환경-개발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지역갈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도권 거주자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규-비정규 갈등은 비수도권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을 서울, 경기·인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서울지역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노사, 주택, 세대, 지역, 다문화, 환경-개발에서 최고점), 중부권은 주택, 정규-비정규, 이념갈등에서 최고점을 보인 한편,

빈부, 다문화, 환경-개발 갈등에서는 최저점을 보이는 등 갈등 유형별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인천은 노사갈등, 주택 갈등, 정규-비정규갈등에서 최저점을, 영남권은 주택, 이념, 지역갈등에서 최저점을 각각 보이고 있다.

〈표 4-5〉 유형별 사회갈등 점수: 지역별, 권역별

(단위: 점)

구분	지역		권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경기·인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빈부갈등	3.09	3.09	3.12	3.08	3.02	3.20	3.08
노사갈등	3.08	3.08	3.16	3.04	3.10	3.12	3.05
주택갈등	2.64	2.65	2.69	2.62	2.69	2.66	2.62
정규-비정규갈등	3.09	3.16	3.15	3.05	3.20	3.14	3.15
세대갈등	2.77	2.74	2.81	2.74	2.79	2.61	2.78
이념갈등	3.14	3.15	3.19	3.12	3.30	3.08	3.08
지역갈등	**2.76**	**2.69**	**2.84**	**2.71**	**2.77**	**2.79**	**2.58**
다문화 갈등	2.57	2.49	2.72	2.48	2.43	2.42	2.56
환경-개발갈등	2.72	2.67	2.77	2.69	2.64	2.67	2.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향후 10년 우리나라의 각 유형별 사회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한 결과는 아래 〈표 4-6〉과 같다. 현재보다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유형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63.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57.6%),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55.2%),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54.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5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갈등 유형들이 미래에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보다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갈등 유형은 지역 갈등(18.7%), 다문화 갈등(16.9%),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11.3%)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경제적인 영역의 갈등 유형은 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역이나 다문화와 같은 영역의 갈등 유형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4-6〉 10년 후 한국 사회 갈등 정도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18.8	44.7	31.9	3.7	0.9	10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14.6	40.6	38.6	5.1	1.1	100.0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9.2	29.8	48.2	11.3	1.6	100.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16.6	41.0	34.8	6.3	1.3	100.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4.5	35.4	41.2	7.6	1.2	10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15.3	38.7	37.6	6.4	2.0	100.0
지역 간의 갈등	7.1	27.6	44.8	18.7	1.8	100.0
다문화 갈등	6.3	28.2	45.6	16.9	3.0	100.0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7.6	32.0	49.0	7.6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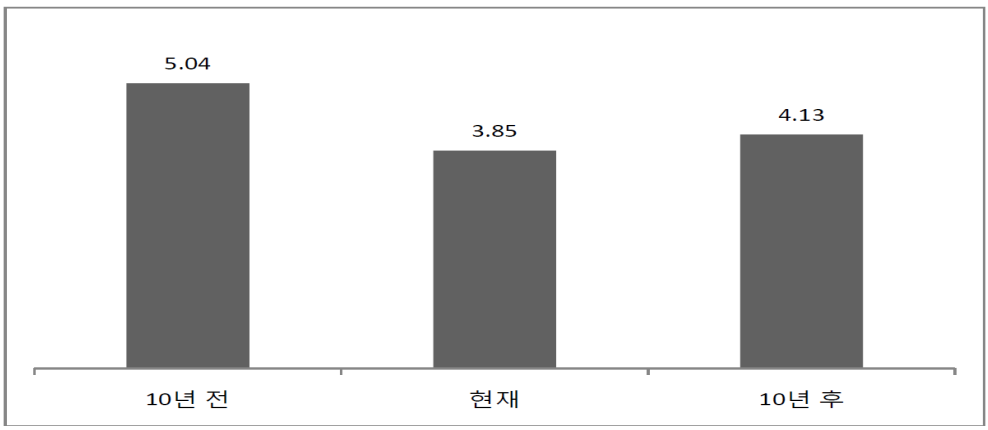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 중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사회인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인지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은 현재와 10년 전 회상, 그리고 10년 후 전망을 각각 묻고 있는데, 이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4-2]와 같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0,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10으로 응답하게 했는데, 이를 점수화해서 보면 10년 전 5.04에 비해 현재는 3.85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0년 후에는 4.13으로 나타나 현재보다는 갈등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한국 사회 평가: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단위: 점)



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관해서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을 하였다.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갈등 중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중요도를 묻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인 다양한 유형의 사회갈등 중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해서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45.1),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37.3%),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35.3%), 지역 간의 갈등(15.4%),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11.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8.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6.3%), 다문화 갈등(4.3%)의 순이다. 201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 유형으로 계층갈등(37.7%)에 이어서 노사갈등(16.5%), 이념갈등(12.7%), 지역갈등(10.5%), 세대갈등(9.7%), 개인갈등(4.6%), 환경갈등(4.3%), 성별갈등(4.0%)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임상규, 2012, p.69).

〈표 4-7〉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 1순위, 2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31.0	14.2	45.1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15.5	19.8	35.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3.4	5.4	8.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16.7	18.6	35.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4.5	7.3	11.8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19.9	17.4	37.3
지역 간의 갈등	5.2	10.2	15.4
다문화 갈등	1.7	2.6	4.3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2.1	4.2	6.3
없음, 모름, 무응답	0.2	0.4	0.6
계	100.0	100.0	2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의 경우 여러 유형의 갈등 중에서 4번째로 심각한 갈등유형으로 꼽혔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2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갈등은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심각성보다 과잉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박길성(2008)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념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언론이 이를 과잉소비한 결과 일반 국민들은 이념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갈등 유형으로 꼽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이념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 즉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념갈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관한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9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다.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항목별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은 것인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함의를 줄 수 있는 문항들이다. 19가지 항목들 중 사회갈등과 관련된 항목으로 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②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③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

민 등)을 인정하는 것, ④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⑤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 ⑥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중 ①은 갈등 유형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②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을, ③은 다문화(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갈등의 관리와 각각 연관이 있다. 물론, ①과 ②는 집단 간의 '갈등'이 아니라 '차이'에 주목하고 있지만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갈등 관리와 관련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④, ⑤, ⑥은 갈등 관리 또는 갈등 조정 방식과 관련된 문항이다.

먼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80.4%가 중요하다(척도의 4와 5)고 응답하였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78.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59.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78.7%,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74.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78.9%가 각각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19개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척도의 4와 5)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은 76.3%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줄이는 것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균을 크게 밑돈다. 갈등 조정과 관련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두 평균을 웃돌지만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를 해 보면,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계층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갈등 유형에 대한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집단 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이 사회통합에 보다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갈등 관리 방식 중에서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인 갈등 조정보다 사전적인 갈등 관리가 사회통합에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최근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회의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8〉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보통	〈----------〉			매우 중요	합계	평균
	1	2	3	4	5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5	6.1	19.6	43.8	28.0	100.0	3.89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1.5	4.0	18.9	38.6	37.0	100.0	4.05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	6.6	26.1	35.9	27.8	100.0	3.77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	1.2	3.6	14.9	41.1	39.4	100.0	4.14
②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1.2	4.1	16.5	40.5	37.7	100.0	4.09
③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4.3	9.5	27.0	38.3	21.0	100.0	3.62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1.3	3.1	17.9	37.3	40.3	100.0	4.12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1	4.8	21.2	37.6	33.3	100.0	3.93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1.2	3.3	16.8	35.8	42.8	100.0	4.16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1.5	3.3	15.5	37.2	42.6	100.0	4.16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1.0	4.1	16.7	39.1	39.1	100.0	4.11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1.8	5.2	21.8	39.5	31.7	100.0	3.94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1.1	3.7	15.9	40.0	39.3	100.0	4.13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0.5	2.3	9.8	33.9	53.6	100.0	4.38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1.0	3.3	16.0	37.1	42.6	100.0	4.17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0.5	2.4	10.0	33.8	53.2	100.0	4.37
④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1.1	3.2	17.1	41.4	37.3	100.0	4.11
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8	4.3	19.9	42.2	31.8	100.0	3.98
⑥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1.1	2.8	17.2	43.4	35.5	100.0	4.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제4절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1. 사회갈등 인식 결정 요인

가. 모형, 자료, 변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갈등과 관련한 우리 사회 평가는 과거보다 갈등이 심해졌고, 미래에는 다소 나아는 지겠지만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갈등 유형이 설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더불어 각 유형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9개 갈등 유형 모두 모형의 적합성이 현저히 낮아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3가지의 모형을 활용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6년에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의 원자료다.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이원태 등, 2012)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뢰를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사회적 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성도 같이 포함하였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회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이념성향과 지역도 모형에 포함을 하였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포함을 하였다.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은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표 4-9〉 사회갈등 인식의 주요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사회갈등 수준		- 현재 우리사회는 갈등이 심한 사회이다(0~10점)
설명변수	일반		- 이념 성향(보수적, 중도, 진보적)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패 수준		-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0~6점) -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0~6점)
	사회통합 요소	사회적 자본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vs.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0~10점)
		사회적 포용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0~10점)
		사회이동성	- (세대 내 이동성)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1~4점) - (세대 간 이동성)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점)
통제변수	성		남=0, 여=1
	연령		19~75세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소득 수준		- 로그 총소득 - 주관적 소득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나.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부패 정도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 1〉의 경우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은 사회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사회이동은 유의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 모두 사회갈등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즉,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세대 간 사회이동성과 같은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알려진 변수들은 인식의 정도가 커질수록 사회갈등이 완화된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던 지역이나 이념 성향 같은 변수들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그 총소득으로 대표되는 소득 수준은 다소 미약하지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모형 2〉와 〈모형 3〉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모형 2〉에서 추가된 정치 영역 부패도와 〈모형 3〉에서 추가된 경제 영역 부패도는

모두 사회갈등 인식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사회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표 4-10〉 사회갈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적 포용	-0.200*** (0.017)	-0.197*** (0.017)	-0.194*** (0.017)
사회적 자본	-0.504*** (0.017)	-0.499*** (0.017)	-0.498*** (0.017)
세대 간 사회이동성	-0.063* (0.030)	-0.064* (0.030)	-0.060* (0.030)
정치 영역 부패 정도		0.061*** (0.016)	
경제 영역 부패 정도			0.086*** (0.017)
지역	-0.021 (0.033)	-0.016 (0.033)	-0.016 (0.033)
성(남성=0)	0.025 (0.042)	0.023 (0.041)	0.022 (0.041)
교육수준	0.036 (0.035)	0.035 (0.035)	0.030 (0.035)
이념성향	0.023 (0.032)	0.021 (0.032)	0.023 (0.032)
연령	0.003 (0.002)	0.003 (0.002)	0.003 (0.002)
로그총소득	0.078* (0.035)	0.072* (0.035)	0.073* (0.035)
상수	8.260*** (0.274)	7.995*** (0.282)	7.876*** (0.284)
N	3424	3424	3424
R^2	0.447	0.449	0.45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2. 사회통합 인식 결정 요인: 갈등

가. 모형, 자료, 변수

본 절에서는 사회통합 인식 결정 요인을 단순회귀분석(OLS)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사회갈등 수준과 사

회통합의 요소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성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 소득 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분석 자료는 2016년에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사회갈등 수준을 나타내 주는 변수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설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갈등이 심한 사회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한 사회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설문에서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된 두 가지 갈등 유형(빈부 갈등, 이념 갈등)과 최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갈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9가지 갈등유형을 요인 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으로 추출하고 이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표 4-11〉 사회통합 인식의 주요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사회통합 수준		-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0~10점)
설명변수	사회갈등 수준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vs. 갈등이 심한 사회(0~10점) - 주요 갈등 유형(빈부, 이념, 세대) - 갈등 유형 집단(3그룹) - 갈등 총합: 9개 갈등 유형의 산술평균
	기타	사회적 자본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vs.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0~10점)
		사회적 포용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0~10점)
		사회이동성	- (세대 내 이동성)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1~4점) - (세대 간 이동성)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점)
통제변수	성		남=0, 여=1
	연령		19~75세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소득 수준		- 로그 총소득 - 주관적 소득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위 세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통해 사회갈등 유형을 3개의 요인으로 묶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과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두 번째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문화 갈등과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세 가지 유형은 다시 경제적 갈등 유형 이념과 지역 갈등 유형, 그리고 문화와 가치 갈등 유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나. 분석 결과

앞서 소개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8개의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들과 같다. 앞서 제시된 변수들 중 세대내 이동성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세대간 이동성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본문에서는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로그 총소득의 경우도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지만, 주관적 계층 수준의 설명력이 더 커서 역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사회갈등 변수로 8가지의 변수를 사용했는데, 〈모형 1〉에서 사용된 사회갈등 인식 변수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여타 모든 사회갈등 관련 변수들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사회갈등 유형의 평균으로 산출된 사회갈등 총합(모형 2)의 경우는 설명력과 유의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갈등 유형으로 지목된 빈부갈등(모형 3)과 이념갈등(모형 4)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갈등은 사회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유형에 대한 전술한 인식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세 가지 갈등 요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의 갈등(빈부갈등, 노사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의 갈등의 경우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모형 8) 설명력이 미미한(모형 7)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관련 설명변수 외에 OECD가 사회통합의 세 축으로 보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

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모형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사회통합 결정 요인 분석 결과(1)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사회갈등 인식	-0.207*** (0.023)			
사회갈등 총합		-0.151* (0.062)		
빈부갈등 인식			-0.193*** (0.040)	
이념갈등 인식				-0.164*** (0.038)
사회적 포용 정도	0.212*** (0.023)	0.248*** (0.024)	0.234*** (0.023)	0.245*** (0.023)
사회적 자본 정도	0.136*** (0.025)	0.244*** (0.024)	0.2340*** (0.023)	0.241*** (0.023)
세대 간 사회이동성	0.164*** (0.039)	0.196*** (0.041)	0.172*** (0.040)	0.177*** (0.040)
성(남성=0)	0.108* (0.055)	0.108 (0.057)	0.104 (0.056)	0.092 (0.056)
교육 수준	0.046 (0.045)	0.049 (0.047)	0.042 (0.046)	0.040 (0.046)
연령	-0.003 (0.002)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주관적 계층 인식	0.233*** (0.036)	0.237*** (0.038)	0.224*** (0.037)	0.238*** (0.037)
상수	3.162*** (0.295)	1.747*** (0.296)	2.059*** (0.264)	1.885*** (0.251)
N	3444	3199	3400	3401
R^2	0.222	0.210	0.206	0.20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표 4-13〉 사회통합 결정 요인 분석 결과(2)

구분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세대갈등 인식	-0.031 (0.035)			
경제적 갈등 요인		-0.128*** (0.023)		
이념과 지역갈등 요인			-0.048** (0.021)	
문화와 가치갈등 요인				-0.031 (0.022)
사회적 포용 정도	0.256*** (0.023)	0.236*** (0.023)	0.243*** (0.023)	0.253*** (0.023)
사회적 자본 정도	0.241*** (0.023)	0.235*** (0.023)	0.249*** (0.023)	0.245*** (0.023)
세대 간 사회이동성	0.173*** (0.040)	0.171*** (0.040)	0.180*** (0.040)	0.188*** (0.041)
성(남성=0)	0.092 (0.056)	0.106 (0.056)	0.100 (0.056)	0.104 (0.056)
교육수준	0.031 (0.046)	0.045 (0.046)	0.037 (0.046)	0.045 (0.047)
연령	-0.003 (0.002)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주관적 계층 인식	0.233*** (0.037)	0.224*** (0.037)	0.235*** (0.037)	0.237*** (0.037)
상수	1.450*** (0.248)	2.275*** (0.274)	1.640*** (0.254)	1.459*** (0.255)
N	3409	3383	3365	3297
R^2	0.205	0.208	0.207	0.20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

제5절 소결과 정책 함의

1. 소결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요 갈등 유형들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사 간 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을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지역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 이념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의 순으로 나온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거칠게 정리를 해 보면, 계층갈등의 범주에 속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이 과거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념과 같은 가치의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더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이다. 과거에 비해 세대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56.2%에서 62.2%), 이는 최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응답자들의 인식에 반영이 된 결과로 추측된다.

한편, 인구 하위 집단별로 각 갈등 유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각 갈등 유형별로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예컨대, 세대갈등에 대해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거나, 빈부갈등에 대해서 소득 분위별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14]

10년 후 유형별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빈부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의 순으로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갈등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이념이나 세대와 같은 가치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갈등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의 순으로 응답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이념갈등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이념갈등 자체는

14) 사실 이 대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이후 연구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갈등 유형을 보다 세분화했더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갈등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갈등 관련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념갈등보다는 계층갈등이나 경제적 갈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갈등 혹은 분쟁의 실제 발생 건수를 분석해 보면 이념갈등의 비중은 6%[15]에 지나지 않아 전체 갈등 유형 중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공공분쟁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DB)). 이 같은 사실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념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념이 과잉동원되고 있다는 지적(박길성, 2013, p.19)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실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념갈등은 그 과잉동원의 결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겠다.

사회갈등 인식의 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로 꼽히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갈등 상황을 낮게 평가한다는 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부패도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유형 중에서는 빈부갈등, 이념갈등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갈등이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책 함의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사회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에

15)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분쟁사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공분쟁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 992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27%), 지역=계층(21%), 환경(14%), 교육(11%), 이념(6%)의 순으로 이념분쟁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등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와 노동시장 성취가 결정되는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교육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청년세대의 고용문제와 실질소득 하락 또는 정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먼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 현재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성인으로의 이행(노동시장, 주거,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패 역시 사회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의 세 가지 영역의 공정성은 사회갈등과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실증한 이건(2013)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성은 사회갈등 해소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2013, p.4). 정치와 경제 영역의 부패는 기회와 조건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부패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별개로 갈등 관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 가지 언급을 덧붙이고 본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없애야 할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통합을 제도적 수준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조대엽, 2014, p.24).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사회갈등은 혼란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통합을 견인할 수 있고, 갈등의 제도화는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갈등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가 보여 왔던 갈등관리의 양상을 보면, 갈등을 제도화하기보다는 특정 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구분하고, 이를 가치관의 차이로 확대하면서 민-민 갈등을 일으키는 형태였다. 이러한 갈등 구조의 명확화는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를 떠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갈등 사회'라 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사회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사회갈등의 해법도 전통적인 그것과는 달라져야 하며, 또 해법의 모색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갈등 사회에 대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 또한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5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박탈'(deprivation)의 상태는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배제(social exclusion) 혹은 박탈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박탈이 그 자체로 사회적인 '비통합성'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즉, 박탈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함'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또한, 박탈은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16] 특정 영역에서의 박탈이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에 비해 더 큰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절대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단순히 의식주에서의 '절대적 박탈'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박탈은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물질적·신체적 결핍에서 정신적·심리적 소외감과 배제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차원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탈의 상태가 박탈의 심리사회적 결과로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박탈의 개념과 이를 계측하고자 개발된 박탈지표 방식, 그리고 이러한 박탈의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와 변수, 그리고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해 보고자 한다.

16)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빈곤을 세 가지 차원-금전적 빈곤, 물질적 박탈, 그리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지표를 개발했다. 이 중 물질적 박탈은 경제적 곤궁, 내구재 결핍,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Eurostat, 2016, p.15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가. 박탈지표 방식을 통한 빈곤과 배제의 측정

박탈(deprivation)은 빈곤의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의 제기와 함께, 1979년 영국의 빈곤 연구 대가인 타운센트(Peter Townsend)에 의해 처음 학술적으로 제기된 개념이다(여유진, 김미곤 등, 2007, p.472). 그는 빈곤을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 관습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Calandrino 2003)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빈곤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즉, 현재 소득은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자원들—예컨대 신체적 자산이나 저축 같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결핍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자원의 결핍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측정치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타운센트(Townsend 1979)는 박탈지표를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12개 하위 범주 혹은 박탈의 차원—식품, 의복, 연료와 조명, 주거시설, 주거 조건, 노동 조건, 건강, 교육, 환경, 가족활동, 레크리에이션 관계, 사회관계—에 대한 60개 항목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로부터 12개의 하위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항목에는 냉장고, 실내화장실, 지난 2주 저녁 외출(외식), 지난해 집을 떠나서 휴가를 다녀온 날이 총 1주일 이상임, 1주일 동안 적어도 4일은 신선한 육류를 먹음, 거의 매일 요리된 아침식사를 함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여유진, 김미곤 등, 2007, 재인용).

이후 생활양식 접근방식(life-style approach)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박탈지표 방식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필품과 활동이 결핍된 정도를 계측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인 혹은 가구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고자 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박탈지표 방식은 영국을 중심으로 빈곤의 보조지표 혹은 대안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박탈지표를 활용한 대표적인 빈곤 연구로는 Callan, Nolan and Whelan(1993), Morris(1996), Calandrino(2003)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박탈지표 방식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계측하고 있다

(Eurostat 2016).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의 한 대안으로 1999년 이래로 박탈지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진 바 있다(김미곤 등, 1999; 김미곤 등, 2004; 여유진 등, 2007). 이외에도, 영역별 복지 욕구의 실태와 차상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태진 등, 2015)에서도 박탈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박탈지표는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문항이 수정되었으나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선정된 34개 항목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나. '객관적' 박탈 상태와 '주관적'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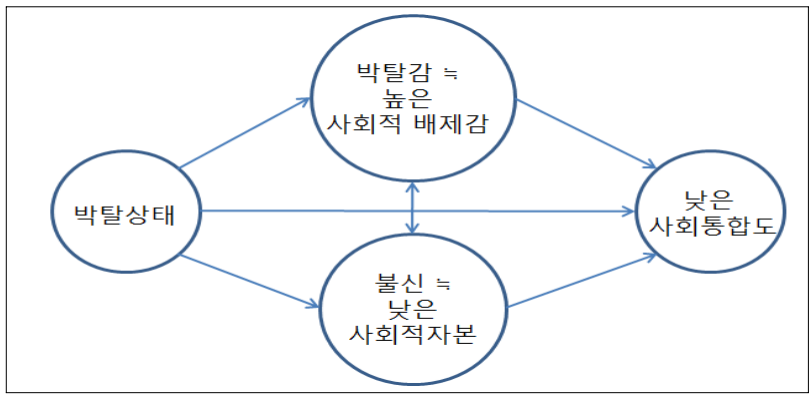
바우만(2004, p.72)의 주장에서와 같이, 현대 소비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 즉 박탈은 물질적 결핍과 신체적 고통으로 요약되지 않으며, 사회학적 심리학적 조건이기도 하다.

>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정의하는 남부럽잖은 생활수준에 따라 측정될 때,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이다. 그것은 '정상의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 즉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움과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가난은 또한 그 사회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기회들과 단절되고 '삶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분노와 적의가 생기고, 그것은 폭력 행위나 자기 경멸의 형태로, 또는 둘 다 배출된다(바우만, 2004, p.72).

이러한 의미에서 박탈은 사회통합, 특히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2011, pp.53-54)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의 세 축을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고, 이 중 사회적 포용은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측면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 포용과 동전의 양면인 사회적 배제는 미시적 차원의 박탈을 통해 규정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사회적 배제는 박탈의 원인이자 결과로 치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태 변수로서의 박탈지표는 인식지표로서의 사회적 배제지표 혹은 사회적 통합지표로 치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즉, 바우만이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사회적 박탈은 개인과 가족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1] 박탈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2. 연구 방법

박탈의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탈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낮은가?

- 박탈점수와 사회통합 인식은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 다른 요인들(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특히 어떠한 박탈 영역이 사회통합 인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 기초생계(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생활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자녀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박탈 중 사회통합 인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박탈 영역은 무엇인가?

셋째,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가?

박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최저생계비와 복지 욕구 조사 설문 문항을 차용하였다. 31개 박탈 항목을 각각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9가지 차원 중 전자의 8개 영역이 소비 혹은 생활 영역에서의 박탈 상태를 보고자 한 것이라면, 마지막

경제적 어려움의 영역은 '절대적' 박탈, 즉 궁핍을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아래 표 참조).

〈표 5-1〉 영역별 박탈 항목

우리 가정에서는,			
상대적 박탈	기초 생활 (식생활 의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주택 및 주거 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료 및 건강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있다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문화 생활 및 사회적 지지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미래 대비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19)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 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21)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22)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2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 참고서나 도서를 사 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24)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적 박탈	경제적 어려움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31)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본 연구에서는 9개 차원을 재분류하여 기초생활(식생활과 의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미래 대비, 자녀 양육 및 교육의 6가지 박탈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제적 어려움의 영역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25번),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26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27번)는 기초생활 박탈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28번)와 "집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30번)는 주거 박탈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는 건강 박탈로, 그리고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31번)를 의료 박탈로 재분류하였다.

박탈 항목의 지표화 방식은 단순 합산 방식과 가중 합산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합산 방식과 가중합산 방식을 혼합하여 박탈점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상대적 박탈 항목에는 1점을, 절대적 박탈의 항목에는 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인(가구)별로 박탈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합산된 총점을 최대 박탈점수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표준화하였다.[17]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조작화되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0-10점)으로, 이를 통한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 개의 문항(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vs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두 개의 문항(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vs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vs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을 사용하였다. 박탈지표점수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인식 점수도 표준화를 위하여 합산 후 최댓값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줌으로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17) 박탈지표의 합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미곤 등(1999)을 참조하시오.

〈표 5-2〉 사회통합 인식(종속변수)의 개념과 척도

개념	척도										
전반적인 사회통합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포용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사회적 신뢰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점수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19-34세, 35-64세, 65세 이상), 학력(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경제활동 상태(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투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박탈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에 주목하고자, 세 개의 연령군, 즉 청년(35세 미만), 중장년(35-64세), 그리고 노인(65세 이상)에 대해 별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결과

먼저, 아래 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3,669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아래 표는 조사 결과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18] 남성과 여성은 거의

18) 이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4.7세이다.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가장 많아 43.4%이며, 다음으로 대학 이상(40.2%), 중졸 이하(16.4%)의 순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노인, 주부를 포함하여 총 30%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비임금근로자가 23.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5.2%의 순이며, 실업자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3〉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항목	비율
성별	남자	50.5
	여자	49.5
연령	평균연령	44.7
	19-34세	29.4
	35-64세	60.0
	65세 이상	10.7
학력	중졸 이하	16.4
	고졸 이하	43.4
	대학 이상	40.2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자	30.0
	실업자	3.1
	비임금근로자	23.4
	비정규직임금근로자	15.2
	정규직임금근로자	28.3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박탈지표와 관련하여, 개별 항목별 박탈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명 중 약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여행을 갈 수 없거나(26.1%),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거나(26.65%),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26.28%),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25.40%)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는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거나,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할 물질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박탈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16.74%),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할 여력이 없는 경우(11.07%), 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도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경우(9.79%), 계절 정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9.26%) 등이다.

절대적 박탈 경험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5.64%),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1개월 이상 주지 못한 경험(3.77%),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3.13%),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2.79%), 집세가 밀렸거나 이로 인해 이사한 경험(2.38%),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경험(2.34%)의 순이었다. 특히, 절대적 박탈 항목 중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0.3%로, 균등화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12.3%에 비해서는 낮지만 상당한 비율이다. 즉, 10명 중 1명 정도는 연간 절대적 박탈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다.

〈표 5-4〉 연령별·박탈 항목별 박탈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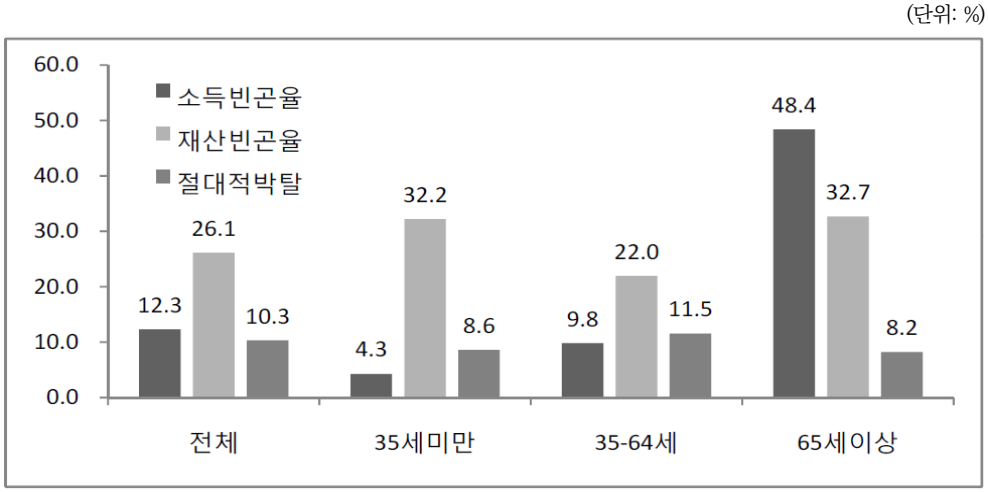
분류	구분	항목	전체	연령별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상대적 박탈	기초생활	1주일 1회 이상 육류 섭취	6.99	4.35	6.50	16.99
		1주일 1회 이상 과일 섭취	7.12	6.49	6.07	14.73
		기호식품 구입	2.99	1.35	2.51	10.23
		동절기 의류 2벌 이상	4.04	2.38	4.38	6.67
		계절 정장 보유	9.26	9.25	8.55	13.27
	주택 및 주거 환경	적절한 난방	2.07	0.99	2.28	3.90
		적절한 방 수	3.56	3.86	3.66	2.22
		10분내 대중교통	2.34	1.19	2.52	4.54
		옥탑방이나 (반)지하 아닌 지상 거주	5.46	6.38	5.13	4.76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0.96	0.53	1.00	1.92
	의료 및 건강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진료	7.84	7.80	7.99	7.14
		치과 치료	4.35	3.44	4.12	8.15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매	1.35	1.07	1.36	2.10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1년 1회 이상 가족여행	26.10	21.86	24.17	48.65
		특별한 날 기념	11.07	8.35	11.06	18.63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26.65	17.70	26.64	51.32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5.43	2.77	5.65	11.54

분류	구분	항목	전체	연령별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미래 대비	비일상적 지출에 대비(저축)	26.28	24.20	23.28	48.87
		노후 대비 연금이나 저축	25.40	30.06	19.47	45.96
		사보험 가입	16.74	18.67	11.72	39.67
	자녀 양육 및 교육[1]	자녀 고등교육 가능	5.30	2.19	6.12	11.84
		학원 수강이나 과외 가능	9.79	5.79	10.80	19.54
		기본 참고서나 도서 구매 가능	2.61	1.28	2.57	17.26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 책임	3.26	1.71	3.30	17.26
절대적 박탈	기초생활	결식, 절식	5.20	4.40	5.69	4.62
		공과금 미납	5.64	4.49	6.73	2.74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	2.34	1.37	2.86	2.03
	주택 및 주거 환경	추운 겨울 난방 불가	3.13	1.02	3.73	5.58
	주택 및 주거 환경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2.38	2.25	2.75	0.63
	의료 및 건강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감	2.79	1.57	3.16	4.02
	자녀 양육 및 교육[2]	공교육비 1개월 이상 체납	3.77	2.90	4.06	3.69

주 1) 2)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된 사람 대비 비율임.

〔그림 5-2〕 빈곤율(중위 50% 기준) 및 절대적 박탈 경험률

(단위: %)



주: 1) 소득은 1인 균등화된 가구소득 기준이며, 재산은 가구총재산 기준임.
2) 절대적 박탈은 7개의 박탈 중 1개 이상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임.

연령별로 볼 때 두드러진 점은, 첫째,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생활이나 미래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어찌 보면 매우 현실성 있는 결과로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48.4%에 이르는 노인의 높은 소득 빈곤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인의 빈곤과 저소득은 현재 취학 중인 자녀 혹은 손자에 대한 교육 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소 놀라운 결과로, 지난 1년간 1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5-64세의 중장년층에서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적 박탈의 경우 상시적인 저소득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서 훨씬 더 높게 발생하는 반면, 일시적 생활상의 박탈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과금이나 자녀 공교육비 체납,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그리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경우 등의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이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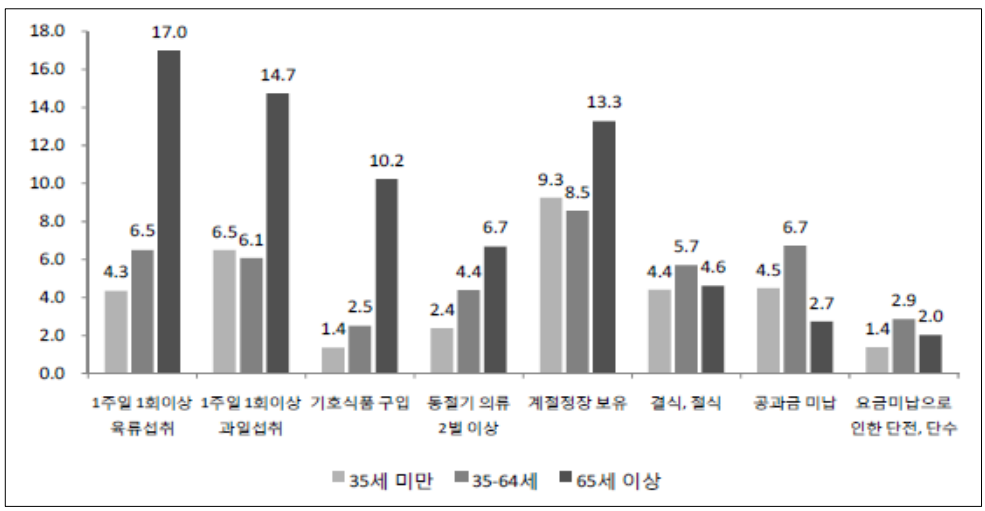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35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이지만 주거의 질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6.4%, 적절한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청년 주거 빈곤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5-5〉 연령별 박탈의 빈도

연령 구분	기초생활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미래 대비	절대적 박탈
35세 미만		적절한 방수 지상거주					
35세-64세	결식 공과금 미납 단전, 단수	적절한 방수 집세체납 이사	만성질 환진료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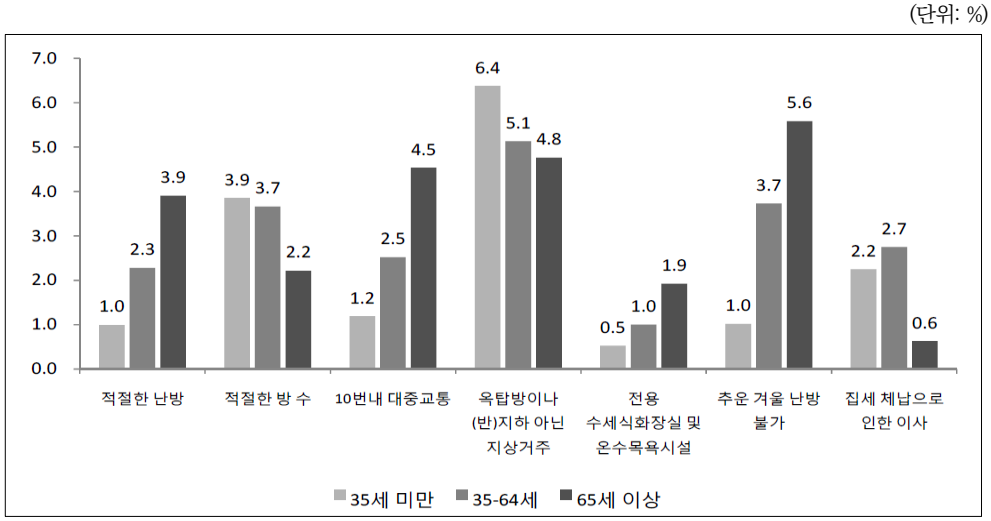
〔그림 5-3〕 연령별 기초생계 박탈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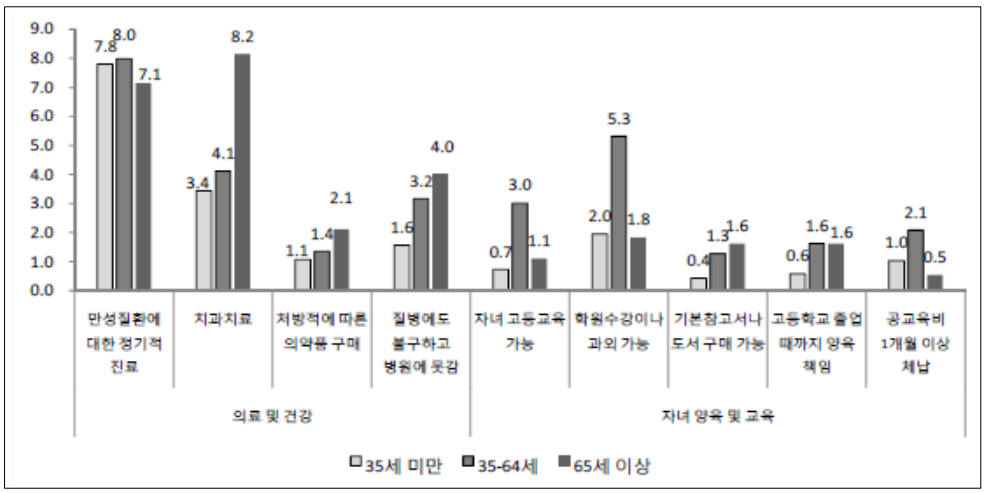
〔그림 5-4〕 연령별 주거 박탈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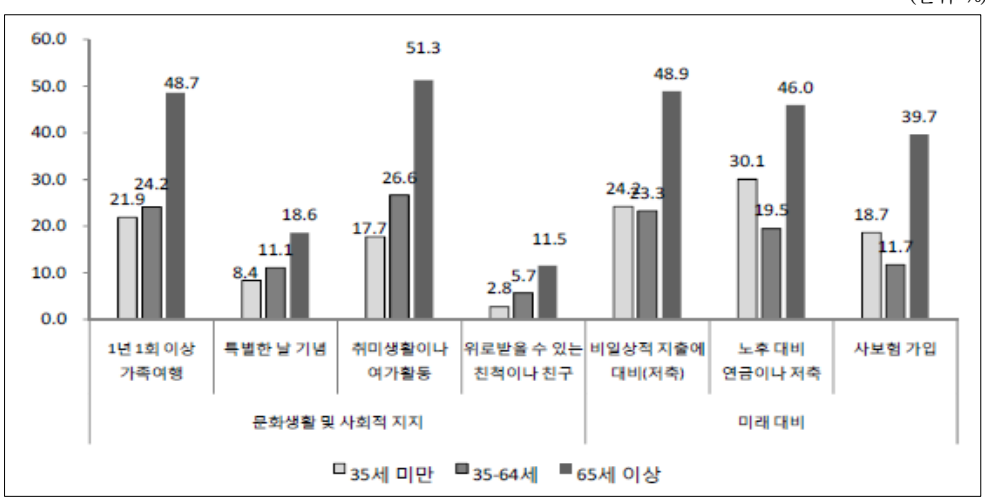
〔그림 5-5〕 연령별 의료 박탈 및 교육 박탈 비율

(단위: %)



〔그림 5-6〕 연령별 문화생활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 비율

(단위: %)



다음으로, 연령별 사회통합 인식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점수는 41.82점,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점수는 38.60점,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점수는 38.22점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우리 사회의 통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5-6〉 연령별 사회통합인식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F	Prob>F
전반적인 사회통합	41.82	41.99	41.70	42.03	0.12	0.888
사회적 포용	38.60	37.00	38.85	41.60	14.2	0.000
사회적 신뢰	38.22	36.24	38.94	39.61	12.8	0.000

마지막으로, 아래 표는 박탈과 사회통합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박탈 영역 및 총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인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박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관관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둘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서 그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7〉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상관관계

구분	① 기초 박탈	② 주거 박탈	③ 의료 박탈	④ 문화 박탈	⑤ 미래 박탈	⑥ 교육 박탈	⑦ 상대 박탈	⑧ 절대 박탈	⑨ 총박탈	⑩ 소득	⑪ 재산	⑫ 전반적 통합	⑬ 사회적 포용	⑭ 사회적 신뢰
① 기초 박탈	1.000													
② 주거 박탈	0.602	1.000												
③ 의료 박탈	0.575	0.509	1.000											
④ 문화 박탈	0.401	0.292	0.290	1.000										
⑤ 미래 박탈	0.362	0.302	0.271	0.559	1.000									
⑥ 교육 박탈	0.361	0.419	0.309	0.169	0.186	1.000								
⑦ 상대 박탈	0.624	0.521	0.533	0.819	0.779	0.392	1.000							
⑧ 절대 박탈	0.797	0.731	0.576	0.175	0.197	0.461	0.323	1.000						
⑨ 총박탈	0.832	0.725	0.663	0.701	0.681	0.505	0.905	0.694	1.000					
⑩ 소득	-0.156	-0.075	-0.122	-0.277	-0.272	-0.058	-0.293	-0.056	-0.248	1.000				
⑪ 재산	-0.152	-0.117	-0.114	-0.203	-0.186	-0.059	-0.220	-0.097	-0.211	0.320	1.000			
⑫ 전반적 통합	-0.105	-0.064	-0.061	-0.136	-0.117	-0.048	-0.139	-0.068	-0.136	0.041	0.080	1.000		
⑬ 사회적 포용	-0.064	-0.023	-0.016	-0.054	-0.039	-0.025	-0.052	-0.044	-0.059	-0.011	-0.015	0.437	1.000	
⑭ 사회적 신뢰	-0.074	-0.039	-0.020	-0.078	-0.057	-0.026	-0.074	-0.049	-0.078	-0.014	-0.019	0.433	0.801	1.000

2. 박탈이 주관적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먼저, 박탈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박탈점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연령에서 총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통합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5-8〉 총박탈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총박탈점수		-0.666***	-0.965***	-0.597***	-0.538**
		(0.080)	(0.185)	(0.099)	(0.203)
여성(남성=0)		1.751**	-0.903	2.849***	1.452
		(0.633)	(1.211)	(0.850)	(1.795)
연령 (35세미만=0)	35-64세	-0.206			
		(0.726)			
	65세 이상	1.582			
		(1.238)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702	-3.125	1.349	0.254
		(0.958)	(5.833)	(1.142)	(2.047)
	대학 이상	0.094	-2.629	0.383	-0.689
		(1.022)	(5.820)	(1.196)	(3.590)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1.373	-2.176	-0.356	-7.697
		(1.942)	(3.012)	(2.829)	(6.902)
	자영자	-1.983*	0.384	-2.078	-1.968
		(0.855)	(2.372)	-1.115	-1.933
	비정규직근로자	-2.095*	-2.218	-2.073	-1.151
		(0.969)	(1.835)	-1.295	-2.613
	정규직근로자	0.467	0.177	0.565	4.09
		(0.861)	(1.479)	(1.181)	(4.494)
상수		42.990***	48.005***	41.637***	44.209***
		(1.301)	(5.943)	(1.480)	(1.994)
N		3,669	948	2,281	440
r2		0.028	0.037	0.03	0.026

이 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통합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뿐, 다른 인구학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9〉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박탈		-0.086**	-0.167*	-0.075	-0.007
		(0.033)	(0.070)	(0.043)	(0.088)
주거 박탈		-0.006	-0.11	0.035	-0.083
		(0.045)	(0.096)	(0.056)	(0.129)
의료 박탈		0.025	0.032	0.035	-0.002
		(0.031)	(0.065)	(0.039)	(0.082)
문화 박탈		-0.050***	-0.046	-0.056**	-0.032
		(0.014)	(0.032)	(0.018)	(0.030)
미래 대비 박탈		-0.035**	-0.02	-0.046**	-0.033
		(0.011)	(0.021)	(0.016)	(0.023)
교육 박탈		-0.029	-0.069	-0.032	0.044
		(0.035)	(0.089)	(0.041)	(0.126)
여성(남성=0)		1.648**	-0.978	2.688**	1.445
		(0.633)	(1.219)	(0.850)	(1.810)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0.282			
		(0.730)			
	65세 이상	2.069			
		(1.2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321	-3.554	0.703	-0.097
		(0.965)	(5.885)	(1.155)	(2.079)
	대학 이상	-0.442	-3.081	-0.494	-0.933
		(1.034)	(5.864)	(1.219)	(3.610)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0.883	-2.079	0.221	-7.153
		(1.945)	(3.050)	(2.826)	(6.951)
	자영자	-2.103*	0.257	-2.296*	-1.921
		(0.856)	(2.379)	(1.117)	(1.985)
	비정규직근로자	-2.110*	-2.107	-2.108	-1.367
		(0.969)	(1.843)	(1.295)	(2.653)
	정규직근로자	0.253	0.227	0.177	4.225
		(0.864)	(1.490)	(1.185)	(4.539)
상수		43.905***	48.402***	43.079***	44.989***
		(1.330)	(5.971)	(1.527)	(2.097)
N		3,669	948	2,281	440
r2		0.032	0.039	0.038	0.03

박탈의 영역별로 전반적인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 박탈, 그리고 미래 대비에 대한 박탈이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박탈을 경험하거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생활 또는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되거나, 미래의 불안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 사회의 통합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령대별로 볼 때, 35세 미만의 청년은 절대적·기초적 박탈 경험이 높을수록, 중장년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렵거나, 미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다만 노인의 경우 총박탈과는 달리 영역별 박탈은 개별적으로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박탈이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앞서 전체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총박탈점수는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볼 때 35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다고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경우 그 정도는 청년에 비해 약하지만 역시 포용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박탈점수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청년이 중장년층이나 노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또, 전체적인 사회통합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실업자와 자영자가 비경활인구에 비해 사회적 포용도에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총박탈점수		-0.239***	-0.738***	-0.062	-0.329*
		(0.068)	(0.158)	(0.086)	(0.149)
여성(남성=0)		1.034	-1.231	2.413**	0.516
		(0.544)	(1.035)	(0.744)	(1.317)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1.881**			
		(0.623)			
	65세 이상	3.705***			
		(1.063)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134	0.934	0.859	-1.928
		(0.823)	(4.983)	(0.999)	(1.501)
	대학 이상	-1.642	-0.327	-1.203	1.945
		(0.878)	(4.973)	(1.046)	(2.633)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1.599	-0.918	-0.816	-11.844*
		(1.668)	(2.573)	(2.475)	(5.062)
	자영자	-1.138	-3.059	0.666	-4.333**
		(0.734)	(2.026)	-0.976	-1.418
	비정규직근로자	-0.594	-1.918	0.931	-1.525
		(0.832)	(1.568)	-1.133	-1.916
	정규직근로자	0.757	0.042	2.270*	-5.049
		(0.739)	(1.263)	(1.033)	(3.296)
상수		37.950***	39.521***	36.981***	43.860***
		(1.117)	(5.078)	(1.294)	(1.462)
N		3,669	948	2,281	440
r2		0.013	0.031	0.01	0.049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전체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기초생활 박탈과 문화적 박탈은 사회적 포용도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생필품 조달이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의 결핍을 경험할수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의료적 박탈을 경험할수록 사회적 포용도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을 유보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볼 때도 결과는 전체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 즉,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의 박탈을 경험할수록, 중장년의 경우 문화생활의 박탈을 경험할수록 사회적 포용도를 낮게 인식했다.

〈표 5-11〉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박탈		-0.098***	-0.213***	-0.073	-0.033
		(0.029)	(0.059)	(0.037)	(0.065)
주거 박탈		0.049	-0.08	0.083	0.012
		(0.038)	(0.082)	(0.049)	(0.094)
의료 박탈		0.078**	0.126*	0.078*	0.03
		(0.026)	(0.055)	(0.034)	(0.060)
문화 박탈		-0.034**	-0.042	-0.034*	-0.018
		(0.012)	(0.027)	(0.016)	(0.022)
미래 대비 박탈		-0.011	0.002	-0.009	-0.033
		(0.010)	(0.018)	(0.014)	(0.017)
교육 박탈		-0.001	-0.147	0.008	0.08
		(0.030)	(0.076)	(0.036)	(0.092)
여성(남성=0)		0.910	-1.335	2.276**	0.479
		(0.543)	(1.035)	(0.744)	(1.322)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1.900**			
		(0.626)			
	65세 이상	4.089***			
		(1.0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197	-0.126	0.328	-2.295
		(0.828)	(4.998)	(1.010)	(1.518)
	대학 이상	-2.100*	-1.399	-1.885	1.671
		(0.887)	(4.980)	(1.066)	(2.636)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1.179	-0.971	-0.418	-11.091*
		(1.667)	(2.590)	(2.472)	(5.075)
	자영자	-1.275	-3.366	0.521	-4.593**
		(0.734)	(2.020)	(0.977)	(1.449)
	비정규직근로자	-0.587	-1.731	0.897	-1.78
		(0.831)	(1.565)	(1.133)	(1.937)
	정규직근로자	0.601	0.138	2.022	-5.05
		(0.741)	(1.265)	(1.037)	(3.314)
상수		38.651***	40.390***	38.050***	44.919***
		(1.140)	(5.071)	(1.336)	(1.531)
N		3,669	948	2,281	440
r2		0.020	0.045	0.017	0.062

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박탈이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결과는 위의 두 가지 사회통합 변수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의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즉,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연령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이할만한 점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장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12〉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총박탈점수		-0.434***	-0.784***	-0.363***	-0.239
		(0.067)	(0.161)	(0.082)	(0.166)
여성(남성=0)		0.791	-1.738	2.167**	0.831
		(0.533)	(1.052)	(0.706)	(1.469)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2.248***			
		(0.611)			
	65세 이상	2.786**			
		(1.042)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1.014	0.653	-0.532	-2.485
		(0.806)	(5.067)	(0.948)	(1.675)
	대학 이상	-3.005***	-0.857	-2.601**	0.833
		(0.860)	(5.056)	(0.993)	(2.938)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1.163	-3.024	2.565	-15.844**
		(1.635)	(2.617)	(2.348)	(5.647)
	자영자	-0.490	-3.043	1.36	-2.453
		(0.719)	(2.060)	-0.926	-1.581
	비정규직근로자	0.089	-2.852	2.134*	0.41
		(0.815)	(1.595)	-1.075	-2.138
	정규직근로자	1.314	0.324	2.685**	-0.074
		(0.725)	(1.285)	(0.981)	(3.677)
상수		38.787***	39.845***	38.440***	41.601***
		(1.095)	(5.163)	(1.228)	(1.631)
N		3,669	948	2,281	440
r2		0.022	0.041	0.019	0.035

박탈의 영역별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생계에서의 박탈과 문화적 박탈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재확인된다. 문화적 박탈 영역에는 사회적 지지(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문화적으로 박탈된 경우 사회적 신뢰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어떠한 박탈 영역도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이다.

〈표 5-13〉 박탈 영역별 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 박탈		-0.074**	-0.223***	-0.021	-0.054
		(0.028)	(0.060)	(0.035)	(0.072)
주거 박탈		-0.016	-0.064	0.005	-0.104
		(0.038)	(0.083)	(0.047)	(0.105)
의료 박탈		0.056*	0.097	0.037	0.103
		(0.026)	(0.056)	(0.032)	(0.067)
문화 박탈		-0.051***	-0.057*	-0.053***	-0.039
		(0.012)	(0.028)	(0.015)	(0.024)
미래 대비 박탈		-0.009	0.004	-0.02	0.003
		(0.009)	(0.018)	(0.013)	(0.019)
교육 박탈		-0.027	-0.066	-0.04	0.105
		(0.030)	(0.077)	(0.034)	(0.102)
여성(남성=0)		0.662	-1.909	2.015**	0.555
		(0.533)	(1.054)	(0.706)	(1.475)
연령 (35세 미만=0)	35-64세	2.332***			
		(0.614)			
	65세 이상	3.109**			
		(1.047)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1.338	-0.341	-1.014	-2.553
		(0.812)	(5.087)	(0.959)	(1.694)
	대학 이상	-3.472***	-1.865	-3.320**	0.495
		(0.870)	(5.069)	(1.012)	(2.942)
경제활동 상태 (비경활=0)	실업자	-0.829	-2.969	2.916	-14.956**
		(1.636)	(2.637)	(2.347)	(5.664)
	자영자	-0.514	-3.272	1.286	-2.398
		(0.720)	(2.056)	(0.927)	(1.617)
	비정규직근로자	0.136	-2.594	2.194*	0.12
		(0.815)	(1.593)	(1.075)	(2.162)
	정규직근로자	1.229	0.493	2.440*	0.3
		(0.727)	(1.288)	(0.984)	(3.699)
상수		39.373***	40.669***	39.519***	42.121***
		(1.118)	(5.161)	(1.268)	(1.708)
N		3,669	948	2,281	440
r2		0.027	0.052	0.025	0.047

제4절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연령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14〉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구분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총박탈점수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여〉남** 자영〈비경활	총박탈점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여〉남** 정규직〉비경활	총박탈점수 자영, 실업〈비경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청년〈중장년, 노인 대학 이상〈중졸 이하	총박탈점수 **기초생계 박탈** **문화 박탈**	**문화 박탈** **대학 이상〈중졸 이하** **여〉남** 임금근로자〉비경활	실업자〈비경활

첫째, 전 연령에서 총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박탈 영역 및 총박탈점수는 사회통합 인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박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체적으로 총박탈점수는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볼 때 35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도가 낮다고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경우 그 정도는 청년에 비해 약하지만 역시 포용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박탈점수와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총박탈점수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35-64세 인구의 경우에는 사회적 포용 및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에서 문화 박탈의 경우가 유의하게 인식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행 등 가족과의 여가시간,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존재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할수록 사회적 포용, 또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주로 소득이나 지출—드물지만 재산—을 많이 활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는 총량적 수준에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의외로 상관관계의 수준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0.2 내외), 사회통합 인식에 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19]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소득과 재산의 빈곤율은 노인에 비해 훨씬 낮지만, 지난 1년간 절대적 박탈을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노인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집단인 만큼 상시적인 빈곤에 빠질 위험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만큼 생애주기상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 부담도 가장 많은 연령대이니만큼 소득 수준이 생활 영역 전반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구나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박탈지표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둘째, 박탈지표는 다차원적 박탈의 영역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박탈의 영역이 사회통합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특히, 기초생계 박탈과 문화적 박탈, 그리고 미래 대비에서의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기초생계의 박탈이 일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포괄적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생애주기상 사회의 첫발을 내딛기 시

19) 미미하지만 사회통합 인식과 상관관계 수준이 더 높았고, 지면에 게재하지는 않았으나 소득, 재산, 혹은 소득 계층을 투입한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작하는 시점부터 결핍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은 청년의 전반적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보고서(여유진, 정해식 등, 2015)의 '최근 세대로 올수록 사회의 기회구조가 점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사회이동 통로 확대와 청년 기초생계 보장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특히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OECD 2위의 긴 평균 근로시간[20]으로 대변되는 "피로사회"로서,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즉, 문화적 박탈의 결과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이러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의 경우 유독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문화적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결합해 보면 이러한 그림은 대략 들어맞는다. 더불어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특히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미래 대비의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공적 보장제도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의 상시적 불안감을 안겨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 한국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많다[한국일보(2016.8.15.자), "한국 근로자 노동시간 OECD 2위, 임금은 중하위권"].

제 6 장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6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경제성장 촉진, 근로의욕 고취, 탈빈곤 유도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통합 수준을 증진하려는 사회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행복의 질과 총량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수준은 결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이나 행복에 대하여 합의된 정의와 공리적 관계에 대한 동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직관적으로 사회통합은 개개인의 행복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합된 사회는 개개인을 포용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 구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행복을 증진한다. 반면에, 통합된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행복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는 TV에 등장할 수조차 없었던 동성애자가 지금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사회통합은 개개인의 행복 수준에 기여할 수도, 혹은 행복 수준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함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복합적인 역할 경로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행복의 측정 결과가 질문 시점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횡단분석이 적절하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가. 주관적 행복의 측정

최근 '행복(happiness)'을 키워드로 하는 수만의 국내 및 국제 학술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직관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행복'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술연구 대상으로서의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우선 탐색하고자 한다.

2008년 프랑스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스티글리츠 위원회(Stiglitz, et al., 2009)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초 여건, 건강, 교육, 대인관계, 환경 등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함께 특히 주관적 삶의 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이 '행복'으로 축약될 수 있고, 특정 시점에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삶의 만족'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 및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정서적 경험(hedonic experiences)'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영국 통계청 ONS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Lucy, T. 2015, pp.375-377)에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분류한 행복의 차원인 삶의 만족도 및 정서적 행복의 개념과 함께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획득한 삶의 의미나 목적을 반영하는 유데모닉 행복(Eudaimonic happiness)을 행복의 차원에 추가하였다. 유데모닉 행복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및 윤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좋은 시민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의 양상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서 Wang, et al.(2014, pp.7-34)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를 비교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적 삶의 질의 측정 차원을 정서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안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 갤럽월드폴(World Gallup Poll),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아시아바로미터(Asianbarometer), 통계청 사회조사 등에서 활용하는 질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Wang은 삶의 만족도가 행복의 측정 도

구로 흔히 활용되는 삶의 만족도가 정서적 행복과 유데모닉 행복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 스펙트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행복의 개념 스펙트럼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기반을 두는 정서적 행복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제시되는 '좋은 삶(Eudaimonia)'을 반영하는 이성적인 행복에 이르기까지, 각각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정서적 행복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한 가치 평가의 유데모닉 행복으로 명명하고, 두 개 차원 사이에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반영하는 삶의 만족도를 배치하고 있다(김성아, 김미곤, 2016, p. 265).

〈표 6-1〉 행복의 개념 구성

구분		감정 ◀——▶ 이성			
개념		정서적 행복 (Affective Happiness)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유데모닉 행복 (Eudaimonic Happiness)
		긍정적 감정 (행복)	부정적 감정 (우울, 불안 등)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한 가치 평가
이론적 근거		벤담의 공리주의 ◀——▶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정치학
측정 방법 및 요소	ONS	Overall, how happy did you feel yesterday?	Overall, how anxious did you feel yesterday?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nowadays?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l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자료: 김성아, 김미곤(2016). p.265 재구성.

나. 주관적인 사회통합과 주관적인 행복

개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문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복에 대한 사회통합의 영향을 확인한 문헌은 비교적 소수이다. 그러나 사회통합 수준이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결과는 유사하다. 개별 문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서 김미곤 등(2014)은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당신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라는 질문

으로 측정되는 정서적 행복에 대하여 사회통합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 갈등 인식, 불공정 인식과 사회활동 참여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신뢰 수준과 사회활동 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서적 행복을 증진하는 반면, 갈등 인식과 불공정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서적 행복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Delhey, J., & Dragolov, G.(2015)는 27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럽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행복을 삶의 만족도와 낙관주의, 삶의 목표, 자율, 시간, 환경 통제, 긍정적 관계의 심리적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베텔스만재단 사회통합 지수(Bertelsmann Foundation's Cohesion Index)를 사회통합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 지수에는 연계(connectednes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공공선(focus on the common good)의 차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결과 국가 차원의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 분포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유대·공익의 사회통합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나 공익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형태로 행복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제도와의 유대는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른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보다 강력하고, 불평등 수준(the degree of inequality)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소득 차이(income differences)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결국,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그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유의한 역할을 하고, 개별 국가 내에서 연계와 사회적 관계, 공공선의 사회통합은 부유한 집단과 빈곤한 집단 모두의 행복을 증진한다.

Adams, R. E., & Serpe, R. T.(2000)는 로스앤젤레스 1,916가구 무작위 전화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활용해 삶의 만족도에 이웃과의 관계로 측정되는 사회통합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관적 취약성이 개개인의 행복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는 개개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증진한다. Mathieson, A., & Koller, T.(2008)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결정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험요소는 빈곤, 사회적 배제, 폭력, 동료 거부, 소외, 가족 지원의 부족으로 확인된 반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 요소로는 지역사회 통합 수준,

가족 안녕, 개인 행위와 기술,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제안되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통합은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역할이 개인을 사회와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개인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통합과 행복의 직접 관계에 대한 접근에 불과하여,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로에서 사회통합의 역할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을 사회적 관계나 신뢰 등 대리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의 관계도에 근거하여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에 주관적인 사회통합 인식이 미치는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16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을 두 축으로 응답자를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모두 낮은 집단, 둘 중 하나가 높고 다른 하나는 낮은 집단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인식 현황과 함께 정책 개입의 근거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산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가. 변수 설명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의 구성 요소는 정서적 행복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도와 유데모닉 행복이다. 각각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긍정적 감정의 평균은 6.5, 부정적 감정은 3.1, 삶의 만족도는 6.2, 유데모닉 행복은 6.6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부정적 감정(2.31), 긍정적 감정(2.03), 삶의 만족도(1.91), 유데모닉 행복(1.84)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데모닉 행복이 행복의 다른 차원에 비해 개개인의 편차를 덜 반영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2〉 행복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구분		질문	변수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행복	긍정적 감정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6.5	2.03	0	10
	부정적 감정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3.1	2.31	0	10
삶의 만족도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6.2	1.91	0	10
유데모닉 행복		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6	1.84	0	10

나. 행복의 결정 요인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하여 탐색된 행복의 주요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문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 수준이 높고, 연령에 따라 중장년층의 행복 수준이 낮은 U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므로(김미곤 등, 2014; Clark, E., et al., 1994; Stone, et al., 2010; Steptoe, A., et al., 2015), 혼인 상태 등 가구 특성(Gardner and Oswald, 2004; Lucas and Clark, 2003; Grover and Helliwell, 2014)과 주요 통제 변수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연령 제곱값을 투입하고자 한다. 또한 일정 특이점 이하에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정적일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김미곤 등, 2014; Easterlin, 1974; Kahneman, 2003; Kahneman, et al., 2006; Brown, D., et al., 2008; Clark, E., et al., 2009; Diener, et al., 2010; Helliwell and Huang, 2011; Clark, 2011), 균등화된 가구 총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상태를 개인의 객관적 특성으로 행복의 구성 요소에 투입하였다.

〈표 6-3〉 행복 결정 요인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변수	변수설명	변수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별	① 남, ② 여(더미변수)	0.49	0.50	0	1
연령(연령제곱)	만 나이(=2016-생년)	44.7	14.97	19	75
주관적 건강 상태	대체로 말해서 귀하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5점 척도)	0.4	0.49	0	1
균등화 가구 총소득	로그 균등화 가구 총소득	221.4	130.29	0	2900
균등화 자산	로그 거주 주택 가격+금융재산+기타 부동산 및 재산	14602.5	17517.36	0	233345.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대졸 이상(더미변수)	2.4	0.86	1	5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상태(비경제활동인구=0)				
	임금근로자	0.4	0.50	0	1
	고용주 및 자영업자	0.2	0.41	0	1
	실업자	0.0	0.17	0	1

다. 사회통합 인식

다음은 이 장에서 시도하는 분석의 주요 변수인 사회통합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즉,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통합 인식과 함께, 사회통합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 인지적 요인으로, 주관적 소득 계층, 사회이동 경험, 선택과 통제의 자유, 소득 격차 인식, 사회적 관계, 사회 신뢰, 관용, 그리고 이념적 성향을 활용할 것이다.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초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4〉 사회통합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학적 특성

구분	질문	변수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통합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4.2	1.82	0	10
주관적 소득 계층	우리 사회의 소득 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2.4	0.79	1	5
사회이동 경험	10년 동안 생활수준 변화 정도(5점 척도)	3.1	0.78	1	5
선택과 통제의 자유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11점 척도)	6.6	1.96	0	10

구분	질문	변수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득 격차 인식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5점 척도)	4.1	0.76	1	5
사회적 관계	(①귀하가 어떤 이유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지, 친구, 동료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② 귀하 또래와 비교할 때, 귀하는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2(5점 척도)	2.4	0.59	1	5
사회 신뢰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11점 척도)	4.7	1.90	0	10
관용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나라에 온 외국인 거주자(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4점 척도)	2.9	0.51	1	4
이념적 성향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5점 척도)	2.9	0.78	1	5

제3절 분석 결과

1.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응답 분포

개인 단위의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적 근거는 미진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응답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양한 개념의 복합체인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를 각각의 변수에 대한 대표 개념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응답 분포에 따라 평균의 근삿값을 기준으로 한 집단 구분을 시도하였다. 우선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집단을 집단①로, 삶의 만족도는 높되 사회통합 인식은 낮은 집단을 집단②로, 삶의 만족도는 낮되 사회통합 인식은 높은 집단을 집단③으로,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집단을 집단④로 구분하였다. 집단 ①은 전체의 9.9%이고, 집단②와 집단④는 각각 43.0%을 차지하는 데에 비해, 집단③은 4.1%에 불과하다.

〈표 6-5〉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분포

구분		사회통합 인식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계
삶의 만족도	⓪	0.3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0.5
	①	0.1	0.1	0.1	0.1	0.3	0.2	0.0	0.0	0.0	0.0	0.0	0.8
	②	0.1	0.2	0.6	0.5	0.3	0.3	0.1	0.2	0.0	0.0	0.0	2.2
	③	0.4	0.4	1.0	1.5	0.6	1.0	0.1	0.1	0.1	0.0	0.0	5.1
	④	0.1	0.3	0.7	1.5	0.8	1.3	0.4	0.2	0.1	0.0	0.0	5.4
	⑤	1.0	0.9	3.4	5.7	5.0	8.5	1.4	1.0	0.4	0.1	0.0	27.3
	⑥	0.2	0.4	1.5	2.3	2.6	3.1	1.5	0.7	0.4	0.1	0.0	12.6
	⑦	0.3	0.3	1.8	3.5	2.6	5.4	2.1	1.6	1.1	0.0	0.0	18.7
	⑧	0.3	0.5	1.8	3.4	2.1	5.2	1.5	1.6	1.6	0.1	0.0	18.1
	⑨	0.0	0.2	0.4	0.9	1.0	1.9	0.6	0.5	0.3	0.2	0.0	5.9
	⑩	0.1	0.0	0.3	0.4	0.4	1.5	0.1	0.5	0.2	0.0	0.0	3.4
	소계	2.7	3.3	11.6	19.8	15.6	28.3	7.9	6.2	4.1	0.5	0.1	100.0

주 1) ⓪은 "매우 불만족" 및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의 부정적 의견이고, ⑩은 "매우 만족" 및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의 긍정적 의견임.
2) 사회통합 인식의 평균은 4.18,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6.17이므로, 평균의 근삿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함.

〈표 6-6〉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 구분

집단 구분	빈도	비율
① 사회통합 인식 ⇩ & 삶의 만족도 ⇩	364	9.9
② 사회통합 인식 ⇩ & 삶의 만족도 ⇧	1,579	43.0
③ 사회통합 인식 ⇧ & 삶의 만족도 ⇩	150	4.1
④ 사회통합 인식 ⇧ & 삶의 만족도 ⇧	1,577	43.0
합계	3,669	100.00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단, 집단③의 비중은 4.1%에 불과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집단④, 집단②, 집단①의 순으로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구원수로 측정하는 가구 규모는 같은 순서로 점차 작아진다.

경제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였다. 집단④, 집단②, 집단①의 순으로 균등화 가구 총소득과 균등화 가구 자산이 감소하고, 균등화 가구 부채는 증가하였다. 반면, 균등화 가구 소비의 경우, 집단②가 가장 많고, 집단④, 집단①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소득 계층과 사회이동 경험, 선택과 통제의 자유, 소득 격차 인식, 사회적 관계, 사회 신뢰, 관용과 이

념적 성향을 확인하였다. 집단④, 집단②, 집단①의 순으로 주관적 소득 계층과 사회이동 경험, 선택과 통제의 자유, 사회적 관계, 사회신뢰, 관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소득 격차 인식은 집단④, 집단②, 집단①의 순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이념적 성향은 집단①과 집단④에 비해 집단 ②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통계치와 경향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6-7〉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특성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F-value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F-value
연령	①	46.3	14.86	3.25 *	가구원수	①	2.9	1.30	3.3 *
	②	44.7	14.92			②	3.0	1.24	
	④	44.1	14.94			④	3.1	1.27	
	전체	44.6	14.93			전체	3.0	1.26	
균등화 가구 총소득	①	190.6	124.73	13.56 ***	균등화 가구 소비	①	122.7	66.52	6.27 *
	②	221.9	133.29			②	136.3	69.15	
	④	229.3	123.00			④	132.6	64.89	
	전체	222.0	128.35			전체	133.2	67.10	
균등화 가구 자산	①	9631.4	10095.25	20.66 ***	균등화 가구 부채	①	2270.4	5284.76	13.79 ***
	②	14700.1	16784.86			②	1300.6	2981.81	
	④	16214.3	19787.88			④	1208.4	3502.18	
	전체	14854.5	17772.75			전체	1359.0	3527.93	
주관적 소득 계층	①	1.9	0.81	136.89 ***	사회 이동 경험	①	2.7	0.94	55.12 ***
	②	2.4	0.76			②	3.1	0.76	
	④	2.6	0.72			④	3.2	0.71	
	전체	2.4	0.78			전체	3.1	0.77	
선택과 통제의 자유	①	5.2	2.40	140.79 ***	소득 격차 인식	①	4.5	0.65	73.16 ***
	②	6.7	1.88			②	4.2	0.75	
	④	7.0	1.72			④	4.0	0.77	
	전체	6.7	1.94			전체	4.1	0.76	
사회적 관계	①	2.1	0.60	54.3 ***	사회 신뢰	①	3.3	1.82	297.81 ***
	②	2.4	0.58			②	4.4	1.79	
	④	2.4	0.55			④	5.5	1.72	
	전체	2.4	0.58			전체	4.8	1.90	
관용	①	2.7	0.59	39.23 ***	이념적 성향	①	2.9	0.80	3.43 *
	②	2.8	0.53			②	3.0	0.79	
	④	3.0	0.47			④	2.9	0.76	
	전체	2.9	0.52			전체	2.9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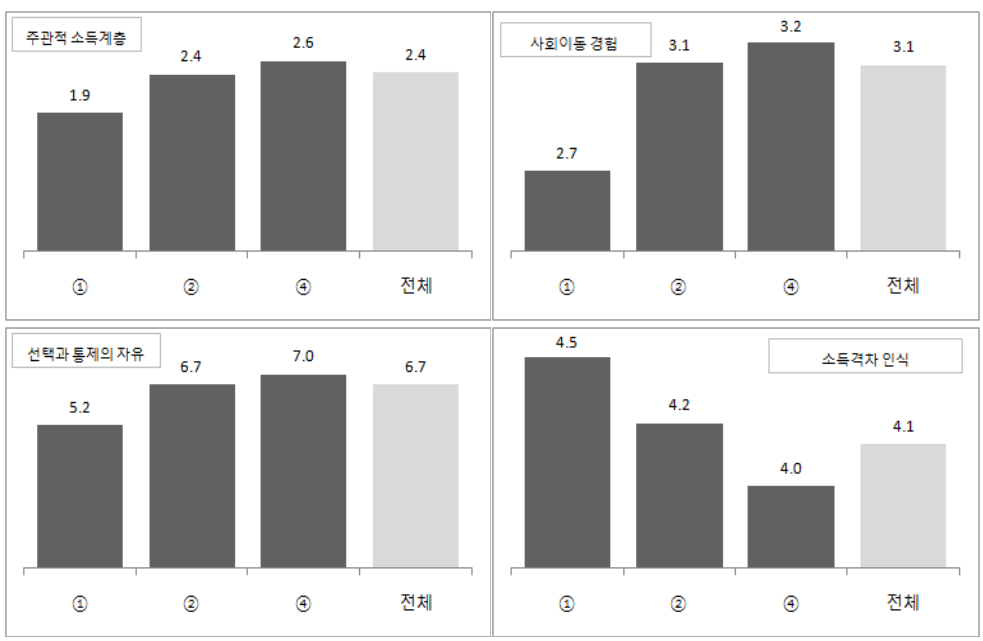
주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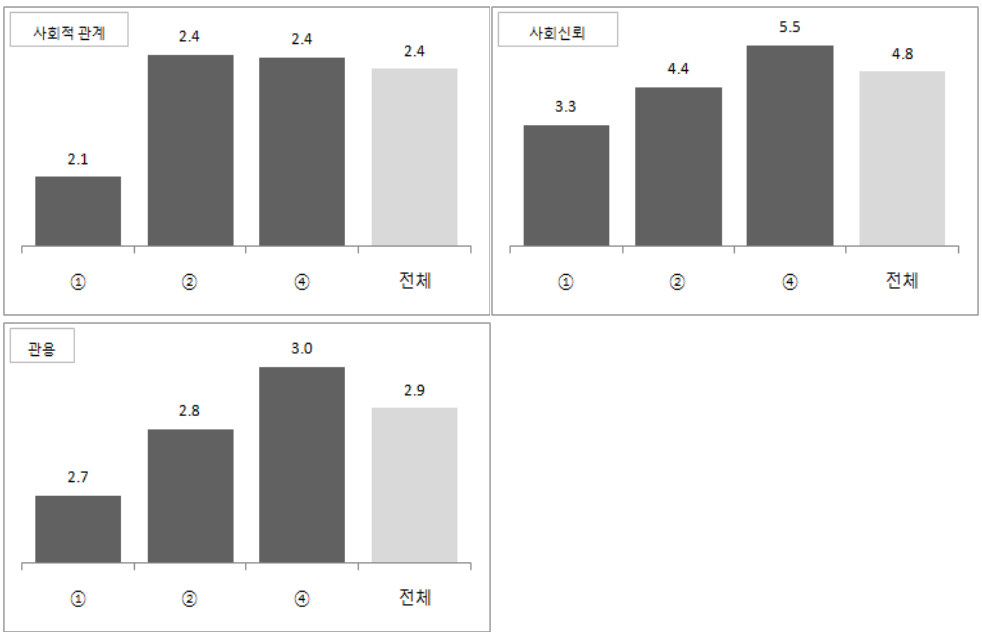
2) 각 집단 번호 및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②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③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④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그림 6-1〕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경제적 특성

주: 각 집단 번호 및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③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④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그림 6-2〕 사회통합 인식과 삶의 만족도 집단별 사회적 특성





주: 각 집단 번호 및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③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④ 삶의 만족도 ⇧ & 사회통합 인식 ⇧

2.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

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행복과 우울의 정서적 행복,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행복 등 행복의 다차원을 다루었다. 우선 전반적인 사회통합 인식은 행복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그 외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요소인 주관적 소득 계층이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사회이동을 경험한 경우, 선택과 통제가 자유로울수록, 사회적 관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를 신뢰할수록, 관용적일수록 모든 차원의 행복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 반면, 소득 격차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직관적인 관계와 일치하며, 김미곤 등(2014), Delhey, J., & Dragolov, G.(2015), Adams, R. E., & Serpe, R. T.(2000), Mathieson, A., & Koller, T.(2008) 등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사회통합 인식의 요소별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0.676, 우울에 대해 -0.664, 유데모닉 행

복에 대해 0.637, 정서적 행복에 대해 0.566의 순으로 다른 사회통합 인식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교감 뿐 아니라 도움 요청하기 및 돈 빌리기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이 사회와 통합되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8〉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사회통합 인식		0.183*** (0.017)								
주관적 소득 계층			0.535*** (0.045)							
사회이동 경험				0.360*** (0.042)						
선택/통제의 자유					0.314*** (0.016)					
소득 격차 인식						-0.242*** (0.041)				
사회적 관계							0.566*** (0.057)			
사회 신뢰								0.255*** (0.017)		
관용									0.304*** (0.063)	
이념적 성향										0.047 (0.043)
여성	0.110 (0.067)	0.069 (0.066)	0.124 (0.066)	0.103 (0.066)	0.073 (0.064)	0.097 (0.067)	0.137* (0.066)	0.088 (0.065)	0.119 (0.067)	0.111 (0.067)
연령	-0.042** (0.014)	-0.036* (0.014)	-0.037** (0.014)	-0.040** (0.014)	-0.024 (0.014)	-0.036* (0.014)	-0.026 (0.014)	-0.031* (0.014)	-0.041** (0.014)	-0.042** (0.014)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로그 균등화 가구 총소득	0.180* (0.071)	0.164* (0.070)	-0.024 (0.072)	0.096 (0.071)	0.101 (0.067)	0.177* (0.070)	0.087 (0.070)	0.160* (0.069)	0.162* (0.071)	0.179* (0.071)
로그 균등화 자산	0.099*** (0.026)	0.085*** (0.026)	0.020 (0.026)	0.078** (0.026)	0.062* (0.025)	0.090*** (0.026)	0.072** (0.026)	0.082** (0.025)	0.093*** (0.026)	0.099*** (0.026)
주관적 건강 상태	0.711*** (0.042)	0.648*** (0.041)	0.654*** (0.041)	0.688*** (0.041)	0.553*** (0.040)	0.699*** (0.042)	0.657*** (0.041)	0.582*** (0.041)	0.679*** (0.042)	0.711*** (0.042)
대졸	0.272*** (0.072)	0.281*** (0.071)	0.200** (0.071)	0.271*** (0.072)	0.273*** (0.069)	0.266*** (0.072)	0.211** (0.072)	0.291*** (0.070)	0.277*** (0.072)	0.270*** (0.072)
임금근로자	-0.349*** (0.083)	-0.350*** (0.081)	-0.248** (0.082)	-0.345*** (0.082)	-0.286*** (0.079)	-0.350*** (0.082)	-0.338*** (0.082)	-0.382*** (0.080)	-0.333*** (0.082)	-0.348*** (0.083)
자영업자/ 고용주	-0.175 (0.098)	-0.167 (0.097)	-0.112 (0.097)	-0.199* (0.097)	-0.234* (0.093)	-0.170 (0.098)	-0.233* (0.097)	-0.174 (0.095)	-0.162 (0.098)	-0.175 (0.098)
실업자	-1.185*** (0.201)	-1.164*** (0.198)	-1.070*** (0.197)	-1.119*** (0.199)	-1.059*** (0.191)	-1.217*** (0.200)	-1.141*** (0.198)	-1.037*** (0.195)	-1.154*** (0.200)	-1.187*** (0.201)
상수	2.968*** (0.447)	2.565*** (0.442)	3.510*** (0.441)	2.502*** (0.446)	1.932*** (0.428)	4.011*** (0.479)	2.239*** (0.447)	2.375*** (0.435)	2.354*** (0.463)	2.824*** (0.466)
N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adj. R-sq	0.127	0.153	0.159	0.144	0.212	0.135	0.150	0.180	0.132	0.127

주: * p<0.05 ** p<0.01 *** p<0.001

그 외 주관적 소득 계층의 영향력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0.587, 정서적 행복에 대해 0.535, 유데모닉 행복에 대해 0.460, 그리고 우울에 대해 -0.340의 순인데, 이성에 기반한 행복인 유데모닉 행복과 부정적 정서인 우울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인 행복을 비교적 크게 증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9〉 우울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사회통합 인식		-0.061**								
		(0.021)								
주관적 소득 계층			-0.340***							
			(0.054)							
사회이동 경험				-0.310***						
				(0.050)						
선택/통제의 자유					-0.295***					
					(0.019)					
소득 격차 인식						0.042				
						(0.049)				
사회적 관계							-0.664***			
							(0.067)			
사회 신뢰								-0.152***		
								(0.020)		
관용									-0.181*	
									(0.074)	
이념적 성향										-0.002
										(0.051)
여성	0.196*	0.209**	0.187*	0.202*	0.230**	0.198*	0.164*	0.209**	0.190*	0.196*
	(0.079)	(0.079)	(0.079)	(0.079)	(0.077)	(0.079)	(0.078)	(0.079)	(0.079)	(0.079)
연령	0.029	0.027	0.027	0.028	0.013	0.028	0.011	0.023	0.029	0.029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로그 균등화 가구 총소득	-0.264**	-0.258**	-0.135	-0.192*	-0.190*	-0.263**	-0.155	-0.252**	-0.253**	-0.264**
	(0.084)	(0.084)	(0.086)	(0.084)	(0.081)	(0.084)	(0.083)	(0.083)	(0.084)	(0.084)
로그 균등화 자산	-0.004	0.000	0.045	0.014	0.030	-0.003	0.026	0.006	-0.001	-0.004
	(0.031)	(0.031)	(0.032)	(0.031)	(0.030)	(0.031)	(0.031)	(0.031)	(0.031)	(0.031)
주관적 건강 상태	-0.633***	-0.612***	-0.597***	-0.613***	-0.485***	-0.631***	-0.569***	-0.556***	-0.614***	-0.633***
	(0.049)	(0.050)	(0.049)	(0.049)	(0.049)	(0.049)	(0.049)	(0.050)	(0.050)	(0.049)
대졸	-0.041	-0.044	0.005	-0.040	-0.041	-0.040	0.031	-0.052	-0.044	-0.041
	(0.085)	(0.085)	(0.085)	(0.085)	(0.083)	(0.085)	(0.085)	(0.085)	(0.085)	(0.085)
임금근로자	0.386***	0.386***	0.322**	0.382***	0.326***	0.386***	0.373***	0.406***	0.377***	0.386***
	(0.098)	(0.098)	(0.098)	(0.097)	(0.095)	(0.098)	(0.096)	(0.097)	(0.098)	(0.098)
자영업자/ 고용주	0.162	0.159	0.122	0.182	0.218	0.161	0.230*	0.162	0.154	0.162
	(0.116)	(0.116)	(0.116)	(0.116)	(0.113)	(0.116)	(0.115)	(0.115)	(0.116)	(0.116)
실업자	0.792***	0.785***	0.719**	0.735**	0.673**	0.798***	0.740**	0.704**	0.773**	0.792***
	(0.237)	(0.237)	(0.236)	(0.236)	(0.230)	(0.238)	(0.234)	(0.236)	(0.237)	(0.237)
상수	5.991***	6.125***	5.647***	6.391***	6.964***	5.810***	6.846***	6.345***	6.357***	5.995***
	(0.529)	(0.530)	(0.529)	(0.530)	(0.516)	(0.569)	(0.529)	(0.526)	(0.549)	(0.551)
N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adj. R-sq	0.066	0.068	0.076	0.076	0.124	0.066	0.091	0.081	0.068	0.066

주: * p<0.05 ** p<0.01 *** p<0.001

선택과 통제의 자유는 유데모닉 행복을 가장 크게 증진하고, 그 외 영향력의 크기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의 행복, 우울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사회통합 인식 요소와 다른 양상인데, 이 특성이 관용이나 사회 신뢰 등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적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10〉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사회통합 인식		0.192*** (0.016)								
주관적 소득 계층			0.587*** (0.042)							
사회이동 경험				0.400*** (0.039)						
선택/통제의 자유					0.393*** (0.014)					
소득 격차 인식						-0.268*** (0.038)				
사회적 관계							0.676*** (0.052)			
사회 신뢰								0.307*** (0.015)		
관용									0.360*** (0.058)	
이념적 성향										0.052 (0.040)
여성	0.129* (0.062)	0.086 (0.061)	0.144* (0.061)	0.120 (0.062)	0.082 (0.057)	0.114 (0.062)	0.161** (0.061)	0.102 (0.059)	0.139* (0.062)	0.129* (0.062)
연령	-0.038** (0.013)	-0.032* (0.013)	-0.033* (0.013)	-0.036** (0.013)	-0.016 (0.012)	-0.032* (0.013)	-0.019 (0.013)	-0.024 (0.013)	-0.037** (0.013)	-0.038** (0.013)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로그 균등화 가구 총소득	0.317*** (0.066)	0.300*** (0.065)	0.094 (0.066)	0.224*** (0.066)	0.218*** (0.060)	0.314*** (0.065)	0.206** (0.065)	0.293*** (0.062)	0.295*** (0.066)	0.316*** (0.066)
로그 균등화 자산	0.150*** (0.024)	0.135*** (0.024)	0.064** (0.024)	0.127*** (0.024)	0.105*** (0.022)	0.140*** (0.024)	0.118*** (0.024)	0.129*** (0.023)	0.143*** (0.024)	0.150*** (0.024)
주관적 건강 상태	0.673*** (0.039)	0.606*** (0.038)	0.610*** (0.038)	0.646*** (0.038)	0.475*** (0.036)	0.659*** (0.039)	0.608*** (0.038)	0.517*** (0.038)	0.635*** (0.039)	0.672*** (0.039)
대졸	0.183** (0.067)	0.192** (0.066)	0.103 (0.066)	0.182** (0.066)	0.184** (0.061)	0.177** (0.067)	0.110 (0.066)	0.205** (0.064)	0.189** (0.067)	0.180** (0.067)
임금근로자	-0.313*** (0.077)	-0.315*** (0.075)	-0.202** (0.075)	-0.308*** (0.076)	-0.234*** (0.070)	-0.314*** (0.076)	-0.300*** (0.075)	-0.353*** (0.073)	-0.295*** (0.077)	-0.312*** (0.077)
자영업자/ 고용주	-0.174 (0.091)	-0.165 (0.090)	-0.105 (0.089)	-0.200* (0.090)	-0.249** (0.083)	-0.169 (0.091)	-0.243** (0.090)	-0.173* (0.087)	-0.158 (0.091)	-0.175 (0.091)
실업자	-1.326*** (0.187)	-1.304*** (0.183)	-1.200*** (0.182)	-1.252*** (0.184)	-1.168*** (0.170)	-1.362*** (0.186)	-1.273*** (0.183)	-1.148*** (0.177)	-1.289*** (0.186)	-1.328*** (0.187)
상수	1.438*** (0.416)	1.017* (0.410)	2.032*** (0.407)	0.921* (0.413)	0.141 (0.380)	2.594*** (0.445)	0.567 (0.412)	0.724 (0.395)	0.712 (0.430)	1.279** (0.434)
N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adj. R-sq	0.148	0.180	0.191	0.172	0.299	0.159	0.186	0.236	0.156	0.148

주: * p<0.05 ** p<0.01 *** p<0.001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이동 경험은 삶의 만족도(0.400)를 가장 크게 증진하고, 정서적 행복(0.360), 우울(-0.310), 그리고 유데모닉 행복(0.303)의 순서로 행복의 다양한 차원에 비교적 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인 사회이동이 가능한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6-11〉 유데모닉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사회통합 인식		0.099***								
		(0.016)								
주관적 소득 계층			0.460***							
			(0.041)							
사회이동 경험				0.303***						
				(0.038)						
선택/통제의 자유					0.398***					
					(0.014)					
소득 격차 인식						-0.083*				
						(0.038)				
사회적 관계							0.637***			
							(0.051)			
사회 신뢰								0.224***		
								(0.015)		
관용									0.133*	
									(0.057)	
이념적 성향										0.061
										(0.039)
여성	0.069	0.047	0.081	0.063	0.022	0.064	0.100	0.049	0.073	0.069
	(0.061)	(0.061)	(0.060)	(0.060)	(0.055)	(0.061)	(0.060)	(0.059)	(0.061)	(0.061)
연령	-0.002	0.001	0.002	-0.001	0.020	-0.000	0.015	0.008	-0.002	-0.002
	(0.013)	(0.013)	(0.013)	(0.013)	(0.012)	(0.013)	(0.013)	(0.013)	(0.013)	(0.013)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로그 균등화 가구 총소득	0.254***	0.245***	0.079	0.184**	0.154**	0.253***	0.150*	0.236***	0.246***	0.253***
	(0.064)	(0.064)	(0.065)	(0.064)	(0.058)	(0.064)	(0.063)	(0.062)	(0.064)	(0.064)
로그 균등화 자산	0.088***	0.080***	0.021	0.070**	0.042*	0.085***	0.058*	0.073**	0.085***	0.088***
	(0.024)	(0.024)	(0.024)	(0.024)	(0.021)	(0.024)	(0.023)	(0.023)	(0.024)	(0.024)
주관적 건강 상태	0.572***	0.537***	0.523***	0.552***	0.371***	0.567***	0.510***	0.458***	0.558***	0.571***
	(0.038)	(0.038)	(0.037)	(0.038)	(0.035)	(0.038)	(0.037)	(0.037)	(0.038)	(0.038)
대졸	0.269***	0.274***	0.206**	0.268***	0.270***	0.267***	0.200**	0.285***	0.271***	0.265***
	(0.065)	(0.065)	(0.065)	(0.065)	(0.059)	(0.065)	(0.064)	(0.064)	(0.065)	(0.065)
임금근로자	-0.035	-0.036	0.052	-0.031	0.045	-0.036	-0.023	-0.065	-0.029	-0.033
	(0.075)	(0.074)	(0.074)	(0.074)	(0.067)	(0.075)	(0.073)	(0.073)	(0.075)	(0.075)
자영업자/ 고용주	0.232**	0.236**	0.286**	0.212*	0.156	0.233**	0.167	0.232**	0.237**	0.231**
	(0.089)	(0.089)	(0.088)	(0.088)	(0.080)	(0.089)	(0.087)	(0.086)	(0.089)	(0.089)
실업자	-1.510***	-1.499***	-1.411***	-1.454***	-1.350***	-1.521***	-1.461***	-1.380***	-1.496***	-1.512***
	(0.182)	(0.181)	(0.179)	(0.181)	(0.164)	(0.182)	(0.178)	(0.177)	(0.182)	(0.182)
상수	2.272***	2.054***	2.737***	1.880***	0.960**	2.629***	1.451***	1.749***	2.003***	2.084***
	(0.405)	(0.404)	(0.400)	(0.405)	(0.367)	(0.436)	(0.402)	(0.395)	(0.421)	(0.422)
N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3595
adj. R-sq	0.134	0.143	0.162	0.148	0.299	0.135	0.170	0.184	0.135	0.134

주: * p<0.05 ** p<0.01 *** p<0.001

그 외 사회 신뢰, 관용은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인 행복을 비교적 크게 증진하고, 상대적으로 유데모닉 행복과 우울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소득 격차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행복, 유데모닉 행복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데에 비해, 우울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유데모닉 행복(0.083)에 비해 삶의 만족도(0.268)와 정서적 행복(0.242)에 대한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 마지막으로 이념적 경향이 행복을 증진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제4절 소결

높은 사회통합 수준이 국민 개개인의 높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된 사회기반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된 사회는 행복한 국민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이 사회통합이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영향 경로에 대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된다. 즉, 긍정적인 사회통합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구성 요소 또한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시킨다. 결국,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통합 정책을 도입,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해야 한다.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관계 수준은 2013년 이후 멕시코와 함께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1]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행복 수준을 증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고, 아플 때에 간병을 도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21) OECD Better Life Index(stat.oecd.org에서 2016.10.18. 인출).

인도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사회 발전의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경제발전은 이를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았다(Sen, 1999, p.3). 획일적인 방식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나와 다른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슬래너(Uslaner, 2002; Rothstein and Uslaner, 2005)는 자신의 연구와 동료의 연구에서 미국의 경험을 들어 다른 사회 구성원과 외부 사회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가 사회를 단단하게 통합하게 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패 수준을 줄이고, 사회 구조의 공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비단 미국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소득 계층과 사회이동 경험, 소득 격차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소득 계층과 같이 주관적 소득 계층 또한 필연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고소득자라고 인식할 수는 없고,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이동 가능성을 통해 주관적 소득 계층의 차이나 소득 격차 인식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결국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연구 함의

제1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상태와 조건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7 결론 및 연구 함의

제1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상태와 조건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이때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개별 응답자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의 성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 상태에 대해서 보통 이하라는 평가를 하였다. 객관적 행위로 나타나는 투표 참여 및 기부 참여, 주관적 인식으로 나타나는 신뢰 수준 등에서 우리 사회가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성 영역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실제의 사회 모습 간에서 '사회적 이동성'의 영역이 가장 큰 괴리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유진, 정해식 등(2015)은 사회이동의 경향이 최근 세대로 오면서 낮아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역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는 결과이다.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별 중요도 평가와 사회통합 평가와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포용의 영역을 강조하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이동의 영역을 강조하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우리 국민이 평가하기에 사회적 포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다고 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이동성의 저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별로 구성한 복합적인 인식 체계의 산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인식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에서의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위험 요소를 경험한 이들은 적지만, 불안하다고 하는 비율은 높았다.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도 실제의 배제가 발생한 것보다 배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제 자체에 대한 강한 강조는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실도 확인된다. 박탈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러한 박탈(배제)을 경험한 이들의 사회통합 정도는 확연하게 낮아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사회 전반의, 타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매우 불안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듯 스스로에 대한 판단, 평가와 타인에 대한 판단, 평가의 차이는 신뢰, 부패 인식과 같은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정의내리는 데 있어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학술적으로 '사회통합이란 이러하다'라는 규정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성격과 강조하는 하위 구성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출한 연구 목적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전반적인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 인식에서는 인식과 실제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으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소득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안전 및 건강에 대해서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실제의 경험률은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두울 때 혼자 걷는 상황에 대한 안전감'은 낮지만, 실제로 위해를 경험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실제 건강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곤란을 경험한 비율은 14.9%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보다 크게 낮았으며,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부패 인식도 가장 높은 편이며, 집단들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도 가장 높은 편이었다.

둘째,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갈등을 가치관 갈등보다 심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장래의 갈등 상황에서도 경제적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앞서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사회적 이동과 같은 경제적 자원 분배의 공정성 문제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및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통합되었다고 느낄수록 사회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또는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인의 박탈 경험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먼저, 한국인의 삶에서 박탈은 상대적 박탈로서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적 박탈의 경험은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높은 박탈을 경험하는데, 특히 문화생활이나 미래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낮은 경험률을 보이지만 주거의 질이 낮았다. 다음으로, 박탈의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35세 미만 청년층은 기초생계 박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35-64세 집단에서는 문화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중요하였다. 특히, 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와 같은 하위 영역 차원에서는 문화 박탈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득 보장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면서도, 문화적인 측면-여가의 활용과 같은-의 강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대 모닉 행복을 증진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낄수록 행복 수준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통합된 사회 기반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인 사회통합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이러한 영향력은 사회통합 인식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확보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회복하고, 사회이동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한국인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일부에서만 밝혀진 바가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정책 개념임을 고려하면, 이를 구체적인 학술적 개념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이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진단할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가 지난 두 차례의 '사회통합'에 대한 주제모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4년, 또는 5년 주기로 우리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통합의 인식, 중요 요소 등을 파악하면 정책 대안의 모색에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도 국민의 인식 체계 내에 새로운 가치의 확산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진은 사회통합의 하위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성, 갈등 관리의 네 영역을 설정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사회통합 평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상태 평가에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나, 갈등 관리의 영역에 대한 강조가 사회통합 상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대한 강조는 우리의 사회통합 상태 평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설계가 이후 체계화되고 지속되면, 이러한 국민의 강조점 변화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통합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 목적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갈등의 양상과 사회통합의 상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경제적 갈등 및 이념과 지역갈등 요인이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 갈등 인식, 문화와 가치갈등 요인은 아직까지는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높이는 요소는 아니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갈등 인식과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갈등 인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객관적 상태로서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도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객관적, 그러나 상대적 수준에서의 박탈 경험을 살펴보면, 청년 세대(35세 미만)는 기초생

계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35-64세의 경우에는 문화 박탈, 미래 대비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에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가 사회통합 평가에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중장년층은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라 소득 수준이 생활 영역 전반의 수준을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탈 지표의 활용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한편, 청년 세대의 박탈이 청년의 전반적인 사회인식에서 부정적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실천적 함의로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개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 이동성을 더 강조하는 집단,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취 이후에는 사회규범적 자본의 형성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집단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고 정책적 대안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인식 체계의 존재에 따라 정책의 일방향적 소통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조건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5년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에 대한 실태,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분배 공정성,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이동에 대한 강조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분배 결과보다는 분배 과정에 있어 공정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정하고 개방

적인 경쟁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의 낮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및 사회 참여를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신뢰,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 평가로서 사회통합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각 개인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개발하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피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사회참여가 가능한 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 단위의 소규모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회갈등의 양상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세대 갈등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심각성, 그리고 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갈등 요인에 비해서 가치관 갈등으로는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탈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경험하는 박탈의 양상이 다르면 이것이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갈등의 요인이, 세대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분배의 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장래 갈등 요인이다.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 기구, 예를 들면 연금개혁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중장년층의 문화적 박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중장년층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독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문화적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조합해 보면, 피로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의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적당한 일과 적당한 휴식'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앞서 여가,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를 위한 객관적 조건의 형성을 위한 과제가 동일하게 제시될 수 있다.

여섯째,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특히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미래 대비의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공적 보장제도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의 상시적 불안감을 안겨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각각의 불안정성을 특징적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대안적 소득보장 장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상태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의 경험에 비해서 과도하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이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연구의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사회병리 현상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김호기, 김석호, 우선희, 박수진. (2011). 한국의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언. (2005). '정부정책의 공정성', 석현호·차종천·이정우·박종민·김명언·나은영(편)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제7장, pp.215-232.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문조. (2007). 한국사회의 양극화: 진단과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ch. 9, pp.305-336) 도서출판 인간사랑.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여유진, 양시현, 강성호, 김태완, 이경민.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양시현, 최현수, 김태완 등. (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김성아, 김미곤. (2016). 한국인의 행복과 경제 수준, 그리고 열망의 반작용. 제9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김안나, 노대명, 김미숙, 신호성, 김태완, 강민희 등.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pp.351-379.

김진향, 팽기영, 김장락, 정백근 등. (2012). 행정구역(동읍면)에 따른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지각된 건강수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9(2),

김진현. (2016). 사회자본과 건강행태가 노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 노인과 일반가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에 대한 비교. 노인복지연구, 통권 71(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김태홍, 문미경, 김은경, 김인순, 장윤선 등. (2005).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노대명, 강신욱, 김호기, 이동원, 유진영. (2010).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길성. (2009).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과 경향. 한국인의 갈등의식. 2007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결과 분석(pp. 17-38)에서.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박길성. (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과 연대적 공존의 모색.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석현호, 차종천.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 제3차 조사연구'. 석현호·차종천·이정우·박종민·김명언·나은영.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제1장, pp.9-19.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송미진, 정재은, 임윤주. (2015).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민대통합위원회.

여유진, 김미곤, 김문길,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2013).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대통합위원회.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우선희 등.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서울: 국민대통합위원회.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등. (2007). 2007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인진. (2008).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 한국개발연구원.

이건. (2013).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공공성·사회갈등 실태조사 기초분석 및 시사점". *ISSUE PAPER*. 통권 2013-09. 한국행정연구원.

이병량·김서용·전영평.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학보. 제22권 제4호. pp.49-72.

이원태, 김종길, 김희연. (2012).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이태진, 임완섭, 강신욱, 김태완, 여유진, 최현수 등. (2015).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임상규. (2012).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임희섭. (2007). 세계화 시대의 사회통합.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ch. 1, pp. 15-34.) 도서출판 인간사랑.

전영상, 홍근석. (2014).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98호), pp.181-203.

정영호, 고숙자. (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1호, 23-35.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유진영, 김성아. (20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2014).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복지포럼, 218호, pp.6-17.

조대엽. (201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Zigmunt, B. (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이수영, 역). 서울: 천지인. (원서출판 2004).

최열. (2007). 주거환경과 범죄. 도시정보, 303호, pp.9-14.

한국일보. (2016. 8. 15.) 한국 근로자 노동시간 OECD 2위, 임금은 중하위권.

Adams, R. E., & Serpe, R. T. (2000). Social integration, fear of crime, and life satisfac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3(4), pp.605-629.

Berger-Schmitt.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y :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 No.14, ZUMA.

Brown, G. D., Gardner, J., Oswald, A. J., & Qian, J. (2008). Does Wage Rank Affect Employees' Well-being?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47(3), pp.355-389.

Calandrino, Michele. (2003). Low-income and Deprivation in British families, *A study carried out on behalf of DWP*, Working paper, No.10.

Callan, Tim., Brian Nolan and Christopher T. Whelan. (1993). Resource, Deprivation and the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22:2, pp.141-172.

Chan, J., To, H.-P.,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pp.273-302.

Clark, A. E. (2011). Worker Well-Being in Booms and Busts. *The labour market in winter: The state of working Britain*, 128.

Clark, A., & Postel-Vinay, F. (2009). Job security and job protection. *Oxford economic papers*, 61(2), pp.207-239.

Clark, A., Etilé, F., Postel-Vinay, F., Senik, C., & Vander Straeten, K. (2005) .Heterogeneity in Reported Well-Being: Evidence from Twelve European Countries. *The EconomicJ ournal*, 115(502), C118-C132.

Delhey, J., & Dragolov, G. (2015). Happier together. Social cohesion and subjective well-beingin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Diener, E., Kahneman, D., Tov, W., & Arora, R. (2010). Income's association with judgments of life versus feeling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pp.3-15.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pp.89-125.

Eurostat. (2016).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Fisher, B. & J. Nasar. (1992). Fear of crime in relation to three exterior site features: prospect, refuge, and escape, *Environment & Behavior*, 24(1). pp.35-45.

Gardner, J., & Oswald, A. (2004). How is mortality affected by money, marriage, and stres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3(6), pp.1181-1207.

Grover, S., & Helliwell, J. F. (2014). How's Life at Home? New Evidence on Marriage and the Set Point for Happine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20794. doi: 10.3386/w20794.

Helliwell, J. F., Huang, H., Grover, S., & Wang, S. (2014). Good Governance and National Well-being.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Publishing.

Helliwell, J. F., & Huang, H. (2011). Well-being and trus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5), pp.747-767.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PRN Study(No. 03).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Instrument Documentation: Supporting Online Material for Kahneman et al.(2004a), http://www.sciencemag. org/cgi/data/306/5702/1776/DC1/1.

Kahneman, D. (2003).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econom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pp.162-168.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5782), pp.1908-1910.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3). Reexamining adaptation and the set point model of happiness: reactions to changes in marital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p.527.

Lucy, T. (2015).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xperience of Collecting and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Statistics in Transition new series*, 16(3), pp.373-396.

Mathieson, A., & Koller, T. (2008). Social Cohesion for Ment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WHO/HBSC Forum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

Morris, Lyia. (1996). Researching Living Standards: Some Problems and Some Findings. *Journal of Social Policy,* 26(4), pp.459-483.

Nolan, Brian. and Christopher T. Whelan. (1996). *Resource, Deprivation and Poverty*. Oxford: Clarendon Press.

OECD Better Life Index(stat.oecd.org에서 2016.10.18. 인출).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Rothstein, B., &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doi: 10.2307/40060124.

Sen, A. (1999).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teptoe, A., Deaton, A., & Stone, A. A. (2015).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ageing. *The Lancet*, 385(9968), pp.640-648.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ownsend, Peter.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Harmondsworth: Penquin Books.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ng, S., Helliwell, J. F., Lee, G. E., Zhou, W., P, C., Barrington-Leigh, & Choi, S. (2014).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S. Wang 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부 록

1.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표본 설계

가. 표본 설계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사회통합 지표를 측정하여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의식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 모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 : 2016년 5월 현재 대한민국 거주 가구

○ 조사 모집단 : 2015년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지역

○ 추출 틀 : 2015년 집계구 리스트 및 신규 아파트 리스트

〈부표 1-1〉 2015년 전국 집계구 분포

(단위 : 개, 가구)

구분	집계구				가구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전국	48,366	19,397	6,680	8,069	9,704,132	4,318,855	1,411,313	1,845,286
수도권	25,308	11,645	1,849	1,477	4,969,819	2,587,707	350,923	294,718
충청권	4,132	1,296	1,335	1,577	882,688	292,090	308,818	355,494
호남권	5,200	1,397	724	2,022	1,086,918	302,311	173,624	481,508
대경권	4,490	1,893	985	1,359	896,178	431,481	210,043	335,967
동남권	8,038	2,769	1,392	1,086	1,618,458	609,025	277,215	256,850
강원권	1,198	397	395	548	250,071	96,241	90,690	120,749

〈부표 1-2〉 2015년 전국 신규 아파트 단지 분포

(단위 : 개, 가구)

권역	단지수	평균가구수	총가구수	표준편차
수도권	2,510	364.4	914,651	436.8
충청권	465	477.9	222,233	424.3
호남권	415	427.6	177,448	344.6
대경권	359	373.8	134,197	381.9
동남권	898	320.5	287,786	434.3
강원권	79	423	33,416	280.5

□ 표본 추출틀의 특성

○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GIS용으로 별도로 선정한 단위로서 전국 평균 약 200 가구가 하나의 집계구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 2010년 인구총조사 이후 신규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하여 집계구 이외에 신규 아파트 지역을 별도로 추출하여 신규 아파트 지역이 조사될 수 있도록 고려함.

○ 2014년 조사에서는 지역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층별 규모의 차이와 더불어 인구 분포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하였고, 세종시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권역별로 추출함.

2) 표본 설계

□ 표본 설계의 기본 방향

○ 본 조사의 표본 설계는 전국의 가구들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집계구 내의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은 지역별, 집계구 유형 및 집계구 내 가구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층화함.

○ 표본 배정은 권역별 집계구 수의 제곱근 비례에 의해 권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도록 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역별로 층화함.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경권: 대구, 경북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강원권: 강원

□ 표본 규모의 결정

○ 표본 배분 기준

- 지역(17개 특·광역시, 동부 및 읍면부)을 6개 권역으로 층화하고, 집계구 유형(아파트 및 비아파트 지역)을 내재적으로 층화하여 표본을 배분함.
- 표본 규모의 결정은 2014년과 같은 규모로서 4,000가구를 목표 표본 규모로 고려하였고, 6개 권역별로 집계구의 제곱근 비례에 따라 집계구 수를 배분
- 기존의 집계구와 더불어 신규 아파트 단지를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600개 구역(조사구)을 표본 집계구로 배분함.

〈부표 1-3〉 층별 표본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규모

(단위 : 개)

권역	집계구		신규 아파트 단지	계
	동부	읍면부		
수도권	141	12	33	186
충청권	45	26	16	87
호남권	52	24	14	90
대경권	51	21	12	84
동남권	71	17	18	106
강원권	25	15	7	47
계	385	115	100	600

〈부표 1-4〉 층별 표본 가구 규모(n=4000)

(단위 : 가구)

권역	집계구		신규 아파트 단지	계	목표 오차
	동부	읍면부			
수도권	970	84	220	1302	0.03
충청권	300	150	110	609	0.04
호남권	350	150	91	630	0.04
대경권	320	130	85	588	0.04
동남권	500	120	120	742	0.04
강원권	150	100	50	329	0.06
계	2590	734	676	4000	0.02

□ 가구 내 응답자의 선정 방법

○ 본 조사는 표본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70)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의 방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생일자”를 선정하였음.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생일이 빠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 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한다(2016년 5월 현재 만 19~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되며, 이들 2명 중 가장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빠른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3) 추정 방법

□ 가중치의 계산

○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배분인 경우 자체 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조사는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표본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N : 모집단 총 집계구 수(=$\Sigma_{h=1}^{H} N_h$)

N_h : h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층의 표본집계구 수

M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 수

m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 내 표본 가구 수

x_{hij} : h층의 i번째 집계구 내 j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원 수

r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 수

w_{hij}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추출 가중치

w_{hi}^{r}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p}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사후 가중치

W_{hij}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최종 가중치

① h층의 j번째 집계구의 i번째 가구의 기본 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tag{1}$$

②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tag{3}$$

③ 최종 가중치

$$W_{hij} = w_{hi}^{r} \times w_{hij}^{p} \tag{4}$$

□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hat{\bar{Y}} = \sum_{h}^{L}\sum_{i}^{n_h}\sum_{j}^{m_{hi}} W_{hij} y_{hij} / W_{...} \quad (5)$$

여기서 $W_{...} = \sum_{h=1}^{L}\sum_{i=}^{n_h}\sum_{j=1}^{m_{hi}} W_{hij}$이며, h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2,\cdots,n_h$이다.

○ 표본 평균 $\hat{\bar{Y}}$의 분산 추정치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bar{Y}}) = \sqrt{\hat{V}(\hat{\bar{Y}})}$$

○ 상대표준 오차

$$\widehat{CV}(\hat{\bar{Y}}) = \frac{SE(\hat{\bar{Y}})}{\hat{\bar{Y}}} \times 100\% \quad (7)$$

나. 가중치 조정 과정

□ 가중치 조정 과정의 개요

○ 우선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계구와 신규 아파트를 추출함으로써 표본 추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출 확률의 역수인 설계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산정함.

○ 조사 과정에서 진입 불가 또는 조사 불가능한 집계구에 대해 무응답 조정하며, 이를 가구 가중치에 적용하고, 가구 가중치를 바탕으로 가구 내 성인 1인을 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가구 내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구원 가중치를 조정함.

○ 최종 가구 및 가구원 가중치는 2016년 추계가구 및 인구수로 밴치마킹하였음.

□ 가구 무응답 가중치 조정

○ 〈부표 1-5〉로부터 전국 평균은 5,192이고, 평균적으로 약 5,192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강원이 8,038.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울이 7,224.9로 나타났고, 가장 작은 지역은 경기도가 2,521.7 이며, 다음으로 충북이 2,537.2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별로 설계 효과($1+cv_w^2$)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42이며, 충북이 1.59으로 가장 크며 충남이 1.05로 가장 작게 나타나, 가중치에 의한 분산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이 충북 지역으로 예상됨.

○ 한편 권역별로 가구 무응답 가중치의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 〈부표 1-6〉와 같이 강원권을 제외하고 권역별로 안정적인 가중치가 고려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부표 1-5〉와 〈부표 1-6〉의 최소 가중치와 최대 가중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 지역의 가중치가 포함되어 발생한 차이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권역별로 최소 가중치와 최대 가중치의 차이를 축소하도록 가중치를 절단하여 재조정하였음.

○ 가중치의 최솟값과 최댓값이 3*표준편차 밖에 있을 경우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2016년 추계 가구 수로 재조정하였음.

○ 조정결과 조정전의 가중치보다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부표 1-7〉 참조).

〈부표 1-5〉 가구 무응답 가중치 기초 통계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19049314	5192	3375.6	92.3	3112.4	4586.6	6472.2	48281	1.42
서울	454	3280100	7224.9	2894.8	1000.8	4815.7	7223.6	9631.4	14447.1	1.16
부산	248	911156.3	3674	2399.9	92.3	2593.7	3112.4	5187.4	15562.1	1.43
대구	243	974023.4	4008.3	2782.8	165.8	2297.9	3319.2	4978.8	17978.4	1.48
인천	190	1215421	6397	2939.9	476.6	3852.6	8255.5	9016.4	10519.1	1.21
광주	141	552856	3921	1292.6	1398.6	3141.4	3833.7	4970.4	6709.4	1.11
대전	133	487270.2	3663.7	1247.4	649.9	2898.8	3727	4348.2	6522.3	1.12
울산	96	511592.6	5329.1	2813.4	1912	3112.4	4613.8	5187.4	15562.1	1.28
세종	36	90781.9	2521.7	1364	1034.6	1321.9	2248.2	3906.5	4557.6	1.29
경기	575	4622296	8038.8	5050	741.4	5778.9	7223.6	9631.4	48281	1.39
강원	233	591166.4	2537.2	1952.1	1225.8	1471	1889.4	2942	15115	1.59
충북	182	772099.8	4242.3	926.9	900.3	4172.7	4289.1	4557.6	5841.8	1.05
충남	190	711171.3	3743	1411.1	394.6	3262.9	4348.2	4557.6	6433.7	1.14
전북	162	710138.7	4383.6	1313	1129.6	3354.7	4472.9	4720.7	7234.3	1.09
전남	198	827031.6	4176.9	1652.4	458.3	2851	4472.9	4720.7	7234.3	1.16
경북	264	1033842	3916.1	2766.7	96.5	2149.6	3734.1	4494.6	13998.6	1.50
경남	287	1626585	5667.5	2007.3	1120.8	5187.4	5187.4	6224.8	12922.3	1.13
제주	37	131782.1	3561.7	2023.9	361.5	2683.7	2828.1	4472.9	6709.4	1.32

〈부표 1-6〉 가구 무응답 가중치의 권역별 기초 통계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19049314	5192	3375.6	92.3	3112.4	4586.6	6472.2	48281	1.42
수도권	1219	9117817	7479.8	4102.5	476.6	5253.5	7223.6	9016.4	48281	1.30
충청권	541	2061323	3810.2	1290.8	394.6	3418.2	4289.1	4348.2	6522.3	1.11
호남권	538	2221808	4129.8	1510.8	361.5	3141.4	4472.9	4720.7	7234.3	1.13
동북권	507	2007866	3960.3	2772.1	96.5	2297.9	3319.2	4978.8	17978.4	1.49
동남권	631	3049334	4832.5	2482.8	92.3	2829.5	5187.4	5775.3	15562.1	1.26
강원권	233	591166.4	2537.2	1952.1	1225.8	1471	1889.4	2942	15115	1.59

〈부표 1-7〉 가구 이상 가중치 조정 결과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18948341	5164.4	2958.4	642.5	2486.4	4412.9	7157.6	13392.3	1.32
서울	454	3393946	7475.7	3273.3	4412.9	4412.9	7418.6	9698.5	13392.3	1.19
부산	248	1174342	4735.2	2158.6	2486.4	2486.4	4843.6	5677.5	9203.4	1.21
대구	243	922237.8	3795.2	2099.3	1905.8	2096.8	3384.3	4780.7	8840	1.31
인천	190	1503331	7912.3	3136.1	4412.9	4412.9	7418.6	9698.5	13392.3	1.16
광주	141	537874.2	3814.7	2251.9	1855.7	2156	3762.1	4609.3	9250	1.35
대전	133	463180.3	3482.6	1152.3	2246.1	2400	3772	3949.4	6510.5	1.11
울산	96	427625.1	4454.4	2418.7	2486.4	2486.4	2864.1	5677.5	9203.4	1.29
세종	36	168974	4693.7	1648.6	2246.1	3772	3949.4	6316	6316	1.12
경기	575	4171497	7254.8	2939.1	4412.9	4412.9	7418.6	9698.5	13392.3	1.16
강원	233	614120.3	2635.7	1776.1	642.5	1636.6	1738.6	2845.5	7157.6	1.45
충북	182	694050.1	3813.5	1343.6	2246.1	2400	3772	3949.4	6510.5	1.12
충남	190	758403.3	3991.6	1461.5	2246.1	2400	3949.4	3949.4	6510.5	1.13
전북	162	650394.1	4014.8	2058.8	1855.7	2156	3762.1	4609.3	9250	1.26
전남	198	884161.7	4465.5	2507.1	1855.7	2156	3762.1	4609.3	9250	1.31
경북	264	1086433	4115.3	2257.2	1905.8	2096.8	3384.3	4780.7	8840	1.30
경남	287	1375029	4791	2233.9	2486.4	2486.4	4843.6	5677.5	9203.4	1.22
제주	37	122743.9	3317.4	1786	1855.7	2156	2300.5	4609.3	9250	1.29

〈부표 1-8〉 가구 이상 가중치 조정 후 권역별 기초 통계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18948341	5164.4	2958.4	642.5	2486.4	4412.9	7157.6	13392.3	1.32
수도권	1219	9068773	7439.5	3103.8	4412.9	4412.9	7418.6	9698.5	13392.3	1.17
충청권	541	2084608	3853.2	1393.4	2246.1	2400	3772	3949.4	6510.5	1.13
호남권	538	2195174	4080.2	2286.3	1855.7	2156	3762.1	4609.3	9250	1.31
동북권	507	2008671	3961.9	2186.7	1905.8	2096.8	3384.3	4780.7	8840	1.30
동남권	631	2976996	4717.9	2233.3	2486.4	2486.4	4843.6	5677.5	9203.4	1.22
강원권	233	614120.3	2635.7	1776.1	642.5	1636.6	1738.6	2845.5	7157.6	1.45

□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 가구 설계 가중치에 대해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2016년 추계가구 수에 따라 권역별 가구원 수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 가중치에 대한 래킹비 조정을 실시함.

$$w_{hij}^{RAK} = w_{hij}^{a} \times AF_h$$

○ 세종시가 표본에 포함되었지만, 추계가구에는 누락되어 지역별 추계가구로 래킹비를 조정할 경우 세종시가 누락되기 때문에 지역 대신에 권역별로 래킹비 조정을 실시하였음.

○ 〈부표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역별로 가중치 조정 결과를 지역별로 추계할 경우 세종시 가구의 가중치가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1-9〉 권역별 기구원 수 분포

지역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총합
전국	531	867	805	1125	265	76	3669
수도권	171	233	282	421	88	24	1219
충청권	102	151	104	139	41	4	541
호남권	73	142	104	156	47	16	538
동북권	68	124	119	152	34	10	507
동남권	89	149	134	207	41	11	631
강원권	28	68	62	50	14	11	233

〈부표 1-10〉 래킹비 조정 인자

특성	구분	관측치 수	가중치합계	모집단	포함률	조정승수
지역	수도권	454	9068774	9068772	0.00	1.00
	충청권	248	2084608	2084608	0.00	1.00
	호남권	243	2195174	2195174	0.00	1.00
	동북권	190	2008671	2008671	0.00	1.00
	동남권	141	2976996	2976997	0.00	1.00
	강원권	133	614120.3	614120	0.00	1.00
가구주 성별	남	3147	15013425	13469977	11.46	0.90
	여	522	3934916	5478365	-28.17	1.39
가구주 연령대	20대 미만	165	1317884	1406300	-6.29	1.07
	30대	676	3584650	3015871	18.86	0.84
	40대	859	3798137	4240141	-10.42	1.12
	50대	1086	4952254	4566744	8.44	0.92
	60대 이상	883	5295416	5719286	-7.41	1.08
가구주 혼인 상태	미혼	384	3371048	3058160	10.23	0.91
	유배우	2812	11935996	11877727	0.49	1.00
	사별	237	1822246	2206133	-17.40	1.21
	이혼 및 별거	236	1819051	1806322	0.70	0.99
가구원 수	1인	531	5230203	5230202	0.00	1.00
	2인	867	5142880	5142880	0.00	1.00
	3인	805	4035172	4035174	0.00	1.00
	4인	1125	3442983	3442983	0.00	1.00
	5인	265	852583.3	852583	0.00	1.00
	6인이상	76	244519.6	244520	0.00	1.00
전국		3669	18948341	18948342	1.00	1.00

〈부표 1-11〉 권역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18948342	5164.4	3361.8	481.4	2755.5	4205.4	6333.5	20542.7	1.42
수도권	1219	9076543	7445.9	3714.1	2732	4495.6	6653.1	9435.7	20542.7	1.25
충청권	541	2082952	3850.2	1723.9	1339.7	2755.5	3571.8	4060.8	9881.5	1.20
호남권	538	2196698	4083.1	2668.4	1488.4	2227.8	3474.4	4551.5	13900	1.43
동북권	507	2003129	3950.9	2548	1240.7	2369.8	3047.2	4838.1	13614	1.42
동남권	631	2976254	4716.7	2742.3	1453.1	2525.4	4307.5	5674.9	13999.1	1.34
강원권	233	612766.5	2629.9	1994.7	481.4	1472.8	1941.1	2846	10090.2	1.57

〈부표 1-12〉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가중치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18948342	5164.4	3361.8	481.4	2755.5	4205.4	6333.5	20542.7	1.42
서울	454	3397572	7483.6	3870.6	3431.7	4495.6	6653.1	9775.9	20542.7	1.27
부산	248	1184750	4777.2	2821.5	1939.7	2518.6	4307.5	5674.9	13838.1	1.35
대구	243	914942.6	3765.2	2362.8	1534	2144.6	3047.2	4838.1	12609.4	1.39
인천	190	1501815	7904.3	3799.4	3764.7	4967.5	7348.1	9775.9	20542.7	1.23
광주	141	530151.2	3759.9	2620	1488.4	2004	3118.3	4551.5	13900	1.49
대전	133	467288.7	3513.4	1598	1339.7	2315.7	3284.5	4060.4	9767.8	1.21
울산	96	426056.3	4438.1	2659.9	1453.1	2298.7	3227.6	5735.3	12669.1	1.36
세종	36	162000.4	4500	2063.2	2088.3	3400.3	3883.4	4759.6	9881.5	1.21
경기	575	4177156	7264.6	3548.4	2732	4495.6	6333.5	8599.6	20542.7	1.24
강원	233	612766.5	2629.9	1994.7	481.4	1472.8	1941.1	2846	10090.2	1.57
충북	182	697611.6	3833	1737.6	1939.2	2558.8	3450.2	4060.4	9767.8	1.21
충남	190	756051.5	3979.2	1688.4	1579.4	2755.5	3849.7	4333.9	9767.8	1.18
전북	162	647285.3	3995.6	2343.1	1503.8	2377.6	3757.3	4551.5	12276.9	1.34
전남	198	884098.6	4465.1	2986	1488.4	2377.6	4003.8	4551.5	13740.2	1.45
경북	264	1088186	4121.9	2700.6	1240.7	2369.8	3047.2	4838.1	13614	1.43
경남	287	1365447	4757.7	2703.5	2103.4	2775.4	4307.5	5674.9	13999.1	1.32
제주	37	135163.1	3653.1	2175.4	1563.5	2004	3146.4	4551.5	12276.9	1.36

□ 가구원 가중치 조정

○ 가구원 가중치는 가구 최종 가중치를 기반으로 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 중 빠른 생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가구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함.

○ 가구원 가중치는 가구 내 1인이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응답 조정은 불필요하며, 최종적으로 2016년 추계인구수를 기반으로 사후 조정을 통해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함.

□ 가구원 설계 가중치 조정

○ 가구원 가중치는 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수를 기반으로 가구 최종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w_{hijk}^{(HH)} = w_{FH} \times M_{hij}$$

○ 여기서 w_{FH}는 가구 최종 가중치이며, M_{hij}는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수임.

-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10,901.6명을 대표하며, 인천 지역이 16,646.9 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울이 16,287.2명임(〈부표 1-13〉 참조).

〈부표 1-13〉 가구원 가중치의 성인 승수 조정 가중치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39998082	10901.6	5818.8	1044	6998.5	9622	13361.9	53350.6	1.29
서울	454	7394400	16287.2	5932.8	7529.4	11294	16086.1	19551.8	48209.7	1.13
부산	248	2551685	10289.1	3326.3	3448.7	8751	10047	12541.2	24848.5	1.10
대구	243	1937677	7974	2328.4	2675.1	6094.4	7655.4	9676.2	15431.7	1.09
인천	190	3162908	16646.9	6655.5	5721.4	11442.8	15908.9	19959.3	43629.5	1.16
광주	141	1167344	8279	2883.5	3118.3	5891.7	8007.6	10019.9	17088.1	1.12
대전	133	1042925	7841.5	3036.3	2806.4	5511	8120.8	8774.6	28694.6	1.15
울산	96	905579.9	9433.1	4045	4206.8	6428.6	8838.1	11750.9	31212.8	1.18
경기	36	264233.6	7339.8	3220.7	3849.7	4759.6	7101.6	8774.6	19585.1	1.19
강원	575	9328286	16223.1	5926.6	3471.7	11681.1	16166	19870	53350.6	1.13
충북	233	1223255	5250	1795.6	1044	3886.8	5276.3	5821.1	10741.3	1.12
충남	182	1408512	7739.1	3054.1	2411.3	5511	8120.8	8942.7	25001.1	1.16
전북	190	1437714	7566.9	3167.4	3849.7	5163.7	7676.3	8727.6	35868.3	1.18
전남	162	1364390	8422.2	2989.6	3603.8	6292.8	8303.4	9915.5	19341.6	1.13
경북	198	1590285	8031.7	2874.8	2976.7	5678.4	8007.6	9915.5	17504	1.13
경남	264	2035814	7711.4	2498.4	3184.7	5659.8	7655.4	9676.2	13614	1.10
제주	287	2812006	9797.9	3728.5	2865.8	6588.5	9984.1	12364.4	24115.6	1.15

- 설계 효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29 로 나타나 가구 가중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1.10로 가장 작고, 경기가 1.19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가구원 래킹 조정 가중치

○ 가구원 래킹비 조정 가중치는 성인 가구원 승수를 고려한 조정 가중치에 대해 표본의 포괄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의 주변합과 일치시키도록 함.

○ 가구 가중치에 대한 래킹비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권역별 개인 가중치를 래킹하며, 응답자 성별과 연령대를 래킹비 변수로 고려함.

〈부표 1-14〉 가구원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특성	구분	관측치 수	가중치합계	모집단	포함률	조정승수
지역	수도권	1219	19885594	19928643	-0.22	1.002165
	충청권	541	4153385	3958972	4.91	0.953192
	호남권	538	4493086	4230327	6.21	0.941519
	동북권	507	3973491	3930631	1.09	0.989214
	동남권	631	6269271	6126168	2.34	0.977174
	강원권	233	1223255	1154802	5.93	0.94404
응답자 성별	남	1815	18658737	19960415	-6.52	1.069762
	여	1854	21339345	19538154	9.22	0.915593
응답자 연령대	18~29	601	7203136	8130083	-11.40	1.128687
	30대	780	6712969	7534072	-10.90	1.122316
	40대	804	8296555	8399979	-1.23	1.012466
	50대	770	8867506	8223311	7.83	0.927353
	60대	474	5965529	5157081	15.68	0.86448
	70~75	240	2952386	2054043	43.74	0.695723
전국		3669	39998081	39498569	1.26	0.987512

○ 래킹비 조정 과정 시 고려된 밴치마킹 정보는 응답 가구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함.

$$w_{hijk}^{(RAK)} = w_{hijk}^{(HH)} \times A_h$$

〈부표 1-15〉 권역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39329543	10719.4	5878.9	1053.8	6626.9	9153.1	13426.6	58371.8	1.30
수도권	1219	19928643	16348.4	6012.1	3814	11971.2	15948.6	19152.9	58371.8	1.14
충청권	541	3958972	7317.9	2999.7	2338.7	5364.1	6841	8719.5	36256.9	1.17
호남권	538	4230327	7863.1	2865.1	2850.3	6145.4	7589.7	9463	26280.2	1.13
동북권	507	3930631	7752.7	2317.2	2939.8	6140.6	7892.9	9087.4	18690.5	1.09
동남권	631	6126168	9708.7	3566.5	3107.2	7608.3	9723.7	11372.9	29254.4	1.13
강원권	233	1154802	4956.2	1646.1	1053.8	3854.1	4736.2	5926.9	10123	1.11

〈부표 1-16〉 시도별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cv_w^2$
전국	3669	39329543	10719.4	5878.9	1053.8	6626.9	9153.1	13426.6	58371.8	1.30
서울	454	7400323	16300.3	5983	7402.7	11971.2	15945.9	19152.9	58371.8	1.13
부산	248	2468614	9954.1	3165.6	3107.2	8451.1	9895.6	11372.9	24628.4	1.10
대구	243	1946420	8010	2430	2939.8	6463.2	7938.5	9140	18690.5	1.09
인천	190	3148311	16570.1	6126.3	6969.8	11980.6	15913.8	19945.7	38553.7	1.14
광주	141	1124927	7978.2	2808.5	2850.3	6319.4	7726.3	9584.2	18946.6	1.12
대전	133	1016275	7641.2	2805.5	2854.1	5819.5	7328.4	8869.6	22491	1.13
울산	96	906337.2	9441	3955.9	4141.8	6075.9	8968.6	11447.5	29254.4	1.18
세종	36	254074.2	7057.6	2575.5	3967.9	5395.3	6170.9	8662.9	16498.7	1.13
경기	575	9380009	16313.1	6005.9	3814	11980.6	15948.6	19249.4	56105.1	1.14
강원	233	1154802	4956.2	1646.1	1053.8	3854.1	4736.2	5926.9	10123	1.11
충북	182	1336604	7344	3131.7	2338.7	5191	6680.8	8815.4	25272	1.18
충남	190	1352019	7115.9	3076.3	3340.4	5364.1	6633.6	8356	36256.9	1.19
전북	162	1266338	7816.9	2778.9	3178.1	6200.3	7424.9	9066.7	22433.2	1.13
전남	198	1480232	7475.9	2540.2	3178.1	5562.5	7330.8	9183.2	14755.8	1.12
경북	264	1984211	7516	2186.3	3039.8	5879.1	7852.5	9087.4	13908	1.08
경남	287	2751216	9586.1	3751.7	3429.1	6593.7	9349.3	11124.3	23622.2	1.15
제주	37	358830.6	9698.1	4192.7	3460.2	7318.2	8848.7	10579.9	26280.2	1.19

다. 분석 사례

□ 복합표본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반드시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설계 당시의 모집단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추정치의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조사 자료의 분석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중 일부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평균 가구 총 소득의 추정

○ 평균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층화 변수(권역)와 집락변수(집계구)를 고려하여 층별 평균 소득을 추정함.

○ 이때 가중치는 일반화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
PROC SURVEYMEANS DATA=s.sur06 ;
VAR  Q55;/*가구 총소득 변수*/
STRATA AREA;/*층화변수*/
CLUSTER ED_ID1;/*집락변수*/
DOMAIN AREA;/*추정 영역*/
WEIGHT WH;/*가중치*/
WHERE Q55<99999;/*무응답 모름 제외*/
RUN;
```

□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추정

○ 가구주의 경활 상태 범주별로 빈도수를 추정하기 위해 “SURVEYFREQ"를 이용하여 추정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이때 가중치는 일반화 가구 가중치를 이용함(가구주 수 =가구 수)

```
PROC SURVEYFREQ DATA=s.sur06 ;
TABLES Q69/NOPERCENT;/*가구주경화 상태변수*/
STRATA AREA;/*층화변수*/
CLUSTER ed_ID1;/*집락변수*/
WEIGHT WH;/*가중치*/
RUN;
```

〈참고문헌〉

손창균. (2015). 사회통합조사 및 국민행복조사 표본설계. 한국리서치.

AAPOR. (2009). *Standard Definitions: Final Dispositions of Case Codes and Outcome Rates for Surveys*.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Deville, J-C., Sarndal, C-E., Sautory, O. (1993). "Generalized Raking Procedures in Survey Sampl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 pp.1013-1020.

Kish, L. (1987). Weighting in Deft2. *The Survey Statistician*, June 1987.

Valliant, R. (2004). The Effect of Multiple Weighting Steps on Variance Estimation.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20, pp.1—18.

Wolter, K. M. (2007). *Introduction to Variance Estimation*. 2nd ed. New York: Springer.

2.「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설문지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응답자 ID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댁에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국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주관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 문 의 처 :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1부 성현정 차장 ☎ 02-3014-0168
  ㈜ 한국리서치 대면조사부 정영아 팀장 ☎ 02-3014-0716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응답자 선정	★ 가구 내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 (실제 생년월 기준)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 -
응답자 성별 (빠른생일자)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빠른생일자)	만 _____세 → 만18세 이하, 만76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응답자 (빠른생일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인가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Ⅰ. 가구 구성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16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__님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가구원수	
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1-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1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1-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1-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만성질환자에 포함, 질병 범위 면접원 지침서 참조)		명
1-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1998년 5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1-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16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1-7. 가구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수 ※ 2016년 5월 31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 자		명

문2. __님댁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단독가구(1인가구)
② 모자가구(모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③ 부자가구(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④ 조손가구(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⑤ 기타(일반가구)

Ⅱ. 가구 경제상태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3. __님댁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총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로 구성됩니다.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15년 12월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천 백 십 일	만원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문4. __님댁의 생활비 중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4-1	교육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공교육비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 사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천 백 십 일 만원
4-2	의료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 이용료 등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천 백 십 일 만원
4-3	월세액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액은 얼마입니까?** ※ 자가주택이나 전세인 경우에는 '0' 을 기입 ※ 3개월 이내 이사 혹은 재계약한 경우, 이사 혹은 재계약한 주택의 월평균 월세액을 기입	천 백 십 일 만원

문5.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__님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5-1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	①	②	⑨
5-2	주거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①	②	⑨
5-3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고등학생), 부교재비(초,중학생) 및 학용품비(중,고등학생) 등 지원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은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나,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 ◆ 각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비지원사업(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①	②	⑨
5-4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혹은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①	②	⑨

문6.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__님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사적이전 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6-1	가구원이 아닌 가족에게 받은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물 포함)** ※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포함 ※ 현금이나 현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와 **비정기적이지만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받았다' 에 응답함	①	②	⑨
6-2	기타 사적이전소득	**친척, 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 ·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현물 포함)**	①	②	⑨

문7. 지난 3개월(2016.3.1.~2016.5.31.) 동안 __님의 근로소득과 __님댁 전체 가구 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7-1	'응답자' 근로소득	지난 3개월(2016.3.1.~2016.5.31.)동안 __님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 임금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억 천 백 십 일	만원
7-2	'가구' 총소득	지난 3개월(2016.3.1.~2016.5.31.)동안 __님 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 현물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제외함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8. 요즈음 귀댁의 소득에 대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현재소득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함
② 현재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감
③ 현재소득으로 생활하기 다소 어려움
④ 현재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문9. __님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재산과 부채는 **명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9-1	거주 주택가격	2016.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포함하지 않음 ※ 자가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기입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2	금융재산	2016.5.31. 기준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3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16.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재산은 얼마입니까?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4	부채 총액	2016.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곗돈(미리 탄 곗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밀린 월세,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10. __님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문11. __님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Ⅲ.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사항

문12. __님과 __님댁의 가구주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12-1. 가구주와의 관계	문12-2. 성별	문12-3. 태어난 연도	문12-4. 교육수준	문12-5. 혼인상태	문12-6.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12-7. 직업	문12-8. 직업안정성	문12-9. 고용형태
가구주	1								
응답자 (빠른생일자)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 (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로 기재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미혼 부·모 포함)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16.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⓪ 비해당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 **문12-6의 ①~⑩응답자만 응답** ※ **문12-6의 ⑦~⑧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⓪ 비해당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상용직 임금근로자 (문12-6의 ①응답자)만 응답** ※ **문12-6의 ②~⑧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⓪ 비해당 ① 전일제(풀타임) ② 시간제(파트타임) ※ **문12-6의 ①~③응답자 (임금근로자)만 응답** ※ **문12-6의 ④~⑧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 **전일제**란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 ※ **시간제**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에 해당하는 문항만 작성하시고, 응답자(빠른생일자)에 해당하는 문항은 문12-1. 가구주와의 관계에 **'본인'** 이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문항은 빈칸으로 두십시오.

♣ 이하 문항은 '빠른 생일자'께서 응답해주십시오.

문13. [문12-6에서 ①~⑥ 응답자만] ___님께서는 현재 직장 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가입함 ② 가입안함 ③ 가입대상이 아님 ④ 노동조합이 없음

문14. [문12-6에서 ①~⑥ 응답자만] ___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평균 [ ][ ] 시간

→ 문16으로 이동

문15. [문12-6에서 ⑦ 응답자-실업자만] 님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구직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 ][ ] 개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표시)

문16. (모든응답자) 귀하는 지난 5년(2011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예 → 문16-1로 ② 아니오 → 문17로 ⑨ 모름 → 문17로

문16-1. 귀하는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잃은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었습니까? 혹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① 일자리 구하는데 소요된 기간 [ ] 년 [ ][ ] 개월

② 일자리를 구하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기하였다

③ 일자리를 구해보지 않았다

문17. ___님께서는 현재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연금을 받고 있다	모르겠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①	②	③	⑨
(2) 건강보험(피부양자 포함)	①	②		⑨
(3) 고용보험	①	②		⑨
(4) 산재보험	①	②		⑨

※ 특수직역연금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Ⅳ. 행복, 여가, 박탈 등

※ 다음 문18~24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8. 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 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__님께서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1. __님께서는 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있지 않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____님께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자유로운 선택권이 거의 없다					보통					자유로운 선택권이 매우 많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3. __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보통					매우 믿을 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4. 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1) _님의 생활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_님의 건강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_님께서 삶에서 성취한 것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_님의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_님의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_님의 미래 안정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_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_님의 지역사회 환경의 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_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_님의 직업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5. 귀하나 가구원 중 <u>최근 5년 동안(2011년~현재)</u>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6. 어두울 때 귀하 집주변을 혼자 걸을 때(혹은 혼자 걷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안전하지 않다 ④ 매우 안전하지 않다

문27.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거주자(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살기 좋다 ② 대체로 살기 좋다
③ 대체로 살기 나쁘다 ④ 매우 살기 나쁘다

문28. 대체로 말해서 귀하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문29.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러하다 ② 어느 정도 그러하다 ③ 그렇지 않다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문30.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 경제적 여력은 되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고(갖고) 있지 않거나 대체소비를 하고 있는 경우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합니다. (예: (1) 채식주의자의 경우, 대체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 아래의 문항들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합니다. (예: (12) 이가 아프지 않았으나, 아팠을 경우를 가정하고 치과에 갈 수 있었다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① 하고(갖고) 있다	② 못 하고(갖고) 있다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①	②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①	②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①	②
의생활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파카,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주택 및 주거 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①	②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①	②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①	②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①	②
의료 및 건강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있다	①	②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①	②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①	②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①	②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①	②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①	②
사회적 지지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저축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①	②
	(19)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①	②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①	②

문30-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②못 하고 있다'로 응답합니다.		① 하고 있다	② 못 하고 있다
자녀 교육	(21)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①	②
	(22)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①	②
	(2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①	②
	(24)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①	②

문30-2.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① 있다	② 없다	③ 해당없음
경제적 어려움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①	②	③
	(31)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학업,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단(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자녀가 없는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①	②	③

V. 사회적 자본_사회적 신뢰 및 참여

문31.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			보통		▶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정치영역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 경제영역	⓪	①	②	③	④	⑤	⑥

문33.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5)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6)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7)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⑨
(8)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⑨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문33-1. __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 갈등 유형 중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 ] ■ 2순위 [ ]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문33-2. __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5)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6)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7)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⑨
(8)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⑨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문34.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__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문36. 귀하 또래와 비교할 때, 귀하는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① 또래보다 훨씬 적음
② 또래보다 다소 적음
③ 또래들과 비슷함
④ 또래보다 다소 많음
⑤ 또래보다 훨씬 많음

문37. 귀하는 친구,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을 얼마나 자주 친교를 위해(socially) 만나십니까?

① 전혀 만나지 않음
② 일년에 두어번 (1년에 6회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1년에 6회 이상)
④ 한달에 두어번
⑤ 일주일에 1번 정도
⑥ 일주일에 두어번
⑦ 매일

문38. 귀하가 어떤 이유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지, 친구, 동료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상당히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쉽다 ⑤ 쉽다

문39. ___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대체로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40. ___님께서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1)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①	②	⑨	⑩
(2)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①	②	⑨	⑩
(3) 2016년 4월 13일 총선거	①	②	⑨	⑩

Ⅵ. 응답자의 일반 사회인식

문41.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_님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41-1. ___님이 15세 무렵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42. 귀하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
②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적다
③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만큼 받고 있다
④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더 많다
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⑧ 선택할 수 없다
⑨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비해당)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문43.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44.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__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⑨

문46. __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⑨

문47. __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문48. __님께서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Ⅶ. 사회통합 인식 수준

문49.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0.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주십시오.

보통				매우 중요
1	2	3	4	5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보통				매우 중요
	1	2	3	4	5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사회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3)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4)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15)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17)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8)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9)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①	②	③	④	⑤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문5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점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현재(201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전(200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후(202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2.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현재(201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전(200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후(202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3.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점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현재(201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전(200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후(202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4.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점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현재(201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전(200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후(202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5.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점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현재(201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전(200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년 후(2026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3.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기초 분석

〈부표 3-1〉 어제 행복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음----------매우 행복했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0.6	1.9	4.7	3.6	26.3	8.8	18.1	20.0	8.4	6.9	
성별	남성	0.6	0.5	2.0	4.9	3.7	26.9	8.5	17.9	19.0	8.6	7.3	4.199
	여성	0.6	0.6	1.9	4.5	3.6	25.7	9.1	18.3	21.0	8.1	6.6	
연령	20대 이하	0.5	0.1	1.3	3.4	2.8	22.4	8.5	20.0	22.4	10.1	8.5	113.016***
	30대	1.1	1.1	1.0	4.1	2.0	23.1	8.0	20.7	21.0	9.0	8.7	
	40대	0.8	0.4	1.8	2.0	4.5	30.2	8.3	17.9	19.8	7.9	6.3	
	50대	0.3	0.7	2.7	6.0	5.2	28.0	9.2	15.4	18.3	7.8	6.4	
	60대 이상	0.6	0.7	3.0	7.9	3.6	27.6	10.1	16.4	18.4	6.9	4.8	
지역	수도권	0.8	0.4	2.4	5.2	3.4	28.3	8.1	19.4	19.8	7.2	5.1	46.527***
	비수도권	0.5	0.7	1.5	4.1	3.9	24.2	9.5	16.8	20.1	9.6	8.9	
	대도시	0.5	0.3	1.8	3.4	3.2	25.9	9.6	21.2	21.8	6.8	5.4	73.891***
	중소도시	0.7	0.9	2.1	5.3	3.9	27.3	8.2	15.5	18.1	9.3	8.7	
	농어촌	0.4	0.4	2.6	8.2	4.1	22.1	8.2	15.7	21.0	12.0	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	2.4	6.4	12.6	6.6	33.8	6.4	10.9	11.8	3.2	3.8	422.024***
	중하층	0.7	0.4	2.0	4.8	4.1	31.4	9.7	17.9	16.9	7.5	4.7	
	중간층	0.2	0.2	1.0	2.5	2.2	21.4	9.2	20.5	24.1	10.4	8.2	
	중상층(상층)	0.0	0.0	0.5	3.0	4.5	14.1	4.0	17.2	26.8	10.1	1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	1.7	3.8	8.3	4.9	30.3	7.7	13.5	19.1	5.5	4.2	156.229***
	200만 원대	0.5	0.3	3.1	4.6	4.1	28.1	10.5	16.1	17.8	7.7	7.0	
	300만 원대	1.3	0.5	1.3	4.3	2.9	27.8	6.6	20.3	19.6	7.2	8.0	
	400만 원대	0.5	0.2	1.2	4.1	3.8	26.0	11.3	19.0	18.8	8.0	7.2	
	500만 원 이상	0.1	0.3	1.0	3.1	3.1	22.0	8.7	20.1	22.7	11.4	7.5	
학력	중졸 이하	0.5	1.3	4.2	9.8	3.8	27.5	9.2	15.0	18.3	6.0	4.5	114.318***
	고졸	0.8	0.3	1.5	4.8	4.2	28.4	8.9	17.8	18.2	8.1	7.2	
	대졸 이상	0.5	0.5	1.6	2.4	2.9	23.6	8.6	19.7	22.6	9.6	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1	1.3	4.0	3.6	22.2	9.6	20.6	21.8	8.8	7.7	149.6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	1.3	4.8	6.1	6.4	33.8	8.1	16.0	14.0	4.8	3.3	
	고용주·자영자	0.4	0.6	1.9	4.8	3.4	29.4	7.5	17.2	19.5	8.2	7.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5	4.6	3.1	18.5	16.9	10.8	27.7	12.3	4.6	
	실업자	1.8	1.8	5.3	8.8	6.2	36.3	8.8	6.2	15.0	6.2	3.5	
	비경제활동인구	0.5	0.7	1.6	4.4	2.5	25.2	8.6	18.3	20.7	9.3	8.0	
직업	관리자·전문가	0.7	0.7	2.6	1.1	4.5	27.3	7.1	18.4	24.3	8.2	4.9	52.64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3	0.5	2.0	4.6	3.3	25.8	8.3	19.4	19.7	8.5	7.5	
	숙련 및 기술직	1.0	0.0	1.2	5.9	4.5	26.0	11.8	16.2	19.7	8.7	5.1	
	단순노무종사자	1.1	0.5	3.3	6.6	7.1	29.5	8.2	17.5	16.4	2.7	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0.1	1.1	4.1	3.5	21.2	9.8	20.7	22.1	9.1	7.8	70.009***
	비정규직	0.9	0.9	4.1	5.4	5.8	32.2	8.1	17.3	15.6	5.4	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0.8	2.7	6.5	3.6	27.9	7.9	17.8	19.4	8.2	4.7	48.499***
	중도적	0.6	0.3	1.9	4.0	3.6	26.9	9.5	17.5	19.2	8.8	7.8	
	진보적	0.9	1.0	1.3	3.6	3.6	22.8	8.3	19.9	22.9	7.6	7.9	

주: 1) " _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 어제 우울

(단위: %)

구분		전혀 우울하지 않음----------매우 우울했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4.3	14.8	18.8	13.0	7.2	18.4	4.7	4.6	2.8	0.8	0.7	
성별	남성	15.6	16.9	18.3	12.4	6.8	17.5	4.1	4.5	2.5	0.6	0.8	26.455**
	여성	13.0	12.6	19.3	13.7	7.6	19.3	5.4	4.7	3.0	0.9	0.6	
연령	20대 이하	17.5	16.8	18.9	14.0	5.2	17.5	3.4	3.3	1.6	0.9	0.8	94.471***
	30대	13.6	14.6	20.3	13.3	6.9	18.6	3.6	4.3	3.0	0.4	1.4	
	40대	14.1	15.3	18.4	13.2	6.8	21.1	4.9	4.4	1.2	0.5	0.3	
	50대	14.4	13.9	16.8	11.5	7.2	19.8	5.0	5.9	4.2	0.8	0.5	
	60대 이상	11.7	12.9	19.9	13.0	10.2	14.3	7.0	5.1	4.2	1.3	0.4	
지역	수도권	11.3	13.7	18.1	13.0	7.4	22.9	4.6	5.0	2.7	0.6	0.6	72.856***
	비수도권	17.4	15.8	19.5	13.1	6.9	13.7	4.9	4.2	2.9	0.9	0.7	
	대도시	14.9	14.8	19.5	12.6	8.1	17.4	4.8	4.2	2.4	0.7	0.5	36.202*
	중소도시	13.2	13.9	18.1	14.1	6.2	20.2	4.6	4.9	2.9	0.9	0.9	
	농어촌	17.3	19.9	18.8	8.6	7.9	12.8	4.9	4.9	4.1	0.4	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4	8.7	17.4	14.0	8.3	17.9	4.7	8.1	6.0	3.8	1.7	206.648***
	중하층	11.7	14.3	18.0	12.7	7.9	20.9	6.3	4.7	2.3	0.4	0.7	
	중간층	16.8	16.4	19.4	13.3	6.8	17.7	3.6	3.5	2.0	0.2	0.3	
	중상층(상층)	23.7	19.2	22.7	10.1	2.5	8.1	3.5	4.5	4.0	0.5	1.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3	11.0	18.3	11.9	9.5	17.7	5.9	6.2	5.0	1.8	1.4	100.036***
	200만 원대	13.0	15.3	18.7	15.1	6.0	17.8	6.2	3.9	3.1	0.3	0.5	
	300만 원대	16.6	14.1	18.6	11.2	7.8	18.5	3.7	5.8	2.0	0.9	0.8	
	400만 원대	11.4	15.3	19.8	14.5	7.7	20.6	3.9	4.3	2.0	0.5	0.0	
	500만 원 이상	16.8	17.0	18.8	13.2	5.7	17.6	4.5	3.3	2.1	0.5	0.6	
학력	중졸 이하	10.0	12.0	16.6	12.5	9.0	18.3	8.5	6.2	4.7	1.8	0.5	72.921***
	고졸	15.0	15.0	19.3	12.6	6.9	19.4	4.2	4.3	2.5	0.4	0.4	
	대졸 이상	15.3	15.6	19.0	13.7	6.8	17.3	3.8	4.3	2.2	0.7	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2	15.4	19.3	13.2	6.4	18.3	4.4	4.7	2.1	0.7	1.2	67.1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2	10.4	16.3	12.5	7.4	23.7	5.1	6.1	3.3	1.0	0.0	
	고용주·자영자	12.7	16.2	19.5	14.0	7.4	17.0	4.8	4.0	3.4	0.6	0.3	
	무급가족종사자	18.5	13.8	23.1	6.2	7.7	21.5	6.2	3.1	0.0	0.0	0.0	
	실업자	18.6	7.1	14.2	8.8	7.1	23.0	5.3	8.8	3.5	0.9	2.7	
	비경제활동인구	14.9	15.4	18.9	13.2	7.7	16.9	4.7	4.0	2.9	0.9	0.5	
직업	관리자·전문가	12.8	13.5	19.9	11.7	3.8	22.6	4.9	6.4	2.3	0.4	1.9	49.21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7	14.7	17.6	13.3	7.8	19.6	4.4	5.0	2.5	0.8	0.5	
	숙련 및 기술직	14.6	17.9	22.2	14.0	6.3	14.0	5.3	1.8	2.8	0.6	0.4	
	단순노무종사자	14.1	9.2	20.7	12.5	6.5	20.7	4.9	7.1	3.3	0.5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4	15.6	18.4	13.5	6.5	18.7	4.5	4.5	2.0	0.7	1.2	12.671
	비정규직	13.8	11.5	18.7	12.2	7.0	21.4	4.9	6.1	3.1	0.9	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2	16.0	17.3	12.9	9.6	16.3	5.8	4.6	2.9	1.1	0.5	39.502**
	중도적	14.7	13.8	18.8	12.7	6.7	20.1	4.2	4.6	3.2	0.6	0.6	
	진보적	14.9	15.4	20.9	14.0	5.2	17.0	4.6	4.7	1.6	0.8	1.0	

주: 1) " _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5	0.8	2.2	5.1	5.4	27.3	12.6	18.7	18.0	5.9	3.4	
성별	남성	0.8	1.0	2.5	5.1	5.3	27.1	12.5	17.7	18.5	5.3	4.3	23.144*
	여성	0.2	0.6	1.9	5.1	5.4	27.6	12.8	19.7	17.6	6.6	2.4	
연령	20대 이하	0.3	0.5	2.0	4.5	5.4	23.3	11.7	19.7	20.9	6.2	5.4	92.271***
	30대	0.9	1.4	2.4	4.4	3.7	24.1	14.6	17.9	20.7	6.9	3.0	
	40대	0.4	0.3	1.8	4.1	5.0	28.6	13.7	21.2	17.1	4.7	3.1	
	50대	0.1	0.3	2.9	7.1	6.2	28.7	11.5	18.1	16.8	5.4	3.0	
	60대 이상	0.7	1.6	2.1	5.4	6.4	32.2	11.8	16.1	14.8	6.7	2.1	
지역	수도권	0.6	1.1	2.8	5.9	5.5	27.1	13.2	20.2	16.1	4.8	2.7	42.31***
	비수도권	0.3	0.5	1.7	4.4	5.1	27.5	12.1	17.1	20.0	7.1	4.1	
	대도시	0.5	0.8	2.1	4.5	4.7	27.9	13.1	19.9	19.5	4.7	2.2	39.514**
	중소도시	0.5	0.9	2.3	5.6	6.2	26.9	12.4	17.7	16.6	6.5	4.5	
	농어촌	0.4	0.7	2.6	5.6	3.7	26.9	11.6	17.2	18.7	9.7	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	3.4	7.7	11.3	12.6	32.4	8.3	9.0	9.2	1.9	1.3	631.15***
	중하층	0.2	0.7	2.4	6.2	5.9	32.4	14.1	17.3	13.8	5.5	1.5	
	중간층	0.1	0.2	0.7	2.7	3.2	23.2	13.6	22.5	22.9	7.0	4.0	
	중상층(상층)	0.0	0.5	1.0	3.0	2.5	14.1	4.0	20.2	27.8	10.1	16.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	2.3	4.1	7.6	9.5	32.7	11.8	14.2	10.6	5.0	1.4	218.307***
	200만 원대	0.9	0.3	3.4	3.8	4.6	33.3	15.1	16.6	14.8	4.5	2.7	
	300만 원대	0.5	0.5	1.6	5.8	5.3	28.4	11.4	18.2	19.7	5.5	3.0	
	400만 원대	0.5	0.0	0.7	5.6	3.9	25.4	13.8	22.0	18.9	6.1	3.1	
	500만 원 이상	0.1	0.7	1.8	3.5	3.9	21.2	12.2	21.2	22.6	7.5	5.4	
학력	중졸 이하	0.3	1.5	2.3	8.5	7.6	34.9	10.1	15.4	14.1	4.2	1.0	98.826***
	고졸	0.5	0.6	2.3	4.8	5.7	28.5	13.4	17.4	17.1	5.9	3.8	
	대졸 이상	0.5	0.7	2.2	4.1	4.0	23.0	12.8	21.4	20.7	6.6	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	0.8	2.0	4.5	4.3	22.3	14.3	22.8	19.5	5.5	3.4	194.61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	1.5	2.5	8.1	7.9	35.5	11.2	12.9	14.2	4.1	1.3	
	고용주·자영자	0.3	0.1	2.5	4.0	5.3	30.2	12.5	17.1	19.6	5.4	3.0	
	무급가족종사자	0.0	1.5	0.0	4.6	3.1	26.2	15.4	16.9	21.5	9.2	1.5	
	실업자	2.6	2.6	10.5	11.4	7.0	39.5	5.3	7.9	7.9	1.8	3.5	
	비경제활동인구	0.5	0.9	1.4	4.8	5.5	26.4	12.1	18.6	17.6	7.7	4.5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7	4.1	5.2	5.2	23.1	8.6	23.1	19.8	6.7	3.4	67.21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4	0.7	2.1	4.2	5.0	26.5	13.6	19.7	19.1	5.3	3.4	
	숙련 및 기술직	0.6	0.2	2.2	4.0	5.1	31.2	14.2	17.2	18.4	5.5	1.4	
	단순노무종사자	0.5	1.6	0.5	13.0	7.6	27.6	15.1	15.1	14.1	3.2	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	0.6	2.2	4.0	4.4	22.2	13.4	23.2	20.6	5.2	3.8	61.392***
	비정규직	0.5	1.6	2.2	8.3	6.6	32.0	13.6	15.3	13.8	4.8	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1.4	2.2	5.1	6.7	29.3	11.3	18.2	17.5	5.6	2.3	36.881*
	중도적	0.7	0.5	2.0	5.1	4.6	28.4	12.9	18.2	18.1	5.9	3.7	
	진보적	0.1	0.7	2.7	5.4	5.4	22.1	13.8	20.5	18.8	6.7	3.9	

주: 1) "___님께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 가치 있는 삶

(단위: %)

구분		전혀 가치있지 않음----------매우 가치있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5	1.2	2.6	3.9	25.2	12.0	20.2	20.3	8.3	5.4	
성별	남성	0.5	0.6	1.6	2.9	3.3	24.7	11.1	18.4	22.2	8.4	6.2	36.425***
	여성	0.1	0.4	0.9	2.4	4.6	25.7	13.0	21.9	18.3	8.1	4.6	
연령	20대 이하	0.1	0.8	0.7	1.9	4.2	23.8	10.8	19.7	25.1	7.0	6.0	109.883***
	30대	0.7	0.6	1.3	1.9	2.6	20.0	11.7	22.0	22.3	9.3	7.6	
	40대	0.1	0.4	0.6	2.2	2.7	25.8	12.7	20.3	21.2	8.8	5.3	
	50대	0.0	0.5	1.6	3.5	5.0	25.0	12.0	21.8	17.1	8.2	5.2	
	60대 이상	0.4	0.4	2.2	3.7	5.2	32.0	13.2	16.9	15.2	7.8	2.8	
지역	수도권	0.4	0.4	1.7	2.6	4.0	24.5	11.1	21.0	20.1	8.2	5.9	16.697
	비수도권	0.2	0.6	0.7	2.7	3.9	25.9	13.0	19.3	20.5	8.3	4.9	
	대도시	0.3	0.3	1.2	2.2	3.6	25.2	12.3	21.5	22.2	6.5	4.7	43.589**
	중소도시	0.3	0.7	1.2	2.9	4.2	25.5	12.0	19.1	19.1	8.7	6.2	
	농어촌	0.0	0.7	1.5	3.4	4.5	23.6	10.9	18.7	16.5	15.4	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	2.3	5.1	7.2	7.7	36.0	11.9	11.3	10.6	4.0	1.7	452.805***
	중하층	0.1	0.3	0.8	3.0	4.4	28.3	12.1	22.5	17.7	6.4	4.5	
	중간층	0.1	0.2	0.5	1.2	3.0	20.7	12.0	21.8	24.2	10.2	6.0	
	중상층(상층)	0.0	0.5	0.0	0.5	0.0	15.7	12.1	11.1	29.3	15.2	15.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	1.5	2.3	5.1	7.3	34.5	14.2	14.4	13.0	4.4	2.6	242.694***
	200만 원대	0.5	0.5	1.4	3.1	2.6	28.8	10.6	24.0	14.9	9.4	4.3	
	300만 원대	0.1	0.5	0.9	2.4	3.3	24.7	13.7	20.2	20.6	6.7	6.7	
	400만 원대	0.3	0.0	1.4	2.0	4.1	22.3	11.4	22.6	22.6	9.0	4.3	
	500만 원 이상	0.0	0.2	0.6	1.3	3.1	19.6	10.7	20.3	26.1	10.6	7.5	
학력	중졸 이하	0.3	0.8	2.8	4.6	6.6	32.3	14.4	17.7	12.6	5.8	1.8	146.41***
	고졸	0.3	0.4	0.9	2.9	3.6	27.3	11.6	20.0	20.7	7.1	5.1	
	대졸 이상	0.4	0.6	0.9	1.5	3.2	20.0	11.5	21.3	23.0	10.5	7.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	0.3	0.6	2.5	2.9	19.1	13.0	24.1	22.7	8.8	5.9	263.9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	1.0	1.3	3.8	6.4	32.1	12.2	15.1	17.3	6.6	4.1	
	고용주·자영자	0.3	0.1	1.3	2.0	2.1	22.3	11.7	22.2	23.3	8.8	5.8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1.5	3.1	30.8	16.9	12.3	24.6	4.6	6.2	
	실업자	2.7	4.4	7.1	3.5	9.7	48.7	2.7	9.7	6.2	5.3	0.0	
	비경제활동인구	0.4	0.5	1.4	2.7	4.9	28.8	11.8	17.8	17.8	8.4	5.4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0	1.9	1.1	2.3	16.2	13.2	16.9	23.7	15.8	9.0	96.18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2	0.5	0.7	2.5	3.5	21.2	13.1	22.5	22.5	7.2	6.0	
	숙련 및 기술직	0.0	0.0	0.4	1.8	2.0	27.2	11.6	22.5	22.5	8.7	3.2	
	단순노무종사자	0.5	0.0	2.2	6.6	5.5	30.1	10.9	20.2	14.8	5.5	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	0.3	0.7	1.5	2.9	19.5	13.4	24.1	22.8	8.4	6.3	51.13***
	비정규직	0.0	0.7	0.9	5.2	5.4	27.7	11.9	17.6	18.7	7.9	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0.6	2.0	2.7	5.2	28.2	11.2	19.8	18.7	7.1	4.2	49.894***
	중도적	0.5	0.4	0.7	2.7	3.1	24.3	13.3	21.4	19.6	8.3	5.8	
	진보적	0.1	0.8	1.3	2.5	4.2	23.3	10.1	17.7	24.2	9.8	6.1	

주: 1) "___님께서는 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 선택의 자유

(단위: %)

구분		자유로운 선택권이 거의 없음----자유로운 선택권이 매우 많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5	0.4	1.6	4.1	4.4	20.9	12.5	19.9	19.6	8.8	7.3	
성별	남성	0.7	0.6	1.7	4.2	4.1	21.5	11.3	19.9	19.2	9.2	7.7	18.435*
	여성	0.2	0.2	1.4	4.1	4.8	20.3	13.8	19.9	20.1	8.3	6.9	
연령	20대 이하	0.4	0.4	1.1	3.8	4.0	17.9	14.0	19.7	20.8	10.7	7.2	92.26***
	30대	0.9	0.6	3.7	4.6	4.6	20.1	12.4	18.3	20.0	8.3	6.6	
	40대	0.5	0.1	1.3	4.6	3.0	25.8	11.2	21.2	21.3	5.0	6.0	
	50대	0.1	0.4	1.0	4.2	5.2	21.8	11.8	20.6	18.1	8.7	8.0	
	60대 이상	0.4	0.7	0.9	3.3	5.7	18.5	13.1	19.4	17.8	11.5	8.7	
지역	수도권	0.8	0.6	1.8	4.1	4.0	20.6	11.4	19.8	21.5	8.5	6.9	23.262*
	비수도권	0.2	0.3	1.4	4.1	4.9	21.2	13.6	20.0	17.7	9.0	7.7	
	대도시	0.4	0.7	1.8	3.9	4.4	21.2	13.1	20.6	19.2	8.2	6.5	31.442
	중소도시	0.6	0.2	1.4	4.5	4.5	21.4	12.5	18.9	19.5	8.5	7.9	
	농어촌	0.0	0.4	1.5	3.7	3.7	15.7	8.6	21.7	22.5	14.2	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	1.7	3.4	7.2	7.9	25.4	13.9	14.9	14.9	4.3	4.1	266.514***
	중하층	0.1	0.3	2.1	4.7	4.8	22.7	13.8	21.0	17.4	6.7	6.4	
	중간층	0.2	0.2	0.7	2.9	3.4	19.3	11.7	21.0	22.4	10.5	7.7	
	중상층(상층)	0.0	0.0	0.5	2.5	2.0	11.1	7.1	15.2	24.2	19.2	1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	1.2	2.7	4.5	7.1	21.3	14.5	17.7	15.4	7.3	7.4	122.944***
	200만 원대	0.9	0.2	2.4	5.0	4.6	22.4	10.1	20.2	20.7	7.7	5.8	
	300만 원대	0.3	0.1	0.9	4.5	3.3	21.3	13.0	20.7	20.2	7.4	8.3	
	400만 원대	0.7	0.0	0.9	4.1	4.4	21.0	15.0	23.2	18.6	5.3	7.0	
	500만 원 이상	0.0	0.6	1.3	3.2	3.4	19.5	10.7	18.9	21.7	13.2	7.5	
학력	중졸 이하	0.5	0.8	1.8	3.1	7.3	21.5	12.9	18.7	16.9	9.1	7.3	28.896
	고졸	0.4	0.4	1.3	4.0	4.1	20.6	13.6	20.0	19.9	8.2	7.5	
	대졸 이상	0.5	0.3	1.7	4.7	3.6	21.1	11.2	20.2	20.5	9.2	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4	1.6	4.1	4.4	20.9	12.5	19.9	19.6	8.8	7.3	120.95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	0.6	1.2	4.9	4.7	21.1	12.7	20.1	21.3	7.5	5.7	
	고용주·자영자	0.5	1.0	3.8	4.3	5.6	25.1	13.7	15.0	18.8	4.6	7.6	
	무급가족종사자	0.1	0.0	1.3	3.8	3.5	20.4	9.6	20.2	20.9	10.6	9.7	
	실업자	0.0	0.0	0.0	3.0	6.1	16.7	6.1	31.8	19.7	6.1	10.6	
	비경제활동인구	2.6	0.0	1.8	7.9	6.1	25.4	14.0	17.5	10.5	12.3	1.8	
직업	관리자·전문가	0.6	0.5	1.5	3.2	4.2	19.5	14.1	20.7	18.1	10.1	7.6	59.47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	0.7	1.9	3.7	3.0	21.3	6.0	19.1	24.7	10.1	8.2	
	숙련 및 기술직	0.1	0.3	1.5	4.7	4.8	21.4	12.6	19.8	20.2	7.3	7.4	
	단순노무종사자	0.4	0.2	0.8	3.0	3.7	19.3	11.6	22.4	22.2	9.3	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	1.1	4.4	5.5	6.0	26.9	13.2	12.1	15.9	7.1	7.1	19.866*
	비정규직	0.4	0.7	1.3	4.3	4.1	21.9	12.6	20.7	20.9	7.5	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0.7	2.9	5.6	6.3	22.4	13.6	15.3	20.3	5.4	7.2	50.018***
	중도적	0.3	0.7	1.5	3.9	5.9	21.9	11.8	18.7	18.5	9.8	7.2	
	진보적	0.5	0.3	1.9	3.6	3.8	22.3	13.3	20.2	18.1	8.2	7.9	

주: 1) "_____님께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 사회 신뢰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음----------매우 믿을 수 있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1	2.4	7.1	14.8	12.6	31.9	10.9	10.4	6.0	1.0	0.7	
성별	남성	2.4	2.6	7.3	15.7	12.1	29.6	11.3	10.0	6.7	1.2	1.0	22.96*
	여성	1.9	2.2	6.9	13.9	13.2	34.3	10.4	10.8	5.2	0.7	0.4	
연령	20대 이하	3.4	1.6	8.2	16.9	9.8	28.0	11.2	9.8	7.1	1.6	2.2	113.933***
	30대	3.4	4.4	7.3	15.0	14.4	29.6	9.4	9.9	5.6	0.7	0.1	
	40대	1.4	2.3	7.1	14.4	13.6	33.5	11.9	10.7	4.5	0.5	0.1	
	50대	1.0	2.2	7.1	14.0	12.2	36.1	8.6	11.1	6.4	0.7	0.5	
	60대 이상	1.3	1.6	6.0	13.7	13.4	32.1	13.3	10.4	6.3	1.3	0.4	
지역	수도권	2.2	2.7	8.8	14.8	11.7	31.2	10.9	10.7	5.5	0.6	0.9	25.044**
	비수도권	2.1	2.2	5.4	14.9	13.6	32.6	10.8	10.1	6.5	1.3	0.6	
	대도시	1.6	2.1	7.9	15.5	13.6	31.4	10.2	10.7	5.9	0.4	0.8	38.735**
	중소도시	2.8	2.7	6.7	14.1	11.8	32.7	11.0	10.0	6.1	1.3	0.7	
	농어촌	0.8	2.3	4.9	15.8	12.5	30.2	13.6	11.7	5.7	2.6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	5.1	7.7	19.2	10.9	33.7	10.4	6.2	3.4	0.2	0.0	116.822***
	중하층	2.0	2.9	9.1	16.2	14.2	30.5	9.7	9.6	4.7	0.7	0.5	
	중간층	2.0	1.5	5.6	12.5	12.2	33.0	11.4	12.1	7.5	1.3	1.0	
	중상층(상층)	2.0	1.0	5.1	14.2	10.2	28.4	15.2	11.7	8.1	2.0	2.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	2.6	8.0	16.1	11.1	33.0	11.8	10.2	5.0	0.6	0.3	73.07**
	200만 원대	3.9	2.7	9.1	14.4	13.4	29.3	10.3	9.9	6.0	0.7	0.3	
	300만 원대	1.6	2.5	7.3	18.0	14.3	30.3	9.1	10.3	5.3	0.9	0.5	
	400만 원대	1.4	2.4	5.6	13.1	13.7	36.3	11.6	10.4	4.6	0.3	0.5	
	500만 원 이상	2.4	2.1	6.3	13.2	11.6	31.4	11.4	10.9	7.7	1.7	1.4	
학력	중졸 이하	1.0	3.0	7.0	16.4	11.1	34.7	10.6	9.5	5.8	0.7	0.3	26.132
	고졸	1.7	2.1	7.3	14.0	13.7	32.1	10.9	10.6	5.7	0.9	1.0	
	대졸 이상	3.1	2.5	7.0	15.1	12.2	30.6	11.0	10.5	6.3	1.2	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	1.9	7.1	14.3	12.4	29.6	12.4	10.5	7.4	1.0	1.2	90.76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	2.8	5.3	13.9	15.4	36.7	11.4	8.6	2.5	0.8	0.5	
	고용주·자영자	1.9	2.6	6.9	15.8	12.9	31.3	10.1	10.2	6.7	1.3	0.4	
	무급가족종사자	0.0	1.5	7.5	7.5	16.4	43.3	7.5	13.4	3.0	0.0	0.0	
	실업자	8.8	5.3	13.2	14.9	12.3	29.8	7.0	5.3	3.5	0.0	0.0	
	비경제활동인구	1.8	2.4	7.3	15.6	11.5	32.6	10.2	11.3	5.5	1.0	0.7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4.2	10.2	13.2	11.3	29.4	11.3	11.3	4.5	0.8	1.1	46.41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9	2.1	6.7	14.2	12.9	31.8	12.3	9.9	6.6	0.7	0.9	
	숙련 및 기술직	1.4	2.0	6.1	16.8	14.0	30.4	9.1	10.3	7.9	1.8	0.2	
	단순노무종사자	3.3	1.1	4.3	13.0	15.8	37.0	10.3	10.9	2.2	2.2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	2.1	6.6	13.2	12.7	29.5	12.6	10.9	7.7	1.2	1.3	24.264**
	비정규직	2.2	2.2	6.7	16.2	14.0	34.7	11.3	8.5	3.4	0.5	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	2.6	5.6	14.7	11.1	33.2	9.2	12.7	7.7	1.1	0.7	66.525***
	중도적	2.3	2.2	6.7	14.2	12.6	33.5	11.4	10.7	5.1	0.9	0.5	
	진보적	2.6	2.5	10.2	16.5	14.8	26.4	12.0	6.6	6.0	1.0	1.3	

주: 1) "___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 삶의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7	1.2	4.3	8.2	8.1	30.5	13.7	17.4	11.2	3.1	1.7	
성별	남성	0.9	1.1	3.6	8.7	7.9	29.6	13.9	18.0	11.1	3.3	2.1	14.391
	여성	0.6	1.3	5.0	7.7	8.3	31.4	13.5	16.9	11.3	2.8	1.2	
연령	20대 이하	0.5	0.5	3.6	6.1	6.5	27.8	14.4	20.8	11.9	3.7	4.1	134.812***
	30대	0.6	0.7	4.0	7.3	7.7	29.7	14.6	17.3	13.9	2.6	1.6	
	40대	0.6	1.2	3.5	7.1	7.7	33.1	15.0	17.6	11.5	2.3	0.5	
	50대	0.7	1.0	4.8	9.4	7.7	30.7	11.8	19.8	10.0	3.3	0.8	
	60대 이상	1.3	2.7	5.8	11.1	11.1	31.2	12.6	11.1	8.5	3.4	1.2	
지역	수도권	1.2	1.5	5.4	9.7	7.6	31.2	12.6	15.7	10.2	3.2	1.6	51.815***
	비수도권	0.2	0.9	3.1	6.6	8.6	29.8	14.8	19.2	12.2	2.9	1.7	
	대도시	1.2	1.2	3.9	7.8	8.4	29.5	12.7	19.3	11.6	3.0	1.6	24.829
	중소도시	0.4	1.3	4.7	8.6	7.5	31.7	14.2	15.7	11.1	3.1	1.8	
	농어촌	0.4	1.1	3.7	7.9	10.5	29.6	16.1	17.2	9.4	3.0	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	6.6	17.7	20.9	14.9	21.3	4.9	5.5	2.8	0.6	0.0	1277.696***
	중하층	0.4	0.9	4.0	10.6	11.6	37.0	13.8	13.5	7.0	1.0	0.2	
	중간층	0.0	0.1	1.2	3.1	3.8	30.2	16.7	23.6	14.8	4.2	2.3	
	중상층(상층)	0.0	0.0	0.0	3.5	2.5	10.6	8.5	22.1	30.2	12.6	1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	4.6	10.6	16.1	13.2	29.1	7.6	9.6	4.6	2.1	0.8	579.255***
	200만 원대	1.2	0.5	4.1	13.5	9.2	35.3	12.6	12.6	9.6	1.0	0.3	
	300만 원대	0.5	0.3	4.4	6.6	9.0	34.3	14.4	16.5	9.6	3.0	1.5	
	400만 원대	0.5	0.9	2.2	5.5	7.8	31.7	16.0	22.7	9.2	2.7	0.7	
	500만 원 이상	0.1	0.4	1.7	3.1	3.8	25.3	16.2	22.7	18.3	4.8	3.5	
학력	중졸 이하	0.3	1.5	2.3	8.5	7.6	34.9	10.1	15.4	14.1	4.2	1.0	183.696***
	고졸	0.5	0.6	2.3	4.8	5.7	28.5	13.4	17.4	17.1	5.9	3.8	
	대졸 이상	0.5	0.7	2.2	4.1	4.0	23.0	12.8	21.4	20.7	6.6	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	0.8	2.0	4.5	4.3	22.3	14.3	22.8	19.5	5.5	3.4	195.77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	1.5	2.5	8.1	7.9	35.5	11.2	12.9	14.2	4.1	1.3	
	고용주·자영자	0.3	0.1	2.5	4.0	5.3	30.2	12.5	17.1	19.6	5.4	3.0	
	무급가족종사자	0.0	1.5	0.0	4.6	3.1	26.2	15.4	16.9	21.5	9.2	1.5	
	실업자	2.6	2.6	10.5	11.4	7.0	39.5	5.3	7.9	7.9	1.8	3.5	
	비경제활동인구	0.5	0.9	1.4	4.8	5.5	26.4	12.1	18.6	17.6	7.7	4.5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7	4.1	7.5	6.7	24.3	15.7	15.0	17.2	4.9	3.7	120.66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5	0.7	3.6	7.0	7.5	31.2	13.8	18.6	12.7	2.7	1.7	
	숙련 및 기술직	0.6	0.8	2.2	8.3	8.9	35.4	14.4	19.5	8.7	1.0	0.0	
	단순노무종사자	2.7	1.6	10.8	15.1	9.2	29.2	9.2	14.6	4.3	2.7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0.7	3.0	4.9	7.5	31.0	15.3	17.8	15.1	2.3	1.7	103.827
	비정규직	1.6	1.3	7.4	14.8	10.6	28.3	8.3	16.2	6.7	3.1	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	1.8	5.1	9.9	8.7	29.0	11.9	17.6	10.9	3.2	1.2	25.514
	중도적	0.8	1.2	3.8	7.3	7.7	31.7	14.2	16.9	11.6	3.1	1.8	
	진보적	0.4	0.5	4.6	8.1	8.2	29.6	14.8	18.5	10.4	2.7	2.1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생활수준"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 삶의 영역 만족도: 건강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1.1	2.2	4.5	5.3	17.7	11.3	18.4	23.2	11.8	4.1	
성별	남성	0.3	1.1	1.7	3.5	5.0	15.6	11.2	19.8	23.6	12.9	5.2	41.51***
	여성	0.3	1.2	2.8	5.5	5.5	19.7	11.5	17.0	22.8	10.7	3.0	
연령	20대 이하	0.0	0.0	0.9	1.6	2.6	13.1	5.7	17.9	25.3	21.9	11.0	627.885***
	30대	0.0	0.4	0.6	2.3	3.9	14.8	10.3	19.5	26.8	15.0	6.4	
	40대	0.4	0.5	0.9	4.2	2.7	16.7	13.8	20.1	28.6	10.3	1.8	
	50대	0.4	2.1	2.9	4.7	8.0	20.4	12.2	17.7	23.6	7.2	0.9	
	60대 이상	0.7	2.7	6.1	10.1	9.2	23.8	15.1	16.8	10.4	4.5	0.4	
지역	수도권	0.3	1.2	1.9	4.7	5.5	17.6	11.6	18.6	23.1	11.9	3.6	5.921
	비수도권	0.3	1.0	2.5	4.4	4.9	17.7	11.1	18.3	23.3	11.8	4.7	
	대도시	0.2	0.8	1.4	4.3	4.4	16.9	12.2	21.2	22.8	11.1	4.7	63.364***
	중소도시	0.3	1.3	2.5	4.7	5.7	17.4	11.2	16.6	24.0	12.4	4.0	
	농어촌	0.4	2.6	4.9	4.9	7.8	24.3	6.7	13.4	20.1	13.1	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	4.5	7.2	11.5	8.3	22.8	9.8	13.2	14.7	4.9	1.5	377.198***
	중하층	0.2	1.0	2.3	4.8	5.9	19.5	11.4	19.9	21.6	10.3	3.1	
	중간층	0.0	0.4	0.9	2.6	4.2	15.4	12.3	18.9	26.1	13.9	5.4	
	중상층(상층)	0.0	0.0	0.0	2.0	2.0	11.7	6.6	17.3	31.0	21.8	7.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	3.9	7.0	11.2	9.0	22.0	9.7	16.8	10.8	6.7	1.7	426.999***
	200만 원대	0.3	0.7	2.6	4.3	5.0	21.1	11.1	17.3	23.7	10.1	3.8	
	300만 원대	0.0	0.5	1.4	2.5	5.7	17.9	12.6	16.8	25.8	12.8	3.9	
	400만 원대	0.0	1.0	0.5	3.1	3.7	14.8	13.8	20.4	26.9	11.9	3.7	
	500만 원 이상	0.0	0.1	0.5	2.8	3.6	14.4	10.2	20.2	26.7	15.3	6.1	
학력	중졸 이하	1.0	4.0	8.5	11.8	11.1	23.3	12.1	15.0	9.6	3.0	0.7	493.821***
	고졸	0.3	0.9	1.1	3.5	4.6	18.2	11.4	18.7	23.3	12.9	5.0	
	대졸 이상	0.0	0.3	0.7	2.7	3.5	14.8	11.0	19.6	28.7	14.2	4.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	0.5	0.6	2.3	4.4	15.0	11.7	20.4	26.0	13.8	5.2	211.7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	2.5	2.0	6.1	6.1	22.3	10.9	16.0	18.8	12.9	1.5	
	고용주·자영자	0.0	0.6	1.6	3.9	5.5	19.5	14.6	21.6	23.4	6.8	2.4	
	무급가족종사자	0.0	1.5	3.0	3.0	13.6	16.7	9.1	21.2	22.7	7.6	1.5	
	실업자	0.0	0.0	6.2	7.1	8.8	20.4	8.8	15.0	18.6	13.3	1.8	
	비경제활동인구	0.6	1.8	4.0	6.5	4.8	17.3	9.2	15.0	22.1	13.0	5.5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7	1.1	5.6	5.6	19.0	12.3	14.9	22.4	13.8	4.5	104.49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0	0.4	0.9	2.5	4.8	18.0	12.3	20.8	24.9	11.9	3.7	
	숙련 및 기술직	0.6	1.2	2.4	3.2	6.7	14.6	13.2	20.9	24.5	9.1	3.4	
	단순노무종사자	0.0	4.4	1.1	9.9	5.5	22.0	11.5	19.8	15.9	8.2	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	0.3	0.7	1.9	4.3	14.8	11.9	20.3	27.1	13.8	5.0	63.217***
	비정규직	0.5	2.3	1.4	5.7	5.7	20.6	10.8	17.6	18.9	13.3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2.3	2.9	5.7	7.3	17.3	14.1	19.7	20.9	7.2	2.4	110.49***
	중도적	0.3	0.7	2.1	4.4	4.7	19.0	10.7	17.6	23.7	12.8	4.2	
	진보적	0.5	0.5	1.4	3.4	3.8	15.0	9.3	18.9	25.2	15.6	6.4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건강"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 삶의 영역 만족도: 삶에서 성취한 것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5	0.5	2.2	5.0	7.1	28.2	16.4	19.7	14.0	5.1	1.1	
성별	남성	0.6	0.4	2.3	5.0	6.9	28.0	15.3	20.7	14.0	5.4	1.5	9.765
	여성	0.4	0.6	2.2	5.1	7.3	28.5	17.6	18.8	13.9	4.9	0.8	
연령	20대 이하	0.8	0.0	1.3	3.7	7.8	28.2	12.7	20.4	17.6	5.2	2.3	132.145***
	30대	0.7	0.4	1.7	2.0	6.7	27.7	15.6	21.7	16.6	6.0	0.9	
	40대	0.6	0.3	1.7	4.6	5.5	29.8	16.1	22.5	13.1	5.0	0.8	
	50대	0.5	0.8	2.5	7.1	5.8	26.4	19.6	18.3	12.4	5.2	1.3	
	60대 이상	0.3	1.2	4.0	7.7	9.7	28.9	18.0	15.2	10.0	4.3	0.6	
지역	수도권	0.9	0.6	2.8	5.5	6.6	29.7	13.5	19.6	14.3	5.4	1.1	43.582***
	비수도권	0.2	0.3	1.7	4.5	7.6	26.7	19.4	19.8	13.6	4.9	1.3	
	대도시	0.8	0.5	1.9	4.1	7.1	29.3	15.8	19.2	15.1	5.0	1.2	25.881
	중소도시	0.4	0.5	2.4	5.6	6.5	27.5	17.1	20.2	13.2	5.4	1.1	
	농어촌	0.0	0.7	3.0	7.1	10.8	25.7	15.7	19.8	11.9	4.1	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	2.3	8.5	14.0	12.8	33.0	10.2	10.4	4.5	0.9	1.1	632.247***
	중하층	0.2	0.4	2.4	5.9	9.2	31.2	18.2	18.8	10.3	3.0	0.4	
	중간층	0.4	0.1	0.5	2.3	4.2	26.2	17.8	22.3	18.0	6.8	1.4	
	중상층(상층)	0.0	0.0	0.0	1.0	2.0	13.6	8.1	25.8	29.3	15.7	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	1.7	6.5	9.4	11.8	31.4	14.4	13.1	8.0	2.0	0.6	361.249***
	200만 원대	0.3	0.0	1.9	5.0	8.6	33.8	19.0	18.7	9.3	2.9	0.5	
	300만 원대	0.5	0.1	1.8	4.6	8.6	28.0	16.4	21.2	12.8	4.9	1.1	
	400만 원대	0.3	0.3	0.7	5.1	4.9	26.1	20.5	22.2	15.0	4.3	0.5	
	500만 원 이상	0.5	0.3	1.0	2.7	3.4	24.4	14.1	22.0	20.5	8.9	2.3	
학력	중졸 이하	0.3	1.2	4.7	10.1	12.8	29.4	17.9	13.3	7.0	2.7	0.7	199.458***
	고졸	0.5	0.4	1.7	4.3	7.0	29.9	18.0	19.7	11.9	5.1	1.5	
	대졸 이상	0.7	0.3	1.8	3.8	4.8	26.0	14.1	22.3	19.0	6.2	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3	1.7	2.8	5.8	25.4	16.0	23.7	17.3	5.3	1.3	202.29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	0.5	1.8	11.4	10.4	31.7	15.2	15.5	7.4	4.6	0.8	
	고용주·자영자	0.5	0.1	1.4	4.5	6.4	26.5	18.6	21.6	13.7	5.4	1.1	
	무급가족종사자	0.0	1.5	0.0	4.6	1.5	33.8	21.5	18.5	15.4	3.1	0.0	
	실업자	2.6	0.0	8.6	10.3	7.8	41.4	9.5	8.6	7.8	0.0	3.4	
	비경제활동인구	0.5	0.9	3.2	4.9	7.9	29.4	16.1	16.7	13.6	5.7	1.2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8	0.4	3.8	3.8	24.1	17.7	21.1	17.3	9.8	1.5	92.4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	0.1	1.5	4.8	6.6	26.4	15.8	22.0	16.0	5.1	1.1	
	숙련 및 기술직	0.6	0.2	1.6	3.3	6.7	29.3	20.1	22.6	11.4	3.7	0.6	
	단순노무종사자	0.5	1.6	3.3	11.4	10.9	30.4	16.3	16.8	6.0	2.2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0.2	1.2	3.0	5.3	24.2	17.2	23.8	18.1	5.2	1.3	84.833***
	비정규직	0.5	0.7	2.7	8.6	10.3	32.0	13.1	17.8	8.6	4.9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	0.6	3.1	6.1	7.1	29.7	16.7	18.0	11.8	5.8	0.5	33.29*
	중도적	.6	.4	2.1	4.7	7.0	28.9	16.4	19.7	14.1	4.8	1.3	
	진보적	.4	.7	1.4	4.4	7.0	24.7	16.0	22.0	16.7	5.1	1.6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삶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 삶의 영역 만족도: 개인적인 관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	0.3	0.8	2.6	4.7	19.2	16.8	24.5	21.1	7.6	2.1	
성별	남성	0.2	0.4	0.6	2.6	4.3	17.9	16.3	26.1	21.6	7.3	2.6	20.617*
	여성	0.1	0.3	1.1	2.6	5.1	20.6	17.3	22.9	20.5	8.0	1.4	
연령	20대 이하	0.0	0.0	0.7	1.3	5.3	18.5	11.6	23.8	25.8	8.6	4.4	149.584***
	30대	0.6	0.3	0.4	1.7	4.3	17.7	17.7	26.3	21.3	8.0	1.6	
	40대	0.1	1.0	0.4	1.5	3.2	20.3	18.5	26.0	20.1	7.3	1.5	
	50대	0.0	0.0	0.7	4.1	4.3	19.5	17.1	25.3	20.8	6.8	1.4	
	60대 이상	0.1	0.1	2.2	4.6	6.7	20.2	19.4	20.9	16.7	7.5	1.3	
지역	수도권	0.3	0.4	0.9	3.4	4.3	19.6	15.0	24.5	21.7	7.9	2.1	23.449**
	비수도권	0.1	0.2	0.8	1.8	5.2	18.9	18.7	24.6	20.4	7.3	2.0	
	대도시	0.1	0.4	0.7	2.6	4.8	19.7	16.6	24.9	20.9	7.4	2.1	11.95
	중소도시	0.2	0.3	1.1	2.5	4.7	19.3	17.3	24.5	20.7	7.5	2.1	
	농어촌	0.0	0.0	0.8	3.8	4.5	16.5	14.7	22.6	24.8	10.2	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	1.5	4.7	8.1	11.5	29.1	14.3	19.0	7.3	2.8	0.6	557.462***
	중하층	0.0	0.3	0.1	2.7	5.6	21.5	19.5	25.4	17.8	5.8	1.3	
	중간층	0.0	0.0	0.2	1.2	2.5	15.9	15.8	26.6	25.8	9.5	2.4	
	중상층(상층)	0.0	0.0	1.5	1.0	1.0	7.6	12.2	14.7	37.1	17.3	7.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	1.7	3.9	6.3	8.2	22.8	14.7	21.0	15.1	4.4	1.5	366.509***
	200만 원대	0.2	0.0	0.2	1.5	6.5	23.0	21.1	26.8	14.9	4.6	1.2	
	300만 원대	0.0	0.0	0.5	2.1	4.5	18.6	17.7	25.7	21.4	7.1	2.4	
	400만 원대	0.2	0.0	0.0	1.4	4.8	19.8	17.4	27.1	20.6	7.3	1.5	
	500만 원 이상	0.0	0.0	0.0	2.0	1.8	15.1	14.9	23.3	28.1	11.8	3.0	
학력	중졸 이하	0.2	0.2	3.0	6.1	8.1	24.5	17.2	20.1	13.9	6.0	0.7	155.721***
	고졸	0.1	0.5	0.6	1.9	4.4	19.7	17.5	24.4	21.4	6.7	2.6	
	대졸 이상	0.3	0.2	0.3	2.0	3.7	16.6	15.8	26.4	23.5	9.3	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	0.2	0.4	1.9	3.3	16.8	17.6	26.7	23.3	7.7	2.2	211.11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	0.8	0.3	2.5	7.6	27.0	15.8	20.9	16.5	6.4	2.3	
	고용주·자영자	0.1	0.0	0.4	2.0	3.3	17.3	20.5	26.1	20.6	7.9	1.8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3.1	23.1	13.8	33.8	18.5	7.7	0.0	
	실업자	2.6	2.6	0.0	5.2	13.9	20.9	9.6	21.7	21.7	0.0	1.7	
	비경제활동인구	0.2	0.3	2.0	3.8	5.4	20.1	14.6	22.1	20.7	8.6	2.3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7	0.7	0.7	2.2	19.1	12.4	27.0	27.7	6.4	3.0	89.09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1	0.0	0.3	2.2	3.6	18.8	18.4	25.9	19.9	8.5	2.1	
	숙련 및 기술직	0.0	0.0	0.2	0.8	4.1	17.2	20.9	25.6	23.9	5.9	1.4	
	단순노무종사자	0.0	1.6	0.5	4.4	9.8	23.0	16.9	23.0	14.2	5.5	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	0.2	0.5	1.7	3.4	16.1	17.0	27.5	23.4	8.0	2.2	38.877***
	비정규직		0.5	0.2	2.5	6.3	25.4	17.5	20.9	18.2	6.3	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	0.0	1.4	3.3	5.8	19.6	18.9	21.6	20.7	6.7	1.9	53.6***
	중도적	0.2	0.5	0.7	2.0	4.5	19.6	17.4	25.6	20.4	7.5	1.5	
	진보적	0.1	0.4	0.5	3.3	3.9	17.8	12.4	25.6	23.3	9.2	3.5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 삶의 영역 만족도: 안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4	1.0	2.5	4.7	22.0	16.7	24.9	18.8	6.1	2.6	
성별	남성	0.3	0.4	0.8	2.4	4.3	20.2	16.2	25.6	19.2	6.8	3.8	35.349***
	여성	0.3	0.4	1.2	2.6	5.1	23.9	17.2	24.2	18.3	5.3	1.3	
연령	20대 이하	0.5	0.1	0.7	2.5	2.8	20.6	13.1	26.9	17.3	8.2	7.3	169.984***
	30대	0.6	0.6	0.9	2.4	4.9	19.1	16.3	26.1	20.2	6.4	2.6	
	40대	0.3	0.6	0.9	2.4	3.5	25.1	16.0	23.7	22.1	4.1	1.3	
	50대	0.0	0.5	0.8	1.6	6.5	22.1	18.7	25.3	17.5	6.5	0.4	
	60대 이상	0.3	0.1	1.6	3.4	6.3	23.0	19.7	22.6	16.6	5.2	1.0	
지역	수도권	0.5	0.6	1.3	2.6	4.6	21.7	16.5	26.7	16.9	5.6	2.9	31.507***
	비수도권	0.1	0.2	0.6	2.3	4.9	22.4	16.9	23.1	20.7	6.6	2.3	
	대도시	0.4	0.5	0.9	3.2	3.9	22.3	17.6	25.9	16.6	6.4	2.2	31.14
	중소도시	0.2	0.3	1.1	1.9	5.4	21.7	16.2	24.4	20.2	5.7	3.0	
	농어촌	0.0	0.4	0.4	2.2	5.6	22.4	14.6	22.0	23.5	6.7	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	1.9	3.0	6.4	9.8	32.3	16.8	14.9	9.1	3.0	1.1	397.987***
	중하층	0.1	0.3	0.7	2.7	5.8	24.8	19.0	24.7	16.2	4.0	1.8	
	중간층	0.1	0.2	0.8	1.3	2.7	18.3	15.4	28.3	22.3	7.3	3.2	
	중상층(상층)	0.0	0.0	0.0	1.0	1.5	9.6	11.6	22.2	30.3	18.2	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	1.2	2.6	4.4	6.7	27.2	18.8	19.6	13.1	4.2	1.7	161.912***
	200만 원대	0.5	0.7	0.5	3.1	5.1	24.7	18.9	21.7	16.9	5.8	2.0	
	300만 원대	0.0	0.0	1.1	2.1	4.7	21.3	17.0	26.1	19.4	5.4	2.9	
	400만 원대	0.2	0.2	0.0	1.5	5.0	23.9	15.6	27.7	18.6	5.6	1.7	
	500만 원 이상	0.3	0.3	0.7	1.8	3.2	16.7	14.7	27.6	23.1	8.0	3.6	
학력	중졸 이하	0.2	0.2	1.8	3.7	8.8	25.7	19.9	21.3	13.6	4.0	0.8	90.477***
	고졸	0.2	0.5	0.8	1.9	4.1	23.0	16.2	25.0	18.0	7.1	3.2	
	대졸 이상	0.5	0.4	0.7	2.6	3.8	19.5	16.0	26.3	21.7	5.8	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	0.3	0.8	2.3	4.5	20.2	17.8	27.0	19.2	5.8	2.1	114.25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	1.3	2.0	4.3	6.3	24.4	16.0	21.8	15.0	4.6	4.3	
	고용주·자영자	0.3	0.1	1.0	1.5	3.9	22.4	17.9	24.8	20.5	5.9	1.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1.5	1.5	30.8	20.0	13.8	23.1	9.2	0.0	
	실업자	2.6	0.0	2.6	5.2	6.0	33.6	11.2	13.8	16.4	6.9	1.7	
	비경제활동인구	0.4	0.6	0.6	2.5	5.1	21.3	15.3	25.6	18.3	6.8	3.4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7	0.7	2.2	7.1	16.5	10.5	29.6	22.5	6.4	3.7	58.46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2	0.1	1.1	2.3	4.0	22.5	19.3	24.3	18.0	6.0	2.3	
	숙련 및 기술직	0.2	0.2	0.6	2.2	3.8	21.5	17.8	26.3	20.2	5.7	1.4	
	단순노무종사자	0.0	1.6	2.7	3.3	7.1	24.5	14.1	22.8	19.6	2.7	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	0.2	0.4	2.1	4.5	19.5	17.5	28.1	19.7	5.6	2.1	44.576***
	비정규직	0.0	1.1	2.5	4.0	5.8	24.5	17.1	21.2	15.1	5.4	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2	1.5	2.6	5.9	23.6	17.9	22.7	17.8	5.8	1.9	61.118***
	중도적	0.5	0.5	0.5	1.9	4.8	22.5	17.0	23.7	19.6	6.3	2.5	
	진보적	0.1	0.5	1.4	3.7	3.0	18.8	14.2	30.6	18.0	6.0	3.7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안전"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 삶의 영역 만족도: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	1.2	2.6	8.4	9.5	25.9	16.9	17.0	12.7	3.7	1.2	
성별	남성	0.8	0.9	2.3	7.7	9.2	24.5	16.7	18.8	13.3	4.1	1.7	30.039**
	여성	1.1	1.5	2.9	9.1	9.9	27.2	17.2	15.2	12.1	3.2	0.6	
연령	20대 이하	1.9	0.8	2.4	7.7	9.8	21.9	14.7	16.3	16.2	4.6	3.7	133.053***
	30대	1.0	2.1	4.1	9.6	8.4	25.9	15.0	16.7	12.3	4.1	0.7	
	40대	1.2	1.8	1.9	7.9	9.5	24.6	19.9	16.9	13.1	2.7	0.5	
	50대	0.3	0.9	2.5	7.2	10.6	27.0	16.8	18.7	11.8	3.8	0.4	
	60대 이상	0.3	0.3	2.1	9.8	9.1	30.3	18.2	16.4	9.8	3.3	0.4	
지역	수도권	1.3	1.7	3.6	10.2	8.7	26.7	15.2	16.8	11.7	2.7	1.3	67.934***
	비수도권	0.6	0.7	1.5	6.5	10.4	24.9	18.8	17.2	13.8	4.6	1.0	
	대도시	1.4	1.5	2.1	8.7	9.6	26.0	16.5	16.9	13.0	3.2	1.2	23.875
	중소도시	0.6	1.0	2.9	8.3	9.8	25.2	17.8	16.9	12.2	4.2	1.1	
	농어촌	0.0	1.1	4.1	6.8	7.5	29.3	14.7	18.4	13.9	3.0	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	2.3	4.7	14.0	14.4	31.0	13.6	10.6	5.3	1.5	0.4	245.151***
	중하층	1.0	1.0	2.4	9.8	10.5	27.9	18.6	16.4	9.9	2.1	0.6	
	중간층	0.7	1.2	2.3	6.3	8.0	22.9	16.5	19.8	15.8	4.9	1.6	
	중상층(상층)	0.0	0.0	1.5	3.0	4.1	23.9	16.8	13.7	24.9	9.6	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3	2.1	2.9	11.8	11.8	30.2	14.7	14.8	8.5	1.8	1.1	146.769***
	200만 원대	2.2	1.0	2.7	7.4	9.4	27.2	20.0	15.7	10.8	3.1	0.5	
	300만 원대	0.7	0.3	2.6	11.2	8.7	26.1	16.8	16.5	12.9	3.3	0.9	
	400만 원대	0.9	1.2	2.7	7.0	9.6	27.0	18.6	18.8	10.9	2.7	0.7	
	500만 원 이상	0.9	1.4	2.2	5.4	8.9	21.7	16.0	18.3	17.2	6.0	2.0	
학력	중졸 이하	0.3	1.0	2.8	10.5	12.6	28.9	17.1	15.6	8.3	2.5	0.3	45.874**
	고졸	0.8	1.0	2.4	8.2	9.2	26.6	17.5	16.4	12.9	3.8	1.3	
	대졸 이상	1.3	1.5	2.8	7.7	8.7	23.8	16.3	18.2	14.2	4.1	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	1.0	2.8	7.7	8.1	24.3	17.9	18.5	14.1	3.6	1.1	89.40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	1.8	3.0	11.2	15.0	24.4	15.0	15.5	8.4	2.0	2.5	
	고용주·자영자	0.4	1.0	2.3	7.2	8.8	25.1	19.3	18.4	13.0	4.3	0.4	
	무급가족종사자	3.0	0.0	0.0	7.5	16.4	29.9	13.4	10.4	13.4	6.0	0.0	
	실업자	0.0	1.8	3.5	8.8	14.0	32.5	9.6	13.2	13.2	1.8	1.8	
	비경제활동인구	1.2	1.4	2.5	9.0	8.7	27.9	16.0	15.7	12.5	3.9	1.4	
직업	관리자·전문가	0.7	3.0	4.1	7.5	8.2	19.9	19.5	19.1	11.6	4.1	2.2	52.79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	0.7	2.7	8.4	8.5	25.4	17.7	17.3	13.4	3.9	1.0	
	숙련 및 기술직	0.6	0.2	1.6	7.5	13.2	24.5	17.2	19.9	12.0	2.6	0.6	
	단순노무종사자	0.5	3.2	2.7	8.1	12.4	25.8	16.7	14.5	11.3	3.8	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	1.0	2.5	7.2	8.9	22.7	17.9	18.8	14.9	3.9	1.3	36.202***
	비정규직	1.3	1.4	3.8	11.2	11.5	27.0	15.6	16.0	8.5	1.8	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0.4	2.4	10.2	9.7	26.7	17.9	15.8	11.8	3.7	1.1	44.547**
	중도적	1.1	1.4	2.2	7.0	9.4	26.2	17.3	18.1	12.4	3.9	1.1	
	진보적	1.6	1.8	3.6	9.2	9.6	23.9	14.8	16.0	14.8	3.0	1.6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 삶의 영역 만족도: 미래 안정성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1.3	3.1	8.4	9.2	23.7	17.1	17.7	14.0	4.0	0.9	
성별	남성	0.5	1.5	2.5	8.2	8.9	23.5	17.7	17.7	13.4	4.3	1.6	10.251
	여성	0.6	1.2	3.5	8.8	9.9	24.8	17.2	16.6	12.4	4.1	0.9	
연령	20대 이하	0.5	1.1	1.6	8.5	9.4	21.6	17.4	14.6	17.1	5.3	3.0	126.672***
	30대	1.0	0.9	3.9	7.6	8.1	20.9	18.3	19.3	14.7	4.0	1.4	
	40대	0.6	1.3	1.9	6.2	9.4	26.7	17.1	20.0	12.8	3.6	0.4	
	50대	0.3	1.4	2.6	9.8	8.8	25.5	17.3	17.5	11.9	3.9	0.9	
	60대 이상	0.3	2.2	5.4	10.5	11.5	26.2	17.5	14.3	7.5	4.0	0.6	
지역	수도권	0.9	1.6	4.1	8.3	9.3	23.8	16.5	16.3	13.9	4.1	1.2	30.541**
	비수도권	0.2	1.1	1.9	8.7	9.5	24.6	18.5	18.1	11.9	4.3	1.3	
	대도시	0.7	1.4	2.9	9.1	9.7	23.7	19.2	15.8	12.6	4.1	0.9	18.752
	중소도시	0.5	1.4	3.2	7.8	9.3	24.3	16.4	18.0	13.3	4.3	1.6	
	농어촌	0.4	1.1	2.2	9.7	8.2	26.1	14.2	20.1	12.3	4.1	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	6.0	8.7	15.3	14.3	23.2	13.6	10.4	4.3	1.1	0.4	513.877***
	중하층	0.4	1.0	3.5	9.8	10.3	27.3	19.0	15.5	9.9	3.1	0.4	
	중간층	0.2	0.4	1.0	6.2	7.9	23.0	18.3	20.1	16.3	4.6	1.8	
	중상층(상층)	0.0	1.0	2.5	2.0	4.1	14.7	9.1	20.8	25.4	15.7	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	5.2	6.8	11.4	12.3	27.7	15.6	10.2	7.0	2.0	0.6	305.665***
	200만 원대	0.5	0.5	2.6	9.9	9.6	25.2	19.5	17.0	11.0	3.8	0.5	
	300만 원대	0.1	0.8	1.7	7.7	10.0	23.1	18.5	21.0	11.1	4.9	1.1	
	400만 원대	0.5	0.3	2.9	9.2	8.0	25.2	19.9	18.7	11.7	1.9	1.7	
	500만 원 이상	0.4	0.5	1.9	6.1	7.8	21.5	15.5	18.2	19.4	6.6	2.0	
학력	중졸 이하	0.7	2.7	5.1	12.3	13.1	27.2	14.3	13.8	7.6	2.5	0.7	104.392***
	고졸	0.3	1.1	2.8	8.3	8.5	26.1	18.7	16.1	12.4	4.3	1.3	
	대졸 이상	0.8	1.2	2.3	7.2	8.8	20.8	17.5	19.7	15.5	4.8	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	1.0	2.4	7.4	8.7	22.5	17.8	18.2	16.0	4.6	0.8	164.04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	2.3	5.3	11.5	10.7	27.5	14.8	16.0	7.9	2.0	1.3	
	고용주·자영자	0.4	0.5	1.8	7.9	8.4	24.6	18.5	21.0	11.7	4.1	1.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6.1	10.6	4.5	33.3	19.7	12.1	7.6	3.0	3.0	
	실업자	2.6	3.5	7.9	20.2	20.2	16.7	10.5	7.9	10.5	0.0	0.0	
	비경제활동인구	0.5	1.9	3.1	7.7	9.6	24.8	18.0	15.0	12.6	5.0	1.9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1.9	2.6	6.0	9.4	21.0	15.7	20.6	15.4	4.1	3.4	91.19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7	0.7	2.4	8.7	8.2	23.0	19.5	17.9	13.4	4.5	1.0	
	숙련 및 기술직	0.2	0.8	1.6	7.1	9.8	28.5	15.7	20.6	12.8	2.6	0.2	
	단순노무종사자	0.5	2.7	8.7	12.0	9.8	28.3	10.3	16.3	8.2	2.7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	0.8	2.0	7.7	7.8	20.9	18.5	19.5	16.8	4.7	0.7	67.811***
	비정규직	0.9	2.3	5.2	9.7	11.7	28.8	14.6	14.2	8.8	2.5	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1.5	4.1	10.4	9.9	24.9	15.4	16.2	11.5	5.0	0.7	45.279**
	중도적	0.6	1.4	2.5	7.2	8.9	25.1	18.7	17.9	12.8	3.8	1.1	
	진보적	0.4	1.0	2.9	9.0	9.9	21.1	17.3	16.9	14.8	4.2	2.6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미래 안정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 삶의 영역 만족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5	1.5	3.0	6.6	7.2	20.8	16.2	19.5	15.6	6.6	2.5	
성별	남성	0.8	1.6	2.4	6.5	7.1	21.3	15.8	19.6	14.7	7.4	2.7	14.339
	여성	0.3	1.3	3.5	6.7	7.3	20.4	16.5	19.4	16.5	5.7	2.4	
연령	20대 이하	1.2	0.7	1.5	4.2	7.0	17.6	16.4	21.1	17.8	8.9	3.6	88.611***
	30대	0.3	2.4	3.0	8.4	6.6	23.1	15.5	19.0	13.7	5.3	2.7	
	40대	0.8	1.3	3.7	7.4	8.1	22.5	16.5	17.9	15.1	6.0	0.8	
	50대	0.1	1.8	2.7	8.1	7.5	20.3	15.8	20.8	15.1	5.2	2.5	
	60대 이상	0.3	1.2	4.0	4.6	6.7	20.7	16.6	18.5	16.4	7.6	3.3	
지역	수도권	0.9	1.7	3.9	7.9	7.0	20.8	14.8	18.7	15.0	6.6	2.6	37.904***
	비수도권	0.2	1.2	2.0	5.2	7.3	20.8	17.6	20.3	16.2	6.6	2.5	
	대도시	0.8	1.2	3.1	6.4	7.7	20.9	15.7	19.2	16.2	6.5	2.2	25.441
	중소도시	0.3	1.5	2.8	7.0	6.9	21.2	17.0	19.8	14.3	6.5	2.7	
	농어촌	0.0	2.6	3.0	4.9	6.0	18.4	13.5	19.9	20.2	7.5	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	1.9	7.0	12.4	13.6	26.7	12.4	11.3	9.4	2.1	1.3	391.031***
	중하층	0.3	2.2	3.5	8.4	7.5	23.2	18.9	18.2	12.2	4.3	1.4	
	중간층	0.3	0.8	1.6	3.7	5.7	18.5	15.9	22.7	19.1	8.6	3.0	
	중상층(상층)	0.5	1.0	0.5	4.5	3.0	10.0	8.5	21.0	25.5	16.0	9.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	2.3	4.8	5.8	8.5	24.2	15.8	15.2	14.2	4.7	3.5	136.696***
	200만 원대	0.7	1.9	2.4	5.8	9.9	21.6	15.6	21.4	14.6	4.8	1.4	
	300만 원대	0.3	1.5	2.1	8.3	6.2	22.8	18.7	19.4	12.4	6.1	2.2	
	400만 원대	0.3	0.9	3.1	8.8	6.3	21.3	18.2	20.1	14.8	4.3	2.0	
	500만 원 이상	0.6	1.0	2.7	5.2	6.1	16.5	13.9	20.9	19.7	10.3	3.1	
학력	중졸 이하	0.3	1.8	3.8	7.3	9.3	23.6	15.3	17.3	14.0	4.7	2.7	29.542
	고졸	0.6	1.5	3.0	6.2	7.1	21.0	17.3	19.5	15.1	6.0	2.6	
	대졸 이상	0.6	1.2	2.6	6.8	6.5	19.6	15.3	20.3	16.7	8.1	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	1.7	3.2	7.3	7.8	20.5	17.1	19.5	15.7	5.1	1.4	106.4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	2.0	3.0	10.9	8.4	20.8	14.7	18.0	15.2	4.1	1.5	
	고용주·자영자	0.1	1.5	2.9	7.4	7.6	21.0	17.6	19.1	12.6	7.8	2.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5	9.1	10.6	22.7	12.1	21.2	13.6	6.1	3.0	
	실업자	0.0	1.8	6.1	2.6	5.3	28.1	15.8	14.0	16.7	5.3	4.4	
	비경제활동인구	0.5	1.0	2.5	3.8	5.9	20.2	15.0	20.7	17.8	8.4	4.2	
직업	관리자·전문가	0.4	3.0	2.2	9.4	6.4	14.6	12.7	20.6	19.1	7.9	3.7	68.01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	1.2	3.4	8.3	7.5	21.3	16.3	19.3	14.9	5.4	1.8	
	숙련 및 기술직	0.2	1.4	1.6	5.7	9.5	22.3	19.1	20.7	12.6	5.9	1.0	
	단순노무종사자	2.2	3.8	4.3	9.7	8.1	22.2	20.0	11.9	10.8	6.5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1.6	2.7	7.1	7.9	20.9	17.0	19.7	16.1	4.7	1.5	9.7
	비정규직	1.1	2.0	4.1	10.3	7.9	20.0	15.5	18.0	14.6	5.2	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	1.9	3.2	7.7	7.2	18.0	16.0	18.9	16.7	7.2	2.8	40.637**
	중도적	0.7	1.3	2.3	5.9	7.1	23.5	16.6	19.6	14.9	5.5	2.6	
	진보적	0.4	1.4	4.3	6.8	7.4	17.9	15.4	20.1	15.9	8.4	2.0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 삶의 영역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0.5	1.9	5.0	7.2	24.7	18.8	22.6	14.1	3.7	0.9	
성별	남성	0.9	0.2	1.2	4.5	8.5	24.6	17.6	22.2	15.1	4.0	1.2	42.055***
	여성	0.3	0.9	2.5	5.5	5.9	24.7	19.9	23.1	13.3	3.3	0.6	
연령	20대 이하	0.8	0.0	1.6	3.8	6.2	24.0	18.0	21.5	18.0	3.7	2.4	88.49***
	30대	0.7	1.7	1.7	4.9	7.6	25.5	17.6	21.5	14.9	3.4	0.6	
	40대	1.2	0.5	2.0	5.4	7.3	25.0	19.5	23.8	11.9	3.1	0.4	
	50대	0.0	0.0	2.0	5.4	7.7	23.6	18.0	25.3	13.8	3.9	0.4	
	60대 이상	0.3	0.4	1.9	5.7	7.3	25.4	20.9	20.7	12.2	4.2	0.9	
지역	수도권	0.9	0.5	2.5	6.2	7.4	24.9	18.3	22.3	13.0	3.1	0.9	31.959***
	비수도권	0.3	0.6	1.3	3.8	7.0	24.4	19.2	23.0	15.4	4.2	0.9	
	대도시	1.0	0.4	2.0	5.3	7.8	26.0	18.2	21.1	14.0	3.3	1.0	27.921
	중소도시	0.3	0.5	1.7	4.9	6.6	24.0	19.5	23.8	14.2	3.7	0.9	
	농어촌	0.0	1.1	2.2	3.7	7.9	21.0	17.2	24.7	15.0	6.0	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	1.3	4.7	9.7	9.3	32.2	20.6	12.7	6.4	0.4	0.2	392.537***
	중하층	0.4	0.5	1.8	6.7	8.9	28.2	19.9	21.2	10.0	2.1	0.4	
	중간층	0.1	0.5	1.3	2.6	5.7	20.8	17.8	26.7	18.3	4.8	1.4	
	중상층(상층)	1.0	0.0	0.0	2.0	2.5	14.1	14.1	22.7	27.8	13.6	2.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	0.9	3.6	7.1	8.9	28.0	19.8	20.4	8.3	1.5	0.8	182.077***
	200만 원대	1.2	0.2	1.5	5.1	8.2	28.6	22.1	17.5	12.5	2.6	0.3	
	300만 원대	0.4	0.1	2.6	5.8	8.3	23.2	19.1	23.6	13.0	3.3	0.5	
	400만 원대	0.7	0.3	0.3	4.6	7.4	24.6	19.7	25.3	13.2	3.2	0.7	
	500만 원 이상	0.2	0.8	1.2	3.4	4.8	21.4	15.6	24.8	19.9	6.1	1.7	
학력	중졸 이하	0.2	0.3	2.5	6.8	8.1	28.9	19.6	20.7	10.3	2.0	0.7	52.001***
	고졸	0.7	0.6	1.1	5.5	7.2	25.5	18.7	22.1	13.6	3.8	1.1	
	대졸 이상	0.7	0.6	2.4	3.7	6.9	22.0	18.4	23.9	16.4	4.2	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6	2.3	4.1	7.4	22.9	19.3	23.8	14.8	3.6	0.6	92.88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	0.5	2.0	8.9	7.4	27.9	19.0	16.5	11.9	3.3	1.0	
	고용주·자영자	0.4	0.5	1.0	3.9	6.9	25.0	19.6	24.5	13.9	3.7	0.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5	7.7	7.7	26.2	18.5	26.2	10.8	1.5	0.0	
	실업자	0.0	0.0	2.6	7.0	7.0	46.5	7.9	18.4	8.8	1.8	0.0	
	비경제활동인구	0.5	0.5	1.9	5.0	7.2	22.7	18.7	22.6	15.2	4.1	1.5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1.9	3.0	3.4	3.0	22.6	14.3	29.3	16.2	6.0	0.4	80.26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5	0.5	1.9	4.6	7.8	24.1	20.3	21.5	14.4	3.5	0.9	
	숙련 및 기술직	0.6	0.2	0.8	4.7	7.5	24.7	21.5	24.9	11.9	3.0	0.2	
	단순노무종사자	2.2	0.0	2.2	10.9	8.7	29.9	12.5	19.0	12.5	1.6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0.6	2.2	3.3	6.8	22.9	19.8	24.8	14.6	3.9	0.7	39.737***
	비정규직	1.3	0.5	2.2	9.0	8.3	26.6	18.3	16.7	13.3	3.1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	0.4	1.8	5.4	6.8	25.7	19.2	22.5	12.9	4.7	0.4	36.75*
	중도적	0.8	0.3	1.5	4.6	7.4	24.9	18.5	22.9	14.3	3.7	1.0	
	진보적	0.5	1.3	2.9	5.3	7.4	22.6	18.8	22.2	15.4	2.2	1.4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6〉 삶의 영역 만족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7	0.5	1.8	3.4	7.2	26.4	19.6	22.0	13.8	3.4	1.1	
성별	남성	0.9	0.3	1.7	2.9	7.5	25.9	19.7	21.3	14.8	3.5	1.4	14.744
	여성	0.5	0.7	1.9	3.9	6.9	26.9	19.5	22.6	12.8	3.3	0.9	
연령	20대 이하	0.9	0.1	1.2	2.7	7.7	26.8	17.4	18.7	18.3	3.3	2.9	95.622***
	30대	0.7	0.7	2.0	4.9	6.7	26.5	18.2	22.9	13.9	3.2	0.3	
	40대	1.4	0.8	1.5	3.3	7.8	26.5	19.0	24.7	12.2	1.9	0.8	
	50대	0.3	0.1	2.1	2.3	7.3	25.3	21.4	23.1	12.9	4.0	1.0	
	60대 이상	0.3	0.6	2.2	4.0	6.3	27.2	22.1	20.0	11.8	4.8	0.7	
지역	수도권	1.0	0.5	2.4	4.4	7.5	28.2	18.5	21.0	12.2	3.0	1.3	41.373***
	비수도권	0.4	0.4	1.2	2.4	6.8	24.6	20.7	23.0	15.6	3.8	1.0	
	대도시	1.0	0.5	2.1	4.5	7.7	26.8	19.3	20.9	12.8	2.8	1.5	36.909*
	중소도시	0.5	0.3	1.4	2.5	6.8	27.0	19.9	22.5	14.5	3.7	0.9	
	농어촌	0.0	0.7	2.6	2.6	6.7	20.8	19.0	25.3	16.0	4.8	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	1.3	3.4	7.5	11.3	35.0	17.3	13.6	6.2	1.1	0.4	396.653***
	중하층	0.6	0.4	2.7	4.3	8.5	29.9	20.3	21.3	9.5	2.1	0.4	
	중간층	0.2	0.4	0.8	1.7	5.5	22.8	20.1	24.6	18.4	3.7	1.8	
	중상층(상층)	1.0	0.0	0.0	1.5	2.5	13.1	16.2	23.7	23.7	14.6	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	1.2	2.7	4.4	7.7	31.7	20.0	19.5	9.2	1.2	1.2	157.226***
	200만 원대	1.2	0.0	2.1	3.1	7.4	29.7	21.3	20.2	11.7	3.1	0.3	
	300만 원대	0.7	0.1	2.4	3.7	9.7	26.7	19.2	20.7	12.9	3.4	0.5	
	400만 원대	0.7	0.3	0.7	3.9	6.6	26.4	22.0	23.2	13.1	1.9	1.2	
	500만 원 이상	0.3	0.6	1.3	2.4	5.4	21.2	17.5	24.6	18.8	5.8	2.1	
학력	중졸 이하	0.3	0.7	2.2	3.5	7.3	31.1	21.4	19.8	10.1	3.0	0.7	37.12*
	고졸	0.7	0.4	1.4	3.6	7.2	25.9	21.3	21.6	13.6	3.0	1.4	
	대졸 이상	0.9	0.5	2.1	3.0	7.2	25.1	17.1	23.3	15.6	4.1	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	0.4	1.8	3.7	5.8	27.2	18.0	22.1	15.2	3.8	1.3	113.0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	0.5	3.3	4.8	11.7	29.5	20.9	14.2	9.9	2.8	0.5	
	고용주·자영자	0.5	0.5	0.9	2.4	6.4	26.2	20.5	25.4	13.6	3.1	0.4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5	3.1	6.2	30.8	24.6	23.1	9.2	1.5	0.0	
	실업자	0.0	0.9	4.4	1.8	9.6	43.0	14.0	15.8	8.8	1.8	0.0	
	비경제활동인구	0.6	0.5	1.8	3.4	7.4	22.8	20.4	22.7	14.8	3.6	2.0	
직업	관리자·전문가	0.7	1.9	2.6	1.1	4.5	27.1	14.1	26.4	14.1	7.1	0.4	86.32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	0.5	1.4	4.4	6.8	26.9	19.3	21.3	14.6	3.4	0.9	
	숙련 및 기술직	0.6	0.2	1.0	2.6	7.7	27.0	23.3	23.7	10.8	1.8	1.2	
	단순노무종사자	2.2	0.0	4.9	1.6	10.4	32.2	18.6	14.8	12.6	2.2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	0.5	1.4	3.4	5.9	26.4	18.5	22.7	15.3	3.6	1.5	38.906***
	비정규직	1.3	0.4	3.4	5.0	9.9	30.3	19.3	15.5	11.0	3.6	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0.5	2.0	3.7	8.0	25.8	20.3	22.9	11.2	4.5	0.7	50.137***
	중도적	0.9	0.2	1.3	3.0	6.2	28.2	19.6	22.0	14.2	3.2	1.2	
	진보적	0.8	1.0	2.9	3.9	8.6	23.0	18.9	20.5	16.4	2.5	1.6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 삶의 영역 만족도: 직업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3	1.3	2.5	5.1	6.6	30.7	14.6	18.3	13.4	3.9	2.2	
성별	남성	1.9	1.7	2.1	5.4	7.3	26.5	15.1	19.8	13.6	4.3	2.2	49.488***
	여성	0.7	0.9	2.9	4.7	5.9	35.0	14.1	16.8	13.3	3.6	2.1	
연령	20대 이하	0.8	1.5	1.7	4.9	5.4	32.6	12.1	18.0	16.2	4.0	2.9	134.902***
	30대	1.4	0.6	1.9	3.7	6.3	31.0	12.7	20.1	14.7	5.0	2.7	
	40대	1.4	1.0	2.4	4.7	5.4	26.0	16.4	22.1	15.0	3.5	2.1	
	50대	1.0	1.8	1.8	4.1	8.1	29.0	16.5	19.0	13.1	3.5	2.0	
	60대 이상	1.9	1.8	4.9	8.3	8.2	35.6	15.1	11.6	7.7	3.7	1.0	
지역	수도권	1.7	1.2	2.6	5.6	6.6	30.6	13.9	18.9	12.5	4.2	2.0	13.451
	비수도권	0.9	1.4	2.3	4.6	6.6	30.8	15.3	17.7	14.4	3.6	2.3	
	대도시	1.8	1.3	2.5	5.0	6.6	29.3	15.2	18.3	13.8	4.1	2.2	27.97
	중소도시	1.0	1.4	2.2	5.1	6.7	32.1	14.0	18.6	13.0	4.0	1.8	
	농어촌	0.0	1.1	4.1	5.3	6.0	30.5	14.7	16.9	14.3	2.3	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8	4.7	7.5	11.3	10.0	33.5	9.0	9.8	5.1	1.1	1.3	551.747***
	중하층	0.7	1.1	2.6	5.8	8.2	34.8	15.2	17.8	10.3	2.1	1.2	
	중간층	0.3	0.5	1.0	3.1	4.8	27.9	16.2	21.3	17.2	4.9	2.7	
	중상층(상층)	1.5	1.5	1.5	1.5	3.5	19.4	10.4	16.9	22.9	14.4	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	3.8	4.8	8.9	10.4	35.2	12.3	10.3	7.7	0.8	0.9	388.165***
	200만 원대	1.0	1.7	2.2	6.2	8.5	32.8	15.2	16.1	9.7	4.1	2.4	
	300만 원대	0.4	0.9	2.4	4.1	7.1	33.2	14.3	21.0	11.5	3.2	2.0	
	400만 원대	0.5	0.0	1.2	5.8	6.1	28.1	19.4	19.8	13.5	3.6	2.0	
	500만 원 이상	0.4	0.6	2.0	2.4	3.2	26.3	13.4	21.7	20.3	6.5	3.2	
학력	중졸 이하	2.3	3.0	5.1	7.6	10.5	34.9	16.4	11.0	6.8	1.7	0.7	199.716***
	고졸	1.3	1.3	1.9	5.4	6.7	33.6	14.7	16.8	13.3	3.5	1.6	
	대졸 이상	0.9	0.7	2.0	3.7	5.0	25.9	13.8	22.9	16.4	5.2	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	0.3	1.4	3.1	5.2	24.2	17.0	24.2	17.5	4.3	2.8	512.41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	1.3	4.3	11.0	15.1	29.8	11.0	15.3	6.9	2.6	1.3	
	고용주·자영자	0.1	0.6	2.0	3.0	4.9	27.5	17.3	20.7	16.1	5.5	2.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5	9.1	4.5	37.9	10.6	24.2	10.6	1.5	0.0	
	실업자	9.8	7.1	8.9	17.0	7.1	37.5	5.4	3.6	3.6	0.0	0.0	
	비경제활동인구	2.5	2.4	2.8	5.2	6.4	39.4	12.5	12.6	10.5	3.4	2.2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0.4	1.1	1.5	2.6	16.7	13.0	27.9	22.7	7.1	7.1	226.98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3	0.3	1.7	4.4	6.0	27.9	16.2	20.8	15.3	5.2	2.0	
	숙련 및 기술직	0.2	1.4	1.6	3.8	7.3	28.3	17.8	24.2	13.3	1.0	1.0	
	단순노무종사자	2.2	1.1	8.2	11.4	16.8	23.9	13.0	12.0	8.2	1.6	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0.1	1.1	2.9	4.6	23.4	17.1	25.6	18.0	4.4	2.7	146.073***
	비정규직	1.3	1.3	4.1	9.0	13.1	29.4	12.7	15.3	9.2	2.9	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	1.8	3.2	6.5	7.3	31.7	15.0	15.9	11.7	4.4	1.3	49.436***
	중도적	1.7	1.3	2.1	4.4	6.7	32.2	13.8	18.1	13.9	3.6	2.4	
	진보적	0.7	0.8	2.3	4.9	5.6	25.7	16.1	22.1	14.7	4.2	2.9	

주: 1) "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_님의 직업"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χ^2
전체		1.50	98.50	
성별	남성	1.67	98.33	1.037
	여성	1.27	98.73	
연령	20대 이하	1.59	98.41	8.681
	30대	1.57	98.43	
	40대	0.90	99.10	
	50대	2.49	97.51	
	60대 이상	0.90	99.10	
지역	수도권	1.83	98.17	3.315
	비수도권	1.10	98.90	
지역	대도시	1.33	98.67	1.883
	중소도시	1.71	98.29	
	농어촌	0.75	99.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6	95.74	28.122***
	중하층	1.10	98.90	
	중간층	1.04	98.96	
	중상층(상층)	1.52	98.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	98.79	10.296
	200만 원대	0.17	99.83	
	300만 원대	1.72	98.28	
	400만 원대	2.21	97.79	
	500만 원 이상	1.76	98.24	
학력	중졸 이하	1.66	98.34	0.892
	고졸	1.26	98.74	
	대졸 이상	1.63	98.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2	98.08	15.34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5	96.95	
	고용주·자영자	1.26	98.74	
	무급가족종사자	3.03	96.97	
	실업자	0.0	100.00	
	비경제활동인구	0.73	99.27	
직업	관리자·전문가	2.25	97.75	10.00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6	98.34	
	숙련 및 기술직	1.42	98.58	
	단순노무종사자	4.89	95.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3	97.97	0.174
	비정규직	2.34	97.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5	98.05	3.804
	중도적	1.12	98.88	
	진보적	1.82	98.18	

주: 1)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 동안(2011년~현재)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9〉 어두울 때 안전하다는 느낌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안전	안전하지 않음	매우 안전하지 않음	χ^2
전체		7.58	69.35	20.75	2.32	
성별	남성	9.81	74.66	13.80	1.73	132.49***
	여성	5.34	63.88	27.81	2.97	
연령	20대 이하	11.79	61.85	22.91	3.44	47.504***
	30대	7.00	68.00	23.43	1.57	
	40대	5.77	71.92	20.13	2.18	
	50대	6.55	71.30	20.05	2.10	
	60대 이상	6.87	73.88	16.87	2.39	
지역	수도권	7.20	67.20	22.96	2.63	13.516***
	비수도권	7.96	71.55	18.45	2.04	
	대도시	7.68	68.72	21.84	1.75	11.654
	중소도시	7.26	69.30	20.64	2.80	
	농어촌	9.02	73.68	14.66	2.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8	66.74	26.01	2.77	44.845***
	중하층	6.01	68.72	22.49	2.78	
	중간층	9.22	70.21	18.74	1.83	
	중상층(상층)	12.63	72.22	12.63	2.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36	68.48	22.58	2.58	35.441***
	200만 원대	7.53	71.23	18.32	2.91	
	300만 원대	5.67	68.25	23.85	2.24	
	400만 원대	5.79	72.23	20.61	1.36	
	500만 원 이상	10.76	68.18	18.55	2.50	
학력	중졸 이하	5.98	70.27	20.43	3.32	7.926
	고졸	7.36	69.75	21.01	1.89	
	대졸 이상	8.47	68.56	20.60	2.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93	68.70	20.87	2.50	18.31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12	66.75	23.10	2.03	
	고용주·자영자	6.55	74.56	17.00	1.89	
	무급가족종사자	4.55	66.67	27.27	1.52	
	실업자	10.53	64.04	22.81	2.63	
	비경제활동인구	7.62	67.88	21.87	2.63	
직업	관리자·전문가	6.37	67.42	24.34	1.87	13.3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96	69.23	20.56	2.25	
	숙련 및 기술직	7.10	75.05	15.42	2.43	
	단순노무종사자	5.43	70.11	22.83	1.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00	69.14	20.25	2.60	2.807
	비정규직	7.91	66.55	23.56	1.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7.23	69.34	21.19	2.25	22.74**
	중도적	6.55	71.07	20.56	1.81	
	진보적	10.57	65.14	20.63	3.66	

주: 1) "어두울 때 귀하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혹은 혼자 걷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0〉 거주 지역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살기 좋은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살기 좋음	대체로 살기 좋음	대체로 살기 나쁨	매우 살기 나쁨	χ^2
전체		6.62	75.82	16.33	1.23	
성별	남성	7.60	75.63	15.36	1.40	8.507*
	여성	5.62	76.03	17.30	1.05	
연령	20대 이하	7.41	72.62	18.52	1.46	19.734
	30대	6.56	73.61	17.83	2.00	
	40대	5.38	77.05	16.15	1.41	
	50대	7.71	76.86	14.64	0.78	
	60대 이상	6.12	78.81	14.48	0.60	
지역	수도권	6.94	76.33	15.22	1.51	5.907
	비수도권	6.30	75.30	17.46	0.94	
	대도시	5.75	75.36	17.62	1.27	10.474
	중소도시	7.49	76.46	15.03	1.03	
	농어촌	6.37	74.53	16.85	2.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2	73.77	18.55	2.56	52.174
	중하층	4.91	76.92	17.36	0.81	
	중간층	7.33	76.18	15.27	1.22	
	중상층(상층)	16.16	70.71	12.63	0.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69	75.95	17.40	1.97	46.776***
	200만 원대	6.50	75.04	16.92	1.54	
	300만 원대	3.96	77.57	17.55	0.92	
	400만 원대	5.45	77.00	16.70	0.85	
	500만 원 이상	10.48	74.12	14.29	1.11	
학력	중졸 이하	5.64	77.11	16.58	0.66	13.121***
	고졸	5.97	77.48	15.60	0.94	
	대졸 이상	7.66	73.51	17.07	1.7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83	74.75	17.00	1.42	30.22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1	71.76	20.36	1.78	
	고용주·자영자	7.17	76.86	14.59	1.38	
	무급가족종사자	3.08	84.62	12.31	0.0	
	실업자	0.0	81.58	14.91	3.51	
	비경제활동인구	7.08	76.68	15.70	0.54	
직업	관리자·전문가	7.84	74.63	15.67	1.87	15.74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56	75.27	15.72	1.46	
	숙련 및 기술직	4.67	75.81	18.90	0.61	
	단순노무종사자	3.80	73.91	19.57	2.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23	74.86	16.38	1.54	5.581
	비정규직	5.58	72.30	20.68	1.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5.56	78.85	14.62	0.97	11.779
	중도적	6.45	75.05	17.27	1.23	
	진보적	8.47	73.66	16.30	1.56	

주: 1)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거주자(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1〉 주관적 건강

(단위: %)

구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χ^2
전체		11.39	53.56	23.71	10.17	1.17	
성별	남성	14.68	55.05	20.94	8.26	1.08	62.801***
	여성	8.05	52.04	26.57	12.13	1.21	
연령	20대 이하	26.62	57.22	12.72	3.31	0.13	617.756***
	30대	12.86	60.86	22.29	3.57	0.43	
	40대	8.45	58.77	24.97	7.55	0.26	
	50대	6.15	50.79	29.58	12.04	1.44	
	60대 이상	2.09	38.81	29.70	25.82	3.58	
지역	수도권	10.22	52.29	26.47	10.06	0.97	18.5**
	비수도권	12.60	54.84	20.95	10.28	1.33	
	대도시	11.49	55.72	23.84	8.59	0.36	48.665***
	중소도시	11.83	52.63	23.31	10.63	1.60	
	농어촌	7.87	46.07	25.47	17.23	3.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3	35.39	28.36	25.80	5.12	313.541***
	중하층	10.04	53.52	24.19	11.66	0.59	
	중간층	13.49	58.00	22.83	5.07	0.61	
	중상층(상층)	17.77	60.41	16.75	5.08	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5	36.97	28.18	26.21	4.09	390.235***
	200만 원대	11.11	51.45	25.30	10.94	1.20	
	300만 원대	12.14	55.01	24.67	7.65	0.53	
	400만 원대	11.43	60.24	22.70	5.63	0.0	
	500만 원 이상	15.32	60.17	19.96	4.18	0.37	
학력	중졸 이하	3.65	34.49	26.20	30.68	4.98	507.624***
	고졸	12.26	53.74	25.77	7.86	0.38	
	대졸 이상	13.69	61.08	20.54	4.27	0.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35	58.63	21.35	3.42	0.25	207.81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63	48.48	25.89	16.75	0.25	
	고용주·자영자	5.93	55.86	26.86	10.59	0.76	
	무급가족종사자	1.52	56.06	27.27	13.64	1.52	
	실업자	10.62	48.67	19.47	20.35	0.88	
	비경제활동인구	11.70	48.50	23.48	13.69	2.63	
직업	관리자·전문가	11.42	53.54	23.72	10.20	1.12	73.93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24	56.55	26.22	5.99	0.0	
	숙련 및 기술직	12.33	57.52	23.66	6.10	0.40	
	단순노무종사자	9.13	56.59	22.72	10.55	1.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70	41.85	27.72	21.74	0.0	86.248***
	비정규직	16.67	59.15	21.10	2.79	0.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25	50.36	25.18	14.03	0.18	89.652***
	중도적	5.85	50.68	27.68	13.84	1.95	
	진보적	12.26	54.53	23.03	9.22	0.96	

주: 1) "대체로 말해서 귀하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2〉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곤란 경험

(단위: %)

구분		매우 그러함	어느 정도 그러함	그렇지 않음	χ^2
전체		2.18	12.67	85.15	
성별	남성	2.10	11.21	86.68	7.549*
	여성	2.31	14.16	83.53	
연령	20대 이하	0.26	7.68	92.05	152.411***
	30대	1.14	8.57	90.29	
	40대	1.79	10.51	87.69	
	50대	3.01	14.27	82.72	
	60대 이상	5.07	23.13	71.79	
지역	수도권	2.74	13.66	83.59	9.456**
	비수도권	1.60	11.66	86.74	
	대도시	1.76	12.53	85.71	4.125
	중소도시	2.51	12.40	85.09	
	농어촌	2.63	15.04	82.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5	23.45	69.30	146.497***
	중하층	2.05	13.26	84.69	
	중간층	1.10	9.84	89.07	
	중상층(상층)	0.0	6.57	93.4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8	12.67	85.15	244.535***
	200만 원대	7.26	24.96	67.78	
	300만 원대	1.37	13.72	84.91	
	400만 원대	1.98	11.87	86.15	
	500만 원 이상	0.68	8.53	90.78	
학력	중졸 이하	0.46	7.34	92.20	192.043***
	고졸	6.66	25.96	67.39	
	대졸 이상	1.32	10.37	88.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5	9.68	88.96	75.3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3	8.92	90.24	
	고용주·자영자	2.03	14.72	83.25	
	무급가족종사자	0.88	13.46	85.66	
	실업자	3.03	9.09	87.88	
	비경제활동인구	5.31	20.35	74.34	
직업	관리자·전문가	4.17	14.97	80.85	25.91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2	17.54	81.34	
	숙련 및 기술직	0.80	9.68	89.53	
	단순노무종사자	2.03	10.77	87.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3	16.85	81.52	20.413***
	비정규직	0.58	8.57	90.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4	13.67	83.99	18.049***
	중도적	2.54	15.02	82.44	
	진보적	2.61	11.67	85.72	

주: 1)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장애, 쇠약,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3〉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3.00	7.00	
성별	남성	94.44	5.56	11.673**
	여성	91.57	8.43	
연령	20대 이하	95.11	4.89	90.419***
	30대	96.57	3.43	
	40대	93.85	6.15	
	50대	93.97	6.03	
	60대 이상	84.78	15.22	
지역	수도권	93.92	6.08	4.691*
	비수도권	92.10	7.90	
지역	대도시	92.98	7.02	0.362
	중소도시	93.14	6.86	
	농어촌	92.13	7.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56	26.44	326.877***
	중하층	94.07	5.93	
	중간층	97.01	2.99	
	중상층(상층)	98.99	1.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5.95	24.05	378.496***
	200만 원대	93.15	6.85	
	300만 원대	96.83	3.17	
	400만 원대	97.27	2.73	
	500만 원 이상	98.42	1.58	
학력	중졸 이하	81.56	18.44	155.239***
	고졸	93.90	6.10	
	대졸 이상	96.75	3.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33	3.67	89.41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07	11.93	
	고용주·자영자	95.97	4.03	
	무급가족종사자	93.94	6.06	
	실업자	79.82	20.18	
	비경제활동인구	90.20	9.80	
직업	관리자·전문가	95.15	4.85	47.0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09	3.91	
	숙련 및 기술직	94.73	5.27	
	단순노무종사자	84.24	15.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6.72	3.28	31.335***
	비정규직	89.93	10.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1.32	8.68	6.166*
	중도적	93.61	6.39	
	진보적	93.74	6.26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4〉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2.86	7.14	
성별	남성	92.93	7.07	0.013
	여성	92.84	7.16	
연령	20대 이하	92.45	7.55	47.91***
	30대	95.29	4.71	
	40대	94.36	5.64	
	50대	94.76	5.24	
	60대 이상	87.01	12.99	
지역	수도권	93.17	6.83	0.55
	비수도권	92.54	7.46	
지역	대도시	92.56	7.44	3.497
	중소도시	93.54	6.46	
	농어촌	90.60	9.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55	23.45	239.489***
	중하층	92.82	7.18	
	중간층	97.01	2.99	
	중상층(상층)	97.98	2.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9.12	20.88	258.2***
	200만 원대	91.61	8.39	
	300만 원대	94.99	5.01	
	400만 원대	97.10	2.90	
	500만 원 이상	98.24	1.76	
학력	중졸 이하	84.39	15.61	85.4***
	고졸	93.40	6.60	
	대졸 이상	95.80	4.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08	4.92	66.61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32	11.68	
	고용주·자영자	96.35	3.65	
	무급가족종사자	95.45	4.55	
	실업자	81.58	18.42	
	비경제활동인구	90.65	9.35	
직업	관리자·전문가	94.03	5.97	25.37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5.43	4.57	
	숙련 및 기술직	94.52	5.48	
	단순노무종사자	86.41	13.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37	4.63	17.573***
	비정규직	89.93	10.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30	7.70	0.953
	중도적	92.91	7.09	
	진보적	93.49	6.51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5〉 박탈: 가끔 기호식품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7.00	3.00	
성별	남성	97.57	2.43	4.212*
	여성	96.42	3.58	
연령	20대 이하	98.41	1.59	59.458***
	30대	98.57	1.43	
	40대	97.95	2.05	
	50대	97.12	2.88	
	60대 이상	92.54	7.46	
지역	수도권	96.66	3.34	1.472
	비수도권	97.35	2.65	
지역	대도시	96.91	3.09	0.179
	중소도시	97.03	2.97	
	농어촌	97.38	2.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77	10.23	101.471***
	중하층	97.36	2.64	
	중간층	98.47	1.53	
	중상층(상층)	99.49	0.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92	9.08	104.666***
	200만 원대	97.43	2.57	
	300만 원대	97.76	2.24	
	400만 원대	98.98	1.02	
	500만 원 이상	98.79	1.21	
학력	중졸 이하	91.69	8.31	71.893***
	고졸	97.61	2.39	
	대졸 이상	98.51	1.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92	1.08	44.7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67	5.33	
	고용주·자영자	98.24	1.76	
	무급가족종사자	98.48	1.52	
	실업자	93.86	6.14	
	비경제활동인구	95.10	4.90	
직업	관리자·전문가	98.88	1.12	4.58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01	1.99	
	숙련 및 기술직	98.38	1.62	
	단순노무종사자	96.17	3.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75	1.25	11.073**
	비정규직	96.22	3.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41	4.59	12.656**
	중도적	97.49	2.51	
	진보적	97.92	2.08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6〉 박탈: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5.97	4.03	
성별	남성	96.71	3.29	5.354*
	여성	95.21	4.79	
연령	20대 이하	97.48	2.52	14.981**
	30대	97.43	2.57	
	40대	94.87	5.13	
	50대	95.55	4.45	
	60대 이상	94.47	5.53	
지역	수도권	95.37	4.63	3.416
	비수도권	96.57	3.43	
	대도시	95.22	4.78	5.396
	중소도시	96.40	3.60	
	농어촌	97.74	2.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7.85	12.15	105.908***
	중하층	95.68	4.32	
	중간층	98.11	1.89	
	중상층(상층)	99.49	0.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85	10.15	82.526***
	200만 원대	96.92	3.08	
	300만 원대	96.44	3.56	
	400만 원대	96.93	3.07	
	500만 원 이상	98.33	1.67	
학력	중졸 이하	90.37	9.63	67.335***
	고졸	96.04	3.96	
	대졸 이상	98.17	1.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58	2.42	25.99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89	7.11	
	고용주·자영자	96.98	3.02	
	무급가족종사자	95.45	4.55	
	실업자	92.98	7.02	
	비경제활동인구	94.83	5.17	
직업	관리자·전문가	99.25	0.75	11.8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69	3.31	
	숙련 및 기술직	95.94	4.06	
	단순노무종사자	93.48	6.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17	1.83	24.817***
	비정규직	93.35	6.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10	3.90	5.126
	중도적	95.36	4.64	
	진보적	97.26	2.7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7〉 박탈: 계절 정장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0.73	9.27	
성별	남성	91.21	8.79	1.016
	여성	90.25	9.75	
연령	20대 이하	88.74	11.26	18.861**
	30대	93.57	6.43	
	40대	90.26	9.74	
	50대	92.79	7.21	
	60대 이상	88.36	11.64	
지역	수도권	90.69	9.31	0.018
	비수도권	90.82	9.18	
	대도시	88.87	11.13	12.611**
	중소도시	92.17	7.83	
	농어촌	92.88	7.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56	26.44	216.517***
	중하층	90.11	9.89	
	중간층	95.60	4.40	
	중상층(상층)	95.45	4.5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8.18	21.82	162.258***
	200만 원대	90.92	9.08	
	300만 원대	92.61	7.39	
	400만 원대	93.53	6.47	
	500만 원 이상	95.54	4.46	
학력	중졸 이하	84.05	15.95	67.373***
	고졸	89.37	10.63	
	대졸 이상	94.99	5.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16	5.84	97.53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2.23	17.77	
	고용주·자영자	95.09	4.91	
	무급가족종사자	95.38	4.62	
	실업자	79.82	20.18	
	비경제활동인구	87.84	12.16	
직업	관리자·전문가	97.01	2.99	28.77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2.78	7.22	
	숙련 및 기술직	92.70	7.30	
	단순노무종사자	83.70	16.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47	4.53	68.804***
	비정규직	83.09	16.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1.71	8.29	3.778
	중도적	89.82	10.18	
	진보적	91.66	8.3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8〉 박탈: 난방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7.90	2.10	
성별	남성	98.17	1.83	1.042
	여성	97.69	2.31	
연령	20대 이하	99.07	0.93	18.031**
	30대	98.71	1.29	
	40대	97.70	2.30	
	50대	97.91	2.09	
	60대 이상	96.12	3.88	
지역	수도권	97.58	2.42	2.266
	비수도권	98.29	1.71	
지역	대도시	97.76	2.24	1.412
	중소도시	97.94	2.06	
	농어촌	98.88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2.11	7.89	93.073***
	중하층	98.31	1.69	
	중간층	99.02	0.98	
	중상층(상층)	100.00	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4.40	5.60	55.066***
	200만 원대	99.14	0.86	
	300만 원대	97.49	2.51	
	400만 원대	98.81	1.19	
	500만 원 이상	99.16	0.84	
학력	중졸 이하	95.69	4.31	27.238***
	고졸	97.61	2.39	
	대졸 이상	99.19	0.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08	0.92	26.94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69	4.31	
	고용주·자영자	97.86	2.14	
	무급가족종사자	98.48	1.52	
	실업자	93.81	6.19	
	비경제활동인구	97.82	2.18	
직업	관리자·전문가	96.64	3.36	25.08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81	1.19	
	숙련 및 기술직	98.58	1.42	
	단순노무종사자	93.99	6.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13	0.87	13.623***
	비정규직	96.58	3.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08	2.92	4.968
	중도적	98.14	1.86	
	진보적	98.44	1.56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9〉 박탈: 방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6.43	3.57	
성별	남성	96.66	3.34	0.558
	여성	96.20	3.80	
연령	20대 이하	96.56	3.44	5.776
	30대	95.99	4.01	
	40대	95.51	4.49	
	50대	96.47	3.53	
	60대 이상	97.76	2.24	
지역	수도권	94.41	5.59	46.349***
	비수도권	98.56	1.44	
지역	대도시	96.19	3.81	5.028
	중소도시	96.29	3.71	
	농어촌	98.88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77	10.23	80.84***
	중하층	96.33	3.67	
	중간층	98.05	1.95	
	중상층(상층)	100.00	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45	4.55	6.986
	200만 원대	96.23	3.77	
	300만 원대	95.78	4.22	
	400만 원대	96.42	3.58	
	500만 원 이상	97.59	2.41	
학력	중졸 이하	96.51	3.49	8.498*
	고졸	95.47	4.53	
	대졸 이상	97.43	2.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91	3.09	21.79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67	5.33	
	고용주·자영자	97.48	2.52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	
	실업자	90.35	9.65	
	비경제활동인구	96.19	3.81	
직업	관리자·전문가	95.90	4.10	17.91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7.42	2.58	
	숙련 및 기술직	97.36	2.64	
	단순노무종사자	91.80	8.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20	2.80	6.038*
	비정규직	94.78	5.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98	3.02	1.709
	중도적	96.38	3.62	
	진보적	95.83	4.17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0〉 박탈: 대중교통 접근성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7.66	2.34	
성별	남성	97.46	2.54	0.598
	여성	97.85	2.15	
연령	20대 이하	99.21	0.79	14.272**
	30대	97.86	2.14	
	40대	97.31	2.69	
	50대	97.64	2.36	
	60대 이상	96.26	3.74	
지역	수도권	97.58	2.42	0.097
	비수도권	97.73	2.27	
	대도시	98.06	1.94	38.358***
	중소도시	98.11	1.89	
	농어촌	92.13	7.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31	4.69	14.797**
	중하층	97.58	2.42	
	중간층	98.29	1.71	
	중상층(상층)	98.48	1.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45	4.55	25.295***
	200만 원대	97.09	2.91	
	300만 원대	98.15	1.85	
	400만 원대	97.61	2.39	
	500만 원 이상	99.07	0.93	
학력	중졸 이하	95.18	4.82	20.106***
	고졸	98.05	1.95	
	대졸 이상	98.31	1.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08	1.92	4.39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6.95	3.05	
	고용주·자영자	97.36	2.64	
	무급가족종사자	96.97	3.03	
	실업자	95.61	4.39	
	비경제활동인구	97.82	2.18	
직업	관리자·전문가	95.90	4.10	26.3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87	1.13	
	숙련 및 기술직	95.74	4.26	
	단순노무종사자	95.08	4.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26	1.74	2.943
	비정규직	96.94	3.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56	2.44	3.653
	중도적	97.34	2.66	
	진보적	98.57	1.43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1〉 박탈: 지상 거주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4.55	5.45	
성별	남성	94.71	5.29	0.268
	여성	94.33	5.67	
연령	20대 이하	93.38	6.62	10.592*
	30대	95.00	5.00	
	40대	92.96	7.04	
	50대	95.81	4.19	
	60대 이상	95.82	4.18	
지역	수도권	93.38	6.62	9.93**
	비수도권	95.75	4.25	
	대도시	93.70	6.30	5.064
	중소도시	95.43	4.57	
	농어촌	94.01	5.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0.41	9.59	23.053***
	중하층	94.21	5.79	
	중간층	96.03	3.97	
	중상층(상층)	94.95	5.0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2.59	7.41	6.28
	200만 원대	95.38	4.62	
	300만 원대	94.85	5.15	
	400만 원대	94.72	5.28	
	500만 원 이상	94.99	5.01	
학력	중졸 이하	94.02	5.98	6.818*
	고졸	93.65	6.35	
	대졸 이상	95.73	4.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75	5.25	11.3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1.37	8.63	
	고용주·자영자	94.08	5.92	
	무급가족종사자	96.97	3.03	
	실업자	95.61	4.39	
	비경제활동인구	95.55	4.45	
직업	관리자·전문가	93.28	6.72	11.46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5.03	4.97	
	숙련 및 기술직	93.31	6.69	
	단순노무종사자	89.07	10.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47	4.53	13.499***
	비정규직	90.83	9.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12	4.88	0.921
	중도적	94.30	5.70	
	진보적	94.39	5.61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2〉 박탈: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9.02	0.98	
성별	남성	99.03	0.97	0.011
	여성	99.06	0.94	
연령	20대 이하	99.47	0.53	7.249
	30대	99.14	0.86	
	40대	98.72	1.28	
	50대	99.48	0.52	
	60대 이상	98.36	1.64	
지역	수도권	98.71	1.29	4.532*
	비수도권	99.39	0.61	
지역	대도시	98.61	1.39	6.259*
	중소도시	99.37	0.63	
	농어촌	99.62	0.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38	3.62	42.431***
	중하층	99.19	0.81	
	중간층	99.57	0.43	
	중상층(상층)	100.00	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6.37	3.63	59.025***
	200만 원대	99.49	0.51	
	300만 원대	99.47	0.53	
	400만 원대	99.49	0.51	
	500만 원 이상	99.81	0.19	
학력	중졸 이하	97.51	2.49	18.976***
	고졸	99.18	0.82	
	대졸 이상	99.53	0.4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58	0.42	19.52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7.72	2.28	
	고용주·자영자	99.25	0.75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	
	실업자	96.49	3.51	
	비경제활동인구	98.91	1.09	
직업	관리자·전문가	99.25	0.75	8.75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9.54	0.46	
	숙련 및 기술직	98.58	1.42	
	단순노무종사자	97.83	2.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61	0.39	8.294**
	비정규직	98.20	1.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93	1.07	0.228
	중도적	99.09	0.91	
	진보적	98.96	1.0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3〉 박탈: 정기 진료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2.15	7.85	
성별	남성	92.61	7.39	1.107
	여성	91.68	8.32	
연령	20대 이하	92.58	7.42	8.574
	30대	89.71	10.29	
	40대	91.93	8.07	
	50대	93.58	6.42	
	60대 이상	92.84	7.16	
지역	수도권	90.37	9.63	16.493***
	비수도권	93.98	6.02	
지역	대도시	92.50	7.50	7.078*
	중소도시	91.31	8.69	
	농어촌	95.86	4.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74	14.26	33.029***
	중하층	92.45	7.55	
	중간층	93.34	6.66	
	중상층(상층)	95.45	4.5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7.58	12.42	33.118***
	200만 원대	92.12	7.88	
	300만 원대	91.29	8.71	
	400만 원대	94.54	5.46	
	500만 원 이상	94.52	5.48	
학력	중졸 이하	90.53	9.47	9.746**
	고졸	91.26	8.74	
	대졸 이상	93.83	6.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1.75	8.25	11.1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83	11.17	
	고용주·자영자	93.07	6.93	
	무급가족종사자	90.91	9.09	
	실업자	89.47	10.53	
	비경제활동인구	93.47	6.53	
직업	관리자·전문가	89.55	10.45	13.99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1.65	8.35	
	숙련 및 기술직	94.93	5.07	
	단순노무종사자	86.89	13.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2.48	7.52	7.094***
	비정규직	88.49	11.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10	7.90	0.905
	중도적	92.49	7.51	
	진보적	91.40	8.60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4〉 박탈: 치과 이용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5.64	4.36	
성별	남성	96.06	3.94	1.611
	여성	95.21	4.79	
연령	20대 이하	96.16	3.84	12.035*
	30대	95.86	4.14	
	40대	96.79	3.21	
	50대	95.81	4.19	
	60대 이상	93.28	6.72	
지역	수도권	95.64	4.36	0.005
	비수도권	95.69	4.31	
	대도시	95.34	4.66	3.223
	중소도시	95.60	4.40	
	농어촌	97.75	2.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6.35	13.65	120.294***
	중하층	95.75	4.25	
	중간층	97.86	2.14	
	중상층(상층)	98.48	1.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7.44	12.56	134.203***
	200만 원대	96.06	3.94	
	300만 원대	96.71	3.29	
	400만 원대	98.47	1.53	
	500만 원 이상	98.05	1.95	
학력	중졸 이하	90.70	9.30	45.751***
	고졸	96.04	3.96	
	대졸 이상	97.29	2.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00	3.00	29.39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64	7.36	
	고용주·자영자	97.48	2.52	
	무급가족종사자	95.38	4.62	
	실업자	91.23	8.77	
	비경제활동인구	94.46	5.54	
직업	관리자·전문가	97.01	2.99	5.28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69	3.31	
	숙련 및 기술직	96.35	3.65	
	단순노무종사자	93.44	6.5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30	2.70	14.495***
	비정규직	93.35	6.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54	5.46	4.792
	중도적	96.27	3.73	
	진보적	95.57	4.43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5〉 박탈: 의약품 구입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8.66	1.34	
성별	남성	98.98	1.02	3.185
	여성	98.29	1.71	
연령	20대 이하	98.81	1.19	1.45
	30대	99.00	1.00	
	40대	98.46	1.54	
	50대	98.56	1.44	
	60대 이상	98.36	1.64	
지역	수도권	98.33	1.67	2.604
	비수도권	98.95	1.05	
	대도시	98.79	1.21	5.168
	중소도시	98.34	1.66	
	농어촌	100.0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4.88	5.12	56.749***
	중하층	99.27	0.73	
	중간층	99.08	0.92	
	중상층(상층)	99.49	0.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61	4.39	59.157***
	200만 원대	99.83	0.17	
	300만 원대	98.95	1.05	
	400만 원대	99.49	0.51	
	500만 원 이상	99.26	0.74	
학력	중졸 이하	97.18	2.82	13.249**
	고졸	98.74	1.26	
	대졸 이상	99.19	0.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08	0.92	7.78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7.46	2.54	
	고용주·자영자	98.87	1.13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	
	실업자	98.23	1.77	
	비경제활동인구	98.37	1.63	
직업	관리자·전문가	99.25	0.75	3.65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67	1.33	
	숙련 및 기술직	99.39	0.61	
	단순노무종사자	97.81	2.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23	0.77	6.829**
	비정규직	97.66	2.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83	1.17	0.303
	중도적	98.61	1.39	
	진보적	98.57	1.43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6〉 박탈: 여행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3.92	26.08	
성별	남성	74.49	25.51	0.695
	여성	73.28	26.72	
연령	20대 이하	76.16	23.84	181.649***
	30대	85.00	15.00	
	40대	79.49	20.51	
	50대	72.25	27.75	
	60대 이상	55.22	44.78	
지역	수도권	75.11	24.89	2.868
	비수도권	72.65	27.35	
지역	대도시	71.93	28.07	10.174**
	중소도시	76.29	23.71	
	농어촌	70.41	29.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50	56.50	353.183***
	중하층	69.82	30.18	
	중간층	83.81	16.19	
	중상층(상층)	91.92	8.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03	56.97	475.264***
	200만 원대	69.35	30.65	
	300만 원대	76.81	23.19	
	400만 원대	82.79	17.21	
	500만 원 이상	88.30	11.70	
학력	중졸 이하	49.67	50.33	279.361***
	고졸	72.70	27.30	
	대졸 이상	85.04	14.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99	16.01	155.50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8.63	41.37	
	고용주·자영자	74.43	25.57	
	무급가족종사자	70.77	29.23	
	실업자	48.25	51.75	
	비경제활동인구	70.87	29.13	
직업	관리자·전문가	85.77	14.23	41.4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6.74	23.26	
	숙련 및 기술직	76.88	23.12	
	단순노무종사자	59.78	40.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42	13.58	129.732***
	비정규직	61.51	38.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0.34	29.66	17.128***
	중도적	73.79	26.21	
	진보적	79.01	20.99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7〉 박탈: 특별한 날 기념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88.93	11.07	
성별	남성	88.78	11.22	0.06
	여성	89.04	10.96	
연령	20대 이하	90.87	9.13	52.126***
	30대	93.99	6.01	
	40대	89.50	10.50	
	50대	87.43	12.57	
	60대 이상	82.39	17.61	
지역	수도권	88.97	11.03	0.006
	비수도권	88.90	11.10	
	대도시	87.84	12.16	5.717
	중소도시	90.22	9.78	
	농어촌	87.27	12.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82	35.18	344.823***
	중하층	89.16	10.84	
	중간층	94.75	5.25	
	중상층(상층)	96.46	3.5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9.59	30.41	327.367***
	200만 원대	89.55	10.45	
	300만 원대	91.16	8.84	
	400만 원대	93.87	6.13	
	500만 원 이상	96.19	3.81	
학력	중졸 이하	76.08	23.92	133.002***
	고졸	89.56	10.44	
	대졸 이상	93.50	6.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1.33	8.67	48.27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2.23	17.77	
	고용주·자영자	91.31	8.69	
	무급가족종사자	93.94	6.06	
	실업자	77.19	22.81	
	비경제활동인구	87.93	12.07	
직업	관리자·전문가	91.39	8.61	15.7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0.52	9.48	
	숙련 및 기술직	90.47	9.53	
	단순노무종사자	81.52	18.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2.96	7.04	46.048***
	비정규직	81.83	18.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88.00	12.00	3.164
	중도적	88.76	11.24	
	진보적	90.61	9.39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8〉 박탈: 여가활동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3.36	26.64	
성별	남성	73.95	26.05	0.654
	여성	72.77	27.23	
연령	20대 이하	82.78	17.22	244.159***
	30대	83.57	16.43	
	40대	76.70	23.30	
	50대	70.42	29.58	
	60대 이상	51.42	48.58	
지역	수도권	74.61	25.39	2.994
	비수도권	72.08	27.92	
	대도시	73.55	26.45	21.948***
	중소도시	75.01	24.99	
	농어촌	61.42	38.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86	57.14	371.243***
	중하층	68.35	31.65	
	중간층	84.06	15.94	
	중상층(상층)	91.88	8.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87	56.13	465.697***
	200만 원대	67.12	32.88	
	300만 원대	74.54	25.46	
	400만 원대	83.11	16.89	
	500만 원 이상	88.77	11.23	
학력	중졸 이하	47.26	52.74	318.88***
	고졸	72.16	27.84	
	대졸 이상	85.30	14.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00	17.00	108.81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68	38.32	
	고용주·자영자	71.28	28.72	
	무급가족종사자	68.18	31.82	
	실업자	56.14	43.86	
	비경제활동인구	70.60	29.40	
직업	관리자·전문가	84.70	15.30	64.5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8.33	21.67	
	숙련 및 기술직	67.75	32.25	
	단순노무종사자	58.15	41.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5.05	14.95	92.377***
	비정규직	64.03	35.97	
이념적 성향	보수적	67.61	32.39	35.739***
	중도적	73.72	26.28	
	진보적	80.18	19.82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9〉 박탈: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4.58	5.42	
성별	남성	94.98	5.02	1.214
	여성	94.16	5.84	
연령	20대 이하	97.22	2.78	54.329***
	30대	97.43	2.57	
	40대	94.74	5.26	
	50대	93.46	6.54	
	60대 이상	89.70	10.30	
지역	수도권	94.24	5.76	0.81
	비수도권	94.92	5.08	
	대도시	93.70	6.30	5.418
	중소도시	95.48	4.52	
	농어촌	94.01	5.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2.94	17.06	152.232***
	중하층	94.87	5.13	
	중간층	97.13	2.87	
	중상층(상층)	98.98	1.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6.54	13.46	102.906***
	200만 원대	95.56	4.44	
	300만 원대	95.78	4.22	
	400만 원대	97.44	2.56	
	500만 원 이상	96.47	3.53	
학력	중졸 이하	88.21	11.79	58.355***
	고졸	95.22	4.78	
	대졸 이상	96.41	3.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50	3.50	27.60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43	4.57	
	고용주·자영자	94.33	5.67	
	무급가족종사자	95.45	4.55	
	실업자	86.73	13.27	
	비경제활동인구	93.10	6.90	
직업	관리자·전문가	95.90	4.10	5.08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5.76	4.24	
	숙련 및 기술직	96.15	3.85	
	단순노무종사자	92.35	7.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6.53	3.47	0.719
	비정규직	95.68	4.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24	5.76	0.717
	중도적	94.89	5.11	
	진보적	94.26	5.7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0〉 박탈: 저축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3.73	26.27	
성별	남성	74.81	25.19	2.279
	여성	72.62	27.38	
연령	20대 이하	73.11	26.89	110.985***
	30대	80.71	19.29	
	40대	76.82	23.18	
	50대	78.14	21.86	
	60대 이상	58.36	41.64	
지역	수도권	71.71	28.29	7.943**
	비수도권	75.80	24.20	
지역	대도시	74.21	25.79	2.501
	중소도시	73.89	26.11	
	농어촌	69.66	30.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22	57.78	357.224***
	중하층	70.18	29.82	
	중간층	84.30	15.70	
	중상층(상층)	85.28	14.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27	56.73	436.274***
	200만 원대	70.89	29.11	
	300만 원대	77.44	22.56	
	400만 원대	83.65	16.35	
	500만 원 이상	85.89	14.11	
학력	중졸 이하	55.98	44.02	151.445***
	고졸	72.70	27.30	
	대졸 이상	82.05	17.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90	18.10	163.7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4.72	35.28	
	고용주·자영자	79.25	20.75	
	무급가족종사자	74.24	25.76	
	실업자	38.60	61.40	
	비경제활동인구	67.70	32.30	
직업	관리자·전문가	84.70	15.30	34.16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8.93	21.07	
	숙련 및 기술직	77.69	22.31	
	단순노무종사자	62.30	37.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3.04	16.96	50.685***
	비정규직	67.45	32.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46	26.54	0.951
	중도적	73.31	26.69	
	진보적	75.10	24.90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1〉 박탈: 노후 대비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4.60	25.40	
성별	남성	77.51	22.49	16.75***
	여성	71.63	28.37	
연령	20대 이하	65.17	34.83	182.938***
	30대	81.86	18.14	
	40대	81.92	18.08	
	50대	82.85	17.15	
	60대 이상	59.70	40.30	
지역	수도권	73.10	26.90	4.44*
	비수도권	76.13	23.87	
	대도시	74.52	25.48	2.005
	중소도시	75.20	24.80	
	농어촌	71.16	28.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70	53.30	268.884***
	중하층	72.45	27.55	
	중간층	83.45	16.55	
	중상층(상층)	81.82	18.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33	51.67	327.096***
	200만 원대	74.02	25.98	
	300만 원대	76.39	23.61	
	400만 원대	83.28	16.72	
	500만 원 이상	85.05	14.95	
학력	중졸 이하	57.97	42.03	154.82***
	고졸	72.52	27.48	
	대졸 이상	83.62	16.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16	13.84	249.49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68	38.32	
	고용주·자영자	81.11	18.89	
	무급가족종사자	75.38	24.62	
	실업자	42.48	57.52	
	비경제활동인구	65.25	34.75	
직업	관리자·전문가	90.67	9.33	49.46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9.46	20.54	
	숙련 및 기술직	82.96	17.04	
	단순노무종사자	64.67	35.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8.52	11.48	131.107***
	비정규직	64.50	35.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46	26.54	2.239
	중도적	74.43	25.57	
	진보적	76.53	23.47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2〉 박탈: 사적 보험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83.27	16.73	
성별	남성	84.36	15.64	3.213
	여성	82.15	17.85	
연령	20대 이하	77.35	22.65	201.869***
	30대	91.70	8.30	
	40대	88.21	11.79	
	50대	89.66	10.34	
	60대 이상	68.06	31.94	
지역	수도권	82.25	17.75	2.795
	비수도권	84.31	15.69	
	대도시	82.51	17.49	6.575*
	중소도시	84.63	15.37	
	농어촌	78.95	21.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06	40.94	266.831***
	중하층	81.98	18.02	
	중간층	90.17	9.83	
	중상층(상층)	92.42	7.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5.82	44.18	445.36***
	200만 원대	85.27	14.73	
	300만 원대	88.79	11.21	
	400만 원대	90.80	9.20	
	500만 원 이상	90.99	9.01	
학력	중졸 이하	67.28	32.72	154.347***
	고졸	83.34	16.66	
	대졸 이상	89.70	10.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91	10.09	124.63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3.10	26.90	
	고용주·자영자	88.16	11.84	
	무급가족종사자	77.27	22.73	
	실업자	67.26	32.74	
	비경제활동인구	78.06	21.94	
직업	관리자·전문가	89.89	10.11	21.5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88	13.12	
	숙련 및 기술직	86.82	13.18	
	단순노무종사자	75.54	24.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75	9.25	60.73***
	비정규직	76.44	23.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1.95	18.05	2.023
	중도적	83.54	16.46	
	진보적	84.35	15.65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사회보험 외의 사적 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3〉 박탈: 자녀 고등교육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4.74	5.26	
성별	남성	94.57	5.43	0.079
	여성	94.90	5.10	
연령	20대 이하	97.87	2.13	10.564*
	30대	95.36	4.64	
	40대	93.72	6.28	
	50대	94.30	5.70	
	60대 이상	88.71	11.29	
지역	수도권	93.15	6.85	8.157**
	비수도권	96.47	3.53	
지역	대도시	95.21	4.79	1.565
	중소도시	94.10	5.90	
	농어촌	96.67	3.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5.21	24.79	116.339***
	중하층	93.51	6.49	
	중간층	98.53	1.47	
	중상층(상층)	96.67	3.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3.03	26.97	96.416***
	200만 원대	93.18	6.82	
	300만 원대	94.05	5.95	
	400만 원대	97.53	2.47	
	500만 원 이상	97.30	2.70	
학력	중졸 이하	82.28	17.72	27.824***
	고졸	94.60	5.40	
	대졸 이상	96.23	3.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05	5.95	55.2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6.82	13.18	
	고용주·자영자	95.41	4.59	
	무급가족종사자	92.86	7.14	
	실업자	72.00	28.00	
	비경제활동인구	98.22	1.78	
직업	관리자·전문가	88.81	11.19	43.76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02	3.98	
	숙련 및 기술직	94.62	5.38	
	단순노무종사자	74.55	25.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16	4.84	17.237***
	비정규직	85.47	14.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31	6.69	2.09
	중도적	94.93	5.07	
	진보적	95.66	4.34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4〉 박탈: 자녀 사교육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0.16	9.84	
성별	남성	90.81	9.19	0.54
	여성	89.67	10.33	
연령	20대 이하	93.62	6.38	15.207**
	30대	92.90	7.10	
	40대	89.59	10.41	
	50대	86.31	13.69	
	60대 이상	82.26	17.74	
지역	수도권	88.89	11.11	3.232
	비수도권	91.67	8.33	
지역	대도시	89.34	10.66	1.47
	중소도시	91.14	8.86	
	농어촌	88.89	11.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33	41.67	192.491***
	중하층	86.64	13.36	
	중간층	97.32	2.68	
	중상층(상층)	95.56	4.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3.93	46.07	173.797***
	200만 원대	84.66	15.34	
	300만 원대	87.50	12.50	
	400만 원대	94.77	5.23	
	500만 원 이상	96.58	3.42	
학력	중졸 이하	72.50	27.50	53.885***
	고졸	87.17	12.83	
	대졸 이상	94.99	5.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70	10.30	54.06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5.19	24.81	
	고용주·자영자	93.44	6.56	
	무급가족종사자	85.71	14.29	
	실업자	70.83	29.17	
	비경제활동인구	93.66	6.34	
직업	관리자·전문가	86.57	13.43	37.37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2.04	7.96	
	숙련 및 기술직	87.17	12.83	
	단순노무종사자	65.45	34.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75	9.25	22.532***
	비정규직	76.54	23.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8.12	11.88	2.165
	중도적	90.91	9.09	
	진보적	90.51	9.49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5〉 박탈: 자녀 기본 참고서나 도서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7.37	2.63	
성별	남성	97.35	2.65	0.001
	여성	97.38	2.62	
연령	20대 이하	99.15	0.85	41.878***
	30대	98.91	1.09	
	40대	97.49	2.51	
	50대	96.20	3.80	
	60대 이상	85.48	14.52	
지역	수도권	97.16	2.84	0.281
	비수도권	97.60	2.40	
	대도시	97.06	2.94	1.066
	중소도시	97.45	2.55	
	농어촌	98.89	1.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1.82	18.18	126.651***
	중하층	98.09	1.91	
	중간층	99.33	0.67	
	중상층(상층)	97.78	2.2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9.78	20.22	121.973***
	200만 원대	96.59	3.41	
	300만 원대	98.21	1.79	
	400만 원대	99.38	0.62	
	500만 원 이상	98.92	1.08	
학력	중졸 이하	89.87	10.13	27.069***
	고졸	96.64	3.36	
	대졸 이상	99.03	0.9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22	1.78	55.16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37	11.63	
	고용주·자영자	98.36	1.64	
	무급가족종사자	93.33	6.67	
	실업자	87.50	12.50	
	비경제활동인구	98.62	1.38	
직업	관리자·전문가	97.74	2.26	48.20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7.75	2.25	
	숙련 및 기술직	98.92	1.08	
	단순노무종사자	81.82	18.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24	1.76	16.058***
	비정규직	91.62	8.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06	4.94	10.881**
	중도적	97.66	2.34	
	진보적	98.92	1.08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 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6〉 박탈: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6.76	3.24	
성별	남성	96.94	3.06	0.136
	여성	96.60	3.40	
연령	20대 이하	98.29	1.71	31.484***
	30대	98.63	1.37	
	40대	96.23	3.77	
	50대	96.58	3.42	
	60대 이상	85.48	14.52	
지역	수도권	96.12	3.88	2.098
	비수도권	97.46	2.54	
지역	대도시	95.98	4.02	2.683
	중소도시	97.05	2.95	
	농어촌	98.89	1.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9.17	20.83	132.027***
	중하층	97.33	2.67	
	중간층	99.06	0.94	
	중상층(상층)	97.78	2.2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53	22.47	116.166***
	200만 원대	94.89	5.11	
	300만 원대	97.32	2.68	
	400만 원대	98.46	1.54	
	500만 원 이상	98.92	1.08	
학력	중졸 이하	87.50	12.50	28.041***
	고졸	96.06	3.94	
	대졸 이상	98.33	1.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82	2.18	54.37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6.82	13.18	
	고용주·자영자	97.38	2.62	
	무급가족종사자	93.33	6.67	
	실업자	87.50	12.50	
	비경제활동인구	98.42	1.58	
직업	관리자·전문가	96.27	3.73	33.2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71	3.29	
	숙련 및 기술직	98.39	1.61	
	단순노무종사자	81.82	18.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58	2.42	15.197***
	비정규직	90.50	9.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64	4.36	2.731
	중도적	96.75	3.25	
	진보적	97.83	2.17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7〉 박탈: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5.18	94.82	
성별	남성	4.58	95.42	2.692
	여성	5.79	94.21	
연령	20대 이하	4.11	95.89	11.469*
	30대	5.29	94.71	
	40대	6.79	93.21	
	50대	6.15	93.85	
	60대 이상	3.43	96.57	
지역	수도권	6.08	93.92	6.216*
	비수도권	4.25	95.75	
지역	대도시	4.90	95.10	8.295*
	중소도시	5.95	94.05	
	농어촌	1.87	98.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73	88.27	47.278***
	중하층	4.69	95.31	
	중간층	3.91	96.09	
	중상층(상층)	4.06	95.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56	92.44	11.854*
	200만 원대	5.31	94.69	
	300만 원대	5.54	94.46	
	400만 원대	4.09	95.91	
	500만 원 이상	4.09	95.91	
학력	중졸 이하	5.15	94.85	5.628
	고졸	6.10	93.90	
	대졸 이상	4.20	95.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92	95.08	15.8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8	91.12	
	고용주·자영자	5.03	94.97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0	
	실업자	6.14	93.86	
	비경제활동인구	4.53	95.47	
직업	관리자·전문가	4.48	95.52	4.79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03	93.97	
	숙련 및 기술직	3.85	96.15	
	단순노무종사자	7.07	92.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5	95.95	19.398***
	비정규직	9.53	90.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66	94.34	0.777
	중도적	4.90	95.10	
	진보적	5.22	94.78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8〉 박탈: 기한 내 공과금 미납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5.64	94.36	
성별	남성	5.61	94.39	0.007
	여성	5.67	94.33	
연령	20대 이하	4.63	95.37	24.601***
	30대	5.71	94.29	
	40대	8.96	91.04	
	50대	5.37	94.63	
	60대 이상	3.29	96.71	
지역	수도권	7.53	92.47	25.26***
	비수도권	3.70	96.30	
지역	대도시	6.23	93.77	2.465
	중소도시	5.37	94.63	
	농어촌	4.12	95.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20	83.80	124.45***
	중하층	5.57	94.43	
	중간층	2.81	97.19	
	중상층(상층)	4.04	95.9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23	90.77	37.137***
	200만 원대	5.14	94.86	
	300만 원대	7.65	92.35	
	400만 원대	4.09	95.91	
	500만 원 이상	3.16	96.84	
학력	중졸 이하	6.15	93.85	7.299*
	고졸	6.60	93.40	
	대졸 이상	4.40	95.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67	94.33	35.89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91	89.09	
	고용주·자영자	3.90	96.10	
	무급가족종사자	1.52	98.48	
	실업자	11.40	88.60	
	비경제활동인구	4.72	95.28	
직업	관리자·전문가	4.87	95.13	7.4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10	93.90	
	숙련 및 기술직	4.06	95.94	
	단순노무종사자	9.24	90.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39	94.61	11.302**
	비정규직	9.89	90.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3	93.17	4.721
	중도적	4.90	95.10	
	진보적	5.87	94.13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9〉 박탈: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2.34	97.66	
성별	남성	2.21	97.79	0.288
	여성	2.48	97.52	
연령	20대 이하	1.32	98.68	16.517**
	30대	1.57	98.43	
	40대	3.46	96.54	
	50대	3.53	96.47	
	60대 이상	1.49	98.51	
지역	수도권	2.96	97.04	6.219*
	비수도권	1.71	98.29	
	대도시	2.42	97.58	1.794
	중소도시	2.40	97.60	
	농어촌	1.13	98.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5	92.75	57.362***
	중하층	1.91	98.09	
	중간층	1.40	98.60	
	중상층(상층)	1.52	98.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8	96.52	8.132
	200만 원대	2.74	97.26	
	300만 원대	1.98	98.02	
	400만 원대	1.19	98.81	
	500만 원 이상	2.23	97.77	
학력	중졸 이하	3.65	96.35	8.000*
	고졸	2.45	97.55	
	대졸 이상	1.63	98.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7	98.33	21.61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57	95.43	
	고용주·자영자	1.64	98.36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0	
	실업자	6.14	93.86	
	비경제활동인구	2.54	97.46	
직업	관리자·전문가	0.75	99.25	13.14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05	97.95	
	숙련 및 기술직	1.62	98.38	
	단순노무종사자	5.46	94.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5	98.55	11.249**
	비정규직	4.14	95.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4	97.66	0.729
	중도적	2.18	97.82	
	진보적	2.74	97.26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0〉 박탈: 난방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3.11	96.89	
성별	남성	2.86	97.14	0.938
	여성	3.42	96.58	
연령	20대 이하	0.93	99.07	23.637***
	30대	2.14	97.86	
	40대	4.49	95.51	
	50대	3.93	96.07	
	60대 이상	4.33	95.67	
지역	수도권	3.93	96.07	8.394**
	비수도권	2.27	97.73	
	대도시	3.21	96.79	2.485
	중소도시	3.26	96.74	
	농어촌	1.50	98.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51	88.49	128.156***
	중하층	2.34	97.66	
	중간층	1.47	98.53	
	중상층(상층)	2.02	97.9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66	93.34	34.843***
	200만 원대	3.25	96.75	
	300만 원대	2.11	97.89	
	400만 원대	2.04	97.96	
	500만 원 이상	2.23	97.77	
학력	중졸 이하	5.48	94.52	17.803***
	고졸	3.33	96.67	
	대졸 이상	1.96	98.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7	97.83	18.13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8	94.92	
	고용주·자영자	2.27	97.73	
	무급가족종사자	1.54	98.46	
	실업자	7.02	92.98	
	비경제활동인구	3.72	96.28	
직업	관리자·전문가	3.00	97.00	11.60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32	97.68	
	숙련 및 기술직	2.23	97.77	
	단순노무종사자	6.52	93.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3	97.97	7.883**
	비정규직	4.50	95.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8	95.12	18.165***
	중도적	2.03	97.97	
	진보적	3.39	96.61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1〉 박탈: 병원 방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2.78	97.22	
성별	남성	2.70	97.30	0.17
	여성	2.92	97.08	
연령	20대 이하	1.59	98.41	8.342
	30대	2.14	97.86	
	40대	3.59	96.41	
	50대	3.14	96.86	
	60대 이상	3.44	96.56	
지역	수도권	3.44	96.56	6.122*
	비수도권	2.10	97.90	
	대도시	2.90	97.10	4.407
	중소도시	2.97	97.03	
	농어촌	0.75	99.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2	89.98	106.753***
	중하층	2.20	97.80	
	중간층	1.28	98.72	
	중상층(상층)	2.02	97.9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51	93.49	43.082***
	200만 원대	2.91	97.09	
	300만 원대	1.85	98.15	
	400만 원대	1.36	98.64	
	500만 원 이상	1.95	98.05	
학력	중졸 이하	5.15	94.85	19.022***
	고졸	2.89	97.11	
	대졸 이상	1.69	98.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0	98.00	19.09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33	94.67	
	고용주·자영자	1.89	98.11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0	
	실업자	4.39	95.61	
	비경제활동인구	3.45	96.55	
직업	관리자·전문가	0.75	99.25	20.13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32	97.68	
	숙련 및 기술직	2.03	97.97	
	단순노무종사자	7.07	92.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4	98.36	15.295***
	비정규직	5.05	94.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2	96.68	1.554
	중도적	2.61	97.39	
	진보적	2.48	97.52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2〉 박탈: 집세를 이유로 이사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해당없음	χ^2
전체		2.40	43.05	54.55	
성별	남성	2.43	43.23	54.34	0.108
	여성	2.32	42.89	54.80	
연령	20대 이하	2.25	48.48	49.27	143.691***
	30대	2.29	56.86	40.86	
	40대	3.85	43.21	52.95	
	50대	2.49	35.91	61.60	
	60대 이상	0.75	30.60	68.66	
지역	수도권	3.17	51.32	45.51	126.507***
	비수도권	1.55	34.59	63.87	
	대도시	3.39	46.34	50.27	33.19***
	중소도시	1.60	41.03	57.37	
	농어촌	1.12	36.33	62.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6	57.14	33.90	211.667***
	중하층	1.98	47.03	50.99	
	중간층	0.98	37.45	61.58	
	중상층(상층)	1.52	28.28	70.2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24	46.90	48.87	82.868***
	200만 원대	2.23	52.57	45.21	
	300만 원대	1.85	46.83	51.32	
	400만 원대	3.07	38.33	58.60	
	500만 원 이상	1.30	35.47	63.23	
학력	중졸 이하	2.99	31.23	65.78	56.451***
	고졸	2.89	42.49	54.62	
	대졸 이상	1.56	48.51	49.9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	50.63	46.79	107.0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8	50.25	44.67	
	고용주·자영자	1.51	36.73	61.76	
	무급가족종사자	0.0	22.73	77.27	
	실업자	6.14	41.23	52.63	
	비경제활동인구	1.54	38.35	60.11	
직업	관리자·전문가	1.87	48.51	49.63	58.49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45	48.77	48.77	
	숙련 및 기술직	1.62	33.06	65.31	
	단순노무종사자	7.10	44.81	48.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2	50.58	47.40	14.88**
	비정규직	5.58	50.36	44.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4	37.17	60.29	26.897***
	중도적	2.18	43.90	53.92	
	진보적	2.73	48.83	48.44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3〉 박탈: 자녀 공교육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해당없음	χ^2
전체		1.61	41.16	57.24	
성별	남성	1.94	40.69	57.37	2.816
	여성	1.27	41.63	57.10	
연령	20대 이하	1.19	32.80	66.01	520.5***
	30대	1.14	48.14	50.71	
	40대	2.94	68.37	28.68	
	50대	2.09	39.14	58.77	
	60대 이상	0.60	13.86	85.54	
지역	수도권	1.88	44.89	53.23	126.507***
	비수도권	1.33	37.29	61.38	
	대도시	1.63	43.74	54.63	12.000*
	중소도시	1.77	39.31	58.91	
	농어촌	0.38	37.22	62.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8	28.36	67.16	79.927***
	중하층	1.17	38.86	59.97	
	중간층	0.98	46.55	52.47	
	중상층(상층)	2.53	42.93	54.5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6	18.00	80.33	310.88***
	200만 원대	1.03	28.08	70.89	
	300만 원대	1.85	43.01	55.15	
	400만 원대	2.05	54.44	43.52	
	500만 원 이상	1.49	53.85	44.66	
학력	중졸 이하	1.50	16.11	82.39	197.23***
	고졸	2.20	44.69	53.11	
	대졸 이상	1.08	47.53	51.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2	42.54	56.05	64.68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57	29.70	65.74	
	고용주·자영자	1.01	43.58	55.42	
	무급가족종사자	0.0	32.31	67.69	
	실업자	3.48	26.09	70.43	
	비경제활동인구	1.09	44.10	54.81	
직업	관리자·전문가	1.49	49.25	49.25	44.28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9	41.26	57.15	
	숙련 및 기술직	1.01	39.35	59.63	
	단순노무종사자	5.98	25.00	69.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5	44.26	54.39	36.208***
	비정규직	3.78	30.22	66.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6	34.93	63.51	29.268***
	중도적	1.55	42.14	56.31	
	진보적	1.83	47.07	51.11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4〉 박탈: 대인 신뢰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0.94	47.04	25.36	14.97	1.69	
성별	남성	10.79	47.52	23.52	15.80	2.37	17.498**
	여성	11.08	46.53	27.29	14.11	0.99	
연령	20대 이하	6.75	40.79	27.42	21.85	3.18	80.045***
	30대	13.43	46.86	23.71	14.86	1.14	
	40대	12.42	48.40	25.48	11.78	1.92	
	50대	11.50	50.72	22.75	13.46	1.57	
	60대 이상	10.75	48.21	27.46	12.99	0.60	
지역	수도권	12.76	46.34	22.01	16.95	1.94	39.043***
	비수도권	9.11	47.71	28.77	12.98	1.44	
	대도시	10.16	49.73	25.23	13.13	1.75	25.49**
	중소도시	11.77	45.14	24.29	17.03	1.77	
	농어촌	10.49	41.95	33.33	13.48	0.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85	48.30	21.91	8.51	0.43	144.75***
	중하층	10.78	49.93	26.10	12.68	0.51	
	중간층	8.56	45.35	26.10	17.42	2.57	
	중상층(상층)	8.08	37.88	22.22	26.26	5.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55	44.24	28.03	13.03	0.15	65.142***
	200만 원대	11.79	49.06	25.30	12.82	1.03	
	300만 원대	11.87	50.92	21.24	14.91	1.06	
	400만 원대	10.73	45.83	26.24	14.65	2.56	
	500만 원 이상	7.80	45.31	26.28	17.64	2.97	
학력	중졸 이하	12.79	46.84	30.07	9.97	0.33	35.044***
	고졸	10.75	47.01	25.46	15.27	1.51	
	대졸 이상	10.43	46.99	23.36	16.79	2.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09	47.12	25.35	15.51	1.92	36.22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69	46.95	24.62	14.72	1.02	
	고용주·자영자	10.09	51.58	26.10	11.10	1.13	
	무급가족종사자	6.15	41.54	35.38	16.92	0.0	
	실업자	16.67	48.25	21.05	12.28	1.75	
	비경제활동인구	11.51	43.97	24.93	17.41	2.18	
직업	관리자·전문가	13.43	50.37	19.78	13.43	2.99	22.7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7	49.47	25.36	14.37	1.13	
	숙련 및 기술직	10.12	46.96	28.74	12.55	1.62	
	단순노무종사자	13.59	39.13	29.35	15.76	2.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5	48.22	25.07	15.33	1.83	5.06
	비정규직	12.95	44.96	25.36	15.29	1.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74	48.63	27.05	12.40	1.17	33.411***
	중도적	11.61	45.71	26.48	14.33	1.86	
	진보적	9.53	48.17	20.37	19.97	1.96	

주: 1) "_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5〉 박탈: 타인이 나를 이용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9.70	40.75	33.77	14.04	1.74	
성별	남성	9.71	40.21	34.05	14.03	2.00	1.727
	여성	9.69	41.30	33.48	14.04	1.49	
연령	20대 이하	10.07	34.83	32.98	19.74	2.38	52.748***
	30대	9.73	39.91	33.19	15.74	1.43	
	40대	10.77	42.82	32.82	12.18	1.41	
	50대	9.42	46.07	31.94	10.73	1.83	
	60대 이상	8.36	39.85	38.36	11.64	1.79	
지역	수도권	11.56	40.86	31.24	14.19	2.15	23.698***
	비수도권	7.79	40.61	36.35	13.87	1.38	
	대도시	9.26	43.89	33.05	11.86	1.94	29.982***
	중소도시	10.74	38.23	33.43	16.11	1.49	
	농어촌	5.64	37.97	40.23	13.91	2.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99	45.42	29.64	8.74	0.21	68.008***
	중하층	10.26	42.08	32.99	13.20	1.47	
	중간층	7.81	38.16	36.14	15.63	2.26	
	중상층(상층)	6.57	41.92	29.29	19.19	3.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83	40.85	37.07	11.50	0.76	40.636**
	200만 원대	9.59	44.86	33.22	10.27	2.05	
	300만 원대	11.74	40.90	31.13	14.25	1.98	
	400만 원대	9.04	39.93	31.74	18.26	1.02	
	500만 원 이상	8.45	38.81	35.00	15.23	2.51	
학력	중졸 이하	9.95	40.30	37.31	11.77	0.66	17.576*
	고졸	10.31	40.25	33.46	13.58	2.39	
	대졸 이상	8.94	41.46	32.66	15.45	1.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2	40.20	33.36	14.93	1.58	42.28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72	42.75	28.75	14.25	1.53	
	고용주·자영자	8.44	44.21	36.27	9.57	1.51	
	무급가족종사자	6.06	45.45	36.36	10.61	1.52	
	실업자	16.67	36.84	31.58	12.28	2.63	
	비경제활동인구	8.89	38.20	34.21	16.61	2.09	
직업	관리자·전문가	14.55	47.01	26.87	9.33	2.24	37.70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8	42.74	34.06	12.99	1.52	
	숙련 및 기술직	8.72	40.97	36.51	13.18	0.61	
	단순노무종사자	14.59	31.89	32.43	17.84	3.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4	39.77	33.69	14.86	1.74	4.485
	비정규직	11.69	42.99	29.50	14.57	1.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8	43.27	33.82	12.38	2.05	13.534
	중도적	9.70	40.38	34.26	14.28	1.39	
	진보적	11.36	38.25	32.51	15.67	2.22	

주: 1) "_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6〉 이기적 타인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4.45	50.53	27.26	7.44	0.33	
성별	남성	14.56	49.41	27.67	8.04	0.32	3.046
	여성	14.32	51.71	26.82	6.83	0.33	
연령	20대 이하	15.34	42.46	30.82	10.85	0.53	47.921***
	30대	13.57	55.14	23.71	7.14	0.43	
	40대	15.47	50.64	26.85	6.52	0.51	
	50대	16.12	51.51	25.82	6.42	0.13	
	60대 이상	11.34	53.43	28.96	6.12	0.15	
지역	수도권	16.61	51.08	24.30	7.90	0.11	31.192***
	비수도권	12.21	50.00	30.28	6.96	0.55	
	대도시	15.49	52.03	26.19	5.99	0.30	22.318**
	중소도시	13.89	49.34	27.84	8.75	0.17	
	농어촌	11.24	49.44	29.96	8.24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06	53.40	22.98	2.55	0.0	72.976***
	중하층	16.06	51.47	25.15	7.11	0.22	
	중간층	11.29	49.45	30.40	8.42	0.43	
	중상층(상층)	13.64	46.46	25.76	13.13	1.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30	50.61	28.64	5.45	0.0	22.316
	200만 원대	16.12	49.23	27.79	6.52	0.34	
	300만 원대	13.59	52.24	26.52	7.52	0.13	
	400만 원대	13.12	52.30	24.02	10.05	0.51	
	500만 원 이상	14.21	49.30	28.32	7.61	0.56	
학력	중졸 이하	12.65	52.91	28.62	5.82	0.0	9.542
	고졸	15.46	49.21	26.96	7.98	0.38	
	대졸 이상	14.09	51.08	26.96	7.45	0.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50	50.17	26.83	8.25	0.25	42.90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22	48.35	26.58	7.34	0.51	
	고용주·자영자	13.73	55.04	25.69	5.29	0.25	
	무급가족종사자	16.67	45.45	31.82	4.55	1.52	
	실업자	26.32	48.25	21.93	2.63	0.88	
	비경제활동인구	12.43	49.09	29.31	8.80	0.36	
직업	관리자·전문가	19.85	51.31	22.10	6.37	0.37	14.94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4.11	51.79	26.56	7.28	0.26	
	숙련 및 기술직	14.40	51.72	27.59	6.09	0.20	
	단순노무종사자	13.59	46.20	30.43	8.70	1.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97	50.10	27.26	8.38	0.29	3.751
	비정규직	17.45	48.92	25.90	7.37	0.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94	51.36	26.90	7.60	0.19	6.597
	중도적	14.07	49.95	28.52	7.09	0.37	
	진보적	16.04	50.85	24.64	8.08	0.39	

주: 1) "_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7〉 부패 인식: 정치 영역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음----------부패가 매우 심함							χ^2
		0	1	2	3	4	5	6	
전체		0.44	2.02	4.88	14.23	16.14	33.75	28.54	
성별	남성	0.65	2.48	4.04	14.72	16.17	32.45	29.49	15.653*
	여성	0.28	1.60	5.79	13.66	16.09	35.04	27.55	
연령	20대 이하	0.27	2.25	5.17	15.78	19.10	31.03	26.39	42.513*
	30대	0.29	1.43	5.71	10.43	14.71	35.57	31.86	
	40대	0.90	2.43	4.61	13.57	14.98	32.65	30.86	
	50대	0.52	2.09	4.45	14.01	14.40	35.73	28.80	
	60대 이상	0.30	1.79	4.63	17.31	17.61	33.88	24.48	
지역	수도권	0.54	1.94	3.66	13.13	15.76	34.86	30.12	21.334**
	비수도권	0.33	2.15	6.18	15.35	16.51	32.58	26.89	
	대도시	0.30	2.00	3.21	12.71	16.22	36.20	29.36	38.523***
	중소도시	0.57	2.06	6.40	15.89	16.30	31.96	26.82	
	농어촌	0.75	1.88	5.26	12.78	14.29	30.08	34.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3	2.98	5.32	11.91	12.34	35.96	31.06	18.244
	중하층	0.51	1.47	4.77	13.49	16.42	33.58	29.77	
	중간층	0.43	2.08	4.95	15.21	16.86	33.41	27.06	
	중상층(상층)	0.51	2.55	4.08	16.33	17.35	32.14	27.0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30	1.06	5.30	18.18	19.24	33.03	22.88	49.596**
	200만 원대	0.17	2.05	4.62	15.41	13.36	36.47	27.91	
	300만 원대	0.66	2.24	5.14	13.31	14.23	31.62	32.81	
	400만 원대	0.68	2.04	5.79	12.44	18.91	31.86	28.28	
	500만 원 이상	0.46	2.51	4.09	12.53	15.60	35.19	29.62	
학력	중졸 이하	0.50	1.50	5.49	16.97	15.97	34.11	25.46	22.65*
	고졸	0.19	2.01	4.40	15.46	16.09	33.94	27.91	
	대졸 이상	0.68	2.30	5.21	11.77	16.17	33.36	30.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0	2.17	5.59	13.19	16.69	34.14	27.71	42.40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5	1.78	5.08	19.04	13.45	31.47	28.93	
	고용주·자영자	0.63	2.76	4.65	13.69	14.20	31.16	32.91	
	무급가족종사자	0.0	1.52	1.52	16.67	16.67	33.33	30.30	
	실업자	0.0	1.75	4.39	7.89	24.56	31.58	29.82	
	비경제활동인구	0.45	1.45	4.54	14.53	16.98	36.15	25.89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1.50	4.12	11.61	15.73	33.71	33.33	27.6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40	1.79	5.36	14.37	16.16	32.45	29.47	
	숙련 및 기술직	1.01	4.46	5.07	14.20	12.78	34.08	28.40	
	단순노무종사자	0.55	1.64	4.37	19.13	14.75	30.05	29.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8	2.41	5.68	13.58	17.73	33.14	26.97	11.747
	비정규직	0.36	1.62	5.05	16.58	12.25	34.23	29.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8	2.05	4.88	14.93	17.17	34.34	25.95	38.166***
	중도적	0.37	2.29	5.28	15.30	15.03	34.65	27.08	
	진보적	0.26	1.30	3.91	10.69	17.47	30.77	35.59	

주: 1)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영역"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8〉 부패 인식: 경제 영역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음----------부패가 매우 심함							χ^2
		0	1	2	3	4	5	6	
전체		0.16	1.74	3.90	18.97	22.06	31.62	21.54	
성별	남성	0.32	1.99	3.72	19.78	20.86	30.40	22.91	13.844*
	여성	0.06	1.49	4.13	18.12	23.24	32.82	20.15	
연령	20대 이하	0.26	1.99	4.64	21.06	21.85	29.40	20.79	51.841**
	30대	0.14	1.00	3.85	16.69	21.26	31.67	25.39	
	40대	0.38	1.79	4.48	16.39	20.10	32.14	24.71	
	50대	0.0	2.35	2.22	19.06	21.93	34.46	19.97	
	60대 이상	0.15	1.49	4.48	21.97	25.41	30.19	16.29	
지역	수도권	0.22	1.94	2.91	18.30	21.64	31.97	23.04	15.98*
	비수도권	0.11	1.55	4.92	19.61	22.49	31.27	20.06	
	대도시	0.12	1.69	3.02	16.64	23.84	32.79	21.90	33.337**
	중소도시	0.29	1.60	4.69	21.66	20.80	30.51	20.46	
	농어촌	0.0	3.00	4.49	15.73	19.10	31.46	26.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3	3.19	2.77	16.17	17.66	36.60	23.19	43.329**
	중하층	0.07	1.68	3.51	17.50	21.74	31.77	23.72	
	중간층	0.24	1.34	4.28	21.03	23.78	30.38	18.95	
	중상층(상층)	0.0	2.01	6.03	18.59	20.60	28.64	24.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5	1.21	3.93	22.21	23.11	31.87	17.52	33.353
	200만 원대	0.0	2.05	3.94	19.01	21.75	33.56	19.69	
	300만 원대	0.13	2.24	3.43	18.31	19.89	32.15	23.85	
	400만 원대	0.17	1.53	5.45	18.40	24.70	27.26	22.49	
	500만 원 이상	0.37	1.67	3.35	17.47	21.75	32.43	22.96	
학력	중졸 이하	0.17	1.82	4.31	23.55	21.72	31.34	17.08	28.851**
	고졸	0.13	1.57	3.58	19.69	23.21	31.32	20.50	
	대졸 이상	0.27	1.90	4.06	16.32	20.92	32.09	24.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3	1.59	4.09	19.37	21.37	30.80	22.45	30.64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	1.53	4.33	18.07	21.12	34.35	20.61	
	고용주·자영자	0.25	2.39	3.27	18.11	20.63	31.82	23.52	
	무급가족종사자	0.0	1.54	1.54	23.08	27.69	26.15	20.00	
	실업자	0.0	1.77	0.88	12.39	30.97	28.32	25.66	
	비경제활동인구	0.09	1.54	4.44	19.95	22.94	32.09	18.95	
직업	관리자·전문가	0.0	1.12	3.00	15.73	20.22	32.21	27.72	26.39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27	1.39	4.11	18.56	21.87	31.48	22.33	
	숙련 및 기술직	0.40	3.85	3.64	20.24	21.46	29.96	20.45	
	단순노무종사자	0.54	1.09	3.26	21.74	16.85	34.78	21.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9	1.64	3.86	20.15	21.31	31.05	21.60	5.317
	비정규직	0.0	1.62	4.68	16.91	21.22	32.73	22.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9	1.95	3.71	19.63	24.12	30.08	20.21	28.295**
	중도적	0.16	1.87	4.10	19.99	21.91	31.88	20.10	
	진보적	0.0	1.17	3.65	15.63	19.66	33.07	26.82	

주: 1)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 영역"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9〉 갈등 인식: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27.36	53.26	16.27	1.39	1.72	
성별	남성	27.40	52.70	17.15	1.40	1.35	5.017
	여성	27.38	53.83	15.37	1.32	2.09	
연령	20대 이하	25.53	54.63	15.74	1.98	2.12	37.567**
	30대	31.62	50.64	15.45	0.57	1.72	
	40대	31.03	51.15	14.62	1.03	2.18	
	50대	26.70	54.58	15.84	1.44	1.44	
	60대 이상	21.67	55.31	20.03	1.79	1.20	
지역	수도권	27.65	52.23	16.19	1.56	2.37	11.21*
	비수도권	27.09	54.34	16.36	1.16	1.05	
	대도시	28.33	54.54	14.65	1.21	1.27	19.688*
	중소도시	27.07	52.03	17.19	1.37	2.34	
	농어촌	23.68	53.38	20.30	2.26	0.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69	50.32	13.86	1.28	0.85	44.57***
	중하층	30.70	51.72	14.65	1.17	1.76	
	중간층	23.46	54.98	18.45	1.47	1.65	
	중상층(상층)	22.34	56.85	14.72	2.03	4.0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85	53.79	17.73	1.67	1.97	21.017
	200만 원대	26.03	55.31	15.58	0.86	2.23	
	300만 원대	28.23	53.17	14.12	2.24	2.24	
	400만 원대	28.62	52.13	17.21	0.51	1.53	
	500만 원 이상	28.48	52.41	16.70	1.30	1.11	
학력	중졸 이하	23.42	53.99	18.44	2.49	1.66	22.097**
	고졸	26.92	52.26	17.61	1.32	1.89	
	대졸 이상	29.45	54.03	13.95	1.02	1.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02	51.29	17.10	1.08	1.50	35.48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16	51.27	18.02	1.02	2.54	
	고용주·자영자	27.96	54.53	15.49	1.13	0.88	
	무급가족종사자	18.18	62.12	12.12	4.55	3.03	
	실업자	31.86	41.59	19.47	2.65	4.42	
	비경제활동인구	25.32	55.90	15.15	1.63	2.00	
직업	관리자·전문가	28.57	52.63	16.17	0.0	2.63	14.31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8.63	53.28	15.77	0.99	1.33	
	숙련 및 기술직	26.72	51.62	18.42	2.02	1.21	
	단순노무종사자	27.17	50.00	19.02	2.17	1.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76	51.35	17.76	0.97	1.16	5.722
	비정규직	28.11	51.35	16.58	1.26	2.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85	53.07	17.56	1.85	1.66	7.754
	중도적	27.12	54.13	15.93	1.17	1.65	
	진보적	29.99	51.37	15.38	1.30	1.96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0〉 갈등 인식: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25.97	55.18	16.54	1.01	1.31	
성별	남성	26.79	54.50	16.98	0.97	0.75	10.565*
	여성	25.12	55.87	16.09	1.05	1.87	
연령	20대 이하	26.36	56.16	15.50	0.40	1.59	43.725***
	30대	31.00	51.14	16.57	0.71	0.57	
	40대	27.31	55.00	15.90	0.51	1.28	
	50대	24.74	57.46	14.92	1.44	1.44	
	60대 이상	20.15	56.12	20.30	1.94	1.49	
지역	수도권	25.77	55.73	15.65	1.18	1.67	7.355
	비수도권	26.19	54.64	17.46	0.77	0.94	
	대도시	28.03	55.93	14.53	0.97	0.54	33.214****
	중소도시	24.93	53.97	17.95	1.03	2.12	
	농어촌	19.78	58.58	19.78	1.12	0.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87	53.73	17.06	0.85	1.49	18.502
	중하층	27.33	56.34	14.14	0.73	1.47	
	중간층	24.92	54.37	18.57	1.16	0.98	
	중상층(상층)	23.23	57.58	15.15	2.02	2.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00	51.74	21.94	1.51	1.82	43.856***
	200만 원대	24.66	56.85	15.58	0.68	2.23	
	300만 원대	27.08	54.82	16.91	0.40	0.79	
	400만 원대	27.01	57.44	14.53	0.17	0.85	
	500만 원 이상	27.21	55.34	14.67	1.67	1.11	
학력	중졸 이하	21.43	53.49	21.43	1.50	2.16	34.691***
	고졸	26.10	54.03	17.74	0.82	1.32	
	대졸 이상	27.69	57.14	13.27	0.95	0.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83	53.50	16.58	1.17	0.92	38.03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68	57.51	16.28	0.25	1.27	
	고용주·자영자	24.40	56.86	16.48	1.51	0.75	
	무급가족종사자	15.15	60.61	19.70	1.52	3.03	
	실업자	36.84	41.23	20.18	1.75	0.0	
	비경제활동인구	25.02	56.12	16.05	0.63	2.18	
직업	관리자·전문가	27.61	58.58	12.69	0.37	0.75	12.9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59	55.11	16.05	1.26	0.99	
	숙련 및 기술직	23.58	55.49	18.90	0.81	1.22	
	단순노무종사자	23.50	53.55	20.22	2.19	0.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46	53.28	17.73	0.77	0.77	6.276
	비정규직	26.26	56.83	14.21	1.26	1.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68	54.93	17.76	1.56	1.07	12.853
	중도적	26.41	55.48	15.92	1.01	1.17	
	진보적	26.60	54.76	16.43	0.26	1.96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1〉 갈등 인식: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11.88	42.90	38.05	4.63	2.53	
성별	남성	11.75	43.40	37.47	5.39	1.99	9.545*
	여성	12.01	42.42	38.62	3.86	3.09	
연령	20대 이하	12.72	41.99	36.56	5.30	3.44	35.275**
	30대	15.29	40.57	38.43	3.71	2.00	
	40대	11.52	44.30	37.77	3.33	3.07	
	50대	12.30	43.46	37.04	5.50	1.70	
	60대 이상	7.45	44.11	40.69	5.37	2.38	
지역	수도권	10.97	43.55	38.33	3.82	3.33	17.996**
	비수도권	12.82	42.27	37.73	5.47	1.71	
지역	대도시	13.38	45.52	35.17	4.24	1.69	44.786***
	중소도시	10.91	41.77	39.37	4.46	3.49	
	농어촌	8.99	34.08	47.19	8.24	1.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10	42.95	36.54	4.49	1.92	16.56
	중하층	12.82	43.15	37.73	4.10	2.20	
	중간층	10.26	43.22	38.89	4.95	2.69	
	중상층(상층)	13.64	38.89	36.87	5.56	5.0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85	45.00	37.88	5.30	1.97	17.671
	200만 원대	11.13	40.75	41.61	3.42	3.08	
	300만 원대	12.80	41.69	37.60	5.54	2.37	
	400만 원대	11.95	45.05	36.69	4.61	1.71	
	500만 원 이상	12.89	42.30	37.38	4.27	3.15	
학력	중졸 이하	7.96	41.96	42.95	4.81	2.32	32.113***
	고졸	11.94	41.11	38.97	5.72	2.26	
	대졸 이상	13.41	45.26	35.03	3.39	2.9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69	42.40	37.48	4.84	2.59	32.49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44	45.69	35.28	4.82	1.78	
	고용주·자영자	11.73	43.63	38.84	3.78	2.02	
	무급가족종사자	9.23	30.77	49.23	10.77	0.0	
	실업자	13.16	45.61	28.07	6.14	7.02	
	비경제활동인구	10.89	42.56	39.56	4.36	2.63	
직업	관리자·전문가	13.11	41.95	40.82	1.12	3.00	33.53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20	44.50	35.54	4.38	2.39	
	숙련 및 기술직	9.31	38.46	44.33	6.28	1.62	
	단순노무종사자	11.96	43.48	34.78	8.15	1.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64	41.89	38.03	4.83	2.61	2.472
	비정규직	12.61	45.59	34.77	4.86	2.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54	42.15	39.32	5.46	2.54	8.26
	중도적	11.77	43.90	37.35	4.42	2.56	
	진보적	13.95	41.46	38.07	4.04	2.48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2〉 갈등 인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29.62	51.91	15.03	1.55	1.88	
성별	남성	31.16	50.78	14.72	2.05	1.29	17.469**
	여성	28.04	53.00	15.37	1.05	2.53	
연령	20대 이하	28.51	51.86	15.52	1.86	2.25	42.129***
	30대	33.95	47.36	15.26	2.57	0.86	
	40대	29.45	53.14	15.24	0.38	1.79	
	50대	31.54	52.36	12.96	1.57	1.57	
	60대 이상	24.48	54.48	16.27	1.49	3.28	
지역	수도권	28.01	51.40	16.13	2.04	2.42	18.09**
	비수도권	31.29	52.40	13.93	1.05	1.33	
	대도시	33.31	49.46	15.05	1.45	0.73	58.422***
	중소도시	27.89	52.57	14.63	1.77	3.14	
	농어촌	18.35	62.17	17.60	0.75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14	56.84	11.97	1.50	2.56	35.448***
	중하층	30.06	52.57	13.20	1.61	2.57	
	중간층	30.65	49.08	17.70	1.47	1.10	
	중상층(상층)	24.12	58.79	12.56	2.01	2.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94	57.42	13.94	1.82	2.88	32.919**
	200만 원대	30.60	51.62	15.21	0.34	2.22	
	300만 원대	31.09	49.28	15.55	2.50	1.58	
	400만 원대	30.83	49.74	16.35	1.87	1.19	
	500만 원 이상	30.92	51.53	14.58	1.21	1.76	
학력	중졸 이하	22.22	56.22	17.08	0.83	3.65	40.467***
	고졸	29.69	50.63	15.85	1.95	1.89	
	대졸 이상	32.57	51.46	13.34	1.42	1.2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11	50.46	15.93	1.92	1.58	41.60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70	50.76	16.50	0.51	2.54	
	고용주·자영자	29.43	53.71	14.09	1.38	1.38	
	무급가족종사자	18.46	52.31	24.62	3.08	1.54	
	실업자	33.33	46.49	14.04	6.14	0.0	
	비경제활동인구	29.49	53.18	13.70	1.09	2.54	
직업	관리자·전문가	27.99	55.97	14.93	0.0	1.12	17.08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0.50	51.19	15.38	1.33	1.59	
	숙련 및 기술직	26.83	51.63	17.48	2.44	1.63	
	단순노무종사자	30.98	48.37	14.67	2.72	3.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77	51.25	16.09	1.83	1.06	11.146*
	비정규직	30.52	49.01	16.16	1.08	3.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73	51.86	16.80	1.17	2.44	15.419
	중도적	30.70	52.19	14.34	1.44	1.33	
	진보적	29.50	51.31	14.36	2.35	2.48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3〉 갈등 인식: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15.99	46.21	31.96	4.39	1.44	
성별	남성	16.72	46.39	31.55	3.83	1.51	3.782
	여성	15.26	46.06	32.45	4.85	1.38	
연령	20대 이하	17.20	40.61	36.11	4.37	1.72	37.032**
	30대	18.12	45.79	30.24	4.56	1.28	
	40대	15.62	46.73	32.52	3.07	2.05	
	50대	15.58	51.05	26.83	5.63	0.92	
	60대 이상	13.26	46.80	34.28	4.32	1.34	
지역	수도권	14.95	48.14	31.63	3.50	1.78	14.824**
	비수도권	17.01	44.28	32.36	5.25	1.10	
지역	대도시	16.87	46.07	31.44	4.23	1.39	11.754
	중소도시	16.18	45.97	31.79	4.46	1.60	
	농어촌	9.36	49.06	36.33	4.49	0.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35	54.58	26.44	2.56	1.07	39.185***
	중하층	17.88	46.45	30.70	3.44	1.54	
	중간층	14.59	44.20	34.68	5.19	1.34	
	중상층(상층)	16.16	41.92	31.82	7.58	2.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96	50.38	30.65	3.49	1.52	31.861*
	200만 원대	16.44	46.06	32.88	3.08	1.54	
	300만 원대	14.80	45.18	34.08	3.57	2.38	
	400만 원대	16.87	47.19	31.18	4.26	0.51	
	500만 원 이상	17.46	44.01	31.38	6.13	1.02	
학력	중졸 이하	14.62	49.67	29.57	4.65	1.50	5.245
	고졸	16.23	44.91	32.96	4.53	1.38	
	대졸 이상	16.26	46.34	31.98	4.00	1.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93	46.37	31.44	4.25	2.00	28.73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46	41.77	35.44	3.80	2.53	
	고용주·자영자	17.76	47.48	28.59	5.04	1.13	
	무급가족종사자	12.31	41.54	36.92	9.23	0.0	
	실업자	17.54	42.98	34.21	5.26	0.0	
	비경제활동인구	14.60	47.33	33.27	3.90	0.91	
직업	관리자·전문가	16.42	45.90	34.70	1.49	1.49	18.0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51	44.10	31.50	5.11	1.79	
	숙련 및 기술직	14.43	51.22	29.07	3.86	1.42	
	단순노무종사자	14.13	46.20	30.98	5.98	2.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10	46.09	31.63	4.34	1.83	2.913
	비정규직	16.04	43.60	34.05	3.60	2.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07	44.98	31.80	3.80	2.34	15.909*
	중도적	14.92	47.20	32.23	4.79	0.85	
	진보적	17.19	45.44	31.51	4.17	1.69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4〉 갈등 인식: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33.65	45.92	17.56	1.36	1.50	
성별	남성	35.92	44.07	17.58	1.40	1.02	14.717**
	여성	31.31	47.74	17.59	1.32	2.04	
연령	20대 이하	31.48	45.37	20.37	0.79	1.98	57.545***
	30대	38.37	41.94	16.55	1.85	1.28	
	40대	36.03	46.92	13.97	1.54	1.54	
	50대	36.26	46.47	14.66	1.57	1.05	
	60대 이상	25.22	48.66	22.99	1.19	1.94	
지역	수도권	34.16	45.19	17.21	1.56	1.88	4.892
	비수도권	33.09	46.63	17.90	1.22	1.16	
	대도시	36.24	43.44	17.60	1.39	1.33	23.609**
	중소도시	32.46	47.03	17.14	1.54	1.83	
	농어촌	25.09	53.56	20.60	0.37	0.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85	47.12	19.19	1.07	2.77	23.642*
	중하층	34.80	46.15	16.70	0.73	1.61	
	중간층	33.76	44.93	18.32	1.95	1.04	
	중상층(상층)	33.33	48.99	13.64	2.02	2.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57	47.81	22.54	1.36	2.72	52.895***
	200만 원대	30.99	49.32	17.12	0.68	1.88	
	300만 원대	34.83	47.23	15.96	0.92	1.06	
	400만 원대	37.82	42.08	17.38	1.70	1.02	
	500만 원 이상	36.99	43.87	16.08	1.86	1.21	
학력	중졸 이하	24.21	49.25	21.72	1.33	3.48	62.227***
	고졸	32.70	45.91	18.62	1.45	1.32	
	대졸 이상	38.48	44.51	14.77	1.36	0.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36	45.04	16.85	2.34	1.42	58.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98	43.91	21.07	0.25	2.79	
	고용주·자영자	37.11	45.79	14.59	1.64	0.88	
	무급가족종사자	33.33	37.88	25.76	1.52	1.52	
	실업자	44.74	34.21	17.54	0.0	3.51	
	비경제활동인구	29.85	49.36	18.78	0.64	1.36	
직업	관리자·전문가	43.28	44.03	10.82	0.0	1.87	33.0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5.23	44.64	16.69	2.12	1.32	
	숙련 및 기술직	32.05	46.86	17.65	1.83	1.62	
	단순노무종사자	26.78	43.17	26.23	1.64	2.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5.10	44.94	16.30	2.31	1.35	13.073*
	비정규직	31.29	44.42	20.68	0.90	2.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50	44.63	18.85	1.46	1.56	8.681
	중도적	32.62	46.38	18.07	1.33	1.60	
	진보적	36.38	46.54	14.60	1.30	1.17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5〉 갈등 인식: 지역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17.23	41.40	32.19	6.95	2.23	
성별	남성	17.69	42.39	32.04	6.58	1.29	16.962**
	여성	16.75	40.39	32.34	7.33	3.20	
연령	20대 이하	17.62	38.01	34.04	6.75	3.58	37.634**
	30대	19.71	39.71	31.00	7.00	2.57	
	40대	16.92	44.23	30.13	6.15	2.56	
	50대	17.67	44.37	31.02	6.15	0.79	
	60대 이상	14.05	40.21	34.98	9.12	1.64	
지역	수도권	18.72	41.96	29.80	6.35	3.17	28.671***
	비수도권	15.69	40.83	34.64	7.57	1.27	
	대도시	16.89	41.40	33.17	7.08	1.45	19.186*
	중소도시	17.89	41.20	30.74	6.97	3.20	
	농어촌	14.66	42.86	35.71	6.02	0.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09	39.15	33.19	7.45	2.13	9.426
	중하층	17.58	40.59	32.45	6.81	2.56	
	중간층	17.05	42.11	31.42	7.40	2.02	
	중상층(상층)	14.07	46.23	34.17	3.52	2.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56	39.27	36.25	7.10	1.81	14.485
	200만 원대	16.44	40.92	32.19	8.22	2.23	
	300만 원대	17.70	43.86	29.33	6.87	2.25	
	400만 원대	18.74	41.23	31.01	7.16	1.87	
	500만 원 이상	17.63	41.09	32.37	6.12	2.78	
학력	중졸 이하	12.79	41.53	36.21	7.97	1.50	18.325*
	고졸	17.10	41.36	31.74	7.29	2.51	
	대졸 이상	19.16	41.37	31.08	6.16	2.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10	40.87	32.19	7.42	1.42	42.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76	35.70	35.95	6.33	1.27	
	고용주·자영자	16.25	46.22	29.47	6.05	2.02	
	무급가족종사자	12.31	44.62	33.85	9.23	0.0	
	실업자	17.70	37.17	29.20	9.73	6.19	
	비경제활동인구	15.97	40.83	32.94	6.90	3.36	
직업	관리자·전문가	19.48	44.19	29.96	4.87	1.50	24.10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8.44	43.10	30.37	6.43	1.66	
	숙련 및 기술직	14.57	40.49	35.83	7.49	1.62	
	단순노무종사자	17.93	32.07	38.04	11.41	0.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17	42.20	30.83	6.45	1.35	12.268*
	비정규직	17.84	34.77	37.48	8.47	1.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23	40.55	31.77	7.70	1.75	12.662
	중도적	16.09	41.61	33.78	6.13	2.40	
	진보적	18.67	42.04	28.85	7.96	2.48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6〉 갈등 인식: 다문화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8.29	40.87	40.05	6.90	3.90	
성별	남성	7.66	40.99	40.67	7.17	3.51	4.028
	여성	8.93	40.72	39.45	6.61	4.30	
연령	20대 이하	11.92	39.47	38.54	5.70	4.37	60.739***
	30대	10.87	39.20	39.34	8.30	2.29	
	40대	8.33	42.82	37.44	7.18	4.23	
	50대	6.15	41.36	43.59	5.76	3.14	
	60대 이상	3.89	41.26	41.41	7.92	5.53	
지역	수도권	8.61	42.60	37.39	5.59	5.81	54.641***
	비수도권	7.96	39.06	42.82	8.23	1.93	
	대도시	9.32	44.55	37.77	5.99	2.36	59.441***
	중소도시	7.89	36.74	41.94	7.66	5.77	
	농어촌	4.51	45.11	42.11	7.14	1.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17	37.53	40.09	7.68	5.54	12.62
	중하층	8.86	40.73	39.41	7.03	3.96	
	중간층	7.88	41.70	40.54	6.72	3.17	
	중상층(상층)	5.56	42.42	40.40	6.06	5.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5	42.73	41.67	6.52	4.24	42.926***
	200만 원대	9.23	37.44	38.80	8.38	6.15	
	300만 원대	9.37	37.99	41.69	6.60	4.35	
	400만 원대	8.02	44.20	37.54	8.53	1.71	
	500만 원 이상	9.19	41.69	40.11	5.66	3.34	
학력	중졸 이하	5.31	40.96	41.29	7.96	4.48	40.255***
	고졸	7.23	38.72	42.61	6.60	4.84	
	대졸 이상	10.64	43.16	36.79	6.78	2.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2	41.95	38.53	6.51	3.09	40.9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15	39.59	39.34	7.87	3.05	
	고용주·자영자	6.29	40.63	42.89	7.17	3.02	
	무급가족종사자	6.15	29.23	52.31	6.15	6.15	
	실업자	11.40	29.82	46.49	7.89	4.39	
	비경제활동인구	6.90	42.29	38.48	6.81	5.54	
직업	관리자·전문가	13.11	40.45	37.08	4.12	5.24	27.82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21	41.66	39.67	6.62	2.85	
	숙련 및 기술직	6.10	40.04	42.89	8.13	2.85	
	단순노무종사자	5.46	35.52	45.36	9.84	3.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12	41.62	38.73	6.55	2.99	0.575
	비정규직	9.73	40.72	38.92	7.39	3.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22	39.80	41.46	6.54	4.98	10.667
	중도적	8.31	41.18	40.33	6.87	3.30	
	진보적	9.66	41.51	37.47	7.44	3.92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7〉 갈등 인식: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이 대체로 심함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음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전체		10.93	46.99	33.82	3.49	4.77	
성별	남성	11.16	47.71	33.21	3.99	3.94	9.156
	여성	10.69	46.28	34.44	2.98	5.62	
연령	20대 이하	10.73	45.56	34.83	2.52	6.36	60.95***
	30대	14.74	45.35	31.47	4.86	3.58	
	40대	12.68	47.89	30.86	3.07	5.51	
	50대	10.46	47.84	35.82	2.09	3.79	
	60대 이상	5.68	48.28	36.17	5.38	4.48	
지역	수도권	11.45	46.88	31.24	3.17	7.26	58.763***
	비수도권	10.34	47.10	36.48	3.87	2.21	
	대도시	11.38	51.03	32.99	2.24	2.36	88.645***
	중소도시	10.92	41.85	35.05	4.80	7.38	
	농어촌	8.21	55.60	30.97	2.99	2.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18	43.59	34.62	3.63	5.98	21.694*
	중하층	12.23	46.74	31.65	4.10	5.27	
	중간층	9.89	48.35	34.68	3.17	3.91	
	중상층(상층)	7.07	45.45	39.90	2.02	5.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19	47.73	37.46	3.78	4.83	37.338**
	200만 원대	10.27	47.43	31.34	4.28	6.68	
	300만 원대	13.08	45.05	33.16	3.57	5.15	
	400만 원대	10.92	49.49	33.62	3.24	2.73	
	500만 원 이상	12.63	46.24	33.61	2.97	4.55	
학력	중졸 이하	5.97	46.93	38.14	4.31	4.64	56.521***
	고졸	10.19	44.09	36.54	3.33	5.85	
	대졸 이상	13.74	50.10	29.11	3.39	3.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69	48.75	31.30	3.17	4.09	58.75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16	40.00	35.95	4.56	6.33	
	고용주·자영자	9.70	48.61	35.77	3.02	2.90	
	무급가족종사자	12.12	37.88	42.42	6.06	1.52	
	실업자	16.67	34.21	35.96	7.89	5.26	
	비경제활동인구	8.52	48.23	33.64	3.17	6.44	
직업	관리자·전문가	15.67	47.01	27.99	1.12	8.21	44.72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13	46.52	34.46	3.51	3.38	
	숙련 및 기술직	9.74	52.13	31.44	3.25	3.45	
	단순노무종사자	8.74	37.16	42.62	6.56	4.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5	49.04	31.98	2.99	4.05	11.457*
	비정규직	14.36	41.83	33.21	4.67	5.9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94	45.51	35.55	3.71	4.30	10.376
	중도적	10.02	47.79	33.94	3.57	4.69	
	진보적	13.15	47.01	31.25	2.99	5.60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8〉 사회통합 저해 갈등 1순위

(단위: %)

구분		빈부	노사	주택 소유	비정규직	세대	이념	지역	다문화	개발	없음	χ^2
전체		31.0	15.5	3.4	16.7	4.5	19.9	5.1	1.7	2.1	0.2	
성별	남성	29.7	16.1	3.5	17.2	4.5	20.1	5.2	1.4	2.3	0.1	7.757
	여성	32.2	14.9	3.4	16.2	4.4	19.7	5.1	1.9	1.9	0.3	
연령	20대 이하	27.1	18.3	3.8	20.6	4.0	17.6	3.3	2.2	3.0	0.0	76.913***
	30대	31.2	17.7	4.4	15.6	4.3	19.0	4.6	1.3	1.6	0.3	
	40대	35.3	14.1	2.8	15.5	2.8	20.1	5.6	1.5	2.2	0.0	
	50대	30.1	13.7	2.6	15.8	4.6	23.2	6.3	1.3	1.8	0.5	
	60대 이상	31.1	13.7	3.4	15.6	6.9	19.2	6.1	1.9	1.8	0.1	
지역	수도권	31.6	16.2	3.8	15.0	3.6	20.7	4.9	1.7	2.2	0.2	17.879*
	비수도권	30.3	14.8	3.0	18.4	5.4	19.0	5.4	1.6	2.0	0.2	
	대도시	30.5	16.5	3.5	17.6	4.2	19.3	4.5	1.6	2.2	0.1	26.454
	중소도시	31.4	14.9	3.6	15.8	4.7	20.5	5.4	1.4	2.0	0.3	
	농어촌	31.0	13.1	1.1	17.2	4.5	19.4	7.8	3.7	1.9	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3	13.4	2.8	17.1	3.0	14.5	5.3	1.9	1.7	0.0	93.848***
	중하층	32.6	15.5	3.0	15.9	4.2	20.2	4.8	1.5	2.1	0.1	
	중간층	27.6	16.7	3.8	17.4	5.1	20.4	5.1	1.6	2.3	0.1	
	중상층(상층)	25.4	10.2	4.6	15.2	5.1	26.4	8.1	2.5	0.5	2.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0	16.2	3.9	16.7	5.5	14.7	7.0	1.8	1.1	0.2	56.226*
	200만 원대	30.8	14.6	2.1	18.0	4.3	20.5	6.0	1.9	1.9	0.0	
	300만 원대	32.2	15.7	3.4	15.3	4.0	20.6	4.2	1.5	3.0	0.0	
	400만 원대	31.2	16.9	3.6	17.5	5.1	19.1	3.2	1.4	2.0	0.0	
	500만 원 이상	28.9	14.7	3.6	16.5	3.9	22.6	5.3	1.8	2.2	0.6	
학력	중졸 이하	33.4	14.1	3.0	14.8	7.8	17.8	5.8	1.7	1.5	0.2	43.763**
	고졸	31.6	15.9	2.9	17.3	4.3	18.9	5.3	2.0	1.9	0.1	
	대졸 이상	29.3	15.7	4.1	16.8	3.3	21.8	4.7	1.3	2.6	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9	17.6	2.7	17.1	4.0	18.7	4.7	1.8	3.0	0.5	78.91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3.3	14.5	2.0	17.8	4.8	16.3	6.4	3.3	1.5	0.0	
	고용주·자영자	32.1	13.6	3.0	15.1	5.0	22.9	5.9	0.9	1.5	0.0	
	무급가족종사자	40.0	6.2	1.5	7.7	6.2	24.6	6.2	3.1	4.6	0.0	
	실업자	35.7	17.0	6.3	13.4	3.6	20.5	1.8	0.9	0.9	0.0	
	비경제활동인구	29.6	15.3	4.7	17.8	4.4	20.0	5.0	1.5	1.7	0.1	
직업	관리자·전문가	34.1	11.2	0.7	11.2	5.2	23.6	8.2	1.9	3.4	0.4	58.49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1.1	16.5	3.2	17.4	3.3	19.5	5.1	1.4	2.1	0.3	
	숙련 및 기술직	30.2	13.8	2.2	16.0	7.7	21.5	3.8	2.4	2.4	0.0	
	단순노무종사자	32.8	18.6	2.2	15.8	4.9	13.1	7.7	3.3	1.6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5	18.3	2.9	15.7	3.9	19.2	5.0	2.1	2.8	0.6	17.683*
	비정규직	33.0	14.2	1.8	20.3	4.8	15.9	5.4	2.3	2.3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3	16.5	3.8	15.0	5.1	20.4	4.5	2.2	2.0	0.2	22.791
	중도적	31.5	15.9	3.3	17.2	4.1	18.4	5.4	1.5	2.5	0.3	
	진보적	30.5	13.3	3.1	17.7	4.6	22.7	5.3	1.4	1.3	0.0	

주: 1) "___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 갈등 유형 중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9〉 사회통합 저해 갈등 2순위

(단위: %)

구분		빈부	노사	주택 소유	비정 규직	세대	이념	지역	다문 화	개발	없음	χ^2
전체		14.2	19.8	5.4	18.6	7.3	17.4	10.2	2.6	4.2	0.4	
성별	남성	12.6	19.8	6.4	18.6	6.2	18.9	11.1	2.2	4.0	0.3	31.423***
	여성	15.8	19.8	4.3	18.5	8.3	15.9	9.4	3.1	4.4	0.5	
연령	20대 이하	14.9	21.4	5.6	18.0	6.6	15.9	8.9	4.0	4.6	0.1	70.391**
	30대	13.9	20.4	6.7	17.3	5.1	17.0	11.7	3.0	4.6	0.3	
	40대	14.8	21.3	4.1	19.1	6.0	19.4	9.9	2.1	3.3	0.0	
	50대	13.7	18.3	5.8	20.9	6.9	16.6	11.1	2.2	3.5	0.8	
	60대 이상	13.5	17.5	4.8	17.3	12.0	18.1	9.4	1.8	5.1	0.6	
지역	수도권	15.1	18.5	5.5	17.4	7.3	18.3	11.6	2.9	3.1	0.4	30.408***
	비수도권	13.2	21.3	5.3	19.8	7.2	16.5	8.7	2.4	5.3	0.3	
	대도시	14.8	21.4	5.1	19.6	6.7	18.3	7.6	2.6	3.9	0.1	49.950***
	중소도시	14.3	18.2	5.8	18.0	8.0	16.5	11.9	2.7	4.0	0.6	
	농어촌	9.3	21.3	4.1	16.0	6.3	17.9	15.3	2.6	6.7	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8	19.8	8.9	16.6	10.2	16.4	7.9	1.3	5.1	0.0	74.100***
	중하층	14.4	20.1	4.9	18.2	7.5	17.4	9.8	3.3	3.8	0.4	
	중간층	13.9	19.2	5.1	19.0	6.0	17.9	11.7	2.6	4.3	0.2	
	중상층(상층)	15.2	22.7	2.5	21.7	8.6	15.7	6.6	1.5	3.0	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6	19.4	4.4	18.5	12.1	16.0	8.8	1.7	5.1	0.5	85.891***
	200만 원대	13.4	19.0	6.2	20.4	7.4	18.7	9.2	2.2	2.9	0.7	
	300만 원대	14.1	19.4	8.6	17.3	5.9	17.1	10.7	3.4	3.6	0.0	
	400만 원대	14.7	20.3	3.8	15.5	6.7	19.8	10.6	3.9	4.8	0.0	
	500만 원 이상	14.6	20.6	4.2	20.2	5.6	16.5	11.1	2.2	4.4	0.6	
학력	중졸 이하	13.1	19.1	5.8	17.2	11.6	16.4	10.0	2.5	4.1	0.2	35.826**
	고졸	12.8	20.8	5.7	19.3	7.1	16.5	10.3	2.5	4.5	0.4	
	대졸 이상	16.1	19.0	4.8	18.4	5.6	18.7	10.3	2.8	3.9	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3	19.3	5.2	18.0	6.7	18.3	10.8	3.1	3.6	0.8	63.1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2	21.1	8.1	17.6	9.7	13.2	8.9	3.3	4.8	0.0	
	고용주·자영자	15.2	19.4	4.9	18.8	5.0	19.4	11.2	2.3	3.7	0.1	
	무급가족종사자	13.6	24.2	6.1	16.7	12.1	10.6	9.1	3.0	4.5	0.0	
	실업자	11.5	23.0	8.8	16.8	3.5	19.5	7.1	0.9	8.8	0.0	
	비경제활동인구	13.9	19.5	4.6	19.7	8.8	16.7	9.6	2.4	4.4	0.4	
직업	관리자·전문가	14.6	20.2	5.2	19.1	4.1	21.3	9.7	2.6	2.6	0.4	30.81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2	20.2	5.5	17.0	6.4	17.2	11.2	3.0	3.8	0.5	
	숙련 및 기술직	12.2	19.9	5.1	19.3	7.9	17.3	10.0	2.6	5.5	0.2	
	단순노무종사자	13.6	15.2	8.2	23.4	9.8	16.8	8.7	2.7	1.6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0	19.2	5.2	18.2	6.5	18.1	11.8	3.4	3.0	0.6	20.938*
	비정규직	14.1	20.9	7.0	17.3	9.2	15.0	7.7	2.7	5.6	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1	17.9	4.5	18.0	10.5	16.8	11.3	2.1	4.5	0.4	48.030***
	중도적	14.5	20.7	5.5	19.7	6.1	18.0	8.8	2.6	3.6	0.5	
	진보적	13.3	20.4	6.3	16.6	5.6	16.8	12.1	3.7	5.1	0.1	

주: 1) "___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 갈등 유형 중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순위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0〉 10년 후 갈등 인식 I : 가난한 사람 vs. 부유한 사람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8.83	44.68	31.88	3.68	0.94	
성별	남성	19.16	44.28	31.92	4.04	0.60	6.276
	여성	18.49	45.08	31.84	3.31	1.29	
연령	20대 이하	20.32	41.18	34.23	3.81	0.47	65.085***
	30대	26.11	39.66	30.54	2.54	1.15	
	40대	19.75	45.80	29.70	3.96	0.79	
	50대	16.24	47.46	31.76	3.39	1.14	
	60대 이상	11.42	49.37	33.30	4.71	1.20	
지역	수도권	22.47	43.90	27.71	4.51	1.40	63.275***
	비수도권	15.08	45.47	36.16	2.82	0.47	
지역	대도시	18.97	45.17	31.17	3.96	0.73	26.107***
	중소도시	19.38	45.43	30.62	3.34	1.23	
	농어촌	14.39	36.62	44.53	4.10	0.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34	45.88	28.29	4.06	1.43	15.563
	중하층	20.11	44.24	31.59	3.12	0.93	
	중간층	17.15	45.55	32.52	3.88	0.89	
	중상층(상층)	20.30	37.53	37.04	4.89	0.2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89	47.15	33.15	3.53	2.28	37.419***
	200만 원대	19.95	44.14	30.57	3.86	1.47	
	300만 원대	19.77	42.73	33.54	3.53	0.44	
	400만 원대	20.10	45.73	30.93	2.68	0.56	
	500만 원 이상	19.78	44.29	31.23	4.32	0.39	
학력	중졸 이하	11.22	49.14	33.88	4.19	1.57	40.255***
	고졸	18.30	44.17	33.05	3.54	0.94	
	대졸 이상	22.50	43.40	29.80	3.62	0.6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51	45.12	30.60	3.07	0.69	57.03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21	40.33	31.93	3.30	1.23	
	고용주·자영자	17.83	47.02	31.30	3.25	0.60	
	무급가족종사자	14.24	34.68	47.87	3.21	-	
	실업자	13.05	40.51	36.04	4.75	5.65	
	비경제활동인구	17.02	45.08	32.29	4.69	0.92	
직업	관리자·전문가	26.33	43.76	24.99	3.83	1.09	25.85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9.98	45.15	31.13	3.02	0.72	
	숙련 및 기술직	15.05	44.34	37.45	2.64	0.52	
	단순노무종사자	23.06	43.15	28.03	4.85	0.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23	45.01	30.00	3.39	0.36	9.942**
	비정규직	21.08	41.93	32.65	2.65	1.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47	43.28	33.41	4.12	0.73	16.889**
	중도적	17.19	46.04	32.03	3.67	1.08	
	진보적	23.33	43.21	29.46	3.11	0.90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1〉 10년 후 갈등 인식 II: 경영자 vs. 노동자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4.59	40.62	38.55	5.14	1.11	
성별	남성	13.86	41.15	39.56	4.81	0.61	11.685**
	여성	15.34	40.06	37.51	5.47	1.61	
연령	20대 이하	15.53	39.72	38.90	5.11	0.74	35.564***
	30대	18.27	38.08	39.07	3.46	1.13	
	40대	15.39	41.00	38.39	4.24	0.98	
	50대	13.41	41.87	37.08	6.76	0.88	
	60대 이상	10.11	42.40	39.46	6.10	1.92	
지역	수도권	14.70	41.35	35.43	6.93	1.59	41.607***
	비수도권	14.48	39.86	41.75	3.29	0.61	
지역	대도시	15.62	42.46	35.45	5.83	0.63	44.515***
	중소도시	14.44	40.04	39.25	4.57	1.69	
	농어촌	9.19	32.94	53.12	4.54	0.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79	40.21	35.21	5.15	2.64	37.311***
	중하층	16.30	38.27	39.42	4.65	1.36	
	중간층	12.73	41.53	39.56	5.60	0.57	
	중상층(상층)	12.98	50.15	32.07	4.63	0.1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93	40.28	41.02	3.43	3.35	63.38***
	200만 원대	16.85	37.46	39.54	4.58	1.57	
	300만 원대	15.22	39.74	39.25	5.12	0.66	
	400만 원대	13.96	44.72	35.53	5.36	0.43	
	500만 원 이상	14.77	40.95	37.73	6.39	0.17	
학력	중졸 이하	11.85	39.69	41.87	4.01	2.59	22.258***
	고졸	14.82	40.78	38.12	5.42	0.87	
	대졸 이상	15.47	40.82	37.66	5.30	0.7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84	41.81	36.98	5.68	0.69	67.0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96	37.38	39.47	2.89	1.30	
	고용주·자영자	12.50	43.60	38.58	4.89	0.42	
	무급가족종사자	9.12	31.48	57.44	1.97	-	
	실업자	7.82	31.40	46.68	8.45	5.65	
	비경제활동인구	15.29	39.82	37.93	5.38	1.58	
직업	관리자·전문가	18.12	42.03	32.83	6.35	0.68	21.08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4.84	42.00	37.63	4.92	0.61	
	숙련 및 기술직	10.85	39.34	45.24	3.91	0.66	
	단순노무종사자	17.48	41.11	35.13	4.95	1.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23	42.46	36.94	5.96	0.40	20.042***
	비정규직	18.89	37.45	38.83	3.17	1.6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46	40.15	39.06	5.38	0.96	9.892
	중도적	13.42	41.03	39.44	5.04	1.08	
	진보적	17.64	40.23	35.67	5.07	1.39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2〉 10년 후 갈등 인식Ⅲ: 주택 소유자 vs. 주택 비소유자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9.15	29.82	48.16	11.27	1.59	
성별	남성	9.50	28.58	48.60	12.23	1.09	11.604**
	여성	8.80	31.08	47.72	10.29	2.10	
연령	20대 이하	12.18	27.54	48.16	10.53	1.59	43.886***
	30대	11.95	29.68	46.88	9.57	1.92	
	40대	8.13	31.69	47.70	10.88	1.61	
	50대	8.94	29.29	47.54	13.24	0.98	
	60대 이상	4.26	30.95	50.76	12.12	1.91	
지역	수도권	10.95	28.49	46.37	11.89	2.31	31.433***
	비수도권	7.31	31.18	50.01	10.65	0.85	
지역	대도시	9.56	30.08	48.31	10.71	1.35	19.925**
	중소도시	9.29	30.29	47.20	11.16	2.06	
	농어촌	5.76	25.11	53.60	15.53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4	26.89	46.37	11.01	2.69	21.997**
	중하층	9.50	29.88	46.81	12.05	1.76	
	중간층	7.83	30.26	49.90	10.80	1.21	
	중상층(상층)	8.48	32.63	47.39	10.52	0.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34	29.23	49.39	9.55	2.50	18.826
	200만 원대	7.77	31.89	46.14	11.52	2.69	
	300만 원대	9.41	30.06	47.57	11.71	1.25	
	400만 원대	9.33	28.78	49.58	10.98	1.33	
	500만 원 이상	9.37	29.47	48.27	12.08	0.82	
학력	중졸 이하	5.92	27.87	51.28	12.35	2.59	19.144**
	고졸	8.97	30.64	48.13	10.77	1.48	
	대졸 이상	10.67	29.73	46.93	11.38	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52	30.18	46.30	11.93	1.08	43.69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84	29.23	47.70	9.06	2.17	
	고용주·자영자	7.58	31.60	48.86	11.06	0.90	
	무급가족종사자	3.91	24.37	59.37	12.35	-	
	실업자	7.58	19.02	57.38	10.41	5.61	
	비경제활동인구	8.32	29.79	48.24	11.54	2.11	
직업	관리자·전문가	12.35	29.42	44.14	12.23	1.86	24.96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02	31.45	47.45	9.89	1.19	
	숙련 및 기술직	6.58	26.64	51.28	14.98	0.52	
	단순노무종사자	10.30	32.38	45.33	10.25	1.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4	30.72	46.17	12.36	0.81	12.835**
	비정규직	12.52	28.50	47.53	9.09	2.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90	28.10	51.27	10.56	1.16	20.603***
	중도적	8.50	30.05	49.01	10.74	1.69	
	진보적	11.09	31.54	41.93	13.53	1.91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3〉 10년 후 갈등 인식Ⅳ: 정규직 vs. 비정규직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6.60	40.98	34.79	6.30	1.33	
성별	남성	16.70	41.26	34.75	6.26	1.02	2.866
	여성	16.49	40.69	34.82	6.34	1.65	
연령	20대 이하	17.83	39.13	34.54	6.66	1.85	49.539***
	30대	20.85	36.92	36.40	4.63	1.20	
	40대	17.52	43.46	30.79	6.47	1.76	
	50대	16.48	40.52	35.67	6.75	0.59	
	60대 이상	9.83	44.95	37.04	6.94	1.24	
지역	수도권	17.33	40.48	31.92	8.34	1.93	45.43***
	비수도권	15.85	41.50	37.74	4.21	0.71	
	대도시	17.47	41.46	34.94	5.26	0.86	38.286***
	중소도시	17.09	40.69	33.27	6.98	1.98	
	농어촌	7.93	39.97	43.77	8.32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32	40.45	32.51	4.89	2.83	20.669*
	중하층	17.11	39.98	35.66	5.81	1.44	
	중간층	15.51	42.17	34.41	7.05	0.85	
	중상층(상층)	15.60	39.32	37.27	6.83	0.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43	43.51	35.61	4.29	2.17	29.019**
	200만 원대	17.66	38.17	37.66	4.81	1.70	
	300만 원대	15.34	42.31	33.09	8.23	1.04	
	400만 원대	16.58	41.52	35.35	5.65	0.90	
	500만 원 이상	18.11	39.76	33.70ㄴ	7.36	1.06	
학력	중졸 이하	9.96	43.61	38.32	6.14	1.98	28.505***
	고졸	16.88	40.52	35.10	6.39	1.10	
	대졸 이상	18.99	40.41	33.01	6.28	1.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71	41.49	33.14	6.81	0.85	38.1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99	38.56	35.19	5.17	2.10	
	고용주·자영자	14.31	44.45	34.62	5.79	0.83	
	무급가족종사자	10.59	28.46	50.36	10.59	-	
	실업자	15.31	34.27	39.06	7.03	4.33	
	비경제활동인구	16.67	40.23	35.19	6.20	1.71	
직업	관리자·전문가	22.01	37.47	31.25	8.00	1.26	26.74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41	42.85	33.43	6.35	0.96	
	숙련 및 기술직	13.94	38.98	41.51	4.91	0.66	
	단순노무종사자	17.74	44.77	28.01	7.32	2.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48	42.24	32.69	6.81	0.79	7.165
	비정규직	19.06	38.01	35.44	5.64	1.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88	42.80	34.38	7.01	0.93	25.315***
	중도적	15.78	41.28	35.98	5.84	1.13	
	진보적	20.90	37.82	32.42	6.50	2.36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4〉 10년 후 갈등 인식Ⅴ: 고령자 vs. 젊은이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4.54	35.44	41.17	7.62	1.24	
성별	남성	15.28	35.56	39.90	8.27	0.99	6.869
	여성	13.78	35.31	42.46	6.95	1.50	
연령	20대 이하	16.44	30.69	41.96	8.88	2.03	41.143***
	30대	17.20	33.60	40.96	6.64	1.59	
	40대	15.19	35.28	39.90	8.43	1.20	
	50대	13.75	38.03	41.21	6.62	0.38	
	60대 이상	9.76	39.93	41.90	7.39	1.01	
지역	수도권	15.57	37.27	37.30	7.98	1.87	32.731***
	비수도권	13.49	33.55	45.14	7.24	0.59	
지역	대도시	13.09	36.39	41.61	7.96	0.96	46.506***
	중소도시	16.95	35.37	38.46	7.53	1.69	
	농어촌	7.77	30.00	56.16	6.07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31	31.98	41.79	7.57	2.35	18.881*
	중하층	15.87	36.31	39.98	6.72	1.12	
	중간층	13.24	35.3	41.78	8.63	1.06	
	중상층(상층)	11.97	38.69	42.82	5.53	0.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21	36.03	43.27	5.97	1.52	18.594
	200만 원대	16.10	32.69	42.58	6.93	1.71	
	300만 원대	12.94	38.43	40.67	7.13	0.83	
	400만 원대	14.47	36.50	39.90	7.93	1.19	
	500만 원 이상	15.54	33.89	40.24	9.19	1.13	
학력	중졸 이하	11.37	40.38	40.36	6.45	1.45	20.363***
	고졸	14.29	35.44	41.48	7.2	1.6	
	대졸 이상	16.11	33.42	41.16	8.54	0.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11	34.76	39.79	8.10	1.25	33.01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56	37.58	38.36	5.61	1.90	
	고용주·자영자	13.84	37.32	40.94	7.56	0.34	
	무급가족종사자	8.08	30.18	48.84	9.48	3.43	
	실업자	9.94	26.61	53.60	7.16	2.68	
	비경제활동인구	13.48	35.28	42.09	7.78	1.37	
직업	관리자·전문가	16.93	35.76	37.36	9.27	0.68	12.63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34	35.35	40.38	7.82	1.12	
	숙련 및 기술직	13.54	36.06	43.26	6.31	0.83	
	단순노무종사자	16.42	40.40	34.32	6.34	2.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50	35.42	40.34	7.79	0.95	6.342
	비정규직	17.57	35.52	37.74	6.91	2.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35	37.62	40.04	6.99	1.01	17.258**
	중도적	13.45	35.74	42.19	7.56	1.07	
	진보적	17.47	31.78	40.16	8.60	1.99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5〉 10년 후 갈등 인식 VI: 진보 vs. 보수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5.31	38.65	37.59	6.44	2.01	
성별	남성	14.60	39.82	37.45	6.67	1.46	8.4384*
	여성	16.03	37.47	37.73	6.20	2.56	
연령	20대 이하	15.28	37.40	38.69	6.57	2.06	28.884**
	30대	19.65	35.19	36.65	6.48	2.04	
	40대	15.34	41.44	34.52	6.83	1.87	
	50대	15.13	39.59	37.31	6.45	1.52	
	60대 이상	10.97	39.37	41.24	5.78	2.64	
지역	수도권	18.01	34.53	35.95	8.32	3.19	84.032***
	비수도권	12.53	42.89	39.28	4.51	0.80	
	대도시	14.49	41.79	35.84	6.24	1.63	37.423***
	중소도시	17.14	36.18	37.50	6.62	2.55	
	농어촌	8.34	35.42	49.01	6.49	0.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60	33.14	41.05	5.92	4.29	25.895**
	중하층	16.29	38.65	37.30	6.07	1.69	
	중간층	14.15	40.67	36.79	6.77	1.63	
	중상층(상층)	17.40	35.13	38.05	7.49	1.9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61	37.30	41.56	5.12	3.41	52.818***
	200만 원대	15.37	36.43	40.58	5.07	2.55	
	300만 원대	15.78	39.35	37.92	5.96	1.00	
	400만 원대	16.56	41.45	34.40	4.66	2.93	
	500만 원 이상	15.79	38.71	35.13	9.32	1.06	
학력	중졸 이하	10.62	39.74	40.23	5.72	3.70	37.454***
	고졸	15.95	35.68	40.02	6.52	1.82	
	대졸 이상	16.53	41.42	33.90	6.64	1.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23	39.77	36.45	6.47	2.09	50.87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55	37.51	36.98	6.79	3.17	
	고용주·자영자	16.55	43.22	33.73	5.54	0.97	
	무급가족종사자	13.33	30.76	41.71	10.78	3.43	
	실업자	15.07	30.68	39.03	7.37	7.84	
	비경제활동인구	14.56	35.85	41.44	6.58	1.57	
직업	관리자·전문가	17.98	39.75	32.56	7.72	1.99	24.23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17	40.75	35.36	6.07	1.64	
	숙련 및 기술직	12.98	40.49	39.93	4.93	1.66	
	단순노무종사자	15.18	36.67	32.98	10.19	4.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14	40.97	35.36	6.85	1.69	9.662**
	비정규직	15.63	35.93	38.87	5.98	3.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85	40.90	36.46	6.81	1.98	16.035**
	중도적	14.63	37.87	39.42	5.95	2.13	
	진보적	18.90	37.57	34.64	7.14	1.74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6〉 10년 후 갈등 인식 Ⅶ: 지역(수도권 vs 지방, 영남 vs. 호남)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7.13	27.63	44.76	18.65	1.84	
성별	남성	7.13	27.59	45.01	18.94	1.33	5.612
	여성	7.13	27.66	44.49	18.35	2.37	
연령	20대 이하	8.08	26.16	44.46	18.08	3.22	41.579***
	30대	9.73	23.76	46.85	17.62	2.04	
	40대	6.77	29.07	43.69	18.73	1.74	
	50대	6.98	29.41	42.47	20.35	0.80	
	60대 이상	3.93	29.61	46.76	18.32	1.38	
지역	수도권	7.95	26.86	41.43	21.03	2.72	41.097***
	비수도권	6.29	28.41	48.17	16.20	0.94	
	대도시	5.51	26.48	47.25	19.32	1.45	41.726***
	중소도시	9.20	29.15	41.15	18.14	2.35	
	농어촌	3.59	24.73	52.98	17.79	0.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24	25.93	46.70	16.02	2.11	19.02*
	중하층	7.29	26.60	44.64	19.71	1.76	
	중간층	6.76	28.21	45.24	17.93	1.87	
	중상층(상층)	4.07	33.94	36.97	23.50	1.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26	30.51	48.22	12.78	2.23	35.663***
	200만 원대	6.26	27.91	43.25	19.83	2.76	
	300만 원대	6.78	27.01	46.35	19.22	0.64	
	400만 원대	8.13	25.71	44.51	19.24	2.41	
	500만 원 이상	7.69	27.19	42.56	20.92	1.65	
학력	중졸 이하	5.39	29.98	45.17	18.01	1.44	10.187
	고졸	7.58	26.01	45.29	18.79	2.33	
	대졸 이상	7.35	28.41	44.01	18.75	1.4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8	28.27	42.36	19.13	1.87	37.52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50	27.21	46.29	17.36	1.64	
	고용주·자영자	6.95	30.26	44.58	17.64	0.57	
	무급가족종사자	6.48	15.45	55.84	18.80	3.43	
	실업자	5.70	20.38	48.54	19.63	5.75	
	비경제활동인구	5.96	26.65	45.89	19.20	2.30	
직업	관리자·전문가	10.32	25.58	40.50	22.93	0.68	22.86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68	29.70	44.52	16.33	1.77	
	숙련 및 기술직	6.48	25.71	46.64	20.47	0.71	
	단순노무종사자	7.61	29.03	38.72	22.61	2.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36	29.04	42.47	18.70	1.43	4.154
	비정규직	7.79	26.09	44.94	18.67	2.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52	29.46	42.91	19.98	1.12	27.493***
	중도적	7.20	27.44	47.17	16.31	1.88	
	진보적	7.77	25.63	41.31	22.57	2.72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7〉 10년 후 갈등 인식 Ⅷ: 다문화(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6.26	28.18	45.61	16.92	3.03	
성별	남성	6.07	27.84	45.11	17.90	3.08	2.771
	여성	6.46	28.53	46.12	15.91	2.98	
연령	20대 이하	7.70	28.38	44.80	14.92	4.20	38.66***
	30대	8.49	25.04	45.47	18.56	2.43	
	40대	6.23	30.63	43.59	16.46	3.09	
	50대	6.17	27.68	45.67	17.69	2.78	
	60대 이상	2.45	28.95	48.96	17.10	2.55	
지역	수도권	6.81	28.21	40.66	19.41	4.92	80.206***
	비수도권	5.70	28.15	50.70	14.35	1.09	
	대도시	6.57	28.08	46.56	17.36	1.43	58.028***
	중소도시	6.41	29.15	42.93	16.60	4.90	
	농어촌	3.37	22.43	57.30	16.25	0.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88	25.81	45.27	16.63	4.41	15.611
	중하층	5.40	28.22	46.20	17.31	2.87	
	중간층	6.92	28.76	45.38	16.24	2.70	
	중상층(상층)	2.90	28.68	44.31	20.52	3.5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31	27.82	50.49	13.58	2.80	31.944**
	200만 원대	6.11	27.31	45.52	16.15	4.91	
	300만 원대	6.57	25.47	48.47	17.28	2.20	
	400만 원대	6.01	30.77	41.97	17.58	3.67	
	500만 원 이상	6.69	29.38	42.74	18.80	2.39	
학력	중졸 이하	3.63	28.30	48.81	15.85	3.41	22.521***
	고졸	6.89	25.91	47.19	16.61	3.39	
	대졸 이상	6.66	30.57	42.60	17.68	2.4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32	29.17	42.35	17.52	3.64	52.9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14	34.60	38.53	16.17	2.57	
	고용주·자영자	4.80	28.12	49.81	16.04	1.22	
	무급가족종사자	3.03	25.22	53.80	12.69	5.26	
	실업자	9.55	20.14	53.03	12.44	4.83	
	비경제활동인구	5.34	25.86	47.41	17.87	3.51	
직업	관리자·전문가	8.20	33.69	33.82	20.94	3.35	38.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82	29.88	46.13	14.71	2.47	
	숙련 및 기술직	4.65	26.47	47.21	19.87	1.80	
	단순노무종사자	6.63	29.70	38.91	18.30	6.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25	29.34	42.63	17.54	3.24	3.094
	비정규직	8.03	32.70	39.11	16.52	3.63	
이념적 성향	보수적	4.99	30.76	44.06	17.35	2.85	17.015**
	중도적	6.61	28.31	46.48	15.53	3.07	
	진보적	7.10	24.42	45.57	19.73	3.17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갈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8〉 10년 후 갈등 인식 Ⅸ: 개발주의자 vs. 환경보호주의자

(단위: %)

구분		현재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7.59	31.97	48.99	7.59	3.86	
성별	남성	7.43	32.22	48.17	8.67	3.50	7.744
	여성	7.75	31.71	49.82	6.49	4.23	
연령	20대 이하	8.64	31.17	47.88	7.24	5.06	38.119***
	30대	10.49	31.07	47.02	8.69	2.72	
	40대	7.56	31.87	48.19	7.98	4.39	
	50대	7.62	31.98	49.24	7.74	3.41	
	60대 이상	3.36	33.91	52.93	6.21	3.59	
지역	수도권	8.78	32.78	43.73	8.27	6.44	96.311***
	비수도권	6.36	31.14	54.39	6.90	1.21	
주관적 소득계층	대도시	8.50	32.24	49.71	7.85	1.71	66.007***
	중소도시	7.16	32.04	46.87	7.60	6.33	
	농어촌	4.77	29.79	58.42	5.97	1.05	
	하층	12.25	27.10	47.60	7.23	5.82	35.068***
	중하층	7.21	31.43	49.07	8.31	3.98	
	중간층	7.07	33.09	49.70	6.89	3.25	
	중상층(상층)	3.48	37.92	45.82	9.30ㄴ	3.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19	31.02	52.53	4.46	4.81	36.179***
	200만 원대	7.27	32.30	44.48	10.00	5.96	
	300만 원대	8.71	29.65	51.04	7.88	2.72	
	400만 원대	7.08	31.77	49.46	7.88	3.81	
	500만 원 이상	7.35	34.13	47.67	7.87	2.98	
학력	중졸 이하	4.17	29.50	56.44	4.95	4.95	39.741***
	고졸	7.75	30.54	48.76	8.81	4.15	
	대졸 이상	8.81	34.52	46.20	7.36	3.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4	32.58	46.57	8.22	4.28	38.23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5	28.10	50.91	6.68	4.77	
	고용주·자영자	5.97	35.39	50.37	6.96	1.31	
	무급가족종사자	6.42	27.36	54.38	6.57	5.26	
	실업자	11.57	24.33	51.12	8.15	4.83	
	비경제활동인구	6.89	31.29	49.39	7.69	4.74	
직업	관리자·전문가	9.25	37.19	42.03	6.70	4.82	33.89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20	33.55	49.18	6.36	2.72	
	숙련 및 기술직	5.50	29.50	51.19	10.31	3.51	
	단순노무종사자	7.46	26.87	47.95	10.83	6.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94	32.64	47.12	8.32	3.98	5.246
	비정규직	9.95	29.29	48.63	6.94	5.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2	32.52	48.95	7.64	3.07	12.535
	중도적	6.79	31.28	50.70	7.28	3.95	
	진보적	9.23	32.94	44.86	8.29	4.69	

주: 1)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재보다 10년 후 다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9〉 사회인식 I : 성공과 부패의 연관성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2.79	51.77	19.52	13.39	2.53	
성별	남성	13.32	52.67	19.23	12.23	2.55	5.398
	여성	12.25	50.85	19.81	14.59	2.51	
연령	20대 이하	10.80	53.79	20.04	14.29	1.09	38.945***
	30대	15.05	52.21	19.21	11.47	2.07	
	40대	14.20	49.52	17.35	15.11	3.82	
	50대	14.67	50.31	19.69	12.76	2.57	
	60대 이상	8.91	53.31	21.58	13.11	3.09	
지역	수도권	15.94	46.83	18.21	16.00	3.03	73.041***
	비수도권	9.56	56.84	20.86	10.72	2.02	
	대도시	15.38	50.06	21.32	10.97	2.28	52.913***
	중소도시	10.81	52.92	17.12	16.42	2.73	
	농어촌	9.82	54.81	24.00	8.61	2.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29	55.43	20.58	8.84	2.86	19.5*
	중하층	13.81	52.68	18.43	12.92	2.15	
	중간층	12.39	49.89	19.81	15.10	2.81	
	중상층(상층)	10.30	52.32	22.00	13.42	1.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60	51.66	22.97	11.97	1.81	32.713***
	200만 원대	12.12	53.31	19.20	11.99	3.39	
	300만 원대	13.34	47.67	20.91	15.04	3.04	
	400만 원대	11.63	55.24	17.12	15.26	0.75	
	500만 원 이상	14.17	52.05	17.93	12.88	2.96	
학력	중졸 이하	10.25	52.68	22.12	11.74	3.22	16.698**
	고졸	14.19	50.51	20.07	13.26	1.97	
	대졸 이상	12.32	52.76	17.86	14.22	2.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63	49.13	19.75	14.55	1.94	35.05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22	52.69	21.77	11.71	2.61	
	고용주·자영자	15.44	52.47	17.69	11.43	2.96	
	무급가족종사자	10.07	48.80	18.00	21.17	1.96	
	실업자	13.93	53.17	17.92	11.09	3.89	
	비경제활동인구	9.49	53.84	20.02	13.93	2.73	
직업	관리자·전문가	16.88	53.91	11.38	14.19	3.63	25.98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4.40	50.88	20.14	12.29	2.29	
	숙련 및 기술직	12.04	51.47	18.83	15.09	2.58	
	단순노무종사자	14.73	43.50	26.02	15.02	0.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45	50.06	20.89	14.72	1.87	6.834
	비정규직	16.27	49.92	19.06	12.21	2.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54	52.90	19.91	12.92	2.72	8.097
	중도적	12.40	52.03	19.75	13.51	2.32	
	진보적	15.41	49.63	18.42	13.75	2.79	

주: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0〉 사회인식 Ⅱ: 한국의 소득 격차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34.99	46.71	16.24	1.91	0.16	
성별	남성	36.61	45.9	14.96	2.22	0.31	14.612***
	여성	33.35	47.53	17.53	1.59	-	
연령	20대 이하	31.43	48.94	16.43	2.96	0.24	32.722***
	30대	37.06	43.67	18.00	1.17	0.10	
	40대	38.19	45.52	13.45	2.77	0.07	
	50대	35.67	47.52	15.65	1.11	0.05	
	60대 이상	32.36	47.82	18.09	1.38	0.36	
지역	수도권	42.69	41.55	13.99	1.59	0.19	99.187****
	비수도권	27.09	52.00	18.55	2.23	0.13	
	대도시	39.99	43.57	13.81	2.52	0.11	50.612***
	중소도시	31.38	48.40	18.71	1.33	0.19	
	농어촌	27.76	55.07	15.05	1.86	0.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90	40.38	12.50	1.23	-	55.454***
	중하층	37.09	46.45	14.94	1.46	0.05	
	중간층	31.09	47.81	18.43	2.36	0.31	
	중상층(상층)	26.94	54.35	15.86	2.85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80	43.50	18.49	1.11	0.10	22.397
	200만 원대	36.38	47.14	14.73	1.69	0.06	
	300만 원대	34.74	49.81	13.05	2.18	0.23	
	400만 원대	32.72	46.14	19.41	1.51	0.21	
	500만 원 이상	34.62	46.45	16.22	2.54	0.17	
학력	중졸 이하	34.49	48.32	15.81	0.92	0.46	11.322
	고졸	35.62	45.88	16.56	1.95	-	
	대졸 이상	34.53	46.94	16.06	2.26	0.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37	45.77	17.23	1.63	-	20.9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8.13	44.02	15.76	1.63	0.45	
	고용주·자영자	37.41	45.56	15.11	1.62	0.29	
	무급가족종사자	25.93	54.47	18.47	1.12	-	
	실업자	32.99	45.62	17.65	3.74	-	
	비경제활동인구	32.47	49.15	15.86	2.36	0.16	
직업	관리자·전문가	38.07	48.91	12.00	1.02	-	19.34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05	45.20	16.84	1.68	0.23	
	숙련 및 기술직	33.16	49.49	15.40	1.81	0.14	
	단순노무종사자	43.13	34.38	21.09	1.40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65	46.50	18.37	1.48	-	13.38***
	비정규직	40.54	43.18	14.05	1.91	0.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56	49.14	17.38	2.58	0.34	21.106***
	중도적	36.02	45.64	16.43	1.79	0.12	
	진보적	38.41	46.08	14.22	1.30	-	

주: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1〉 정부의 역할 Ⅰ: 소득 격차 축소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8.75	43.45	27.30	9.35	1.15	
성별	남성	19.78	42.78	26.28	10.11	1.06	6.575
	여성	17.69	44.13	28.35	8.57	1.25	
연령	20대 이하	18.20	44.03	26.01	10.39	1.37	14.824
	30대	20.56	41.31	27.97	9.24	0.92	
	40대	20.45	42.04	28.12	8.76	0.63	
	50대	18.87	44.41	26.40	8.86	1.46	
	60대 이상	15.34	45.57	28.13	9.54	1.41	
지역	수도권	22.85	40.37	24.93	10.36	1.49	57.852***
	비수도권	14.53	46.61	29.74	8.32	0.80	
	대도시	22.99	40.77	27.02	8.60	0.61	47.95***
	중소도시	15.63	45.07	27.33	10.27	1.70	
	농어촌	12.86	49.36	28.84	7.99	0.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77	44.01	22.30	10.02	0.90	36.257***
	중하층	20.69	42.69	28.70	6.99	0.93	
	중간층	16.64	43.25	27.78	10.91	1.42	
	중상층(상층)	13.21	48.99	25.56	11.08	1.1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03	44.86	26.88	8.19	1.04	11.222
	200만 원대	18.30	45.68	26.15	8.97	0.90	
	300만 원대	18.85	40.31	29.46	10.02	1.36	
	400만 원대	21.20	41.61	26.75	9.13	1.32	
	500만 원 이상	17.22	44.67	27.03	9.94	1.12	
학력	중졸 이하	17.61	44.43	29.11	7.64	1.22	11.218
	고졸	18.13	43.09	28.14	9.15	1.49	
	대졸 이상	19.87	43.43	25.66	10.27	0.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43	42.57	27.47	9.44	1.09	14.31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75	42.74	27.21	9.49	1.80	
	고용주·자영자	19.67	42.37	27.23	9.63	1.10	
	무급가족종사자	7.88	56.02	25.00	9.98	1.12	
	실업자	19.88	42.24	32.05	5.83	-	
	비경제활동인구	17.87	44.81	26.85	9.33	1.15	
직업	관리자·전문가	22.42	41.49	25.02	11.07	-	13.31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8.94	43.27	26.88	9.50	1.41	
	숙련 및 기술직	17.85	42.93	28.41	10.01	0.80	
	단순노무종사자	18.80	41.78	30.85	6.20	2.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28	42.41	28.15	9.37	0.79	5.84
	비정규직	19.23	42.99	26.02	9.62	2.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5	44.09	26.98	10.30	2.08	21.417***
	중도적	18.54	43.58	28.16	8.99	0.73	
	진보적	22.18	42.28	25.63	8.96	0.95	

주: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2〉 정부의 역할 Ⅱ: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 제공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2.69	44.26	30.26	11.12	1.67	
성별	남성	13.94	44.07	29.73	10.92	1.34	7.650
	여성	11.41	44.45	30.81	11.31	2.01	
연령	20대 이하	13.84	46.11	27.78	11.30	0.98	30.714**
	30대	15.09	41.26	33.01	8.76	1.89	
	40대	13.86	44.45	27.86	12.49	1.34	
	50대	11.29	44.43	30.98	10.99	2.31	
	60대 이상	9.12	44.89	32.18	11.91	1.89	
지역	수도권	16.09	42.44	27.81	11.56	2.11	49.563***
	비수도권	9.20	46.13	32.78	10.66	1.23	
	대도시	14.26	44.77	30.97	9.22	0.78	39.495***
	중소도시	12.03	44.08	28.71	12.68	2.49	
	농어촌	7.29	42.29	36.07	12.57	1.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96	45.97	27.18	8.46	2.43	27.395***
	중하층	13.73	44.86	29.72	10.37	1.31	
	중간층	11.27	42.80	32.21	12.09	1.63	
	중상층(상층)	9.53	48.19	25.19	14.43	2.6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43	48.20	28.17	8.76	1.44	24.911*
	200만 원대	12.66	42.56	30.89	12.45	1.44	
	300만 원대	13.93	39.20	32.66	11.70	2.51	
	400만 원대	11.83	48.18	28.89	9.69	1.41	
	500만 원 이상	11.82	44.12	30.33	12.23	1.49	
학력	중졸 이하	9.76	48.12	29.26	10.91	1.96	12.878
	고졸	12.77	44.52	30.36	10.43	1.93	
	대졸 이상	13.81	42.41	30.56	11.94	1.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0	44.18	29.13	11.04	1.76	23.0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33	48.51	30.10	7.99	2.07	
	고용주·자영자	12.92	41.22	31.46	12.62	1.78	
	무급가족종사자	6.02	44.91	33.87	13.06	2.14	
	실업자	16.81	45.04	23.26	14.89	-	
	비경제활동인구	11.67	44.90	31.20	10.73	1.50	
직업	관리자·전문가	18.83	45.41	21.77	13.64	0.35	29.94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30	43.79	30.65	11.16	2.12	
	숙련 및 기술직	11.78	43.82	32.82	10.67	0.91	
	단순노무종사자	12.99	43.34	31.33	8.29	4.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08	44.07	29.73	10.88	1.24	9.407*
	비정규직	11.74	47.45	28.69	9.16	2.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28	44.03	30.59	11.89	3.22	43.449***
	중도적	12.46	45.37	30.97	9.94	1.26	
	진보적	16.48	41.85	28.09	12.95	0.62	

주: 1)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3〉 정부의 역할 Ⅲ: 빈곤층 지원 축소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4.72	23.45	32.76	28.47	10.60	
성별	남성	5.10	22.86	32.00	27.76	12.28	12.966**
	여성	4.33	24.05	33.54	29.2	8.89	
연령	20대 이하	4.42	20.69	32.15	30.01	12.73	46.187***
	30대	6.64	20.13	33.22	28.95	11.06	
	40대	4.82	22.92	29.26	31.73	11.27	
	50대	3.76	27.73	36.71	23.67	8.13	
	60대 이상	4.04	25.76	32.52	27.93	9.76	
지역	수도권	6.38	19.21	29.97	32.03	12.42	88.206***
	비수도권	3.02	27.81	35.62	24.82	8.73	
	대도시	5.28	22.25	31.38	29.96	11.14	15.566**
	중소도시	4.62	24.43	33.35	27.04	10.55	
	농어촌	1.93	24.42	37.41	28.65	7.60ㄴ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9	22.93	30.21	24.70	17.98	36.596***
	중하층	4.93	22.20	33.24	29.14	10.49	
	중간층	4.57	24.58	33.10	28.85	8.91	
	중상층(상층)	5.80	23.93	32.70	29.70	7.8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3	23.62	31.31	26.99	13.54	19
	200만 원대	4.1	23.97	31.91	28.15	11.88	
	300만 원대	5.44	21.35	35.39	28.14	9.68	
	400만 원대	5.23	23.18	34.18	29.35	8.06	
	500만 원 이상	4.41	24.68	31.55	29.37	9.99	
학력	중졸 이하	3.25	25.78	31.55	26.08	13.34	19.820**
	고졸	4.85	23.61	34.75	27.33	9.46	
	대졸 이상	5.19	22.33	31.11	30.68	1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72	23.24	31.41	27.83	11.81	37.42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22	23.89	33.08	28.90ㄴ	8.92	
	고용주·자영자	5.06	24.63	35.59	26.25	8.47	
	무급가족종사자	4.05	31.75	36.80	21.37	6.04	
	실업자	2.23	14.50	32.11	32.31	18.85	
	비경제활동인구	3.52	23.09	31.90	30.66	10.84	
직업	관리자·전문가	8.34	17.93	27.71	32.89	13.13	38.99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91	24.52	33.30	28.30	8.97	
	숙련 및 기술직	4.57	26.07	35.23	24.77	9.36	
	단순노무종사자	7.07	23.33	34.59	17.93	17.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86	24.10	32.57	26.62	10.84	3.994
	비정규직	5.09	22.10	30.42	30.84	11.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7	27.68	30.73	28.82	8.60	80.77***
	중도적	4.95	21.82	37.40	26.44	9.38	
	진보적	4.88	21.79	24.10	32.97	16.25	

주: 1)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4〉 자원봉사 참여

(단위: %)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6~7번	일 년에 한두 번	전혀 안했다	χ^2
전체		1.74	4.53	3.03	10.58	80.13	
성별	남성	1.36	4.41	2.97	11.20	80.06	4.675
	여성	2.13	4.65	3.08	9.93	80.21	
연령	20대 이하	1.70	3.29	3.69	13.64	77.68	56.009***
	30대	0.97	2.61	2.18	10.38	83.86	
	40대	1.35	5.94	3.60	11.25	77.86	
	50대	1.50	6.70	2.69	10.28	78.83	
	60대 이상	3.30	3.82	2.87	6.88	83.13	
지역	수도권	1.89	4.28	2.69	11.26	79.89	4.181
	비수도권	1.58	4.79	3.37	9.87	80.38	
	대도시	1.43	3.99	2.71	11.23	80.64	26.033***
	중소도시	1.78	4.83	2.82	9.5	81.07	
	농어촌	3.37	5.92	6.33	13.6	70.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	3.53	2.44	3.48	89.21	102.919***
	중하층	1.65	3.91	2.29	8.76	83.38	
	중간층	1.67	4.89	3.36	12.76	77.32	
	중상층(상층)	3.85	8.19	6.71	21.81	59.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0	4.92	1.77	5.52	86.08	59.492***
	200만 원대	1.60	2.45	3.77	8.22	83.95	
	300만 원대	1.61	5.76	2.99	10.57	79.07	
	400만 원대	1.11	3.65	2.85	12.08	80.31	
	500만 원 이상	2.27	5.05	3.51	14.16	75.01	
학력	중졸 이하	1.38	4.26	2.54	4.98	86.84	45.856***
	고졸	2.19	4.1	3.11	9.64	80.97	
	대졸 이상	1.40	5.1	3.14	13.86	76.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0	4.07	3.46	13.38	78.19	53.49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1	3.74	1.47	6.28	87.01	
	고용주·자영자	2.35	6.75	3.12	9.64	78.14	
	무급가족종사자	-	5.20	5.27	3.45	86.08	
	실업자	1.75	3.13	1.12	7.13	86.88	
	비경제활동인구	2.39	3.82	3.11	10.51	80.17	
직업	관리자·전문가	3.28	7.23	2.89	19.15	67.45	55.40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3	5.01	3.30	11.41	79.26	
	숙련 및 기술직	1.86	3.50	2.71	6.47	85.46	
	단순노무종사자	1.08	4.58	2.53	4.79	87.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6	3.97	3.39	13.92	77.86	18.695***
	비정규직	1.42	4.01	2.18	7.34	85.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2	4.76	2.74	9.24	81.94	15.152*
	중도적	1.63	3.94	3.08	10.48	80.87	
	진보적	2.54	5.68	3.28	12.58	75.91	

주: 1) "___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5〉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단위: %)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6~7번	일 년에 한두 번	전혀 안했다	χ^2
전체		1.06	7.76	2.77	16.09	72.32	
성별	남성	1.40	7.63	2.61	16.81	71.54	6.078
	여성	0.71	7.89	2.94	15.35	73.11	
연령	20대 이하	0.60	4.56	1.49	15.64	77.70	55.108***
	30대	0.69	10.34	2.89	15.68	70.40	
	40대	1.53	10.57	3.49	17.41	67.00	
	50대	1.22	8.33	3.58	16.59	70.28	
	60대 이상	1.24	4.75	2.34	14.90	76.77	
지역	수도권	1.39	8.27	2.71	15.62	72.02	5.786
	비수도권	0.72	7.24	2.84	16.57	72.63	
	대도시	1.63	7.32	3.11	16.68	71.26	20.908***
	중소도시	0.39	7.83	2.50	15.32	73.96	
	농어촌	1.95	10.04	2.47	17.43	68.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2	3.68	1.72	8.29	84.09	119.745***
	중하층	0.71	7.21	2.21	14.23	75.63	
	중간층	1.03	8.82	2.92	18.40	68.83	
	중상층(상층)	0.99	12.46	7.89	28.29	50.3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5	4.22	1.47	10.49	82.47	90.949***
	200만 원대	0.89	7.31	1.72	13.82	76.26	
	300만 원대	1.22	7.38	2.38	14.43	74.59	
	400만 원대	0.79	7.73	3.06	19.88	68.53	
	500만 원 이상	1.02	10.48	4.27	19.89	64.35	
학력	중졸 이하	0.78	3.92	2.51	8.29	84.5	153.580***
	고졸	1.12	5.35	2.2	14.11	77.23	
	대졸 이상	1.12	11.93	3.5	21.4	62.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8	9.08	3.79	20.28	65.57	77.57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5.35	1.68	11.00	81.97	
	고용주·자영자	1.56	9.69	3.01	16.64	69.10	
	무급가족종사자	-	2.97	1.05	11.89	84.09	
	실업자	-	6.99	2.12	13.26	77.63	
	비경제활동인구	1.02	6.16	2.06	13.49	77.28	
직업	관리자·전문가	2.27	17.73	5.02	21.97	53.01	74.62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1	8.48	3.10	17.98	69.33	
	숙련 및 기술직	0.99	5.76	2.08	15.37	75.81	
	단순노무종사자	-	2.78	3.42	11.25	82.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8	10.01	3.82	20.55	64.34	41.138***
	비정규직	0.38	4.70	2.23	13.21	79.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2	6.72	1.85	15.52	75.00	50.616***
	중도적	0.81	6.92	2.43	15.41	74.43	
	진보적	1.87	11.22	4.84	18.51	63.57	

주: 1) "___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6〉 사회적 네트워크 Ⅰ: 사회활동 참여

(단위: %)

구분		또래보다 훨씬 적음	또래보다 다소 적음	또래들과 비슷함	또래보다 다소 많음	또래보다 훨씬 많음	χ^2
전체		10.62	21.33	56.63	10.08	1.35	
성별	남성	9.48	18.44	59.36	11.02	1.69	30.749***
	여성	11.77	24.27	53.85	9.12	0.99	
연령	20대 이하	6.26	19.15	62.93	9.67	1.98	40.331***
	30대	11.76	22.03	56.62	8.51	1.09	
	40대	12.81	20.00	55.71	10.54	0.93	
	50대	11.58	22.09	54.18	10.28	1.87	
	60대 이상	10.67	23.72	53.41	11.40	0.80	
지역	수도권	12.16	21.36	54.20	11.04	1.24	16.136***
	비수도권	9.03	21.29	59.13	9.09	1.45	
	대도시	10.59	22.94	55.66	9.37	1.44	13.621*
	중소도시	11.02	19.52	57.97	10.39	1.10	
	농어촌	8.09	23.20	53.91	12.43	2.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36	32.10	31.17	4.99	1.38	403.628***
	중하층	10.02	23.65	55.92	9.39	1.00	
	중간층	6.25	17.56	64.59	10.39	1.20	
	중상층(상층)	3.99	10.89	56.05	24.26	4.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83	26.17	43.71	7.67	0.62	209.623***
	200만 원대	12.03	26.41	52.24	8.28	1.04	
	300만 원대	8.46	21.05	61.03	8.33	1.14	
	400만 원대	6.32	23.69	58.66	9.56	1.77	
	500만 원 이상	6.85	14.50	62.71	14.06	1.88	
학력	중졸 이하	15.66	27.33	46.90	9.51	0.60	60.823***
	고졸	10.76	21.53	57.17	8.79	1.75	
	대졸 이상	8.40	18.66	60.03	11.7	1.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58	20.45	59.66	9.76	1.56	99.21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61	32.05	45.09	7.47	0.78	
	고용주·자영자	9.01	15.67	59.26	14.36	1.70	
	무급가족종사자	7.25	19.07	70.68	2.06	0.94	
	실업자	19.16	19.47	52.62	8.13	0.63	
	비경제활동인구	11.88	22.85	55.16	8.94	1.17	
직업	관리자·전문가	8.98	18.93	54.58	13.79	3.73	52.77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07	20.80	58.71	10.25	1.17	
	숙련 및 기술직	8.11	18.39	60.40	11.57	1.53	
	단순노무종사자	19.55	29.04	43.78	7.29	0.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9	18.72	61.80	9.25	1.54	50.771***
	비정규직	12.64	31.89	45.33	9.10	1.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7	25.15	51.76	11.21	1.01	56.911***
	중도적	11.61	19.30	60.10	7.60	1.38	
	진보적	7.83	21.17	54.67	14.63	1.70	

주: 1) "또래와 비교할 때, 귀하는 사회활동(친목모임, 취미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7〉 사회적 네트워크 II: 친교모임 참여

(단위: %)

구분		전혀 만나지 않음	일 년에 두어 번 (1년에 6회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1년에 6회 이상)	한 달에 두어 번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두어 번	매일	χ^2
전체		2.87	14.84	21.55	29.64	18.25	10.10	2.74	
성별	남성	2.68	12.34	20.37	29.32	20.51	11.80	2.99	40.888***
	여성	3.06	17.41	22.76	29.96	15.95	8.37	2.49	
연령	20대 이하	1.16	8.08	15.71	21.70	29.33	19.32	4.72	269.08***
	30대	2.50	13.27	22.05	33.74	17.61	8.42	2.41	
	40대	2.66	15.79	23.17	31.18	17.94	7.59	1.68	
	50대	3.43	18.62	22.39	33.85	12.85	6.84	2.03	
	60대 이상	4.78	18.70	24.79	27.72	12.98	8.12	2.91	
지역	수도권	3.00	16.49	21.30	30.34	17.79	9.39	1.68	25.831***
	비수도권	2.72	13.15	21.81	28.92	18.73	10.83	3.84	
	대도시	2.99	15.39	22.29	28.32	18.60	10.49	1.93	20.955*
	중소도시	2.75	14.25	21.23	30.46	18.69	9.51	3.12	
	농어촌	2.83	15.37	19.12	32.48	13.27	11.62	5.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78	27.90	22.31	18.30	10.37	5.84	3.51	308.451***
	중하층	2.62	14.36	23.65	29.25	19.94	8.21	1.96	
	중간층	0.76	11.99	19.67	33.37	18.67	12.59	2.94	
	중상층(상층)	0.86	10.88	20.82	28.33	21.84	12.64	4.6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79	22.64	23.99	19.24	14.43	7.16	3.75	234.087***
	200만 원대	2.22	16.05	20.84	32.92	18.04	7.40	2.53	
	300만 원대	2.12	15.60	23.14	28.52	19.08	9.44	2.09	
	400만 원대	1.66	15.47	20.77	31.14	17.79	11.06	2.10	
	500만 원 이상	0.77	8.51	19.80	34.27	20.26	13.34	3.05	
학력	중졸 이하	7.01	23.03	22.22	24.66	12.14	6.65	4.29	129.007***
	고졸	2.65	14.41	21.33	29.62	17.97	10.94	3.08	
	대졸 이상	1.40	11.97	21.52	31.7	21.05	10.61	1.7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	12.05	22.22	31.48	19.95	10.05	2.96	136.08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68	21.04	25.77	24.91	11.29	8.55	1.75	
	고용주·자영자	1.50	14.81	22.36	33.64	17.31	7.97	2.43	
	무급가족종사자	0.82	16.12	24.77	32.66	11.13	11.00	3.50	
	실업자	6.62	15.65	13.85	19.00	34.86	10.02	-	
	비경제활동인구	3.94	15.53	19.34	27.36	18.30	12.21	3.33	
직업	관리자·전문가	1.64	12.38	19.03	34.82	19.13	10.8	2.20	68.9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4	14.49	24.83	30.37	17.19	9.28	2.30s	
	숙련 및 기술직	2.26	12.40	20.12	34.44	19.21	8.33	3.24	
	단순노무종사자	8.43	23.22	20.22	23.47	12.60	8.01	4.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6	11.54	21.81	31.86	20.50	10.68	2.25	56.826***
	비정규직	4.98	19.38	25.50	26.13	12.77	7.82	3.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4	16.7	24.37	30.82	15.31	7.39	2.56	53.829***
	중도적	3.39	14.83	21.25	29.50	17.77	10.18	3.08	
	진보적	1.61	12.40	18.52	28.41	23.37	13.53	2.16	

주: 1) "친구,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을 얼마나 자주 친교를 위해 만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8〉 사회적 네트워크 Ⅲ: 금전적 문제 발생 시 지인의 도움

(단위: %)

구분		매우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보통이다	비교적 쉽다	쉽다	χ^2
전체		13.94	39.97	35.88	9.15	1.07	
성별	남성	13.47	37.80	36.87	10.03	1.83	29.522***
	여성	14.42	42.19	34.86	8.25	0.29	
연령	20대 이하	11.14	38.33	38.45	10.49	1.59	40.958***
	30대	13.58	36.49	40.35	8.36	1.22	
	40대	13.18	40.91	37.04	7.73	1.14	
	50대	14.30	41.25	33.73	10.26	0.46	
	60대 이상	17.92	42.91	29.38	8.85	0.94	
지역	수도권	12.35	41.24	36.75	8.76	0.90	10.772**
	비수도권	15.57	38.67	34.98	9.55	1.24	
	대도시	13.01	41.42	34.94	9.10	1.53	18.813**
	중소도시	14.50	39.44	36.88	8.61	0.57	
	농어촌	16.00	34.44	35.07	12.99	1.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0	41.53	23.56	2.54	1.07	271.087***
	중하층	13.41	45.23	33.72	7.14	0.50	
	중간층	10.29	36.04	41.16	11.42	1.09	
	중상층(상층)	6.60	32.47	36.22	19.90	4.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84	44.93	24.65	5.69	0.88	116.241***
	200만 원대	12.04	41.01	37.49	8.50	0.96	
	300만 원대	13.38	40.19	36.93	8.36	1.14	
	400만 원대	10.43	39.18	39.82	9.76	0.82	
	500만 원 이상	11.06	36.68	39.07	11.86	1.33	
학력	중졸 이하	22.25	43.42	26.66	7.36	0.31	77.148***
	고졸	12.92	42.03	35.21	8.58	1.26	
	대졸 이상	11.64	36.34	40.36	10.49	1.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73	37.97	40.00	9.10	1.21	109.49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74	50.03	27.03	5.44	1.77	
	고용주·자영자	12.68	32.95	40.29	12.70	1.38	
	무급가족종사자	11.14	40.88	42.51	4.54	0.94	
	실업자	29.46	39.88	20.88	7.99	1.78	
	비경제활동인구	15.17	43.57	32.52	8.36	0.37	
직업	관리자·전문가	17.14	25.39	44.07	10.91	2.49	51.82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66	39.84	37.85	9.41	1.23	
	숙련 및 기술직	10.82	37.89	40.15	10.64	0.50	
	단순노무종사자	19.29	46.30	25.65	5.84	2.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9	37.30	40.39	9.23	1.40	26.518***
	비정규직	14.64	47.76	30.08	6.27	1.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12	43.72	31.26	9.02	0.88	40.765***
	중도적	14.23	38.86	38.34	7.44	1.13	
	진보적	11.65	37.68	36.02	13.49	1.16	

주: 1)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지, 친구, 동료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9〉 정치적 관심

(단위: %)

구분		매우 관심이 있다	대체로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χ^2
전체		5.50	30.85	49.79	13.86	
성별	남성	8.04	35.83	44.98	11.15	111.542***
	여성	2.90	25.76	54.71	16.63	
연령	20대 이하	3.14	26.90	50.93	19.02	46.444***
	30대	5.22	32.27	50.67	11.84	
	40대	6.41	30.24	51.21	12.14	
	50대	4.90	32.19	50.61	12.29	
	60대 이상	8.04	32.99	45.02	13.95	
지역	수도권	6.05	32.11	47.66	14.18	7.777*
	비수도권	4.92	29.56	51.99	13.53	
	대도시	5.26	32.01	50.66	12.07	13.612**
	중소도시	5.38	30.07	48.78	15.77	
	농어촌	7.74	28.77	51.07	12.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3	21.44	44.36	28.07	112.946***
	중하층	5.00	29.37	53.06	12.58	
	중간층	5.38	34.05	49.37	11.21	
	중상층(상층)	8.41	36.90	43.68	11.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00	25.77	48.21	19.02	37.87***
	200만 원대	6.18	33.40	46.52	13.91	
	300만 원대	4.29	32.42	51.21	12.09	
	400만 원대	3.77	29.31	53.99	12.92	
	500만 원 이상	6.00	32.38	49.16	12.46	
학력	중졸 이하	5.71	24.57	51.87	17.85	54.684***
	고졸	4.22	29.12	50.96	15.70	
	대졸 이상	6.79	35.26	47.69	10.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71	31.25	51.16	11.89	52.88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61	28.34	50.20	16.85	
	고용주·자영자	7.10	32.87	49.89	10.15	
	무급가족종사자	2.17	16.33	59.87	21.63	
	실업자	11.30	26.22	42.94	19.54	
	비경제활동인구	4.02	31.20	48.21	16.57	
직업	관리자·전문가	13.36	39.68	38.41	8.56	51.81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39	29.30	52.50	12.81	
	숙련 및 기술직	3.75	30.91	53.08	12.26	
	단순노무종사자	4.83	31.31	49.12	14.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12	32.52	50.22	11.14	15.494
	비정규직	4.18	26.80	52.22	16.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0	31.89	49.07	11.95	74.274***
	중도적	3.40	27.66	52.74	16.21	
	진보적	8.49	37.26	43.56	10.68	

주: 1) "___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0〉 투표 여부 Ⅰ: 제8대 대통령 선거(2012. 12. 19.)

(단위: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χ^2
전체		87.90	11.23	0.87	
성별	남성	86.94	12.11	0.94	3.002
	여성	88.87	10.34	0.79	
연령	20대 이하	70.13	27.56	2.32	267.245***
	30대	83.51	14.43	2.05	
	40대	89.64	10.18	0.19	
	50대	94.64	5.24	0.12	
	60대 이상	96.90	2.97	0.13	
지역	수도권	86.55	12.27	1.17	8.126**
	비수도권	89.31	10.14	0.55	
	대도시	86.91	12.06	1.03	10.965**
	중소도시	87.89	11.34	0.78	
	농어촌	94.10	5.42	0.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4.08	15.29	0.64	15.424**
	중하층	87.66	11.70	0.63	
	중간층	88.82	9.97	1.21	
	중상층(상층)	91.32	8.46	0.2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53	9.41	0.06	22.55***
	200만 원대	86.98	11.85	1.17	
	300만 원대	86.38	11.57	2.06	
	400만 원대	87.00	12.43	0.57	
	500만 원 이상	88.33	11.15	0.52	
학력	중졸 이하	95.84	4.01	0.15	47.92***
	고졸	84.91	13.88	1.20	
	대졸 이상	87.52	11.64	0.8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28	12.54	1.18	48.83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9.53	18.62	1.85	
	고용주·자영자	91.74	8.04	0.22	
	무급가족종사자	89.26	8.44	2.31	
	실업자	85.34	14.66	-	
	비경제활동인구	90.12	9.23	0.65	
직업	관리자·전문가	89.36	10.30	0.34	6.86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08	12.75	1.17	
	숙련 및 기술직	88.40	11.06	0.54	
	단순노무종사자	88.96	9.30	1.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58	12.16	1.27	8.53**
	비정규직	80.97	17.55	1.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1.00	8.57	0.42	14.723***
	중도적	86.50	12.33	1.17	
	진보적	86.97	12.29	0.74	

주: 1)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
2) * $p<0.1$, ** $p<0.05$, *** $p<0.01$

〈부표 3-91〉 투표 여부 Ⅱ: 지방선거(2014. 6. 4.)

(단위: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χ^2
전체		79.38	18.68	1.94	
성별	남성	80.12	17.96	1.91	1.237
	여성	78.63	19.40	1.97	
연령	20대 이하	58.23	36.89	4.88	299.747***
	30대	75.89	20.75	3.36	
	40대	79.80	19.11	1.08	
	50대	86.00	13.49	0.51	
	60대 이상	94.40	5.22	0.39	
지역	수도권	76.38	21.05	2.57	22.286***
	비수도권	82.46	16.25	1.30	
	대도시	75.04	22.95	2.01	46.831***
	중소도시	81.73	16.34	1.93	
	농어촌	90.81	7.62	1.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28	24.25	1.48	28.821***
	중하층	77.65	20.79	1.56	
	중간층	81.45	16.20	2.35	
	중상층(상층)	86.67	11.01	2.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2.15	15.97	1.88	10.547
	200만 원대	78.29	20.02	1.69	
	300만 원대	79.39	18.44	2.17	
	400만 원대	76.99	21.85	1.16	
	500만 원 이상	79.49	18.12	2.39	
학력	중졸 이하	90.36	8.53	1.11	73.037***
	고졸	73.91	23.42	2.67	
	대졸 이상	80.36	18.09	1.5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50	21.46	2.04	51.63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0.05	27.44	2.51	
	고용주·자영자	84.62	14.06	1.33	
	무급가족종사자	86.52	12.53	0.95	
	실업자	73.15	22.87	3.98	
	비경제활동인구	82.42	15.65	1.93	
직업	관리자·전문가	84.76	14.07	1.18	17.65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5.96	22.22	1.82	
	숙련 및 기술직	82.21	15.69	2.09	
	단순노무종사자	78.74	18.82	2.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7.03	21.04	1.93	6.861**
	비정규직	71.00	26.43	2.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65	15.56	0.79	20.764***
	중도적	77.46	20.02	2.53	
	진보적	78.22	19.69	2.09	

주: 1)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
2) * $p<0.1$, ** $p<0.05$, *** $p<0.01$

〈부표 3-92〉 투표 여부 Ⅲ: 총선거(2016. 4. 13.)

(단위: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χ^2
전체		80.89	18.35	0.75	
성별	남성	81.24	18.01	0.75	0.297
	여성	80.54	18.71	0.76	
연령	20대 이하	65.08	33.45	1.47	254.341***
	30대	76.42	21.85	1.73	
	40대	79.95	19.58	0.47	
	50대	88.54	11.34	0.12	
	60대 이상	95.20	4.80	-	
지역	수도권	79.14	19.63	1.23	15.919***
	비수도권	82.68	17.05	0.26	
	대도시	79.80	19.22	0.98	17.838***
	중소도시	80.50	18.87	0.63	
	농어촌	90.25	9.60	0.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64	24.51	0.85	24.108***
	중하층	80.41	19.15	0.44	
	중간층	82.52	16.41	1.07	
	중상층(상층)	85.73	14.27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3.94	15.38	0.68	18.029**
	200만 원대	79.08	20.31	0.61	
	300만 원대	81.38	17.18	1.43	
	400만 원대	77.17	22.27	0.56	
	500만 원 이상	81.64	17.87	0.50	
학력	중졸 이하	90.45	9.55	-	49.294***
	고졸	77.71	21.14	1.15	
	대졸 이상	80.37	19.00	0.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30	20.46	1.24	53.28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2.37	25.95	1.67	
	고용주·자영자	85.48	14.52	-	
	무급가족종사자	83.32	16.68	-	
	실업자	75.28	24.72	-	
	비경제활동인구	83.93	15.52	0.55	
직업	관리자·전문가	87.01	12.99	-	25.82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6.87	22.08	1.05	
	숙련 및 기술직	84.11	15.37	0.52	
	단순노무종사자	81.88	16.41	1.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62	20.00	1.38	5.717*
	비정규직	73.51	25.20	1.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32	15.30	0.38	16.124***
	중도적	78.56	20.46	0.97	
	진보적	82.00	17.29	0.71	

주: 1)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
2) * $p<0.1$, ** $p<0.05$, *** $p<0.01$

〈부표 3-93〉 소득계층 인식 Ⅰ: 현재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전체		12.79	37.20	44.63	5.17	0.22	
성별	남성	12.31	36.48	45.16	5.69	0.37	7.198
	여성	13.27	37.93	44.08	4.65	0.07	
연령	20대 이하	8.05	33.03	52.34	6.58	-	158.495***
	30대	7.83	42.28	47.61	2.22	0.06	
	40대	12.31	37.74	45.53	4.10	0.32	
	50대	13.27	35.98	42.29	8.24	0.22	
	60대 이상	23.30	37.34	34.41	4.43	0.52	
지역	수도권	12.22	35.36	46.87	5.45	0.09	11.978**
	비수도권	13.37	39.08	42.31	4.89	0.35	
	대도시	11.29	37.06	46.01	5.32	0.31	10.234
	중소도시	13.62	37.23	43.84	5.14	0.17	
	농어촌	16.57	37.80	41.15	4.48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	-	-	-	-	11007***
	중하층	-	100	-	-	-	
	중간층	-	-	100	-	-	
	중상층(상층)	-	-	-	95.93	4.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29	40.95	19.94	1.71	0.12	820.733***
	200만 원대	16.44	48.59	33.38	1.58	-	
	300만 원대	8.36	43.73	43.88	3.80	0.23	
	400만 원대	5.25	36.73	54.94	3.09	-	
	500만 원 이상	3.02	24.40	60.70	11.36	0.51	
학력	중졸 이하	29.08	40.66	27.05	3.20	-	269.784***
	고졸	12.69	39.36	42.75	5.14	0.05	
	대졸 이상	6.24	33.45	53.81	6.01	0.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6	39.38	48.08	4.11	0.07	140.51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06	41.58	30.49	3.44	0.43	
	고용주·자영자	9.78	38.59	46.13	4.97	0.54	
	무급가족종사자	7.91	38.18	48.13	5.78	-	
	실업자	25.75	36.53	34.96	2.76	-	
	비경제활동인구	14.69	32.26	45.63	7.31	0.11	
직업	관리자·전문가	6.27	31.36	51.50	8.61	2.26	138.434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17	38.88	46.73	4.16	0.05	
	숙련 및 기술직	11.36	45.89	40.37	2.37	-	
	단순노무종사자	28.17	38.53	28.66	4.64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58	38.12	49.67	4.55	0.08	83.238***
	비정규직	20.96	43.28	32.65	2.81	0.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26	36.29	39.61	6.47	0.37	45.604***
	중도적	12.17	36.39	46.72	4.54	0.18	
	진보적	8.31	40.37	46.19	5.01	0.12	

주: 1) "우리 사회의 소득 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_님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4〉 소득계층 인식 Ⅱ: 15세 무렵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전체		17.47	35.53	38.44	7.83	0.74	
성별	남성	19.28	35.47	36.52	7.65	1.08	16.655***
	여성	15.62	35.59	40.40	8.00	0.39	
연령	20대 이하	7.99	35.83	47.83	7.96	0.38	208.642***
	30대	14.18	30.89	47.36	6.87	0.69	
	40대	14.63	39.54	38.44	7.15	0.24	
	50대	21.35	37.22	31.22	9.40	0.82	
	60대 이상	30.46	33.44	26.78	7.65	1.66	
지역	수도권	14.51	33.08	42.09	9.52	0.80	52.363***
	비수도권	20.51	38.05	34.69	6.08	0.67	
	대도시	14.98	36.48	39.17	8.81	0.57	38.649***
	중소도시	18.42	34.46	39.42	6.99	0.72	
	농어촌	26.66	36.73	27.53	7.22	1.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7.67	21.84	16.04	3.70	0.74	1376.172***
	중하층	17.05	54.08	23.07	5.30	0.50	
	중간층	7.35	26.18	58.62	7.26	0.60	
	중상층(상층)	8.74	17.48	30.62	39.67	3.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14	33.46	26.17	5.56	0.67	235.074***
	200만 원대	20.85	37.90	33.33	6.80	1.13	
	300만 원대	13.74	40.69	38.28	6.54	0.76	
	400만 원대	13.72	34.64	42.11	8.48	1.06	
	500만 원 이상	10.06	32.46	46.77	10.34	0.38	
학력	중졸 이하	37.75	32.04	21.69	7.81	0.71	283.664***
	고졸	16.09	40.13	35.99	6.96	0.83	
	대졸 이상	10.68	32.00	47.92	8.77	0.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17	37.83	41.95	7.56	0.49	81.25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66	36.72	31.40	7.20	1.02	
	고용주·자영자	18.93	38.50	32.65	8.45	1.48	
	무급가족종사자	15.31	34.28	45.41	5.00	-	
	실업자	26.00	36.67	29.44	7.90	-	
	비경제활동인구	19.21	30.43	41.83	8.05	0.48	
직업	관리자·전문가	16.42	33.15	36.28	12.4	1.76	69.50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39	37.75	41.28	6.78	0.80	
	숙련 및 기술직	20.49	41.55	30.28	6.84	0.84	
	단순노무종사자	28.63	34.52	25.43	11.04	0.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4	37.84	42.75	7.56	0.31	37.528***
	비정규직	21.49	37.01	32.98	7.30	1.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75	38.47	29.64	7.88	0.26	73.468***
	중도적	15.81	33.90	41.30	7.95	1.05	
	진보적	13.14	35.61	43.21	7.45	0.59	

주: 1) "____님이 15세 무렵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5〉 소득 만족도

(단위: %)

구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χ^2
		것보다 훨씬 더 적다	것보다 약간 더 적다	것만큼 받고 있다	것보다 약간 더 많다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전체		11.61	40.22	45.40	2.46	0.31	
성별	남성	12.13	38.29	45.98	3.15	0.45	12.886**
	여성	11.03	42.35	44.75	1.70	0.16	
연령	20대 이하	11.51	39.43	46.13	2.75	0.18	21.275
	30대	12.33	42.24	42.34	2.84	0.26	
	40대	11.81	42.73	42.32	2.93	0.22	
	50대	12.28	39.81	45.98	1.34	0.6	
	60대 이상	9.74	35.82	51.63	2.53	0.28	
지역	수도권	11.21	40.38	45.57	2.68	0.16	3.247
	비수도권	12.01	40.06	45.23	2.24	0.46	
	대도시	12.17	41.03	44.08	2.56	0.16	18.901**
	중소도시	10.64	39.38	47.28	2.45	0.25	
	농어촌	14.32	40.63	41.54	1.99	1.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54	46.81	23.79	1.75	0.11	345.238***
	중하층	12.43	48.50	37.13	1.63	0.30	
	중간층	6.95	33.41	56.76	2.82	0.07	
	중상층(상층)	5.65	19.89	63.92	7.49	3.0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19	42.59	37.14	1.97	0.10	95.486***
	200만 원대	11.92	44.49	41.51	1.78	0.29	
	300만 원대	13.55	41.25	43.14	1.88	0.19	
	400만 원대	11.00	42.56	43.52	2.79	0.14	
	500만 원 이상	6.46	34.28	55.24	3.38	0.64	
학력	중졸 이하	14.03	41.41	42.83	1.73	-	11.676
	고졸	11.91	40.91	44.51	2.23	0.44	
	대졸 이상	10.43	39.11	47.20	2.95	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1	41.12	47.05	2.07	0.25	62.30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24	43.98	36.78	2.74	0.25	
	고용주·자영자	13.59	36.74	47.44	1.68	0.56	
	무급가족종사자	12.69	35.66	50.56	1.09	-	
	실업자	14.99	41.50	32.59	10.92	-	
	비경제활동인구	9.76	40.72	46.28	3.02	0.23	
직업	관리자·전문가	11.64	36.64	46.47	4.98	0.27	25.37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45	39.37	47.21	1.62	0.35	
	숙련 및 기술직	12.45	44.20	41.38	1.87	0.10	
	단순노무종사자	15.54	39.61	42.33	1.44	1.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9	38.66	49.95	2.08	0.22	38.235***
	비정규직	15.05	47.76	34.36	2.52	0.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47	37.62	46.89	2.72	0.30	12.243
	중도적	10.79	40.16	46.13	2.68	0.24	
	진보적	12.50	43.95	41.48	1.55	0.53	

주: 1) "귀하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6〉 생활수준 인식 Ⅰ: 지난 10년 동안의 생활수준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전체		1.28	27.33	51.23	17.24	2.91	
성별	남성	1.79	27.79	50.23	17.05	3.14	9.294*
	여성	0.76	26.86	52.26	17.43	2.68	
연령	20대 이하	1.54	26.81	59.71	10.66	1.28	158.819***
	30대	2.11	32.66	51.04	11.89	2.30	
	40대	1.11	31.63	48.20	16.62	2.44	
	50대	0.94	27.02	48.43	19.15	4.45	
	60대 이상	0.71	17.69	48.61	28.80	4.18	
지역	수도권	1.66	24.79	52.70	17.07	3.77	24.269***
	비수도권	0.90	29.94	49.73	17.41	2.03	
	대도시	0.91	26.43	51.70	17.59	3.37	14.182*
	중소도시	1.58	27.03	51.72	17.03	2.63	
	농어촌	1.59	34.88	45.15	16.46	1.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1	12.9	40.93	33.71	12.15	420.466***
	중하층	0.72	24.04	51.62	20.73	2.89	
	중간층	1.74	31.96	54.86	10.81	0.63	
	중상층(상층)	3.68	45.93	43.03	7.36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8	14.71	47.40	29.84	7.77	266.639***
	200만 원대	0.76	23.16	51.49	21.47	3.12	
	300만 원대	1.19	26.98	55.90	14.65	1.29	
	400만 원대	1.52	29.49	51.42	15.42	2.14	
	500만 원 이상	2.07	36.46	50.00	10.07	1.39	
학력	중졸 이하	0.63	20.84	46.79	27.85	3.89	84.630***
	고졸	1.52	25.83	52.69	16.55	3.41	
	대졸 이상	1.3	31.6	51.48	13.66	1.9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	30.30	52.63	13.96	1.72	91.52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1	22.24	49.85	24.44	3.16	
	고용주·자영자	2.04	32.22	45.30	17.95	2.49	
	무급가족종사자	1.35	22.57	61.39	14.69	-	
	실업자	0.50	19.16	49.65	20.92	9.77	
	비경제활동인구	1.04	23.52	54.05	17.50	3.89	
직업	관리자·전문가	4.16	39.58	41.39	12.38	2.50	48.78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90	28.56	51.32	16.82	2.40	
	숙련 및 기술직	1.79	30.01	49.43	17.74	1.04	
	단순노무종사자	0.78	20.15	53.83	22.58	2.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	30.59	54.13	12.98	1.11	44.567***
	비정규직	1.00	24.06	47.85	23.21	3.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2	23.68	50.58	19.87	3.96	36.501***
	중도적	0.84	27.41	51.53	17.35	2.87	
	진보적	1.52	32.02	51.38	13.47	1.61	

주: 1)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7〉 생활수준 인식 Ⅱ: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예측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χ^2
전체		1.82	36.21	50.68	10.33	0.95	
성별	남성	2.16	36.42	49.68	10.98	0.76	6.169
	여성	1.48	36.00	51.71	9.66	1.15	
연령	20대 이하	2.79	46.75	46.95	3.29	0.22	487.502***
	30대	3.21	53.64	37.33	5.54	0.28	
	40대	1.90	39.87	50.47	7.36	0.40	
	50대	1.09	27.78	55.82	13.94	1.36	
	60대 이상	0.04	11.47	63.23	22.59	2.67	
지역	수도권	1.69	38.02	49.86	9.48	0.95	6.899
	비수도권	1.96	34.35	51.53	11.20	0.96	
	대도시	1.08	36.07	51.9	10.32	0.62	19.264**
	중소도시	2.39	37.09	49.41	9.99	1.12	
	농어촌	2.75	31.26	51.46	12.58	1.9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1	23.22	56.09	15.11	4.87	171.266***
	중하층	1.28	34.02	51.75	12.51	0.44	
	중간층	2.43	40.93	49.02	7.24	0.38	
	중상층(상층)	3.20	43.05	44.25	9.50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9	18.31	60.06	17.73	3.31	212.937***
	200만 원대	1.32	34.68	50.44	12.54	1.02	
	300만 원대	2.62	39.93	48.41	8.89	0.15	
	400만 원대	0.99	42.02	48.82	7.98	0.19	
	500만 원 이상	2.76	42.09	47.79	6.90	0.46	
학력	중졸 이하	0.25	15.54	62.41	19.73	2.08	205.929***
	고졸	1.89	36.78	51.24	9.14	0.94	
	대졸 이상	2.40	44.02	45.30	7.78	0.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9	43.39	46.81	7.48	0.62	79.01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5	35.83	50.9	11.33	0.68	
	고용주·자영자	3.17	30.73	52.55	13.11	0.44	
	무급가족종사자	1.25	21.48	67.67	9.60	-	
	실업자	1.03	35.73	48.96	12.54	1.75	
	비경제활동인구	1.32	33.40	52.63	10.88	1.76	
직업	관리자·전문가	5.71	40.95	43.23	9.73	0.37	62.22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8	39.97	49.43	8.34	0.57	
	숙련 및 기술직	2.03	33.16	52.06	11.93	0.81	
	단순노무종사자	0.28	23.70	57.49	18.53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2	44.07	46.17	7.41	0.63	10.377**
	비정규직	1.33	36.77	50.92	10.34	0.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3	29.17	53.93	14.67	0.91	69.106***
	중도적	1.63	37.22	50.77	9.15	1.23	
	진보적	2.95	43.15	46.13	7.42	0.35	

주: 1)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8〉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Ⅰ: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기대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전체		1.63	40.13	37.51	17.01	3.72	
성별	남성	2.01	40.35	37.58	16.44	3.62	4.137
	여성	1.25	39.9	37.43	17.60	3.83	
연령	20대 이하	2.17	46.34	35.06	13.10	3.34	43.136***
	30대	0.87	41.91	34.85	17.28	5.09	
	40대	0.89	39.51	39.41	16.76	3.43	
	50대	1.65	36.70	38.75	19.50	3.41	
	60대 이상	2.65	35.91	39.40	18.62	3.41	
지역	수도권	1.85	43.18	33.35	16.98	4.64	35.712***
	비수도권	1.40	37.00	41.77	17.05	2.78	
	대도시	0.63	39.78	37.86	17.90	3.84	26.596***
	중소도시	2.32	40.35	37.91	16.08	3.34	
	농어촌	3.30	40.92	32.66	17.60	5.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2	27.74	37.66	28.42	5.35	198.481***
	중하층	0.72	34.12	41.61	19.77	3.79	
	중간층	1.96	46.73	35.54	12.54	3.24	
	중상층(상층)	7.10	56.40	25.12	7.95	3.4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4	31.79	39.89	22.32	4.37	104.981***
	200만 원대	0.44	37.33	36.26	22.49	3.48	
	300만 원대	2.11	33.96	40.46	19.05	4.43	
	400만 원대	1.57	44.69	37.78	12.94	3.02	
	500만 원 이상	1.97	48.55	34.57	11.55	3.36	
학력	중졸 이하	2.41	34.28	41.54	18.71	3.05	17.691**
	고졸	1.57	39.9	37.98	16.9	3.65	
	대졸 이상	1.38	42.76	35.35	16.44	4.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6	39.90	38.27	16.60	3.77	52.24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1	35.51	37.92	22.86	2.79	
	고용주·자영자	1.61	40.87	40.07	14.91	2.54	
	무급가족종사자	2.59	38.84	37.27	18.65	2.65	
	실업자	0.66	28.20	32.41	31.10	7.63	
	비경제활동인구	2.12	42.81	35.22	15.33	4.51	
직업	관리자·전문가	2.88	46.06	27.23	19.07	4.75	37.23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6	39.00	40.27	16.29	3.18	
	숙련 및 기술직	1.26	38.91	42.07	14.86	2.91	
	단순노무종사자	1.46	35.35	34.40	27.08	1.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4	39.19	38.41	17.26	3.71	1.977
	비정규직	1.12	38.11	37.76	19.81	3.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2	39.50	36.18	18.29	3.51	21.138***
	중도적	1.15	39.29	40.05	15.90	3.61	
	진보적	1.62	43.04	33.05	18.02	4.27	

주: 1) "____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9〉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II: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2.36	48.36	33.30	9.13	6.85	
성별	남성	2.46	49.22	33.04	8.83	6.45	2.059
	여성	2.25	47.48	33.57	9.45	7.25	
연령	20대 이하	3.17	50.93	30.18	6.69	9.05	56.830***
	30대	1.65	47.32	30.77	11.01	9.25	
	40대	2.65	46.63	35.59	7.27	7.86	
	50대	1.84	47.98	35.31	10.30	4.56	
	60대 이상	2.44	48.99	34.52	10.77	3.29	
지역	수도권	2.55	47.29	30.54	10.60	9.02	44.944***
	비수도권	2.16	49.45	36.14	7.63	4.61	
	대도시	0.88	45.92	35.88	10.26	7.06	45.596***
	중소도시	3.40	50.48	31.44	7.91	6.77	
	농어촌	4.72	49.55	29.53	10.17	6.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0	43.07	37.10	10.00	8.72	29.082***
	중하층	2.25	47.40	32.76	9.77	7.82	
	중간층	2.46	50.55	32.58	8.73	5.68	
	중상층(상층)	5.27	49.34	33.99	6.02	5.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9	46.16	34.25	10.53	7.27	20.600
	200만 원대	1.28	47.50	34.80	8.64	7.78	
	300만 원대	2.73	47.24	34.08	9.48	6.47	
	400만 원대	2.14	54.56	29.34	8.55	5.40	
	500만 원 이상	2.99	47.68	33.59	8.64	7.09	
학력	중졸 이하	2.66	46.78	35.75	9.43	5.38	17.236**
	고졸	2.73	49.56	33.55	7.63	6.53	
	대졸 이상	1.84	47.71	32.04	10.63	7.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2	49.63	31.18	10.04	7.13	29.10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5	47.11	34.91	7.26	8.17	
	고용주·자영자	2.65	48.90	35.42	8.29	4.75	
	무급가족종사자	2.07	40.13	33.45	14.73	9.62	
	실업자	1.49	43.47	28.52	16.31	10.20	
	비경제활동인구	2.56	48.03	34.00	8.35	7.07	
직업	관리자·전문가	1.93	46.96	33.32	9.68	8.11	10.26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23	48.23	33.39	9.20	6.95	
	숙련 및 기술직	2.26	52.23	32.62	8.81	4.09	
	단순노무종사자	3.66	46.07	33.20	8.89	8.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3	50.30	31.46	9.72	6.39	5.850
	비정규직	2.18	46.58	33.31	8.68	9.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4	50.94	33.66	8.57	5.09	15.500*
	중도적	2.31	47.26	33.98	9.08	7.37	
	진보적	3.30	47.59	31.17	10.02	7.91	

주: 1) "____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0〉 이념적 성향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χ^2
전체		2.36	25.58	51.15	19.14	1.77	
성별	남성	2.20	26.14	48.60	21.11	1.95	13.951**
	여성	2.52	25.01	53.76	17.13	1.57	
연령	20대 이하	0.75	12.82	54.88	29.48	2.06	475.334***
	30대	0.65	14.61	57.14	25.44	2.16	
	40대	0.70	20.89	55.64	20.91	1.86	
	50대	3.45	34.76	46.99	13.10	1.71	
	60대 이상	6.64	46.42	40.23	5.74	0.98	
지역	수도권	2.72	24.49	50.58	20.28	1.94	7.201
	비수도권	1.99	26.70	51.75	17.98	1.59	
	대도시	1.89	25.88	51.04	18.67	2.52	19.778**
	중소도시	2.88	24.64	51.26	20.16	1.07	
	농어촌	1.82	29.94	51.19	15.36	1.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8	31.83	48.69	12.30	1.29	68.899***
	중하층	2.05	25.21	50.05	20.55	2.14	
	중간층	1.46	23.35	53.56	20.20	1.44	
	중상층(상층)	3.58	31.83	44.71	16.83	3.0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56	32.99	48.29	11.78	1.38	96.450***
	200만 원대	1.62	24.56	53.84	18.74	1.24	
	300만 원대	1.78	25.87	51.72	19.26	1.37	
	400만 원대	0.99	23.13	54.44	19.89	1.55	
	500만 원 이상	1.95	22.78	49.16	23.43	2.69	
학력	중졸 이하	5.85	42.20	45.00	5.90	1.05	216.939***
	고졸	2.00	24.97	52.57	19.12	1.34	
	대졸 이상	1.32	19.46	52.14	24.56	2.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	21.80	52.29	22.21	2.31	66.6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6	27.52	51.96	16.00	1.26	
	고용주·자영자	1.79	29.93	51.04	16.20	1.04	
	무급가족종사자	3.24	33.29	57.11	6.36	-	
	실업자	1.20	13.06	60.36	24.14	1.24	
	비경제활동인구	3.56	26.71	48.41	19.29	2.03	
직업	관리자·전문가	2.94	25.51	46.72	23.04	1.79	62.22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1	21.95	55.68	18.88	1.98	
	숙련 및 기술직	1.72	31.67	45.95	20.01	0.64	
	단순노무종사자	3.67	40.16	45.18	9.29	1.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0	22.27	51.57	22.71	2.14	12.335**
	비정규직	2.88	24.97	53.41	16.86	1.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4	91.56	-	-	0	7338.000***
	중도적	-	-	100	-	-	
	진보적	-	-	-	91.56	8.44	

주: 1) "__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1〉 국가 자긍심

(단위: %)

구분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χ^2
전체		8.19	67.56	22.71	1.55	
성별	남성	8.39	66.05	23.64	1.92	6.360*
	여성	7.98	69.10	21.76	1.16	
연령	20대 이하	6.07	63.22	27.74	2.97	171.439***
	30대	4.71	64.91	27.74	2.63	
	40대	5.14	67.16	26.67	1.04	
	50대	10.11	69.77	19.66	0.46	
	60대 이상	15.57	73.15	10.65	0.63	
지역	수도권	7.55	65.82	24.90	1.72	12.265***
	비수도권	8.84	69.34	20.46	1.36	
	대도시	6.36	65.97	26.24	1.44	33.268***
	중소도시	10.09	68.67	19.67	1.57	
	농어촌	7.03	70.13	20.81	2.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4	54.67	31.17	3.91	74.762***
	중하층	7.11	66.85	24.82	1.21	
	중간층	8.00	71.42	19.25	1.33	
	중상층(상층)	12.25	71.01	16.74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73	63.32	21.89	1.06	40.788***
	200만 원대	8.60	69.04	20.46	1.89	
	300만 원대	6.55	66.92	24.87	1.66	
	400만 원대	6.87	69.06	22.95	1.12	
	500만 원 이상	6.45	68.91	22.83	1.81	
학력	중졸 이하	14.97	69.26	15.62	0.14	74.736***
	고졸	8.14	67.16	23.00	1.70	
	대졸 이상	5.47	67.30	25.29	1.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37	66.76	25.50	1.37	54.63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76	61.38	27.48	2.38	
	고용주·자영자	8.51	71.41	19.15	0.93	
	무급가족종사자	6.89	73.34	18.89	0.87	
	실업자	7.49	59.02	26.87	6.62	
	비경제활동인구	9.87	68.40	20.33	1.40	
직업	관리자·전문가	5.85	72.63	19.27	2.24	19.25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82	66.86	24.93	1.39	
	숙련 및 기술직	7.96	68.24	22.74	1.07	
	단순노무종사자	13.77	64.31	21.07	0.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07	66.95	25.59	1.39	5.602
	비정규직	8.62	62.59	26.73	2.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79	71.97	15.84	0.41	91.262***
	중도적	6.47	68.32	23.66	1.55	
	진보적	7.56	59.80	29.58	3.06	

주: 1) "__님께서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2〉 사회통합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⑩	χ^2
전체		2.67	3.32	11.57	19.77	15.62	28.30	7.91	6.22	4.09	0.46	0.05	
성별	남성	3.20	2.94	13.39	19.27	15.87	26.78	8.61	5.86	3.61	0.43	0.04	25.364***
	여성	2.14	3.72	9.71	20.27	15.36	29.86	7.20	6.59	4.59	0.49	0.07	
연령	20대 이하	2.51	2.15	11.41	20.60	15.36	28.96	7.06	6.19	4.94	0.81	-	60.248**
	30대	4.08	3.22	10.65	18.58	13.90	30.87	8.01	5.75	4.58	0.36	-	
	40대	3.25	5.06	11.87	18.28	14.89	30.13	7.10	5.29	3.30	0.74	0.09	
	50대	1.77	3.49	13.01	19.78	17.89	23.80	8.41	7.79	3.96	0.10	-	
	60대 이상	1.75	2.55	10.73	21.78	15.96	27.89	9.15	6.03	3.71	0.26	0.18	
지역	수도권	3.76	4.10	12.22	18.94	15.19	27.64	7.94	6.07	3.87	0.27	-	32.665***
	비수도권	1.56	2.53	10.90	20.61	16.06	28.98	7.88	6.38	4.33	0.66	0.11	
	대도시	2.39	2.90	11.63	17.23	17.13	28.64	7.67	6.44	5.49	0.48	-	45.307***
	중소도시	3.03	3.64	11.06	21.59	14.43	27.85	8.16	6.32	3.31	0.52	0.08	
	농어촌	2.12	3.87	14.53	23.55	14.04	29.17	7.75	4.16	0.59	-	0.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5	5.73	15.36	23.54	16.19	23.51	4.56	3.55	1.91	-	-	130.841***
	중하층	2.54	4.20	13.08	21.24	16.96	25.68	6.97	5.75	3.23	0.31	0.05	
	중간층	1.78	2.12	9.42	18.07	14.68	31.58	9.38	7.07	5.21	0.62	0.08	
	중상층(상층)	3.99	1.58	10.04	14.72	12.69	30.65	10.24	8.74	6.03	1.32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1	3.49	12.71	22.04	15.69	28.06	7.56	4.66	2.44	0.34	0.3	51.783
	200만 원대	2.95	3.52	11.15	21.33	16.04	26.33	9.22	5.84	3.24	0.37	-	
	300만 원대	2.11	2.75	14.37	19.10	15.60	26.97	7.40	5.83	5.16	0.71	-	
	400만 원대	3.00	3.95	9.34	20.39	15.98	30.39	6.57	6.15	3.65	0.58	-	
	500만 원 이상	2.73	3.18	10.37	17.69	15.19	29.17	8.53	7.70	5.07	0.35	-	

주: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2〉 사회통합 인식(계속)

(단위: %)

구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⑩	χ^2
학력	중졸 이하	2.66	3.29	12.43	22.89	15.57	26.91	6.68	5.94	3.13	0.29	0.2	
	고졸	2.19	3.10	10.53	19.58	16.26	29.83	7.86	6.33	3.95	0.37	-	22.696
	대졸 이상	3.20	3.58	12.34	18.69	14.94	27.22	8.47	6.21	4.65	0.64	0.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6	2.63	12.44	18.02	14.77	27.91	9.54	6.78	4.31	0.5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6	3.88	8.42	23.47	22.29	26.18	5.97	3.62	3.37	0.13	-	
	고용주·자영자	2.79	3.47	13.17	19.75	14.31	28.12	7.86	5.79	4.40	0.25	0.08	101.728***
	무급가족종사자	0.87	4.77	7.31	22.72	19.50	36.65	1.97	5.08	1.14	-	-	
	실업자	8.12	1.39	17.02	13.63	15.36	36.14	0.55	6.50	0.66	-	0.64	
	비경제활동인구	1.72	3.89	10.29	20.81	14.89	28.31	7.98	6.88	4.44	0.74	0.05	
직업	관리자·전문가	3.72	4.83	14.07	20.97	14.34	25.51	7.83	4.72	3.54	0.48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52	2.91	12.08	17.82	16.21	29.27	8.17	5.90	4.76	0.32	0.04	43.611*
	숙련 및 기술직	2.79	3.38	11.61	23.58	14.29	25.36	7.09	7.98	3.36	0.56	-	
	단순노무종사자	4.48	2.15	7.99	21.31	20.65	27.43	12.27	2.19	1.52	-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3	2.64	11.77	17.81	14.91	27.57	9.95	7.23	4.74	0.56	-	27.943***
	비정규직	3.21	3.49	10.85	22.28	19.84	27.34	6.25	3.71	2.83	0.1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6	3.25	10.59	21.26	15.15	27.93	8.27	6.76	4.07	0.51	0.06	
	중도적	2.82	2.95	10.89	19.30	15.21	30.37	7.90	6.21	3.87	0.46	0.03	26.7546
	진보적	3.01	4.35	14.55	18.92	17.25	23.76	7.48	5.50	4.68	0.42	0.10	

주: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3〉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2.51	6.08	19.60	43.83	27.97	
성별	남성	2.80	6.36	19.13	44.11	27.60	2.373
	여성	2.22	5.81	20.08	43.55	28.34	
연령	20대 이하	3.42	4.74	18.17	44.77	28.89	17.933
	30대	2.05	6.60	20.68	43.98	26.69	
	40대	2.24	6.10	20.55	43.50	27.61	
	50대	2.35	7.54	20.77	40.17	29.17	
	60대 이상	2.46	5.38	17.66	47.20	27.30	
지역	수도권	1.93	3.98	20.62	43.18	30.29	42.064***
	비수도권	3.11	8.25	18.56	44.51	25.58	
	대도시	2.66	7.15	20.64	41.94	27.62	34.882***
	중소도시	1.92	4.56	18.98	46.44	28.11	
	농어촌	5.50	9.49	17.30	38.50	29.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5	2.74	12.22	40.75	41.34	82.916***
	중하층	1.84	6.79	18.69	44.27	28.42	
	중간층	2.88	6.57	21.6	43.81	25.14	
	중상층(상층)	3.06	5.16	26.84	48.41	16.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6	6.16	16.30	39.12	35.96	50.054***
	200만 원대	2.98	4.16	17.31	47.62	27.92	
	300만 원대	3.16	5.64	18.35	44.56	28.29	
	400만 원대	1.95	6.00	21.58	45.36	25.11	
	500만 원 이상	2.14	7.40	22.72	43.42	24.31	
학력	중졸 이하	1.60	5.83	17.72	42.27	32.57	15.527**
	고졸	2.82	5.69	18.63	44.77	28.09	
	대졸 이상	2.55	6.61	21.42	43.46	25.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5	5.83	20.83	44.37	26.22	18.82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9	6.10	17.26	42.31	31.64	
	고용주·자영자	2.92	6.41	18.97	44.10	27.60	
	무급가족종사자	1.81	8.84	19.84	35.15	34.37	
	실업자	3.07	8.04	17.46	34.62	36.81	
	비경제활동인구	1.88	5.75	19.77	45.07	27.53	
직업	관리자·전문가	1.27	8.25	26.84	37.76	25.88	24.97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12	5.88	19.59	43.94	27.46	
	숙련 및 기술직	2.50	6.65	16.27	47.52	27.06	
	단순노무종사자	2.78	3.84	18.46	40.17	34.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8	5.99	20.31	45.89	25.23	9.126*
	비정규직	3.01	5.73	19.26	40.09	31.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5	7.48	19.12	40.36	29.68	29.283***
	중도적	2.35	5.79	17.90	46.17	27.80	
	진보적	1.80	4.94	24.42	42.75	26.08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4〉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II: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53	3.99	18.89	38.63	36.95	
성별	남성	1.72	3.54	19.30	38.51	36.93	3.057
	여성	1.34	4.44	18.48	38.76	36.98	
연령	20대 이하	2.15	2.39	20.99	39.57	34.90	27.091**
	30대	2.01	5.42	20.54	37.25	34.78	
	40대	1.48	3.77	19.15	37.07	38.53	
	50대	0.97	4.56	15.54	40.76	38.16	
	60대 이상	1.04	3.89	18.34	38.42	38.32	
지역	수도권	1.57	3.47	20.56	39.23	35.18	11.569**
	비수도권	1.50	4.51	17.19	38.02	38.78	
	대도시	1.68	4.48	19.47	40.04	34.34	21.045***
	중소도시	1.37	3.03	18.68	37.87	39.05	
	농어촌	1.64	7.20	16.80	34.96	39.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5	2.41	12.73	40.02	43.09	31.191***
	중하층	1.75	3.48	18.91	38.42	37.43	
	중간층	1.30	5.02	20.79	37.87	35.01	
	중상층(상층)	1.45	2.63	17.70	43.08	35.1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2	4.42	16.78	37.89	39.98	39.582***
	200만 원대	3.19	1.79	16.77	40.93	37.33	
	300만 원대	1.32	4.09	17.26	38.28	39.04	
	400만 원대	1.50	3.49	21.13	38.41	35.47	
	500만 원 이상	1.17	5.12	21.32	38.24	34.14	
학력	중졸 이하	0.53	2.68	17.06	41.56	38.17	19.598**
	고졸	1.71	3.53	18.04	39.36	37.37	
	대졸 이상	1.75	5.01	20.57	36.66	36.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4	4.62	19.71	39.41	34.51	27.7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93	1.83	20.44	40.37	35.43	
	고용주·자영자	1.02	4.13	16.44	37.99	40.42	
	무급가족종사자	0.87	3.97	17.44	39.50	38.22	
	실업자	3.20	3.85	26.97	26.69	39.28	
	비경제활동인구	1.40	3.97	18.47	38.81	37.34	
직업	관리자·전문가	1.50	4.76	24.00	35.80	33.94	20.3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8	4.54	18.81	38.16	36.90	
	숙련 및 기술직	1.24	2.82	14.50	42.89	38.55	
	단순노무종사자	1.76	1.55	21.46	41.53	33.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6	4.21	20.57	39.38	34.19	1.86
	비정규직	2.04	3.42	18.63	40.15	35.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2	4.93	16.11	38.46	38.88	32.903***
	중도적	1.79	2.88	18.70	38.82	37.81	
	진보적	0.79	5.42	23.10	38.41	32.28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5〉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Ⅲ: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3.70	6.60	26.05	35.88	27.77	
성별	남성	4.37	7.66	27.67	34.55	25.75	22.038***
	여성	3.02	5.51	24.39	37.24	29.83	
연령	20대 이하	4.26	6.85	25.79	31.95	31.15	23.179
	30대	4.31	6.18	26.82	33.40	29.29	
	40대	2.62	6.72	25.12	37.27	28.27	
	50대	3.71	5.72	26.15	37.91	26.51	
	60대 이상	3.70	7.59	26.50	38.98	23.22	
지역	수도권	2.61	3.84	26.88	37.61	29.06	62.068***
	비수도권	4.83	9.43	25.19	34.10	26.45	
	대도시	4.48	7.46	27.07	33.5	27.49	21.28***
	중소도시	2.92	5.37	25.57	38.02	28.12	
	농어촌	4.00	9.28	22.89	36.63	27.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5	6.31	25.08	32.83	30.74	11.821
	중하층	3.33	5.69	26.31	37.37	27.30	
	중간층	3.49	7.29	26.37	35.33	27.51	
	중상층(상층)	4.85	7.72	23.88	37.40	26.1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9	7.48	25.68	34.18	28.66	8.403
	200만 원대	3.47	6.26	24.85	37.69	27.72	
	300만 원대	3.54	5.12	25.15	37.65	28.55	
	400만 원대	3.60	6.85	27.00	35.86	26.69	
	500만 원 이상	3.83	7.15	27.10	34.73	27.19	
학력	중졸 이하	4.10	7.77	24.07	39.51	24.56	9.332
	고졸	3.92	6.42	26.30	34.70	28.67	
	대졸 이상	3.31	6.31	26.59	35.68	28.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0	6.57	25.51	34.24	29.68	22.3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10	5.86	24.10	38.16	27.79	
	고용주·자영자	3.90	7.17	24.68	38.23	26.02	
	무급가족종사자	3.08	12.64	29.53	39.62	15.14	
	실업자	4.05	8.37	31.54	28.09	27.95	
	비경제활동인구	3.10	5.93	27.55	35.74	27.68	
직업	관리자·전문가	5.57	6.44	30.13	33.98	23.88	19.34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1	6.51	24.39	35.16	30.33	
	숙련 및 기술직	3.87	7.60	24.71	40.69	23.13	
	단순노무종사자	4.71	7.76	24.94	37.33	25.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8	6.68	25.14	35.39	29.11	1.287
	비정규직	4.66	5.85	25.20	34.87	29.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5.36	5.72	27.40	37.17	24.36	24.308***
	중도적	3.16	6.45	24.92	35.98	29.50	
	진보적	2.81	8.14	27.02	33.92	28.11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6〉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Ⅳ: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17	3.56	14.85	41.05	39.37	
성별	남성	1.45	4.32	14.48	41.26	38.50	9.741**
	여성	0.88	2.79	15.23	40.83	40.27	
연령	20대 이하	2.26	3.25	13.40	39.32	41.77	31.159**
	30대	1.05	3.48	18.81	39.38	37.29	
	40대	1.10	3.48	14.13	40.78	40.52	
	50대	0.61	3.36	15.23	40.56	40.24	
	60대 이상	0.76	4.33	12.77	45.60	36.54	
지역	수도권	1.11	2.19	13.97	42.29	40.43	24.438***
	비수도권	1.22	4.97	15.76	39.76	38.28	
	대도시	1.44	3.38	16.00	40.29	38.89	34.543***
	중소도시	0.84	2.87	13.99	42.44	39.86	
	농어촌	1.62	9.18	13.45	36.56	39.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1	3.42	9.47	35.99	49.11	38.309***
	중하층	1.01	3.23	15.04	40.18	40.54	
	중간층	1.02	3.75	16.03	42.84	36.37	
	중상층(상층)	1.45	4.66	16.59	44.13	33.1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6	3.99	13.38	39.71	41.86	24.156*
	200만 원대	1.92	4.00	12.56	39.13	42.40	
	300만 원대	1.29	2.51	14.89	40.28	41.03	
	400만 원대	1.31	2.88	16.05	42.65	37.10	
	500만 원 이상	0.66	4.18	16.36	42.67	36.15	
학력	중졸 이하	0.87	4.80	13.36	43.10	37.89	12.717
	고졸	1.49	3.29	13.90	40.44	40.89	
	대졸 이상	0.93	3.35	16.50	40.87	38.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0	3.11	15.33	39.63	40.33	26.59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7	3.51	14.46	40.43	39.52	
	고용주·자영자	0.77	3.81	15.64	40.43	39.34	
	무급가족종사자	0.94	4.41	21.01	51.58	22.06	
	실업자	-	5.79	8.87	39.23	46.12	
	비경제활동인구	0.78	3.61	14.16	42.81	38.64	
직업	관리자·전문가	2.12	4.86	13.99	40.76	38.28	20.88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5	2.89	16.39	38.81	40.76	
	숙련 및 기술직	1.27	4.28	14.65	45.77	34.03	
	단순노무종사자	2.66	3.56	11.90	37.75	44.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2	3.46	16.16	40.12	38.84	5.623
	비정규직	2.29	2.74	13.16	39.28	42.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2	3.36	15.33	42.36	37.73	5.599
	중도적	1.33	3.72	14.2	40.18	40.57	
	진보적	0.7	3.43	15.82	41.41	38.65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7〉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22	4.09	16.48	40.51	37.69	
성별	남성	1.37	4.88	15.68	40.37	37.71	7.768
	여성	1.07	3.29	17.29	40.66	37.68	
연령	20대 이하	1.79	3.62	16.77	39.71	38.11	17.138
	30대	1.26	5.20	17.52	37.91	38.11	
	40대	1.23	3.90	15.74	38.32	40.81	
	50대	0.62	4.19	16.33	43.24	35.63	
	60대 이상	1.22	3.57	16.10	43.59	35.52	
지역	수도권	1.22	2.88	16.93	40.76	38.21	14.394***
	비수도권	1.22	5.34	16.01	40.26	37.16	
	대도시	1.21	3.85	16.16	40.66	38.12	24.634***
	중소도시	1.13	3.52	17.38	40.34	37.63	
	농어촌	1.88	9.34	12.54	40.78	35.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2	2.36	12.53	36.14	47.05	44.794***
	중하층	0.89	3.89	16.37	39.65	39.19	
	중간층	1.21	4.45	17.74	41.43	35.15	
	중상층(상층)	1.88	6.56	16.13	49.19	26.2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5	4.89	14.02	38.97	41.18	25.24*
	200만 원대	1.44	3.15	15.63	39.51	40.27	
	300만 원대	1.56	3.78	15.42	41.94	37.30	
	400만 원대	1.76	2.93	18.19	39.55	37.57	
	500만 원 이상	0.74	4.97	18.30	41.56	34.43	
학력	중졸 이하	0.93	3.47	16.89	44.22	34.50	8.819
	고졸	1.35	3.79	15.94	40.92	38.00	
	대졸 이상	1.20	4.67	16.89	38.56	38.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	4.43	15.60	39.36	39.60	36.28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5	2.78	16.69	39.13	38.85	
	고용주·자영자	1.09	5.42	15.31	42.45	35.73	
	무급가족종사자	1.81	7.26	16.07	38.60	36.27	
	실업자	1.86	5.52	14.30	29.05	49.28	
	비경제활동인구	0.97	2.90	18.45	42.16	35.52	
직업	관리자·전문가	2.51	4.57	19.75	39.32	33.86	14.3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6	4.59	15.01	39.06	40.19	
	숙련 및 기술직	1.02	4.89	15.54	43.79	34.76	
	단순노무종사자	1.48	3.42	15.87	42.64	36.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5	4.80	15.57	39.21	39.56	10.994**
	비정규직	2.40	2.56	16.43	39.48	39.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2	4.70	17.02	43.23	34.14	29.875***
	중도적	1.53	3.61	14.57	41.32	38.97	
	진보적	0.87	4.47	20.44	34.91	39.31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8〉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VI: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4.27	9.54	26.97	38.27	20.95	
성별	남성	4.25	9.86	26.81	38.30	20.78	0.488
	여성	4.29	9.22	27.14	38.23	21.12	
연령	20대 이하	5.33	9.79	25.16	35.68	24.05	32.853***
	30대	5.21	8.79	29.99	34.33	21.67	
	40대	2.93	9.17	24.58	41.69	21.63	
	50대	3.74	10.92	28.43	37.40	19.51	
	60대 이상	4.24	8.92	27.00	42.28	17.56	
지역	수도권	4.83	8.07	27.32	38.61	21.17	11.645**
	비수도권	3.69	11.05	26.62	37.91	20.72	
	대도시	4.46	10.47	25.77	38.28	21.02	13.51*
	중소도시	4.32	8.13	28.27	38.69	20.58	
	농어촌	2.76	13.06	25.90	35.37	22.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3	9.73	28.34	34.78	22.12	11.098
	중하층	4.51	9.60	26.04	39.52	20.32	
	중간층	3.64	9.49	27.09	37.99	21.79	
	중상층(상층)	5.97	9.10	29.24	40.16	15.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9	10.74	26.54	39.25	19.98	18.574
	200만 원대	6.44	9.14	27.38	35.36	21.68	
	300만 원대	4.48	10.53	25.99	37.94	21.07	
	400만 원대	4.68	8.05	27.10	40.87	19.30	
	500만 원 이상	3.21	9.17	27.71	38.13	21.79	
학력	중졸 이하	3.28	10.79	27.37	41.89	16.67	15.893**
	고졸	4.75	9.95	25.60	37.79	21.90	
	대졸 이상	4.15	8.59	28.29	37.29	21.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2	9.85	27.31	37.41	21.40	16.47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45	8.16	25.62	41.17	19.60	
	고용주·자영자	3.32	10.25	27.50	38.36	20.57	
	무급가족종사자	2.92	12.61	32.97	33.32	18.18	
	실업자	7.32	13.78	21.41	35.89	21.60	
	비경제활동인구	4.56	8.57	26.93	38.63	21.31	
직업	관리자·전문가	5.14	8.23	35.13	34.00	17.50	33.92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09	9.69	26.64	36.84	22.74	
	숙련 및 기술직	3.14	12.42	23.01	43.59	17.85	
	단순노무종사자	3.87	5.73	32.19	41.20	17.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1	9.23	27.28	38.93	20.25	1.301
	비정규직	4.49	9.82	26.17	37.25	22.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46	9.69	26.72	40.50	18.62	6.181
	중도적	4.29	9.44	26.87	37.31	22.09	
	진보적	3.94	9.58	27.58	37.62	21.28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9〉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Ⅶ: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33	3.13	17.91	37.34	40.29	
성별	남성	1.55	3.69	18.79	38.22	37.76	13.476***
	여성	1.10	2.57	17.01	36.44	42.89	
연령	20대 이하	2.74	2.33	17.59	37.12	40.22	36.495***
	30대	1.24	3.51	22.41	35.60	37.25	
	40대	1.00	4.07	15.55	38.26	41.12	
	50대	0.98	3.12	18.18	35.97	41.75	
	60대 이상	0.59	2.58	16.00	39.89	40.94	
지역	수도권	1.04	2.32	18.01	35.49	43.14	21.303***
	비수도권	1.62	3.97	17.80	39.24	37.37	
	대도시	1.28	2.66	21.33	36.52	38.20	30.376***
	중소도시	1.34	3.25	15.41	38.34	41.65	
	농어촌	1.50	5.28	13.02	35.83	44.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2	2.55	14.85	32.14	48.45	26.397***
	중하층	1.14	2.78	18.55	36.68	40.84	
	중간층	1.12	3.55	18.11	39.39	37.83	
	중상층(상층)	2.67	3.53	19.04	37.25	37.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2	2.89	17.85	33.77	44.57	13.408
	200만 원대	1.59	3.85	18.22	37.08	39.25	
	300만 원대	1.73	2.85	17.98	37.42	40.02	
	400만 원대	1.15	3.91	17.60	39.87	37.46	
	500만 원 이상	1.24	2.68	17.87	38.32	39.89	
학력	중졸 이하	0.63	2.00	16.17	38.13	43.07	11.238
	고졸	1.70	3.68	17.80	37.40	39.43	
	대졸 이상	1.21	3.01	18.73	36.96	40.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7	2.87	18.70	37.47	39.38	24.83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3	2.60	18.86	35.21	40.69	
	고용주·자영자	0.68	3.28	17.75	37.54	40.75	
	무급가족종사자	0.87	3.32	12.67	45.21	37.92	
	실업자	2.92	6.21	18.70	26.47	45.70	
	비경제활동인구	0.92	3.17	17.05	38.47	40.40	
직업	관리자·전문가	0.86	2.22	21.08	40.05	35.79	21.52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91	2.65	17.94	37.87	39.63	
	숙련 및 기술직	0.31	4.50	16.01	36.21	42.96	
	단순노무종사자	1.38	2.66	22.75	32.03	41.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2	2.82	19.55	38.10	37.82	5.065
	비정규직	2.05	2.79	17.23	34.70	43.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	3.38	16.83	36.23	42.49	13.586*
	중도적	1.56	2.89	17.01	38.03	40.51	
	진보적	1.09	3.39	21.56	37.12	36.83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0〉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Ⅷ: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3.14	4.80	21.19	37.61	33.26	
성별	남성	2.98	5.33	21.91	38.00	31.77	6.077
	여성	3.30	4.26	20.45	37.22	34.78	
연령	20대 이하	3.27	4.46	19.69	35.46	37.12	23.739*
	30대	4.13	5.28	22.97	34.69	32.94	
	40대	2.04	3.97	20.60	39.47	33.91	
	50대	3.23	5.62	20.70	41.26	29.19	
	60대 이상	3.13	4.72	22.26	36.77	33.11	
지역	수도권	3.20	3.31	20.32	37.83	35.35	23.821***
	비수도권	3.08	6.33	22.08	37.39	31.12	
	대도시	3.80	5.15	22.29	35.73	33.03	14.292*
	중소도시	2.55	4.20	20.68	39.48	33.09	
	농어촌	2.96	6.61	17.67	37.00	35.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0	3.20	21.23	35.84	36.33	13.716
	중하층	3.87	5.16	21.10	36.50	33.36	
	중간층	2.39	4.88	21.16	38.63	32.94	
	중상층(상층)	3.69	5.42	21.94	41.06	27.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1	5.28	20.73	33.66	36.42	15.279
	200만 원대	3.73	4.59	20.41	38.64	32.62	
	300만 원대	3.34	4.90	21.32	38.20	32.25	
	400만 원대	2.81	5.70	21.59	39.92	29.99	
	500만 원 이상	2.39	4.07	21.57	37.89	34.07	
학력	중졸 이하	3.04	5.40	20.09	35.45	36.02	8.804
	고졸	3.43	4.76	22.59	36.42	32.80	
	대졸 이상	2.87	4.60	20.13	39.78	32.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7	5.38	19.94	38.99	32.12	33.7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18	5.32	20.48	35.14	34.89	
	고용주·자영자	2.83	4.55	21.56	40.06	31.00	
	무급가족종사자	6.57	8.08	29.17	28.33	27.86	
	실업자	2.39	2.21	25.62	24.28	45.50	
	비경제활동인구	2.40	4.24	21.60	37.16	34.60	
직업	관리자·전문가	3.09	2.91	20.88	42.68	30.44	12.35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97	5.56	19.88	38.56	32.02	
	숙련 및 기술직	2.50	5.84	21.79	36.95	32.92	
	단순노무종사자	3.01	3.50	25.53	35.17	32.7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6	5.85	20.17	39.29	31.32	5.587
	비정규직	4.39	4.45	19.88	35.70	35.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32	5.09	21.34	36.66	32.59	14.911*
	중도적	2.76	4.67	19.78	38.27	34.52	
	진보적	2.49	4.72	24.43	37.28	31.08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1〉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Ⅸ: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21	3.33	16.83	35.81	42.82	
성별	남성	1.48	3.93	16.93	34.98	42.68	7.114
	여성	0.93	2.72	16.72	36.66	42.98	
연령	20대 이하	2.00	2.82	19.04	32.41	43.74	28.348**
	30대	1.52	2.84	19.49	33.95	42.20	
	40대	0.95	3.13	16.18	38.81	40.94	
	50대	0.97	3.30	14.71	37.41	43.62	
	60대 이상	0.56	4.69	14.73	36.28	43.73	
지역	수도권	0.59	1.67	15.71	35.34	46.70	59.289***
	비수도권	1.84	5.04	17.98	36.30	38.85	
	대도시	0.91	3.21	17.39	36.54	41.94	12.256
	중소도시	1.49	2.99	16.24	35.32	43.96	
	농어촌	1.17	6.28	17.17	34.52	40.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9	2.96	12.62	34.50	48.64	19.518*
	중하층	1.30	3.13	17.08	34.24	44.23	
	중간층	1.03	3.47	17.96	36.83	40.70	
	중상층(상층)	1.75	4.41	15.65	41.25	36.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	4.37	15.06	34.10	46.47	31.567**
	200만 원대	2.12	2.59	17.85	35.95	41.49	
	300만 원대	1.13	2.78	14.66	37.67	43.75	
	400만 원대	0.90	3.02	19.63	33.48	42.97	
	500만 원 이상	1.67	3.66	17.39	36.77	40.51	
학력	중졸 이하	0.44	3.85	14.17	35.61	45.93	16.907**
	고졸	1.79	3.71	16.95	35.37	42.17	
	대졸 이상	0.88	2.71	17.78	36.37	42.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4	2.48	17.46	35.42	43.09	43.5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2	4.08	15.01	35.97	43.53	
	고용주·자영자	0.87	4.65	15.86	38.65	39.97	
	무급가족종사자	3.07	3.31	25.09	29.03	39.50	
	실업자	0.99	1.51	28.26	18.10	51.14	
	비경제활동인구	0.92	3.23	15.81	36.37	43.68	
직업	관리자·전문가	1.44	1.48	18.39	34.54	44.15	14.04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40	3.34	17.85	35.88	41.52	
	숙련 및 기술직	1.09	4.44	13.19	39.73	41.55	
	단순노무종사자	1.43	4.73	14.94	34.18	44.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3	2.78	17.35	35.65	42.49	1.799
	비정규직	1.11	3.05	15.94	35.38	44.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3	3.77	15.18	35.97	43.75	15.658**
	중도적	1.40	3.06	16.57	34.85	44.11	
	진보적	0.56	3.39	19.66	37.95	38.44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2〉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49	3.28	15.46	37.22	42.56	
성별	남성	2.03	3.52	15.05	38.08	41.32	10.558**
	여성	0.94	3.02	15.88	36.34	43.82	
연령	20대 이하	2.70	3.40	12.61	38.90	42.39	23.001
	30대	1.80	3.48	15.68	38.70	40.34	
	40대	1.29	2.84	17.48	35.40	42.98	
	50대	0.87	3.23	16.22	35.67	44.02	
	60대 이상	0.74	3.48	15.22	37.65	42.90	
지역	수도권	1.27	1.58	14.27	37.39	45.49	45.366***
	비수도권	1.72	5.02	16.69	37.04	39.54	
	대도시	1.81	3.60	16.06	37.19	41.35	15.286*
	중소도시	1.12	2.59	15.31	37.79	43.19	
	농어촌	1.95	5.76	12.77	33.63	45.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9	1.82	14.71	31.32	50.16	29.52***
	중하층	1.27	2.73	16.65	36.01	43.34	
	중간층	1.43	4.11	14.69	39.88	39.90	
	중상층(상층)	2.36	3.60	15.43	37.50	41.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1	3.55	15.42	34.28	45.34	7.549
	200만 원대	1.55	2.84	15.56	36.36	43.69	
	300만 원대	1.71	3.18	15.21	37.45	42.45	
	400만 원대	1.40	3.36	15.96	40.35	38.93	
	500만 원 이상	1.41	3.37	15.31	37.69	42.22	
학력	중졸 이하	0.83	3.70	15.34	36.33	43.81	3.803
	고졸	1.54	3.20	15.93	37.60	41.73	
	대졸 이상	1.71	3.18	15.00	37.17	42.9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4	2.90	16.44	37.39	41.33	25.12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3	2.47	13.68	37.99	44.04	
	고용주·자영자	0.69	3.99	14.80	38.25	42.27	
	무급가족종사자	1.49	5.45	14.86	42.36	35.84	
	실업자	4.34	2.58	15.08	27.12	50.88	
	비경제활동인구	1.16	3.4	15.59	36.74	43.11	
직업	관리자·전문가	1.44	1.65	16.46	41.66	38.78	10.11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89	3.49	14.90	37.36	42.37	
	숙련 및 기술직	0.76	3.61	15.72	37.74	42.18	
	단순노무종사자	0.49	2.70	17.43	37.30	42.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9	3.29	16.01	38.03	40.47	5.866
	비정규직	1.39	1.86	15.26	36.63	44.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1	3.29	14.37	37.32	43.31	13.921*
	중도적	1.70	3.21	14.93	36.38	43.78	
	진보적	0.69	3.42	18.21	39.13	38.55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3〉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I: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0.96	4.08	16.73	39.12	39.10	
성별	남성	1.18	4.70	17.03	38.35	38.75	6.165
	여성	0.75	3.45	16.44	39.91	39.47	
연령	20대 이하	1.25	4.13	16.97	39.47	38.19	18.625
	30대	1.55	3.57	19.49	38.63	36.76	
	40대	1.08	4.40	14.20	38.56	41.76	
	50대	0.34	4.07	17.52	38.10	39.97	
	60대 이상	0.60	4.19	15.65	41.05	38.51	
지역	수도권	0.66	1.75	16.85	38.90	41.84	61.004***
	비수도권	1.28	6.47	16.62	39.35	36.29	
	대도시	0.99	4.56	18.26	39.04	37.15	24.208***
	중소도시	0.78	3.14	15.89	39.65	40.54	
	농어촌	2.02	7.24	12.78	36.16	41.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9	2.65	12.01	34.50	49.35	40.144***
	중하층	0.82	3.40	18.11	38.74	38.93	
	중간층	0.84	4.86	17.02	40.10	37.19	
	중상층(상층)	1.79	5.67	16.15	44.54	31.8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2	4.39	15.52	37.02	42.15	21.012
	200만 원대	1.38	3.21	19.55	38.71	37.14	
	300만 원대	1.00	3.49	16.96	39.88	38.66	
	400만 원대	0.69	3.33	19.05	40.83	36.10	
	500만 원 이상	0.89	5.19	14.56	39.19	40.16	
학력	중졸 이하	0.44	3.93	14.63	39.64	41.36	8.623
	고졸	1.32	4.44	16.96	39.29	37.99	
	대졸 이상	0.79	3.75	17.35	38.72	39.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1	4.35	17.69	37.58	39.46	40.7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0	1.96	14.69	39.69	42.46	
	고용주·자영자	0.72	4.77	14.31	40.03	40.17	
	무급가족종사자	4.31	3.22	21.22	42.30	28.95	
	실업자	3.25	3.76	24.26	27.42	41.31	
	비경제활동인구	0.68	4.12	17.13	40.95	37.12	
직업	관리자·전문가	0.86	5.59	17.86	38.91	36.79	11.80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8	3.41	16.08	39.41	40.02	
	숙련 및 기술직	0.92	5.59	14.78	39.19	39.52	
	단순노무종사자	0.58	3.22	18.74	33.13	44.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5	4.85	17.56	37.94	38.59	12.214**
	비정규직	0.85	1.72	15.82	38.41	43.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4	4.71	14.93	40.29	39.63	22.109***
	중도적	1.36	3.75	16.99	37.10	40.79	
	진보적	0.70	4.03	18.52	42.49	34.27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4〉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II: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76	5.21	21.84	39.51	31.68	
성별	남성	2.22	5.91	21.85	38.76	31.25	8.843*
	여성	1.29	4.49	21.82	40.28	32.12	
연령	20대 이하	2.86	5.57	20.17	37.88	33.52	22.588
	30대	1.70	5.15	24.17	40.76	28.22	
	40대	1.06	4.89	22.99	39.58	31.48	
	50대	1.99	4.52	22.77	38.26	32.46	
	60대 이상	1.14	6.01	18.87	41.42	32.56	
지역	수도권	1.62	2.75	23.22	38.61	33.79	53.434***
	비수도권	1.91	7.73	20.41	40.44	29.51	
	대도시	2.19	6.39	21.66	38.61	31.16	16.367**
	중소도시	1.24	3.99	22.14	40.57	32.05	
	농어촌	2.55	5.84	20.96	38.2	32.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6	4.38	16.44	37.85	38.96	25.65**
	중하층	1.47	5.08	21.73	40.67	31.05	
	중간층	1.66	5.70	23.03	38.91	30.70	
	중상층(상층)	3.24	4.00	25.46	40.49	26.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2	5.90	20.01	40.10	32.07	10.104
	200만 원대	1.82	4.68	21.74	36.60	35.16	
	300만 원대	2.09	5.47	21.15	40.40	30.88	
	400만 원대	1.36	4.35	23.84	39.99	30.46	
	500만 원 이상	1.63	5.36	22.45	39.89	30.68	
학력	중졸 이하	1.04	5.71	20.07	41.82	31.37	14.898*
	고졸	2.24	5.82	22.09	36.97	32.87	
	대졸 이상	1.54	4.34	22.29	41.31	30.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2	4.68	21.24	41.29	30.57	18.29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8	4.83	22.83	36.08	33.78	
	고용주·자영자	1.25	5.94	21.15	39.50	32.16	
	무급가족종사자	1.49	6.36	28.54	37.00	26.61	
	실업자	3.25	6.39	21.17	31.21	37.98	
	비경제활동인구	1.24	5.19	22.30	39.82	31.44	
직업	관리자·전문가	1.47	5.30	25.79	40.00	27.44	11.36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15	5.01	20.78	39.55	32.51	
	숙련 및 기술직	1.43	5.87	20.46	42.26	29.98	
	단순노무종사자	2.06	4.24	26.14	34.43	33.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1	4.95	21.92	41.05	29.67	4.176
	비정규직	2.05	4.29	21.08	38.06	34.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0	4.70	22.20	39.35	31.56	12.793
	중도적	1.86	5.12	20.90	38.94	33.19	
	진보적	0.95	6.11	23.65	41.14	28.15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5〉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Ⅲ: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08	3.67	15.93	39.99	39.33	
성별	남성	1.37	4.26	15.34	40.82	38.21	8.934*
	여성	0.79	3.07	16.52	39.14	40.47	
연령	20대 이하	1.25	3.84	14.05	38.45	42.42	55.3***
	30대	2.31	2.43	18.59	33.49	43.19	
	40대	0.63	3.17	13.65	41.46	41.10	
	50대	0.85	4.40	17.01	41.37	36.36	
	60대 이상	0.42	4.54	16.67	45.25	33.11	
지역	수도권	0.93	2.19	14.28	40.62	41.98	37.016***
	비수도권	1.24	5.20	17.62	39.34	36.60	
	대도시	1.03	4.18	16.91	40.48	37.40	22.571***
	중소도시	1.16	2.64	15.47	40.01	40.72	
	농어촌	0.93	7.29	12.80	36.86	42.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4	1.66	15.68	33.85	45.77	51.085***
	중하층	0.98	3.23	15.98	38.50	41.32	
	중간층	0.64	4.58	16.36	42.24	36.19	
	중상층(상층)	0.87	3.96	12.58	46.32	36.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6	4.34	17.73	36.93	39.94	19.889
	200만 원대	1.40	3.37	16.03	36.25	42.95	
	300만 원대	0.88	3.00	14.73	41.73	39.65	
	400만 원대	1.65	2.76	15.15	43.30	37.14	
	500만 원 이상	0.77	4.40	16.06	40.91	37.86	
학력	중졸 이하	0.97	4.00	17.05	42.47	35.51	6.917
	고졸	1.07	4.09	15.77	39.33	39.74	
	대졸 이상	1.15	3.09	15.64	39.70	40.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1	3.98	16.14	37.39	41.70	50.9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4	2.88	16.33	36.68	41.58	
	고용주·자영자	0.73	3.51	15.12	44.56	36.07	
	무급가족종사자	1.49	5.35	15.04	48.93	29.20	
	실업자	4.55	4.15	13.26	26.99	51.05	
	비경제활동인구	0.74	3.59	16.46	41.53	37.68	
직업	관리자·전문가	0.69	4.47	12.05	36.50	46.30	24.86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8	3.26	16.55	38.64	40.37	
	숙련 및 기술직	0.39	4.50	14.96	43.62	36.53	
	단순노무종사자	2.63	3.87	17.53	45.28	3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3	4.02	16.11	38.54	40.40	5.564
	비정규직	1.80	3.12	16.32	34.73	44.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1	4.39	17.75	39.89	37.06	18.409**
	중도적	1.27	3.21	13.82	40.63	41.07	
	진보적	0.86	3.85	18.63	38.57	38.09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6〉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IV: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0.49	2.25	9.83	33.88	53.55	
성별	남성	0.60	2.93	9.44	33.56	53.47	9.336*
	여성	0.37	1.56	10.22	34.22	53.63	
연령	20대 이하	0.53	2.05	8.97	33.44	55.00	22.132
	30대	0.61	3.45	10.71	29.16	56.06	
	40대	0.46	2.17	10.45	33.05	53.86	
	50대	0.39	2.05	9.07	35.13	53.36	
	60대 이상	0.45	1.56	10.00	38.85	49.13	
지역	수도권	0.43	1.37	8.25	32.87	57.08	32.907***
	비수도권	0.54	3.17	11.44	34.92	49.92	
	대도시	0.27	2.23	9.65	36.24	51.60	24.829***
	중소도시	0.68	1.82	9.73	32.61	55.17	
	농어촌	0.60	5.27	11.56	27.61	54.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8	1.49	6.47	30.49	60.98	38.91***
	중하층	0.40	2.02	9.39	30.80	57.39	
	중간층	0.53	2.58	11.04	36.84	49.01	
	중상층(상층)	0.52	3.00	10.77	38.72	46.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5	2.88	8.26	33.86	54.84	17.416
	200만 원대	1.00	1.74	8.70	32.43	56.13	
	300만 원대	0.35	1.99	9.90	33.67	54.10	
	400만 원대	0.40	1.90	10.91	32.11	54.68	
	500만 원 이상	0.57	2.53	10.78	35.82	50.30	
학력	중졸 이하	0.29	1.66	11.02	34.25	52.78	9.311
	고졸	0.77	2.47	9.08	34.81	52.87	
	대졸 이상	0.26	2.27	10.15	32.73	54.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9	2.06	10.04	34.84	52.76	50.24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74	0.93	8.66	31.80	57.88	
	고용주·자영자	0.63	2.63	10.22	32.87	53.64	
	무급가족종사자	1.49	2.40	8.14	39.20	48.77	
	실업자	-	9.45	5.74	20.54	64.27	
	비경제활동인구	0.50	1.92	10.25	35.38	51.96	
직업	관리자·전문가	0.48	2.08	9.05	32.92	55.46	4.90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2	1.99	10.19	33.56	53.65	
	숙련 및 기술직	0.20	2.40	8.32	34.76	54.32	
	단순노무종사자	0.42	1.86	12.05	34.92	50.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4	2.14	10.03	35.03	52.45	4.963
	비정규직	0.52	1.10	9.08	32.33	56.97	
이념적 성향	보수적	-	2.35	10.60	33.81	53.24	21.197***
	중도적	0.85	2.22	8.38	34.32	54.23	
	진보적	0.26	2.20	12.33	32.91	52.30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7〉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Ⅹ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00	3.32	15.99	37.07	42.63	
성별	남성	1.11	3.88	16.11	36.17	42.73	4.922
	여성	0.88	2.74	15.86	37.99	42.52	
연령	20대 이하	1.32	3.22	16.26	37.22	41.98	26.377**
	30대	1.37	4.89	18.47	32.65	42.62	
	40대	0.88	2.89	14.42	36.40	45.40	
	50대	0.53	2.80	14.82	37.91	43.95	
	60대 이상	0.92	2.88	16.24	41.34	38.62	
지역	수도권	0.92	3.00	14.77	36.67	44.64	8.589*
	비수도권	1.07	3.65	17.23	37.48	40.56	
	대도시	1.20	2.68	18.30	37.22	40.60	23.175***
	중소도시	0.82	3.52	14.22	37.44	43.99	
	농어촌	0.88	5.92	13.27	33.66	46.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4	2.34	16.01	36.81	44.11	17.695
	중하층	1.22	3.11	14.25	37.65	43.77	
	중간층	0.94	3.61	17.63	35.71	42.11	
	중상층(상층)	0.52	4.70	14.30	45.00	35.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9	3.18	15.35	40.58	40.11	17.616
	200만 원대	1.78	3.67	16.92	35.96	41.68	
	300만 원대	0.83	2.92	15.47	34.81	45.97	
	400만 원대	0.96	3.10	13.54	39.00	43.40	
	500만 원 이상	0.83	3.62	17.61	36.09	41.85	
학력	중졸 이하	0.58	2.31	15.32	39.35	42.45	15.587**
	고졸	1.54	3.65	15.60	37.96	41.25	
	대졸 이상	0.58	3.38	16.68	35.18	44.1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2	4.17	17.01	35.23	42.87	30.39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0	2.54	16.10	31.73	48.53	
	고용주·자영자	1.13	2.74	15.51	37.53	43.10	
	무급가족종사자	1.49	3.64	23.51	35.45	35.91	
	실업자	0.77	5.55	19.67	31.27	42.74	
	비경제활동인구	1.16	2.83	14.36	41.35	40.30	
직업	관리자·전문가	0.48	4.51	15.14	32.26	47.61	9.25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2	3.10	16.87	35.53	43.29	
	숙련 및 기술직	0.55	3.95	15.42	37.38	42.70	
	단순노무종사자	0.30	3.22	19.00	33.85	43.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5	4.22	16.50	36.85	41.68	11.705**
	비정규직	0.93	2.94	17.30	29.72	49.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1	4.29	16.21	37.57	41.32	11.783
	중도적	1.33	2.93	15.15	37.03	43.56	
	진보적	0.68	2.99	17.74	36.50	42.09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8〉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VI: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0.52	2.44	10.04	33.81	53.19	
성별	남성	0.57	2.84	10.43	35.22	50.95	8.879*
	여성	0.47	2.03	9.64	32.38	55.48	
연령	20대 이하	0.66	1.86	9.02	34.17	54.28	20.286
	30대	1.08	2.59	10.04	32.59	53.70	
	40대	0.39	3.40	9.36	32.62	54.22	
	50대	0.17	1.84	9.78	34.19	54.02	
	60대 이상	0.34	2.49	12.25	35.65	49.28	
지역	수도권	0.43	1.58	8.21	32.17	57.61	41.422***
	비수도권	0.62	3.32	11.91	35.50	48.65	
	대도시	0.67	2.27	10.32	35.25	51.49	12.489
	중소도시	0.42	2.29	9.44	33.03	54.82	
	농어촌	0.23	4.45	12.21	30.04	53.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3	1.81	10.55	29.24	58.07	28.041***
	중하층	0.58	2.20	8.27	32.45	56.49	
	중간층	0.47	2.72	10.89	36.25	49.66	
	중상층(상층)	0.97	3.22	13.87	33.86	48.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5	3.40	11.40	29.84	55.21	54.338***
	200만 원대	0.99	1.45	8.68	28.99	59.89	
	300만 원대	0.78	1.31	7.47	34.26	56.18	
	400만 원대	0.56	3.21	10.28	34.81	51.14	
	500만 원 이상	0.28	2.76	11.64	38.03	47.29	
학력	중졸 이하	0.30	2.34	10.17	31.58	55.61	5.166
	고졸	0.76	2.38	10.12	34.18	52.56	
	대졸 이상	0.35	2.54	9.89	34.33	52.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5	2.76	9.46	33.88	53.35	46.09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77	1.53	8.96	33.34	55.41	
	고용주·자영자	0.36	2.66	9.31	38.01	49.67	
	무급가족종사자	1.49	1.01	22.08	36.50	38.92	
	실업자	-	6.70	9.97	19.52	63.81	
	비경제활동인구	0.52	1.90	10.86	32.21	54.52	
직업	관리자·전문가	0.48	2.69	9.79	37.31	49.73	8.15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7	2.45	9.03	35.07	52.77	
	숙련 및 기술직	-	2.54	10.38	35.44	51.65	
	단순노무종사자	1.07	2.32	12.84	32.51	51.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8	3.11	9.61	34.58	52.23	8.222*
	비정규직	0.83	1.24	8.83	32.20	56.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6	1.84	10.12	35.88	51.91	10.004
	중도적	0.53	2.84	9.73	32.38	54.51	
	진보적	0.84	2.26	10.68	34.56	51.67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9〉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Ⅷ: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06	3.17	17.07	41.41	37.29	
성별	남성	1.40	3.63	17.17	41.65	36.15	8.043*
	여성	0.71	2.70	16.96	41.17	38.47	
연령	20대 이하	2.20	1.91	16.45	40.35	39.09	46.526***
	30대	1.59	2.89	19.91	38.76	36.85	
	40대	1.04	2.73	15.38	42.91	37.94	
	50대	0.11	5.05	16.73	39.97	38.13	
	60대 이상	0.31	3.26	17.14	45.29	34.01	
지역	수도권	0.98	2.10	16.71	40.74	39.48	19.471***
	비수도권	1.13	4.27	17.44	42.11	35.05	
	대도시	0.86	3.55	18.43	39.49	37.68	28.936***
	중소도시	1.14	2.21	16.13	43.65	36.87	
	농어촌	1.74	7.16	14.78	38.64	37.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3.86	12.16	39.14	42.99	26.975***
	중하층	0.95	2.52	17.13	41.29	38.11	
	중간층	0.83	3.55	17.71	42.38	35.53	
	중상층(상층)	1.79	2.85	22.93	39.63	32.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7	4.69	16.85	39.35	38.45	23.359
	200만 원대	1.33	2.99	16.06	40.96	38.65	
	300만 원대	1.05	2.51	14.74	44.25	37.45	
	400만 원대	1.57	3.31	20.33	42.31	32.48	
	500만 원 이상	0.88	2.73	17.64	40.47	38.28	
학력	중졸 이하	0.13	3.57	15.53	43.21	37.57	16.339**
	고졸	1.67	3.35	16.50	41.76	36.72	
	대졸 이상	0.78	2.82	18.31	40.30	37.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5	3.56	18.00	39.42	37.78	23.52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6	3.05	13.94	39.76	41.39	
	고용주·자영자	0.41	3.09	16.97	44.02	35.50	
	무급가족종사자	2.97	3.79	13.81	47.39	32.04	
	실업자	2.27	2.69	17.44	35.47	42.13	
	비경제활동인구	0.79	2.86	17.40	42.55	36.40	
직업	관리자·전문가	0.48	4.65	16.00	41.03	37.84	9.57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7	3.19	17.61	39.66	38.17	
	숙련 및 기술직	0.73	2.93	15.82	45.46	35.06	
	단순노무종사자	1.01	3.67	15.30	42.37	37.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9	3.55	17.98	40.47	36.72	5.719
	비정규직	1.61	3.21	15.16	37.71	42.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9	3.58	16.59	42.82	36.63	12.596
	중도적	1.39	2.99	16.50	40.48	38.65	
	진보적	1.14	3.08	19.10	41.81	34.87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0〉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VIII: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79	4.33	19.89	42.18	31.81	
성별	남성	2.31	4.88	18.99	42.48	31.33	10.301**
	여성	1.25	3.77	20.81	41.88	32.30	
연령	20대 이하	2.48	3.53	18.77	42.70	32.53	34.66***
	30대	3.18	5.84	19.73	40.32	30.94	
	40대	1.18	5.01	22.97	40.27	30.56	
	50대	1.02	3.92	20.01	41.45	33.60	
	60대 이상	1.15	3.34	17.60	46.61	31.30	
지역	수도권	2.04	4.57	19.74	39.60	34.06	13.846***
	비수도권	1.53	4.09	20.05	44.84	29.50	
	대도시	2.13	4.78	20.14	41.71	31.24	16.505**
	중소도시	1.48	3.38	19.96	43.18	32.00	
	농어촌	1.64	7.82	17.89	38.59	34.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4	3.18	16.68	38.67	39.23	27.059***
	중하층	1.45	4.91	19.29	42.09	32.26	
	중간층	1.94	4.16	20.53	43.03	30.34	
	중상층(상층)	1.79	4.51	26.33	44.11	23.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0	4.48	20.20	38.80	34.62	24.255*
	200만 원대	2.24	3.20	18.34	40.88	35.34	
	300만 원대	1.10	4.60	17.28	45.47	31.56	
	400만 원대	1.93	4.24	21.44	45.07	27.32	
	500만 원 이상	1.89	4.73	21.58	41.11	30.69	
학력	중졸 이하	0.32	4.02	17.24	44.06	34.36	22.033***
	고졸	1.99	3.60	19.80	41.57	33.03	
	대졸 이상	2.17	5.24	21.07	42.07	29.4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8	4.58	20.76	40.17	32.00	32.68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2	5.90	19.68	40.35	32.65	
	고용주·자영자	1.05	3.92	19.70	44.22	31.10	
	무급가족종사자	1.49	4.37	22.59	46.67	24.87	
	실업자	5.64	2.39	18.82	32.22	40.93	
	비경제활동인구	1.31	4.00	19.10	44.32	31.27	
직업	관리자·전문가	1.46	8.25	17.67	39.79	32.83	18.11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23	4.48	20.28	41.36	31.64	
	숙련 및 기술직	1.17	3.6	20.33	44.26	30.65	
	단순노무종사자	0.76	2.56	24.1	40.26	32.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5	4.39	20.23	41.94	30.79	8.196*
	비정규직	1.42	5.87	20.99	36.99	34.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4	3.95	20.37	42.30	31.95	12.119
	중도적	1.81	3.78	19.14	42.95	32.32	
	진보적	2.21	6.19	21.09	40.15	30.36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1〉 사회통합의 요소 중요도 XIX: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단위: %)

구분		보통 ①	②	③	④	매우 중요 ⑤	χ^2
전체		1.12	2.77	17.19	43.38	35.53	
성별	남성	1.31	3.27	18.36	42.36	34.71	9.152*
	여성	0.92	2.27	16.01	44.43	36.38	
연령	20대 이하	1.10	2.62	19.52	40.35	36.40	24.528*
	30대	2.13	2.92	18.20	42.41	34.34	
	40대	1.04	2.52	16.46	42.92	37.06	
	50대	0.61	2.18	16.48	44.19	36.54	
	60대 이상	0.73	3.77	15.18	47.43	32.89	
지역	수도권	1.06	1.74	17.15	43.13	36.92	16.761***
	비수도권	1.18	3.84	17.24	43.64	34.11	
	대도시	0.84	2.96	20.40	42.56	33.25	48.118***
	중소도시	1.39	1.95	14.75	44.56	37.35	
	농어촌	1.05	7.02	13.37	40.75	37.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3	2.51	14.60	35.50	45.56	36.45***
	중하층	0.93	3.14	15.55	45.19	35.20	
	중간층	1.03	2.53	18.92	44.00	33.52	
	중상층(상층)	1.47	2.92	20.41	44.48	30.7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8	3.56	16.16	41.86	37.65	17.295
	200만 원대	1.68	2.60	13.97	43.29	38.46	
	300만 원대	1.15	2.44	17.16	44.08	35.17	
	400만 원대	0.68	2.47	19.54	45.06	32.24	
	500만 원 이상	1.24	2.79	18.36	43.00	34.62	
학력	중졸 이하	0.13	3.65	15.00	43.98	37.25	11.902
	고졸	1.46	2.64	17.86	42.86	35.17	
	대졸 이상	1.15	2.56	17.37	43.69	35.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7	3.02	17.88	42.05	35.98	30.04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0	2.37	19.34	40.51	36.28	
	고용주·자영자	0.80	2.64	15.28	46.21	35.08	
	무급가족종사자	2.97	1.94	9.93	53.03	32.13	
	실업자	4.20	3.85	12.65	36.07	43.23	
	비경제활동인구	0.83	2.69	17.96	44.00	34.51	
직업	관리자·전문가	0.48	4.76	15.47	45.52	33.77	11.40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1	2.41	17.25	42.99	36.04	
	숙련 및 기술직	0.85	2.70	16.88	45.89	33.68	
	단순노무종사자	1.01	2.89	18.31	37.54	40.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8	3.31	17.80	43.57	34.23	8.031*
	비정규직	1.35	2.00	19.07	38.12	39.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6	2.70	16.80	45.10	35.04	16.364**
	중도적	1.54	2.51	16.72	42.21	37.02	
	진보적	1.09	3.53	18.86	43.95	32.57	

주: 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현재. 2016년)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71	5.68	14.08	22.79	16.90	24.69	8.04	3.85	1.14	0.07	0.05	
성별	남성	2.70	5.56	15.12	24.56	16.91	23.48	7.06	2.97	1.46	0.08	0.11	27.793***
	여성	2.72	5.80	13.03	20.99	16.89	25.94	9.04	4.74	0.80	0.05	-	
연령	20대 이하	4.77	6.80	11.88	25.32	18.49	21.47	4.79	4.58	1.62	0.13	0.15	
	30대	4.14	6.97	16.66	22.75	17.11	22.06	6.45	3.28	0.58	-	-	
	40대	2.90	6.05	14.15	20.86	17.49	25.14	9.34	2.49	1.57	-	-	124.431***
	50대	0.63	5.06	14.16	23.04	17.67	24.16	10.76	3.55	0.77	0.19	-	
	60대 이상	1.04	3.33	13.72	21.95	13.32	31.17	8.74	5.54	1.08	-	0.13	
지역	수도권	3.62	6.58	15.76	20.97	15.75	25.15	6.58	4.09	1.38	0.08	0.05	45.829***
	비수도권	1.78	4.75	12.37	24.66	18.09	24.23	9.53	3.60	0.88	0.05	0.06	
	대도시	3.26	4.77	14.12	24.07	16.16	23.68	7.79	4.27	1.67	0.09	0.12	
	중소도시	2.29	6.14	13.62	22.24	17.96	25.43	8.39	3.35	0.57	-	-	38.157***
	농어촌	2.06	8.24	16.92	18.47	14.48	26.16	7.27	4.51	1.52	0.37	-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58	6.80	19.45	25.37	13.57	20.53	5.19	3.51	0.82	-	0.18	
	중하층	2.94	5.74	14.81	23.63	16.93	24.63	7.65	3.13	0.44	0.11	-	77.844***
	중간층	2.09	5.65	11.48	21.65	17.10	26.18	9.39	4.54	1.79	0.06	0.07	
	중상층(상층)	1.86	2.86	17.90	20.35	22.96	22.66	6.33	3.82	1.26	-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2	4.89	15.50	22.19	14.77	25.48	8.64	4.02	1.19	-	-	
	200만 원대	3.28	5.26	12.01	21.17	17.61	27.30	8.51	4.05	0.80	-	-	
	300만 원대	2.52	6.02	16.65	25.66	14.27	21.76	7.70	3.61	1.82	-	-	55.099*
	400만 원대	2.01	5.79	13.48	18.34	18.72	29.12	8.06	3.54	0.80	-	0.14	
	500만 원 이상	2.55	6.10	12.90	24.44	18.72	22.50	7.66	3.81	0.99	0.23	0.10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 - I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현재. 2016년)(계속)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67	2.80	14.39	21.71	14.83	28.84	9.07	5.30	1.38	-	-	44.858***
	고졸	2.27	6.29	12.73	23.56	17.79	23.75	8.69	3.47	1.18	0.15	0.12	
	대졸 이상	3.61	6.20	15.42	22.40	16.79	24.02	6.92	3.66	0.99	-	-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1	6.51	14.21	21.68	16.86	24.42	7.94	3.95	1.22	-	-	46.41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8	3.66	15.17	24.94	17.18	25.14	7.35	2.78	1.99	-	-	
	고용주·자영자	2.37	5.57	15.64	22.74	14.79	24.97	9.67	3.15	0.80	0.19	0.11	
	무급가족종사자	0.87	5.40	10.97	15.98	22.85	24.70	11.16	7.13	0.94	-	-	
	실업자	3.79	7.99	13.62	23.73	23.04	22.49	2.80	2.53	-	-	-	
	비경제활동인구	2.74	5.35	12.67	23.58	17.38	24.86	7.57	4.56	1.11	0.09	0.10	
직업	관리자·전문가	5.97	9.22	16.89	19.20	16.18	23.23	6.87	1.78	0.66	-	-	46.44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80	4.91	13.61	23.46	16.61	25.38	8.21	3.79	1.08	0.10	0.06	
	숙련 및 기술직	0.88	6.81	16.17	21.86	17.17	22.53	9.24	3.71	1.62	-	-	
	단순노무종사자	1.29	4.39	17.09	19.72	12.93	27.34	11.16	4.24	1.85	-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9	6.94	13.66	22.29	16.87	23.91	7.68	4.33	1.22	-	-	13.575*
	비정규직	2.42	3.69	15.92	22.86	17.06	25.88	8.01	2.40	1.76	-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2	5.24	12.29	20.37	16.32	29.46	7.81	5.59	1.41	-	-	65.657***
	중도적	3.07	4.90	14.04	24.38	16.70	23.45	8.62	3.53	1.15	0.05	0.10	
	진보적	3.43	8.16	16.59	22.14	18.18	21.36	6.92	2.30	0.73	0.19	-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I: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전, 2006년)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38	2.54	5.51	8.66	14.08	29.74	18.48	12.75	5.08	1.36	0.43	
성별	남성	1.06	2.97	5.68	9.08	13.92	29.61	18.30	11.73	5.57	1.50	0.58	14.008
	여성	1.69	2.10	5.34	8.24	14.24	29.88	18.67	13.79	4.58	1.21	0.27	
연령	20대 이하	2.72	4.71	6.74	10.16	12.08	30.30	17.12	9.39	3.87	1.53	1.37	121.244***
	30대	2.31	2.50	6.93	9.31	14.40	28.72	18.05	12.50	3.82	1.19	0.26	
	40대	1.43	2.49	5.21	9.34	14.23	27.39	18.62	14.48	5.45	1.25	0.12	
	50대	0.11	1.63	5.06	6.52	16.25	30.03	19.56	14.08	5.64	0.83	0.30	
	60대 이상	0.26	1.22	3.51	7.93	13.33	32.60	19.09	13.26	6.68	2.08	0.04	
지역	수도권	1.95	3.10	6.39	10.06	14.26	30.99	16.4	11.47	3.79	1.11	0.49	57.365***
	비수도권	0.79	1.96	4.61	7.23	13.89	28.47	20.62	14.07	6.40	1.61	0.36	
	대도시	1.60	2.54	5.97	8.53	13.70	30.15	18.66	12.20	4.45	1.78	0.43	20.153
	중소도시	1.13	2.59	5.30	9.11	14.24	29.74	18.50	12.62	5.37	0.92	0.48	
	농어촌	1.62	2.15	4.04	6.51	15.39	27.21	17.29	16.98	7.07	1.64	0.0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57	2.14	6.00	9.58	14.97	32.63	14.65	11.37	5.02	0.99	0.08	49.504**
	중하층	1.25	2.22	6.16	8.13	13.53	30.99	19.71	11.46	5.41	1.09	0.06	
	중간층	1.11	2.99	4.98	8.48	14.15	28.71	18.33	13.92	4.71	1.73	0.89	
	중상층(상층)	1.61	1.95	4.28	11.62	15.10	22.89	20.32	15.19	5.96	1.07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0	2.06	4.57	8.26	14.78	28.77	16.94	14.1	7.86	1.53	0.24	55.185*
	200만 원대	1.58	1.73	4.89	6.86	15.04	31.06	20.19	11.25	6.12	1.02	0.25	
	300만 원대	2.40	2.68	5.63	9.95	15.2	28.26	16.36	13.34	4.17	1.62	0.38	
	400만 원대	0.54	2.04	6.70	9.31	12.49	29.38	20.62	12.8	4.29	1.21	0.61	
	500만 원 이상	1.29	3.44	5.72	8.59	13.06	30.93	18.87	12.31	3.88	1.34	0.5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I: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전, 2006년)(계속)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65	0.76	4.69	6.05	16.47	28.82	18.41	16.49	5.38	1.93	0.35	52.264***
	고졸	1.15	2.63	4.36	8.60	13.67	29.92	19.44	12.89	5.44	1.37	0.51	
	대졸 이상	1.91	3.16	7.09	9.79	13.54	29.93	17.48	11.07	4.56	1.12	0.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3	2.75	5.93	9.85	13.90	27.84	20.11	11.47	4.53	1.23	0.58	62.8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6	2.17	6.89	9.41	14.01	29.04	19.26	10.90	5.67	0.50	0.89	
	고용주·자영자	1.04	2.91	4.90	6.53	14.53	31.85	15.97	15.13	5.37	1.70	0.07	
	무급가족종사자	0.87	1.49	3.27	12.85	11.86	20.86	27.84	16.00	2.71	2.24	-	
	실업자	1.76	5.17	7.34	6.74	16.53	37.01	8.81	12.80	3.83	-	-	
	비경제활동인구	1.16	1.97	4.95	8.58	13.85	30.32	18.69	12.89	5.52	1.65	0.42	
직업	관리자·전문가	4.87	3.47	6.62	11.75	13.13	24.04	15.82	14.15	5.63	0.51	-	57.47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8	3.00	5.57	8.61	13.95	29.47	19.08	12.91	4.22	1.25	0.67	
	숙련 및 기술직	0.53	1.19	5.55	7.41	13.31	31.32	20.77	11.76	6.09	1.90	0.18	
	단순노무종사자	0.45	2.76	5.55	9.65	18.36	28.13	16.07	11.22	6.68	1.14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6	2.85	5.72	10.08	13.70	27.03	20.95	11.61	4.57	1.07	0.67	5.762
	비정규직	1.56	2.14	6.99	9.12	14.33	30.22	17.93	10.80	5.26	1.01	0.6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9	2.38	4.59	8.15	13.21	28.59	19.68	15.47	5.35	1.65	0.23	34.225**
	중도적	1.33	2.48	5.57	8.33	15.29	30.34	18.18	12.07	4.76	1.15	0.52	
	진보적	2.41	2.87	6.61	10.16	12.28	29.83	17.63	10.78	5.50	1.48	0.47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Ⅰ-Ⅲ: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후, 2026년)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80	7.39	11.27	16.42	14.81	24.49	10.24	5.79	3.48	1.06	0.25	
성별	남성	4.39	8.38	11.65	16.88	14.92	23.29	10.35	5.32	3.52	0.95	0.37	13.349
	여성	5.22	6.38	10.88	15.95	14.70	25.71	10.14	6.26	3.45	1.17	0.13	
연령	20대 이하	6.90	7.76	9.26	16.38	13.99	24.96	9.05	7.23	3.17	0.84	0.45	91.856***
	30대	8.14	8.39	12.49	16.36	15.13	20.10	9.28	5.40	3.73	0.74	0.25	
	40대	3.90	5.73	12.35	13.82	14.20	28.38	9.66	5.56	4.49	1.78	0.14	
	50대	2.76	8.66	11.61	17.42	15.80	22.49	11.48	5.27	2.87	1.33	0.31	
	60대 이상	2.31	6.40	10.61	18.42	14.99	26.29	11.87	5.41	3.10	0.51	0.09	
지역	수도권	6.57	8.18	11.59	16.29	13.15	23.12	10.52	6.05	3.43	0.97	0.13	41.558***
	비수도권	2.98	6.57	10.94	16.55	16.52	25.89	9.96	5.51	3.54	1.16	0.38	
	대도시	5.29	7.75	12.93	15.94	14.11	22.74	10.31	6.30	3.13	1.16	0.34	22.444
	중소도시	4.52	6.88	10.08	16.96	15.56	25.86	10.10	5.37	3.55	0.95	0.17	
	농어촌	3.59	8.49	8.81	15.86	14.24	26.28	10.78	5.32	5.24	1.16	0.2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6.48	8.13	12.30	20.86	12.98	24.57	8.32	3.40	1.06	1.78	0.10	74.856***
	중하층	4.59	8.22	12.52	15.40	17.05	23.15	10.04	5.19	2.97	0.51	0.35	
	중간층	4.41	6.39	9.87	15.68	13.79	26.04	10.78	6.97	4.74	1.10	0.24	
	중상층(상층)	5.47	8.08	11.74	19.08	12.17	20.73	11.76	5.78	2.37	2.82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2	7.70	11.62	18.47	15.11	24.22	11.35	4.41	2.17	0.43	-	47.72
	200만 원대	5.00	7.14	10.13	15.25	15.18	25.83	11.71	4.67	3.70	1.10	0.30	
	300만 원대	4.76	9.14	11.25	16.20	15.33	23.13	7.32	7.94	3.58	0.88	0.47	
	400만 원대	3.82	6.30	12.19	16.81	14.92	24.28	9.63	6.93	3.96	1.16	-	
	500만 원 이상	5.43	6.71	11.21	15.73	14.04	24.88	11.18	5.11	3.85	1.50	0.3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II: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10년 후, 2026년)(계속)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3.07	6.24	9.97	18.19	15.31	28.20	12.63	2.79	2.92	0.56	0.10	40.657***
	고졸	4.85	7.16	11.20	16.93	15.03	24.26	8.74	6.48	4.06	1.04	0.25	
	대졸 이상	5.45	8.10	11.88	15.15	14.37	23.22	10.89	6.26	3.09	1.29	0.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01	8.42	10.88	17.24	15.36	21.87	10.76	5.57	3.50	1.26	0.13	99.14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36	4.43	17.33	15.64	14.29	27.24	10.48	3.90	2.72	0.61	-	
	고용주·자영자	4.59	9.70	10.15	14.79	17.21	25.31	8.15	4.94	2.92	1.77	0.49	
	무급가족종사자	0.95	6.58	12.05	19.57	8.68	29.19	8.67	5.03	7.46	1.81	-	
	실업자	11.69	6.22	7.94	11.51	12.16	21.42	13.18	10.71	4.44	0.72	-	
	비경제활동인구	4.75	5.83	10.63	17.30	13.31	25.80	10.90	6.85	3.81	0.48	0.34	
직업	관리자·전문가	8.58	8.65	8.49	16.84	13.06	21.56	12.45	5.01	3.61	1.42	0.33	43.1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13	8.66	11.99	16.56	16.31	23.29	9.92	5.04	2.60	1.25	0.26	
	숙련 및 기술직	3.93	8.29	11.85	16.55	14.59	25.59	8.48	4.56	4.35	1.69	0.12	
	단순노무종사자	3.07	2.78	13.75	12.13	16.31	29.68	8.68	6.94	5.68	0.96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83	8.30	11.28	18.30	14.58	21.15	10.94	5.66	3.78	1.15	0.04	20.975**
	비정규직	4.17	5.83	14.70	14.14	16.05	27.02	10.23	4.22	2.43	1.01	0.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2	6.09	10.91	17.22	14.68	23.33	12.96	6.54	4.10	1.14	0.11	59.898***
	중도적	5.28	7.01	10.36	15.75	14.71	26.86	9.77	5.37	3.47	1.19	0.24	
	진보적	6.14	10.04	13.97	17.01	15.23	20.24	7.77	5.80	2.70	0.64	0.47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Ⅰ: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현재. 2016년)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79	5.56	13.59	21.65	19.73	23.87	7.41	4.22	0.93	0.18	0.06	
성별	남성	2.24	5.41	14.25	22.62	20.59	22.72	7.83	2.95	1.04	0.28	0.08	28.729***
	여성	3.36	5.73	12.92	20.66	18.84	25.04	6.98	5.53	0.82	0.08	0.04	
연령	20대 이하	5.57	5.89	12.40	24.40	18.31	21.41	6.12	4.76	1.02	0.13	-	104.129***
	30대	3.52	8.04	14.34	20.37	19.98	24.09	6.35	2.58	0.73	-	-	
	40대	2.26	5.51	13.93	20.41	20.10	24.42	7.11	5.24	0.36	0.65	-	
	50대	1.06	4.29	13.90	22.51	19.93	25.21	8.22	4.16	0.51	-	0.19	
	60대 이상	1.50	4.12	13.40	20.37	20.39	24.24	9.39	4.23	2.19	0.07	0.10	
지역	수도권	3.92	7.04	14.93	20.50	18.65	23.37	6.06	4.48	0.69	0.27	0.08	56.317***
	비수도권	1.63	4.05	12.21	22.84	20.84	24.38	8.80	3.96	1.18	0.08	0.04	
	대도시	2.99	4.88	14.85	21.20	20.87	21.91	7.22	4.55	1.14	0.31	0.09	31.397*
	중소도시	2.61	6.03	12.31	21.82	18.78	26.42	7.30	4.01	0.69	-	0.04	
	농어촌	2.78	6.78	14.16	23.40	18.88	19.31	9.31	3.58	1.25	0.55	-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17	6.31	16.03	26.18	17.37	19.38	6.84	2.23	0.77	0.72	-	94.398***
	중하층	3.00	5.38	15.62	22.26	20.50	23.60	6.56	2.26	0.57	0.13	0.11	
	중간층	2.33	5.70	11.75	19.65	18.96	25.59	8.31	6.40	1.17	0.09	0.04	
	중상층(상층)	1.86	3.93	9.02	23.27	26.31	22.18	7.15	4.47	1.80	-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8	6.57	13.14	22.25	19.76	22.63	7.85	3.30	1.63	0.59	-	50.684
	200만 원대	3.33	6.08	16.32	19.63	18.64	22.83	8.58	4.45	0.14	-	-	
	300만 원대	3.08	5.08	14.58	24.83	18.47	23.04	6.09	3.77	0.83	0.23	-	
	400만 원대	2.49	4.89	12.83	18.25	20.81	26.70	8.05	4.82	1.17	-	-	
	500만 원 이상	2.79	5.40	12.14	21.99	20.63	24.29	6.93	4.67	0.88	0.09	0.2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1: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현재. 2016년)(계속)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85	3.63	13.45	21.37	20.75	24.93	7.76	4.56	1.62	0.08	-	34.214**
	고졸	2.60	4.94	12.92	21.36	19.84	25.22	7.22	4.39	1.02	0.38	0.09	
	대졸 이상	3.38	7.03	14.37	22.09	19.19	21.98	7.48	3.90	0.55	-	0.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0	4.79	14.06	20.28	21.41	24.25	6.62	4.55	0.89	-	0.05	69.48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49	4.30	11.88	22.62	19.72	25.73	9.38	1.70	0.32	0.86	-	
	고용주·자영자	1.40	6.73	14.72	20.59	18.38	24.17	8.44	4.56	0.60	0.22	0.19	
	무급가족종사자	3.35	1.93	9.34	26.28	19.95	22.69	8.09	7.32	1.05	-	-	
	실업자	4.73	8.05	13.94	28.48	18.27	20.72	5.15	0.66	-	-	-	
	비경제활동인구	2.98	5.99	13.09	22.58	19.01	22.97	7.02	4.70	1.52	0.13	-	
직업	관리자·전문가	5.25	9.26	12.45	21.65	20.77	22.56	6.61	0.97	0.48	0	0	78.69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33	4.92	13.36	19.96	19.97	25.99	7.81	4.76	0.76	0	0.14	
	숙련 및 기술직	2.12	4.63	16.51	24.56	19.79	20.90	6.01	4.69	0.45	0.35	0	
	단순노무종사자	2.49	3.91	12.11	17.98	21.27	23.72	12.79	2.62	1.27	1.85	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3	4.82	13.64	20.84	22.31	23.73	6.61	4.52	0.79	-	-	18.638**
	비정규직	4.05	4.37	13.30	20.90	18.53	26.27	8.60	2.60	0.66	0.61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9	4.84	12.04	18.15	20.81	26.18	8.94	5.48	0.97	0.05	0.06	41.081***
	중도적	2.96	5.24	13.99	23.45	18.98	23.20	6.99	3.83	1.02	0.32	-	
	진보적	2.80	7.33	14.67	21.93	20.11	22.42	6.39	3.50	0.67	-	0.19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Ⅱ: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72	1.90	3.76	8.29	14.27	26.66	20.42	14.95	6.68	1.93	0.42	
성별	남성	0.78	1.72	4.36	8.97	14.75	26.68	18.46	14.97	6.48	2.28	0.55	18.273*
	여성	0.67	2.08	3.14	7.59	13.78	26.63	22.43	14.93	6.89	1.58	0.29	
연령	20대 이하	2.09	1.60	4.16	8.98	12.47	29.60	18.62	13.45	5.37	2.14	1.52	116.492***
	30대	0.52	2.89	4.44	10.21	14.95	27.35	17.93	15.46	5.03	0.91	0.31	
	40대	0.75	2.59	4.32	7.46	13.28	26.86	20.41	13.77	7.66	2.90	-	
	50대	-	1.53	3.44	7.61	15.61	23.87	23.65	15.85	6.99	1.37	0.08	
	60대 이상	0.18	0.82	2.29	7.25	15.20	25.56	21.37	16.47	8.39	2.29	0.19	
지역	수도권	1.11	2.51	4.04	9.96	15.97	27.61	18.84	12.48	4.64	2.24	0.60	85.752***
	비수도권	0.32	1.27	3.46	6.58	12.52	25.68	22.05	17.49	8.77	1.62	0.24	
	대도시	0.80	1.82	3.27	8.82	13.44	27.00	22.40	14.04	6.00	2.05	0.37	45.787***
	중소도시	0.62	2.08	4.38	7.76	15.23	26.54	19.03	15.91	6.13	1.78	0.54	
	농어촌	0.86	1.23	2.73	8.46	13.11	25.23	17.28	14.32	14.55	2.23	-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43	1.89	5.62	9.15	13.88	28.31	16.48	14.97	5.17	3.10	-	72.774***
	중하층	0.55	1.81	3.88	8.80	15.04	26.72	20.74	14.84	6.69	0.86	0.04	
	중간층	0.47	2.20	3.17	7.38	14.22	26.44	21.33	14.33	7.19	2.36	0.91	
	중상층(상층)	2.32	-	3.32	10.23	10.21	24.08	20.02	20.83	5.95	3.04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8	1.11	4.11	7.84	14.22	25.07	19.74	17.82	6.81	2.36	0.25	64.541***
	200만 원대	0.80	1.79	3.49	6.84	14.67	28.77	18.82	13.57	8.96	2.00	0.30	
	300만 원대	1.15	2.21	4.33	9.39	13.80	25.10	21.16	14.00	6.18	1.24	1.44	
	400만 원대	0.52	1.36	4.14	7.28	16.78	25.28	20.05	15.39	7.18	2.02	-	
	500만 원 이상	0.52	2.52	3.08	9.09	12.91	28.39	21.43	14.40	5.46	2.09	0.11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II: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계속)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22	1.47	1.69	5.16	16.30	26.51	21.14	17.73	7.80	1.77	0.20	51.256***
	고졸	0.86	1.80	3.92	7.57	13.32	26.79	20.29	15.31	7.38	2.51	0.26	
	대졸 이상	0.78	2.18	4.42	10.34	14.46	26.57	20.27	13.43	5.48	1.38	0.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5	1.69	4.71	9.00	15.38	25.37	21.15	12.95	6.38	1.53	0.99	77.01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2	1.45	5.10	6.30	12.72	26.78	18.29	21.05	5.90	1.22	0.77	
	고용주·자영자	0.39	1.46	2.92	8.89	12.68	27.99	20.78	15.54	7.45	1.91	-	
	무급가족종사자	0.87	4.30	-	5.24	13.26	27.43	23.34	15.95	8.52	1.08	-	
	실업자	1.78	2.74	1.72	12.39	16.39	30.25	13.76	15.59	4.54	0.83	-	
	비경제활동인구	0.81	2.38	3.27	7.55	14.60	26.63	20.64	14.40	6.84	2.82	0.06	
직업	관리자·전문가	3.45	2.88	4.75	12.7	13.78	20.96	16.95	17.87	5.62	1.03	-	89.1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32	1.68	3.70	8.70	13.01	27.31	22.40	13.73	6.55	1.60	0.98	
	숙련 및 기술직	0.30	0.73	4.97	6.38	15.98	26.04	18.97	16.82	8.28	1.52	-	
	단순노무종사자	-	1.99	3.66	5.46	17.40	29.14	15.84	18.64	5.39	2.49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3	1.46	4.83	9.35	15.18	25.43	22.15	12.16	6.54	1.16	1.02	26.804***
	비정규직	0.77	1.94	4.76	6.44	13.87	26.27	17.26	20.18	5.75	1.98	0.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2	1.71	2.63	8.40	12.71	24.65	21.56	17.32	8.13	1.61	0.87	41.68***
	중도적	0.88	1.69	3.94	8.44	15.78	27.30	20.22	13.49	5.76	2.21	0.29	
	진보적	0.73	2.67	4.82	7.78	12.66	27.78	19.38	15.37	6.99	1.68	0.1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7〉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Ⅱ-Ⅲ: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61	7.11	12.52	17.41	18.32	22.41	8.31	5.40	2.79	0.75	0.38	
성별	남성	4.21	6.76	12.76	18.46	17.98	22.09	8.50	5.80	2.25	0.81	0.38	10.361
	여성	5.02	7.46	12.27	16.33	18.66	22.74	8.11	4.99	3.35	0.68	0.38	
연령	20대 이하	6.99	7.16	12.45	16.25	16.72	20.66	10.52	5.06	2.94	0.66	0.58	74.742***
	30대	7.43	8.68	12.91	15.75	17.72	21.84	6.93	4.97	2.60	0.99	0.18	
	40대	2.23	7.01	13.80	17.07	18.87	23.21	7.20	6.62	2.67	0.83	0.51	
	50대	3.42	6.67	11.74	20.71	17.80	23.74	7.21	4.81	3.12	0.32	0.46	
	60대 이상	3.12	6.01	11.57	17.07	20.70	22.53	9.81	5.50	2.59	1.00	0.10	
지역	수도권	6.06	8.36	14.21	16.79	17.06	20.31	8.21	5.05	2.91	0.67	0.38	47.110***
	비수도권	3.13	5.81	10.78	18.04	19.62	24.58	8.41	5.76	2.67	0.83	0.37	
	대도시	5.11	7.64	14.05	17.34	17.32	20.48	7.84	6.32	2.79	0.74	0.39	31.006*
	중소도시	4.12	6.67	11.71	17.47	19.33	23.59	8.57	4.81	2.77	0.58	0.39	
	농어촌	4.72	6.68	8.31	17.41	17.91	26.68	9.50	3.60	2.99	1.94	0.2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5.11	7.87	14.78	22.18	15.76	20.20	7.77	3.56	1.23	0.86	0.67	71.394***
	중하층	4.64	7.76	14.22	18.21	19.27	20.53	7.92	4.46	2.15	0.27	0.58	
	중간층	4.54	6.35	10.38	15.61	18.48	24.09	9.07	6.74	3.56	1.05	0.13	
	중상층(상층)	3.89	7.01	13.11	15.37	16.53	26.84	5.93	5.16	4.57	1.26	0.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5	7.35	12.70	18.93	20.16	19.84	8.16	4.50	2.26	1.28	0.08	55.616*
	200만 원대	5.59	7.19	13.26	15.75	20.40	21.36	8.22	4.79	2.57	0.18	0.70	
	300만 원대	3.57	7.51	13.71	18.19	18.08	21.29	7.95	5.42	2.67	0.99	0.60	
	400만 원대	4.71	7.37	11.68	16.48	18.44	21.00	11.11	4.76	4.26	0.19	-	
	500만 원 이상	4.68	6.49	11.65	17.31	16.21	26.01	7.19	6.63	2.53	0.87	0.43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7〉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II-III: 의심하는 사회 vs. 신뢰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계속)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3.94	6.88	11.97	18.74	19.77	22.71	8.04	5.87	1.53	0.53	-	29.877*
	고졸	4.12	6.14	12.69	18.26	18.34	23.28	7.31	5.66	3.00	0.91	0.28	
	대졸 이상	5.41	8.24	12.55	15.94	17.71	21.35	9.49	4.93	3.08	0.67	0.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9	7.14	12.24	16.73	18.56	22.28	8.64	5.85	2.47	0.95	0.56	69.08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6	7.21	13.58	22.15	15.78	22.15	10.54	4.04	1.14	0.91	0.13	
	고용주·자영자	4.60	7.16	11.57	17.77	19.11	23.33	7.49	5.42	2.71	0.39	0.45	
	무급가족종사자	0.87	5.54	13.10	6.21	23.60	27.40	12.74	6.30	4.24	-	-	
	실업자	8.74	8.72	10.62	19.66	20.79	11.37	4.76	10.78	2.25	2.31	-	
	비경제활동인구	5.25	6.92	13.28	16.62	17.83	22.83	7.83	4.78	3.76	0.62	0.27	
직업	관리자·전문가	8.11	7.91	9.54	15.77	18.37	21.12	8.29	6.40	3.11	0.07	1.32	53.44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87	7.54	12.09	18.09	19.14	21.65	9.19	4.76	2.58	0.76	0.33	
	숙련 및 기술직	3.72	5.44	13.18	18.74	18.15	25.29	6.18	6.62	1.83	0.49	0.36	
	단순노무종사자	1.61	6.97	15.17	13.92	13.35	27.17	11.82	6.33	1.19	2.18	0.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8	6.71	12.58	17.15	18.36	22.08	8.62	5.90	2.86	0.99	0.27	15.714
	비정규직	3.21	7.99	12.56	19.78	16.96	22.55	10.03	4.47	0.81	0.83	0.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9	7.47	10.97	15.72	17.50	24.17	9.05	6.80	3.35	1.12	0.06	37.253**
	중도적	4.61	6.31	12.40	18.06	18.92	22.57	7.98	5.23	2.73	0.70	0.50	
	진보적	5.71	8.57	14.87	18.06	17.96	19.70	8.14	3.95	2.18	0.37	0.49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8〉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Ⅰ: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현재. 2016년)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68	4.82	11.05	18.89	18.73	26.95	10.78	4.51	1.29	0.22	0.07	
성별	남성	2.58	4.79	11.84	18.89	19.34	26.03	10.80	3.93	1.36	0.39	0.04	12.369
	여성	2.79	4.86	10.24	18.88	18.11	27.89	10.76	5.11	1.21	0.05	0.10	
연령	20대 이하	4.40	4.90	10.25	17.72	15.93	28.36	10.10	5.95	1.61	0.51	0.26	86.153***
	30대	3.74	6.06	12.98	18.21	16.50	25.98	11.73	3.37	1.43	-	-	
	40대	2.76	6.09	12.05	18.42	20.36	24.95	9.57	4.63	1.13	-	0.05	
	50대	1.71	4.59	10.61	19.97	19.91	26.50	12.23	3.24	0.80	0.44	-	
	60대 이상	0.66	2.24	9.27	20.22	21.00	29.21	10.31	5.40	1.52	0.15	0.04	
지역	수도권	3.71	4.99	12.19	16.74	17.12	27.80	10.95	5.02	1.21	0.28	-	40.367***
	비수도권	1.63	4.65	9.87	21.10	20.40	26.08	10.60	4.00	1.37	0.17	0.14	
	대도시	2.93	5.19	11.75	19.14	19.10	24.94	10.18	5.13	1.49	0.16	-	40.197***
	중소도시	2.41	4.30	10.05	18.01	18.08	29.86	11.71	4.28	0.97	0.21	0.13	
	농어촌	3.00	6.03	13.28	23.07	20.74	20.32	8.37	2.27	2.08	0.74	0.0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02	5.01	16.05	19.88	20.17	21.53	8.78	3.70	0.79	-	0.08	71.646***
	중하층	2.64	5.51	10.98	20.02	19.10	26.52	10.95	3.61	0.48	0.11	0.07	
	중간층	2.23	4.33	10.10	17.76	17.82	28.14	11.44	5.81	1.89	0.41	0.07	
	중상층(상층)	3.51	3.73	7.55	18.01	20.40	32.92	8.84	1.99	3.04	-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9	3.56	11.13	18.76	19.85	27.66	10.88	3.89	1.37	0.15	0.35	55.912**
	200만 원대	3.33	3.37	12.25	19.86	17.60	25.19	12.88	4.83	0.69	-	-	
	300만 원대	2.31	7.32	10.53	20.54	17.86	24.94	8.43	6.00	1.56	0.48	0.03	
	400만 원대	2.67	3.96	11.54	16.62	19.05	29.75	10.72	4.31	1.37	-	-	
	500만 원 이상	2.79	5.10	10.47	18.50	19.15	27.41	11.29	3.80	1.16	0.33	-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8〉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Ⅰ: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현재. 2016년)(계속)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89	2.53	10.74	20.96	21.4	27.54	9.49	4.15	0.95	0.16	0.20	34.301**
	고졸	2.25	4.76	10.34	18.20	18.06	27.75	12.07	4.54	1.60	0.34	0.08	
	대졸 이상	3.48	5.82	11.94	18.78	18.37	25.85	9.91	4.64	1.09	0.12	-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5	5.31	10.73	18.59	17.82	26.79	11.19	4.36	1.91	0.16	0.18	100.32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8	3.67	7.11	18.93	19.14	30.69	14.42	3.16	0.30	-	-	
	고용주·자영자	1.67	5.67	14.10	20.76	20.41	23.57	8.44	3.89	1.16	0.31	-	
	무급가족종사자	2.21	6.98	14.79	18.38	11.90	36.70	5.61	3.41	-	-	-	
	실업자	8.07	2.27	11.19	22.99	7.07	32.80	8.38	4.22	1.44	1.57	-	
	비경제활동인구	2.63	4.23	10.36	17.46	19.99	27.02	11.28	5.70	1.11	0.19	0.03	
직업	관리자·전문가	5.44	7.10	11.68	15.94	18.57	23.39	14.53	1.89	0.75	0.70	-	70.14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5	5.99	10.31	19.63	17.11	28.30	10.68	4.40	1.57	0.10	0.14	
	숙련 및 기술직	3.05	3.35	13.28	21.29	22.86	23.70	7.02	3.96	1.30	0.20	-	
	단순노무종사자	2.32	1.04	14.18	16.71	20.97	25.64	14.73	3.76	0.66	-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29	4.45	10.12	18.56	17.32	27.59	11.83	4.58	1.93	0.18	0.14	10.866
	비정규직	2.07	5.75	9.30	18.88	19.68	28.06	12.28	3.11	0.74	-	0.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9	3.92	9.33	18.08	19.91	29.18	10.16	6.10	1.34	0.10	-	44.780***
	중도적	2.91	4.47	11.16	20.19	18.29	26.72	10.76	3.95	1.32	0.21	0.02	
	진보적	3.20	6.91	13.08	16.77	18.24	24.52	11.65	3.77	1.13	0.44	0.2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9〉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Ⅱ: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전, 2006년)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73	1.59	2.66	7.97	14.88	27.47	20.11	17.05	5.49	1.44	0.62	
성별	남성	0.62	1.57	3.08	8.33	14.72	28.06	18.45	17.14	5.47	1.55	1.00	18.762**
	여성	0.84	1.62	2.24	7.60	15.04	26.86	21.80	16.96	5.51	1.33	0.22	
연령	20대 이하	1.58	1.13	3.23	8.38	14.39	28.08	20.29	16.21	4.13	1.37	1.22	64.544***
	30대	0.75	2.68	3.07	7.22	13.22	28.93	21.50	15.28	5.34	1.03	0.99	
	40대	0.91	1.53	3.08	7.47	16.74	26.08	17.03	18.33	6.45	2.12	0.25	
	50대	0.31	1.36	2.06	10.06	14.47	27.27	20.16	17.11	5.81	1.23	0.16	
	60대 이상	-	1.32	1.79	6.48	15.45	27.08	21.99	18.30	5.70	1.40	0.49	
지역	수도권	1.16	2.12	2.41	9.03	15.51	26.38	18.64	17.67	4.92	1.23	0.92	39.440***
	비수도권	0.28	1.05	2.92	6.88	14.22	28.58	21.62	16.41	6.08	1.66	0.30	
	대도시	0.78	1.61	2.94	7.97	14.39	26.48	21.20	17.19	5.45	1.38	0.61	28.153
	중소도시	0.67	1.65	2.26	8.06	15.88	28.54	19.00	17.23	4.86	1.23	0.62	
	농어촌	0.76	1.13	3.55	7.33	11.25	26.54	20.69	15.05	9.91	3.21	0.5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20	1.07	3.06	9.44	14.80	30.14	17.96	16.31	5.09	0.38	0.55	35.362
	중하층	0.45	1.95	2.83	7.67	14.57	27.11	20.84	18.02	4.91	1.02	0.64	
	중간층	0.69	1.48	2.39	7.81	15.60	27.41	20.14	16.03	5.83	1.93	0.69	
	중상층(상층)	1.86	1.30	2.82	7.85	11.11	24.09	19.95	20.59	7.58	2.85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9	0.89	2.84	7.55	14.31	27.50	21.82	16.55	6.17	0.91	0.57	48.471
	200만 원대	0.62	1.56	1.97	7.25	14.94	30.77	20.13	15.66	3.95	1.62	1.52	
	300만 원대	0.90	1.70	3.00	7.95	15.78	26.45	19.92	15.02	6.74	1.46	1.10	
	400만 원대	0.59	1.78	2.41	9.66	15.77	25.68	20.28	16.72	5.71	1.22	0.17	
	500만 원 이상	0.64	1.87	2.83	7.66	14.09	27.41	19.13	19.77	4.76	1.78	0.0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9〉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Ⅱ: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전, 2006년)(계속)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56	1.29	1.67	8.19	14.00	26.90	22.58	17.45	5.98	0.81	0.59	30.895*
	고졸	0.82	1.33	3.18	7.36	15.44	27.15	20.27	16.49	6.34	1.43	0.19	
	대졸 이상	0.70	2.00	2.51	8.53	14.62	28.04	18.93	17.50	4.37	1.71	1.0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1	1.43	2.82	8.39	15.62	28.59	21.15	15.60	3.61	1.09	0.88	99.67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6	1.30	4.09	6.57	15.23	29.85	16.71	16.06	7.19	1.42	0.40	
	고용주·자영자	0.60	1.65	2.50	8.35	14.19	26.06	18.67	20.10	6.05	1.36	0.47	
	무급가족종사자	0.87	3.93	4.15	6.26	10.68	32.38	16.88	18.43	6.40	-	-	
	실업자	-	-	5.68	7.11	18.03	31.20	8.31	15.83	6.57	2.77	4.48	
	비경제활동인구	0.64	1.86	1.70	7.92	14.36	25.73	22.64	16.83	6.36	1.83	0.15	
직업	관리자·전문가	3.33	2.17	2.50	7.25	18.30	21.88	17.45	20.83	4.68	0.47	1.12	57.01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45	1.74	2.58	8.38	14.02	28.86	19.67	17.25	5.02	1.20	0.82	
	숙련 및 기술직	0.82	0.48	4.11	6.73	14.91	29.47	20.77	16.30	5.12	1.18	0.09	
	단순노무종사자	-	1.89	3.62	9.75	17.99	26.86	17.94	14.04	5.59	2.33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4	1.52	2.82	8.21	15.75	28.63	21.02	15.28	3.91	0.96	0.96	8.545
	비정규직	0.82	1.17	3.71	7.44	15.11	29.41	18.24	16.52	5.59	1.58	0.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5	1.21	1.55	7.68	15.04	24.23	22.74	17.84	6.89	1.44	0.91	50.662***
	중도적	0.81	1.57	2.48	7.31	15.94	29.28	19.42	16.48	4.66	1.51	0.53	
	진보적	0.91	2.15	4.58	9.96	12.04	27.35	18.28	17.39	5.64	1.28	0.43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0〉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Ⅲ: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후, 2026년)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81	4.36	7.99	13.39	16.99	25.10	12.61	10.03	4.67	1.14	0.89	
성별	남성	2.25	4.64	8.13	14.27	17.26	25.59	11.07	9.38	4.81	1.16	1.44	28.891***
	여성	3.38	4.08	7.86	12.49	16.72	24.60	14.18	10.70	4.53	1.12	0.34	
연령	20대 이하	4.94	3.73	6.05	12.62	17.34	21.76	13.63	10.00	6.15	1.83	1.93	100.940***
	30대	4.10	5.13	8.95	14.66	14.96	24.23	14.18	7.89	4.17	0.85	0.88	
	40대	2.73	4.04	8.64	15.53	14.93	25.80	10.81	11.91	3.92	0.82	0.87	
	50대	1.42	5.16	9.61	12.76	18.32	26.12	11.91	8.66	4.38	1.12	0.54	
	60대 이상	0.75	3.72	6.60	11.14	19.60	27.81	12.71	11.69	4.74	1.08	0.17	
지역	수도권	4.06	4.88	7.85	12.52	14.77	24.50	14.11	10.87	4.22	0.85	1.36	60.035***
	비수도권	1.53	3.83	8.14	14.28	19.27	25.71	11.07	9.17	5.14	1.45	0.41	
	대도시	3.38	4.62	8.91	14.25	18.18	22.37	11.43	10.17	4.48	1.10	1.11	36.409**
	중소도시	2.45	4.18	6.97	12.76	15.30	27.25	13.78	10.40	4.98	1.14	0.79	
	농어촌	1.61	3.92	9.00	12.16	20.69	27.96	12.29	6.79	3.87	1.46	0.25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90	3.87	7.63	15.46	23.45	26.32	6.45	8.56	4.17	0.82	0.36	99.213***
	중하층	2.81	5.31	7.83	13.98	16.58	26.00	12.60	10.05	3.73	0.47	0.65	
	중간층	2.86	3.77	8.02	12.90	14.46	24.93	13.85	10.53	5.88	1.48	1.32	
	중상층(상층)	2.16	3.86	9.83	8.49	25.48	17.45	16.96	9.28	2.42	3.74	0.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5	4.44	8.94	10.81	21.63	26.11	10.08	9.15	4.76	0.73	0.80	58.906**
	200만 원대	2.94	3.78	6.78	13.46	15.01	27.73	13.41	10.26	4.63	1.15	0.85	
	300만 원대	3.09	3.99	8.08	13.80	16.61	24.88	10.16	11.63	4.61	1.44	1.71	
	400만 원대	2.51	4.39	8.59	17.28	14.86	23.15	13.28	10.94	4.00	0.62	0.38	
	500만 원 이상	2.87	4.88	7.71	12.50	16.68	24.33	14.95	8.85	5.06	1.48	0.6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0〉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Ⅲ-Ⅲ: 침체된 사회 vs. 희망찬 사회(10년 후, 2026년)(계속)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94	2.65	7.78	12.46	21.73	28.52	11.08	7.80	4.86	0.88	0.29	45.124***
	고졸	2.75	4.29	7.29	12.42	16.11	26.89	12.66	10.55	4.95	1.08	1.00	
	대졸 이상	3.23	5.13	8.84	14.81	16.00	21.78	13.18	10.39	4.30	1.32	1.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6	4.12	8.71	13.83	15.69	23.39	13.13	10.52	4.65	1.26	1.24	76.64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3	3.62	6.74	11.03	20.50	27.12	11.54	10.92	4.10	1.24	0.84	
	고용주·자영자	2.09	5.38	7.65	15.71	17.82	27.35	9.21	7.97	5.01	0.92	0.87	
	무급가족종사자	0.87	2.44	8.82	9.22	19.29	32.36	15.83	9.05	2.12	-	-	
	실업자	7.06	4.18	6.52	13.84	12.98	25.83	9.60	12.25	2.43	1.44	3.88	
	비경제활동인구	2.47	4.28	8.02	12.28	16.83	24.11	14.99	10.50	5.04	1.18	0.30	
직업	관리자·전문가	6.52	5.49	5.19	10.06	15.21	23.81	13.97	12.82	5.72	1.13	0.07	65.8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43	4.76	8.74	15.41	16.82	23.57	11.94	9.13	4.67	1.04	1.47	
	숙련 및 기술직	2.12	2.78	7.74	11.75	20.29	29.54	10.83	9.25	4.51	0.74	0.45	
	단순노무종사자	1.78	4.22	7.40	12.40	15.56	33.11	8.47	11.31	2.81	2.65	0.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5	4.18	8.94	13.21	15.97	23.28	13.54	11.12	4.52	1.03	1.37	10.634
	비정규직	3.79	3.66	6.89	13.01	18.58	26.24	11.24	9.69	4.52	1.67	0.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7	2.58	7.55	12.04	17.68	26.66	13.69	10.47	5.15	1.32	1.09	42.013***
	중도적	2.86	4.52	7.72	14.21	16.74	25.89	11.40	10.08	4.71	1.00	0.87	
	진보적	4.08	6.35	9.26	13.18	16.67	21.09	14.13	9.35	3.94	1.26	0.70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1〉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Ⅰ: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현재. 2016년)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62	6.38	12.74	21.00	18.54	21.72	8.53	4.81	1.36	0.19	0.10	
성별	남성	4.45	6.28	13.22	22.55	18.21	20.92	8.07	4.71	1.15	0.34	0.09	13.541
	여성	4.80	6.49	12.25	19.42	18.88	22.52	9.00	4.90	1.58	0.03	0.12	
연령	20대 이하	7.11	6.96	15.55	18.60	17.83	20.01	6.79	4.22	2.12	0.44	0.38	115.807***
	30대	7.85	7.98	11.82	21.55	16.32	20.51	9.13	3.52	1.16	0.18	-	
	40대	4.98	6.59	13.44	20.12	18.64	22.07	7.92	4.92	1.32	-	-	
	50대	1.67	6.31	12.38	22.02	19.11	21.21	9.89	6.05	1.29	0.08	-	
	60대 이상	1.41	3.93	10.14	23.01	20.91	25.06	9.03	5.27	0.86	0.26	0.13	
지역	수도권	6.47	6.68	12.36	20.21	17.35	21.41	8.31	5.36	1.59	0.26	-	41.709***
	비수도권	2.73	6.07	13.13	21.82	19.76	22.03	8.76	4.23	1.13	0.12	0.21	
	대도시	4.76	6.91	13.92	21.75	18.29	19.61	7.53	5.13	1.70	0.29	0.10	46.145***
	중소도시	4.56	5.54	10.88	19.78	19.65	24.19	9.41	4.75	1.00	0.12	0.11	
	농어촌	4.17	8.63	17.73	24.39	12.78	18.48	8.97	3.12	1.66	-	0.0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6.32	5.36	15.39	22.52	18.79	18.09	5.98	5.81	1.75	-	-	69.938***
	중하층	4.66	7.27	13.46	19.34	18.97	24.08	7.95	3.38	0.66	0.22	0.02	
	중간층	4.40	6.04	11.47	22.16	17.39	20.70	9.92	5.92	1.55	0.24	0.21	
	중상층(상층)	2.20	5.60	12.07	19.29	24.56	22.33	7.14	3.03	3.77	-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9	4.19	11.79	21.56	19.07	24.51	7.91	5.63	0.92	-	0.43	46.804
	200만 원대	5.75	5.65	14.56	19.54	18.89	21.05	8.28	4.42	1.35	0.51	-	
	300만 원대	4.50	7.57	13.39	21.63	18.63	21.07	7.00	4.55	1.63	-	0.03	
	400만 원대	4.29	7.72	11.55	22.74	16.29	20.94	9.07	5.77	1.24	0.38	-	
	500만 원 이상	4.68	6.58	12.35	20.11	19.23	21.28	9.85	4.18	1.52	0.16	0.0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1〉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Ⅰ: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현재. 2016년)(계속)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2.53	3.63	12.64	22.64	20.22	22.69	9.17	4.78	1.22	0.28	0.20	43.307***
	고졸	3.99	6.24	12.62	20.71	17.85	23.52	7.88	5.52	1.40	0.26	0.02	
	대졸 이상	6.16	7.66	12.92	20.65	18.60	19.37	8.97	4.05	1.38	0.07	0.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30	7.27	11.10	20.68	18.02	22.92	8.39	4.30	1.54	0.31	0.17	80.83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1	3.55	13.99	18.38	21.94	21.49	9.05	4.63	2.06	-	-	
	고용주·자영자	3.21	7.22	13.01	24.82	15.64	20.51	9.29	5.06	0.96	0.27	-	
	무급가족종사자	4.60	3.48	12.80	21.44	24.34	23.58	6.34	3.41	-	-	-	
	실업자	8.58	4.28	19.22	22.76	15.89	18.29	2.77	4.99	1.78	-	1.44	
	비경제활동인구	4.40	6.22	13.22	19.33	19.91	21.60	8.67	5.30	1.25	0.10	-	
직업	관리자·전문가	11.83	10.00	8.85	19.78	19.31	17.72	8.86	3.23	0.42	-	-	87.7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59	7.13	12.26	21.17	16.63	23.66	8.74	4.56	1.72	0.39	0.14	
	숙련 및 기술직	4.14	3.19	14.08	26.06	20.06	18.81	7.33	5.56	0.77	-	-	
	단순노무종사자	2.81	5.77	11.94	16.80	22.49	22.17	12.25	4.00	1.76	-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05	6.11	10.75	20.79	18.91	23.36	8.42	4.49	1.70	0.30	0.14	5.543
	비정규직	5.50	6.79	13.80	18.86	19.15	21.07	8.82	4.18	1.62	0.11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7	5.02	10.19	20.55	20.08	23.56	8.60	6.27	2.18	0.26	0.22	65.041***
	중도적	4.80	5.75	14.25	22.00	18.62	20.61	8.34	4.22	1.19	0.22	-	
	진보적	6.25	9.77	12.47	19.18	16.29	21.97	8.90	4.29	0.69	-	0.19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Ⅱ: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전, 2006년)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96	2.16	3.97	9.27	14.88	26.77	20.48	14.86	4.95	1.08	0.62	
성별	남성	1.06	1.61	4.52	9.97	16.28	24.95	20.56	13.93	5.15	1.15	0.82	25.199***
	여성	0.86	2.74	3.41	8.56	13.45	28.63	20.39	15.8	4.74	1.01	0.42	
연령	20대 이하	2.28	2.18	5.10	10.76	15.41	25.57	17.33	15.66	4.35	0.35	1.01	
	30대	0.49	3.47	4.87	10.65	14.00	28.46	18.12	13.69	4.04	1.25	0.95	
	40대	1.48	2.19	3.77	9.01	15.82	25.29	18.27	16.51	5.60	1.47	0.60	107.889***
	50대	0.15	1.49	4.15	9.68	16.10	25.45	23.09	12.61	5.54	1.54	0.19	
	60대 이상	0.26	1.53	1.78	5.99	12.72	29.59	26.08	15.80	5.14	0.74	0.37	
지역	수도권	1.23	2.61	5.16	10.56	15.79	23.88	18.67	14.90	5.18	1.16	0.85	50.29***
	비수도권	0.67	1.71	2.75	7.94	13.94	29.74	22.33	14.82	4.71	1.00	0.38	
	대도시	0.74	2.38	4.25	9.64	15.39	27.29	20.24	13.19	4.91	1.18	0.79	
	중소도시	1.06	2.04	3.67	9.19	14.63	26.73	20.15	16.08	4.99	0.91	0.54	17.885
	농어촌	1.61	1.65	4.19	7.48	13.39	23.84	24.11	17.16	4.90	1.60	0.0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20	3.03	2.65	8.27	16.47	28.26	21.44	13.86	2.93	0.76	1.13	
	중하층	0.59	2.25	5.13	8.64	13.50	28.50	21.13	14.64	4.41	1.04	0.14	58.423***
	중간층	1.11	2.02	3.19	9.92	15.61	25.37	19.20	15.93	5.62	1.08	0.95	
	중상층(상층)	1.61	0.73	5.48	10.63	14.56	22.87	24.25	9.84	7.90	2.13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4	2.13	2.61	6.43	15.04	27.65	24.53	15.29	4.46	0.36	0.86	
	200만 원대	1.18	2.13	3.97	8.82	16.08	29.36	19.35	12.22	5.23	1.05	0.61	
	300만 원대	1.08	1.58	4.84	9.89	16.64	27.40	17.39	13.93	5.00	1.10	1.16	62.384**
	400만 원대	0.64	1.77	3.14	11.08	12.43	24.80	20.85	19.34	4.58	1.09	0.28	
	500만 원 이상	1.12	2.83	4.44	9.86	14.26	25.52	20.63	14.26	5.27	1.52	0.29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2〉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Ⅱ: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전, 2006년)(계속)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18	1.34	1.71	7.41	14.10	28.18	25.75	15.95	4.13	0.88	0.34	43.785***
	고졸	1.08	1.86	4.35	9.39	14.16	27.17	19.71	15.23	5.62	0.97	0.46	
	대졸 이상	1.14	2.83	4.48	9.90	15.98	25.77	19.16	14.01	4.55	1.28	0.9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9	2.41	3.97	10.2	15.83	26.53	18.60	14.61	5.17	0.59	1.20	99.82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0	1.79	4.68	9.63	14.94	26.63	19.06	15.67	4.40	1.19	0.59	
	고용주·자영자	0.56	1.49	4.55	8.24	14.52	25.96	22.82	15.15	4.87	1.77	0.07	
	무급가족종사자	0.87	0.58	4.59	12.83	8.59	30.15	27.43	14.34	0.62	-	-	
	실업자	3.66	1.07	9.73	12.96	16.93	26.44	10.90	8.22	5.61	0.83	3.65	
	비경제활동인구	0.88	2.73	2.66	8.29	14.25	27.50	21.92	15.34	5.14	1.17	0.12	
직업	관리자·전문가	1.98	3.16	5.90	10.97	14.88	21.53	17.13	15.61	6.06	1.55	1.23	34.33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9	2.26	4.26	9.20	14.89	27.38	20.10	14.55	4.76	1.14	0.75	
	숙련 및 기술직	1.12	0.66	3.66	9.35	15.46	27.31	22.39	15.41	3.66	0.89	0.09	
	단순노무종사자	-	1.20	3.89	10.77	15.75	23.84	20.59	16.00	6.74	-	1.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5	2.43	4.05	9.71	15.91	26.52	18.85	14.43	5.20	0.68	1.27	3.405
	비정규직	1.16	1.92	4.34	10.71	15.03	26.63	18.45	15.70	4.57	0.85	0.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	0.60	2.92	8.66	13.46	26.68	21.92	16.19	6.57	1.17	1.03	74.457***
	중도적	1.00	2.60	3.58	9.07	16.05	28.74	20.21	12.89	4.58	0.82	0.47	
	진보적	1.07	3.18	6.34	10.58	13.92	22.07	19.22	17.89	3.69	1.61	0.44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Ⅲ: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후, 2026년)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28	5.32	10.04	15.35	14.73	24.22	10.56	9.20	4.51	1.19	0.61	
성별	남성	3.59	5.61	10.72	15.99	16.37	22.39	9.93	8.84	4.49	1.32	0.75	23.165**
	여성	4.97	5.02	9.35	14.70	13.05	26.09	11.20	9.57	4.53	1.06	0.46	
연령	20대 이하	7.41	3.88	10.23	13.11	15.51	20.59	11.40	9.31	6.22	0.94	1.40	105.896***
	30대	6.26	6.97	9.48	16.26	14.60	23.35	9.62	9.00	2.95	1.02	0.49	
	40대	3.75	4.98	11.57	16.16	14.40	23.71	9.29	9.58	4.58	1.08	0.90	
	50대	2.44	6.50	9.78	15.88	15.08	25.78	9.78	8.5	4.22	1.98	0.07	
	60대 이상	1.39	4.27	8.94	15.38	13.95	28.02	12.94	9.66	4.46	0.87	0.13	
지역	수도권	5.65	5.52	10.36	14.75	12.43	23.34	11.13	10.06	4.96	1.16	0.65	38.958***
	비수도권	2.86	5.11	9.72	15.97	17.09	25.12	9.97	8.31	4.05	1.22	0.57	
	대도시	4.74	6.08	12.72	16.02	14.99	22.39	10.06	6.41	4.38	1.45	0.76	70.598***
	중소도시	3.91	4.72	7.64	14.80	14.31	25.14	11.28	12.01	4.82	0.91	0.45	
	농어촌	3.80	4.50	9.21	14.78	15.83	29.55	8.89	8.06	3.28	1.40	0.6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5.37	5.35	10.91	18.67	15.28	23.76	7.16	7.23	3.94	2.16	0.19	65.3***
	중하층	4.24	6.18	10.08	15.97	15.15	25.57	9.78	8.96	3.31	0.58	0.18	
	중간층	4.16	4.5	9.48	14.29	13.93	23.69	11.63	10.15	5.61	1.42	1.12	
	중상층(상층)	2.92	6.05	12.4	12.03	17.05	20.37	15.03	7.64	5.04	1.14	0.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43	4.81	9.08	16.69	15.56	24.83	10.88	7.42	4.10	1.63	0.56	39.239
	200만 원대	4.58	5.60	10.56	15.41	14.01	23.67	10.68	8.83	6.22	0.45	-	
	300만 원대	4.07	5.08	10.88	12.26	15.63	24.23	10.25	10.67	4.43	1.31	1.20	
	400만 원대	4.05	6.04	10.54	15.83	14.92	21.08	12.08	9.08	4.67	1.33	0.38	
	500만 원 이상	4.30	5.27	9.46	16.44	13.73	25.90	9.70	9.55	3.81	1.15	0.6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3〉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Ⅳ-Ⅲ: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희망이 있는 사회(10년 후, 2026년)(계속)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3.26	3.34	8.39	16.50	16.69	26.10	10.50	9.02	4.03	1.96	0.20	36.419**
	고졸	3.97	5.65	9.70	13.97	14.69	25.33	10.82	8.88	5.19	1.34	0.47	
	대졸 이상	5.02	5.77	11.09	16.38	13.97	22.26	10.30	9.62	3.97	0.71	0.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4	5.05	10.33	15.50	15.35	22.73	9.51	9.93	4.85	0.75	1.14	103.5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4	3.90	9.91	18.52	13.96	23.77	10.16	10.42	4.18	1.89	0.13	
	고용주·자영자	2.74	7.14	9.87	16.92	14.30	26.08	9.20	8.44	3.62	1.16	0.52	
	무급가족종사자	0.87	7.61	12.26	9.78	17.41	32.55	7.26	10.13	2.12	-	-	
	실업자	10.38	5.12	12.75	8.80	19.23	20.17	7.22	8.81	0.51	4.73	2.28	
	비경제활동인구	4.75	4.68	9.49	13.93	14.00	24.58	13.35	8.50	5.45	1.14	0.13	
직업	관리자·전문가	9.11	3.83	10.53	14.85	12.15	24.66	9.09	9.59	5.97	0.22	-ㄴ	69.21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9	5.93	11.24	15.63	14.75	24.33	9.34	9.50	3.98	0.87	1.12	
	숙련 및 기술직	2.80	5.72	8.03	17.84	16.63	25.09	8.90	10.25	3.63	0.94	0.17	
	단순노무종사자	2.69	5.29	6.51	19.66	14.70	20.67	12.47	7.79	5.92	4.02	0.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57	5.12	9.50	15.33	14.63	23.50	10.03	10.38	5.06	0.69	1.20	12.74
	비정규직	4.15	4.11	11.58	17.96	15.71	22.05	9.01	9.44	3.98	1.68	0.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9	3.92	9.05	14.59	13.69	24.66	13.29	9.48	5.22	2.26	1.05	55.62***
	중도적	4.36	5.81	10.10	16.19	15.41	24.76	9.54	8.53	4.14	0.78	0.39	
	진보적	6.05	5.99	11.23	14.31	14.45	22.31	9.40	10.48	4.47	0.76	0.5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V-Ⅰ: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현재. 2016년)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3.47	5.36	13.38	19.90	18.89	24.65	8.25	4.55	1.31	0.16	0.09	
성별	남성	3.70	5.01	14.06	21.13	18.79	23.51	7.93	4.42	0.98	0.29	0.17	17.939*
	여성	3.24	5.70	12.69	18.64	18.99	25.81	8.57	4.67	1.64	0.03	-	
연령	20대 이하	4.93	5.25	15.66	18.75	18.25	21.37	9.01	5.29	0.97	0.32	0.22	69.825***
	30대	4.70	6.86	13.35	21.12	16.72	24.56	7.56	3.66	1.27	0.21	-	
	40대	3.84	6.45	12.57	18.81	18.36	26.61	8.38	3.98	0.93	0.08	-	
	50대	2.63	4.07	12.29	20.80	21.39	22.13	9.44	5.12	1.74	0.20	0.19	
	60대 이상	1.10	4.11	13.05	20.17	19.65	29.03	6.59	4.64	1.66	-	-	
지역	수도권	5.07	7.25	15.11	18.49	17.79	21.95	7.45	5.14	1.63	0.05	0.08	90.490***
	비수도권	1.84	3.41	11.61	21.35	20.02	27.42	9.06	3.94	0.97	0.28	0.09	
	대도시	3.39	6.19	14.75	19.98	20.36	21.13	7.72	4.92	1.09	0.29	0.19	52.746***
	중소도시	3.71	4.74	12.19	19.06	17.30	28.45	8.68	4.49	1.39	-	-	
	농어촌	2.49	4.27	12.71	24.93	20.23	21.51	8.64	2.63	2.13	0.45	-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41	6.72	15.04	21.06	17.26	25.10	4.71	4.75	0.95	-	-	60.309***
	중하층	3.90	5.33	13.40	21.41	19.65	24.91	7.49	2.73	0.97	0.11	0.11	
	중간층	3.05	5.07	12.73	18.62	18.02	24.31	10.32	5.86	1.65	0.27	0.10	
	중상층(상층)	1.86	4.64	14.74	17.35	24.77	24.61	4.73	5.71	1.60	-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5	4.06	13.17	19.24	19.11	27.68	8.59	4.09	1.07	-	0.25	65.329***
	200만 원대	4.37	6.25	13.07	19.37	17.39	25.88	9.38	3.49	0.64	0.15	-	
	300만 원대	4.01	5.36	12.52	22.66	16.91	26.38	6.23	3.66	2.20	0.08	-	
	400만 원대	4.05	3.22	12.08	20.34	20.02	24.23	9.24	5.75	0.97	0.10	-	
	500만 원 이상	2.75	6.84	14.82	18.45	20.39	21.19	8.32	5.38	1.37	0.36	0.14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4〉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V-1: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현재. 2016년)(계속)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85	3.43	12.87	20.08	21.97	26.24	7.68	3.86	1.87	0.15	-	37.965***
	고졸	3.54	4.71	13.03	18.98	18.89	24.70	8.95	5.68	1.19	0.24	0.09	
	대졸 이상	4.07	6.83	13.98	20.83	17.63	23.94	7.72	3.61	1.20	0.08	0.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4	6.24	12.03	19.62	19.98	21.75	9.34	5.45	1.57	0.28	-	109.0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4	3.80	14.03	15.28	23.50	25.18	10.27	4.05	0.81	0.23	-	
	고용주·자영자	2.98	3.80	15.16	23.12	15.37	27.21	7.12	3.88	1.11	0.07	0.19	
	무급가족종사자	-	4.76	14.56	12.50	27.69	30.32	6.65	3.53	-	-	-	
	실업자	3.71	12.58	12.87	16.79	15.76	31.83	3.62	1.41	-	-	1.44	
	비경제활동인구	3.96	5.36	13.33	20.30	18.39	24.69	7.72	4.60	1.55	0.10	-	
직업	관리자·전문가	9.94	7.97	9.75	21.77	14.86	24.98	6.09	3.80	0.83	-	-	89.8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5	5.46	13.82	19.89	18.64	24.95	9.17	4.80	1.20	0.22	0.10	
	숙련 및 기술직	3.78	2.88	14.48	20.86	21.64	22.89	7.29	3.91	1.97	0.30	-	
	단순노무종사자	4.36	2.86	12.83	14.23	24.34	21.70	12.37	6.87	0.45	-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7	5.70	10.85	19.71	21.05	21.98	9.53	5.51	1.64	0.26	-	12.253
	비정규직	3.04	5.53	15.65	16.39	20.48	23.74	9.64	4.36	0.91	0.27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9	4.76	11.15	18.32	19.06	26.22	8.68	6.71	1.67	0.18	0.16	43.738***
	중도적	3.34	4.77	14.28	21.16	18.90	24.55	8.31	3.37	1.14	0.17	-	
	진보적	4.33	7.59	14.18	18.93	18.64	22.79	7.49	4.53	1.21	0.12	0.19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Ⅱ: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17	2.10	4.80	9.22	14.95	30.88	16.47	14.03	4.79	1.13	0.47	
성별	남성	1.42	2.72	5.45	8.72	15.55	31.81	15.56	13.01	3.91	1.36	0.49	27.961***
	여성	0.90	1.46	4.13	9.73	14.34	29.92	17.39	15.08	5.70	0.89	0.45	
연령	20대 이하	2.22	2.72	5.62	8.85	17.12	28.79	13.36	14.56	4.53	1.10	1.13	79.563***
	30대	0.88	2.88	5.14	10.56	15.34	32.54	15.05	10.46	5.19	1.29	0.66	
	40대	1.69	2.39	4.67	10.18	12.32	31.91	15.75	15.37	4.37	1.12	0.23	
	50대	0.69	1.08	5.15	8.86	15.81	28.27	19.77	14.44	4.58	1.17	0.19	
	60대 이상	0.21	1.41	3.25	7.53	14.18	33.26	18.51	15.14	5.41	0.97	0.13	
지역	수도권	1.96	2.96	5.92	10.75	15.11	31.93	12.89	12.07	4.85	0.85	0.70	100.953***
	비수도권	0.35	1.22	3.64	7.65	14.79	29.80	20.14	16.04	4.74	1.41	0.23	
	대도시	0.92	2.33	5.14	9.40	15.25	32.10	16.40	12.88	4.06	1.23	0.31	24.512
	중소도시	1.47	1.91	4.47	9.37	14.41	30.11	16.76	14.70	4.98	1.15	0.66	
	농어촌	0.68	1.91	4.81	7.11	16.63	28.32	14.98	16.78	8.13	0.43	0.22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0.93	2.43	4.51	11.35	12.25	35.18	14.14	13.33	4.17	0.81	0.91	47.834**
	중하층	1.65	1.82	4.89	8.84	14.19	32.73	17.11	13.60	4.25	0.83	0.09	
	중간층	0.74	2.10	4.72	8.96	15.96	28.66	16.80	14.63	5.47	1.25	0.72	
	중상층(상층)	1.86	3.23	5.48	9.00	18.23	26.26	14.80	13.70	4.47	2.96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4	2.05	3.25	8.40	12.09	32.06	18.87	16.03	4.54	1.19	0.57	52.323*
	200만 원대	1.44	1.88	4.71	9.16	12.57	33.92	16.40	13.10	4.87	1.50	0.45	
	300만 원대	1.57	2.39	4.42	9.73	15.80	30.53	15.56	12.64	5.84	0.40	1.11	
	400만 원대	0.80	1.40	5.57	10.9	15.66	28.06	15.94	14.96	4.74	1.65	0.31	
	500만 원 이상	1.07	2.42	5.43	8.50	17.05	30.34	15.98	13.81	4.21	1.12	0.0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5〉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Ⅱ: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전, 2006년)(계속)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22	1.25	3.21	6.46	14.45	32.49	18.76	16.27	5.76	0.79	0.34	67.657***
	고졸	1.43	1.66	5.03	8.34	16.05	28.03	17.59	14.15	5.86	1.48	0.39	
	대졸 이상	1.27	2.91	5.19	11.30	13.97	33.29	14.32	12.99	3.25	0.90	0.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1	2.72	5.79	9.77	15.06	30.25	15.03	14.35	4.46	1.03	0.42	112.16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5	1.49	3.21	8.74	12.72	32.63	17.07	14.97	5.31	0.28	1.82	
	고용주·자영자	0.94	1.93	4.94	8.24	13.67	32.09	18.93	14.27	3.21	1.58	0.18	
	무급가족종사자	-	1.45	7.28	6.87	18.41	33.83	17.48	10.28	4.41	-	-	
	실업자	-	6.26	3.14	19.72	12.90	36.74	11.79	5.71	0.83	0.64	2.27	
	비경제활동인구	1.36	1.37	4.20	8.55	16.56	29.28	16.45	14.25	6.54	1.33	0.09	
직업	관리자·전문가	1.98	4.12	5.95	8.62	14.43	33.40	13.72	13.59	2.46	1.06	0.68	47.68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72	2.36	5.46	9.61	13.07	31.25	16.65	15.24	3.79	1.15	0.69	
	숙련 및 기술직	1.87	0.83	4.03	7.56	16.75	30.39	20.00	12.79	5.23	0.44	0.12	
	단순노무종사자	1.26	2.24	4.33	8.83	17.95	31.38	12.43	11.86	7.29	1.99	0.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4	3.01	5.19	8.94	15.11	30.55	15.47	14.32	4.56	1.19	0.43	15.121
	비정규직	1.34	1.30	5.09	10.6	13.32	31.37	15.66	14.85	4.88	0.20	1.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2	2.11	3.37	9.52	13.20	32.00	17.25	13.84	6.61	0.89	0.20	35.848**
	중도적	0.98	1.92	4.95	9.55	15.84	30.69	16.14	14.04	3.99	1.15	0.75	
	진보적	1.80	2.52	6.33	8.01	15.12	29.83	16.22	14.26	4.32	1.42	0.1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Ⅲ: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42	6.28	11.02	14.81	17.79	24.01	8.70	8.47	3.05	0.96	0.48	
성별	남성	3.66	7.11	11.21	15.98	17.39	23.61	8.49	8.49	2.57	0.84	0.66	19.418**
	여성	5.19	5.43	10.82	13.62	18.20	24.43	8.93	8.45	3.55	1.08	0.29	
연령	20대 이하	6.08	6.41	11.02	11.97	16.02	23.28	8.58	9.43	4.45	1.48	1.28	73.273***
	30대	6.52	6.94	10.56	16.41	18.10	21.42	8.57	7.22	2.57	1.23	0.46	
	40대	4.04	5.96	11.73	13.79	18.62	25.87	8.80	7.23	3.15	0.40	0.41	
	50대	3.08	6.64	10.23	16.90	18.87	23.42	8.57	9.34	1.84	0.91	0.19	
	60대 이상	2.32	5.44	11.57	15.16	17.26	26.06	9.02	9.14	3.26	0.78	-	
지역	수도권	6.11	7.66	11.76	13.56	16.18	21.65	8.48	9.31	3.46	1.14	0.69	66.036***
	비수도권	2.68	4.87	10.26	16.10	19.45	26.44	8.93	7.61	2.64	0.76	0.26	
	대도시	5.34	7.33	12.88	15.98	18.67	20.78	7.18	6.92	2.90	1.35	0.68	67.105***
	중소도시	3.85	5.51	9.37	13.59	17.09	26.31	10.08	10.07	3.21	0.58	0.33	
	농어촌	2.41	4.83	10.31	15.61	16.98	29.02	9.11	7.57	2.97	0.95	0.22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4.33	6.68	11.50	16.85	21.62	23.26	6.01	7.15	1.69	0.92	-	73.877***
	중하층	4.68	6.64	12.82	14.32	19.58	24.11	7.66	7.01	2.38	0.61	0.20	
	중간층	4.47	5.57	9.55	14.65	15.17	24.44	10.49	9.58	4.04	1.19	0.87	
	중상층(상층)	2.42	8.75	9.64	14.73	18.06	21.62	7.55	12.48	2.86	1.56	0.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7	7.03	11.25	15.67	19.28	24.02	8.41	7.41	1.92	0.78	0.25	57.591**
	200만 원대	5.54	5.45	11.67	15.08	16.02	25.51	6.82	8.78	3.79	1.34	-	
	300만 원대	4.44	4.70	9.83	14.66	18.16	24.61	9.51	8.32	3.04	1.12	1.63	
	400만 원대	3.11	7.99	12.30	13.49	18.64	22.95	8.81	8.49	3.59	0.61	-	
	500만 원 이상	4.79	6.48	10.63	15.00	16.99	23.41	9.30	9.07	3.08	0.92	0.33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6〉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Ⅴ-Ⅲ: 갈등이 심한 사회 vs.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10년 후, 2026년)(계속)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4.10	5.56	10.05	14.90	19.59	27.71	7.32	7.65	2.39	0.74	-	32.157**
	고졸	3.69	6.13	11.19	14.01	18.32	23.87	8.74	8.83	3.95	0.91	0.36	
	대졸 이상	5.33	6.74	11.23	15.64	16.48	22.67	9.23	8.42	2.36	1.10	0.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5	5.53	11.73	14.37	17.70	21.83	8.65	9.94	3.62	1.24	0.72	77.21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3	7.34	12.62	15.91	17.18	22.44	10.14	9.20	1.67	0.32	0.65	
	고용주·자영자	4.05	7.33	11.27	16.02	18.97	24.74	7.56	6.80	2.57	0.24	0.46	
	무급가족종사자	3.35	2.41	11.87	8.17	28.27	30.38	5.65	9.91	-	-	-	
	실업자	7.30	7.29	7.94	20.45	9.71	26.78	8.51	8.28	-	2.31	1.44	
	비경제활동인구	4.86	6.09	9.76	13.85	17.46	25.77	9.27	7.75	3.79	1.30	0.10	
직업	관리자·전문가	6.49	9.73	8.33	11.41	15.93	22.85	10.78	10.22	2.39	1.86	-	44.27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55	6.08	12.77	16.29	18.35	22.04	7.85	8.31	3.35	0.63	0.80	
	숙련 및 기술직	4.44	6.12	10.95	13.63	17.88	25.70	9.53	9.35	1.60	0.51	0.29	
	단순노무종사자	4.04	3.89	10.18	13.12	22.69	25.20	7.22	9.38	2.98	0.59	0.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13	5.66	11.18	14.66	17.50	22.05	9.02	10.32	3.71	1.13	0.65	6.540
	비정규직	4.13	6.57	13.39	14.92	17.71	21.85	9.02	8.71	2.08	0.81	0.8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9	5.20	9.87	13.53	17.29	24.10	9.66	12.23	3.01	1.07	0.75	65.205***
	중도적	4.54	6.14	10.73	15.89	17.24	26.05	7.91	7.16	2.89	1.09	0.34	
	진보적	5.62	8.06	13.25	13.88	19.81	18.92	9.37	6.65	3.52	0.46	0.45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